성도의 벗 7
1988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

제158차 연차 대회 보고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 제158차 연차 대회 보고

1988년 4월 23일, 유타주 솔트레이크시티 템플 스퀘어의 태버내클에서 행해진 말씀과 절차

"*인생의 큰 시험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입니다. 인생의 큰 과제*는 주님의 뜻을 배우고 행하는 것입니다.

"*인생의 큰 계명*은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마가복음 12 : 30)

에즈라 태프트 벤슨 대관장이 이 감동적인 말씀으로 4월 연차 대회 첫 대회를 개회했다.

벤슨 대관장은 "여러분의 온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모든 것을 다 바치고 모든 것을 다 포함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미적지근한 노력이 아닙니다. 우리의 존재 자체를 완전히 바치는 것입니다"라고 선언했다.

토요일 저녁 신권 모임에서 벤슨 대관장은 이렇게 말씀했다. "오랫 동안 교회의 독신 성인 형제가 많이 모인 자리에서 직접 말씀드릴 기회를 원해 왔읍니다. 여러분 가운데 많은 분이 복음 선교사로 봉사했읍니다. 많은 분이 와드와 스테이크에서 뛰어난 봉사를 하고 있읍니다.

"여러분 개개인에 대한 나의 사랑을 아시기 바랍니다. 나는 여러분에게 굉장히 기대를 걸고 있고 또 희망을 품고 있읍니다. 여러분에게는 지금 또 미래에 주님과 하나님의 왕국에 공헌할 것이 너무나 많이 있읍니다."

그리고 나서 벤슨 대관장은 "독신 성인 형제 여러분이 자신의 인생에서 필수적이라고 생각하기를 우리가 기원하고 있는 몇 가지 우선 순위"에 대하여 논했다.

일요일의 폐회 모임도 우리 시대의 주님의 예언자로부터 나온 메시지에 의하여 다시 한번 절정을 이루었다. "앞으로 육 개월 동안 여러분의 *성도의 벗* 대회 특집호가 여러분의 표준 경전 바로 옆에 있어야 하며 자주 참조해야 합니다. 절친한 친구이며 형제인 해롤드 비 리 대관장님이 말씀한 것처럼 우리는 이 대회 말씀들이 '다음 육 개월 동안 우리의 행로와 말씀의 지침이 되도록' 해야 합니다. '이런 것은 이 날에 이 백성에게 계시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주님이 생각하시는 중요한 것들'입니다."

벤슨 대관장이 이들 간의 대회를 감리했다. 대회 모임은 대관장단 제1보좌인 고든 비 힝클리 부대관장과 제2보좌인 토마스 에스 몬슨 부대관장이 사회를 보았다. 십이사도 정원회 회장인 매리온 지 룸니 회장과 칠십인 제일 정원회 명예 회원인 존 에이치 반덴버그 장로를 제외한 모든 총관리 역원이 이 대회에 참석했으며 이 두 분은 모두 병환 중이다.

본 대회 행사에는 칠십인 제일 정원회의 새로운 두 회원과 새로운 초등협회의 본부 회장단을 지지한 것이 포함되어 있었다. 이 행사로 칠십인 제일 정원회에서 봉사하는 회원의 수가 63명이 되었다.

지지받은 사람은 당시에 아프리카의 나이제리아 라고스 선교부의 선교부장 부름을 행하고 있었던 캐나다 앨버타주 보우아일랜드 출신인 로버트 이 색클리 장로와 당시에 미국의 플로리다 템파 선교부의 선교부장 부름을 수행하고 있었던 노스캐롤라이나 그린빌 출신 엘리오넬 켄드릭 장로였다. 미셸린 패커 그래슬리 회장이 초등협회 회장으로 지지받았다. 베티 조 넬슨 젭슨이 초등협회 제1보좌로 지지받았다. 루스 브로드벤트 라이트가 제2보좌로 부름받았다.

초등협회 회장에서 해임된 드웬 제이 영 회장은 남편이 감리할 캐나다의 캘거리 선교부로 7월에 남편과 함께 가게 된다. 또 영 회장의 제1보좌인 버지니아 비 캐넌도 해임되었다. 그래슬리 자매는 영 회장의 제2보좌였다.

4월 1일 금요일 낮에 지역 대표 세미나가 열렸으며 금요일 저녁에는 지역 대표와 스테이크 부장을 위한 지도자 모임이 열렸다. 저녁의 지도자 모임에서 미국 적십자사가 대관장단에게 "고난을 덜어 주는 것을 도와 준 말일성도 지역 사회의 개인과 가족에게 감사하는" 감사패를 증정함으로써 전 세계 교회 회원에게 경의를 표시했다.

—편집자

성도의 벗

1988년 7월호

"교회 잡지인 성도의 벗은 엔사인, 뉴 이라 및 프렌드의 기사를 다룬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공식적인 한국어판 출판물임. 본 호는 1988년 제158차 교회 연차 대회 보고임."

대관장단 : 에즈라 태프트 벤슨, 고든 비 힝클리, 토마스 에스 몬슨.

십이사도 평의회 : 하워드 더블류 헌터, 보이드 케이 패커, 마빈 제이 애쉬튼, 엘 롬 페리, 데이비드 비 헤이트, 제임즈 이 파우스트, 닐 에이 맥스웰, 러셀 엠 넬슨, 댈린 에이치 옥스, 엠 러셀 밸라드, 조셉 비 워스린.

고문 : 휴 더블류 피녹크, 진 알 쿡, 윌리엄 알 브래드포드, 키드 더블류 윌콕스.

통 권 : 제266권, 제24권, 제7호
등 록 : 1967년 10월 5일, 라-3166
발행일 : 1988년 7월 1일(월간지)
발행인 : 한 인 상
편집인 : 정 기 만
발행소 :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
서울시 종로구 청운동 7번지
광화문 우체국 사서함 616호
우체국온라인 010041-0024704-11
인쇄인 : 영인쇄주식회사 이 세 용
International Magazine PBMA8807KO
PRINTED IN KOREA 7/88

©1988년 재단법인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 판권 소유

Published monthly by the Corporation of the President of The Church of Jesus Christ of Latter-day Saints. Application to mail at second class postage rates is pending at Salt Lake City, Utah. Subscription price $9.00 a year. $1.00 per single copy. Thirty days' notice required for change of address. When ordering a change, include address label from a recent issue; changes cannot be made unless both the old address and the new are included. Send subscriptions and queries to Church Magazines, 50 East North Temple Street, Salt Lake City, Utah 84150, United States of America.
Subscription information telephone number 801-531-2947.

POSTMASTER: Send form 3579 to *Songdo-ui Pot* at 50 East North Temple Street, Salt Lake City, Utah 84150, United States of America.

성도의 벗 1년 구독료는 4,000원입니다. 권당 400원이며, 성도의 벗 해외 구독일 경우에는 우송료를 독자가 부담하셔야 합니다.

주소의 변경이 있을 때에는 즉시 소속 와드/지부와 카드 번호를 표시하여 한국 출판부(738-6832, 청운동)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지 : 대관장단: 제1보좌 고든 비 힝클리 부대관장, 에즈라 태프트 벤슨 대관장, 제2보좌 토마스 에스 몬슨 부대관장. 배경: 태버내클 올갠 파이프

색인

아래의 주제는 다음 연사의 말씀에 나와 있다.

가르침 *영*
가정 복음 교육 *아이어링*
간증 *아브레아, 몬슨(일 오후)*
계명, 첫째되는 큰 *벤슨(토 오전)*
경전 연구 *힐, 벤슨(일 오후)*
결혼 생활 *파우스트, 벤슨(신권 모임), 기꾸찌*
과제 *넬슨*
교회 재판 *애쉬튼*
구원의 계획 *몬슨(일 오전)*
기도 *러드*
독신자 *벤슨(신권 모임)*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 *패러모어*
모범 *페리, 아브레아*
목자 *라스터*
부활 *헌터, 헤이트, 밸라드, 힝클리(일 오전)*
불안정 *아브레아*
사랑 *벤슨(토 오전), 스코트, 애쉬튼, 기꾸찌*
사망 *힝클리(일 오전)*
선교 사업 *벤슨(일 오후)*
성전 사업 *벤슨(일 오후)*
속임수 *워스린*
속죄 *헌터, 헤이트, 스미스, 스코트, 힝클리(일 오전), 패커*
승영 *몬슨(일 오전)*
신권회 *러드, 파우스트, 몬슨(신권 모임), 힝클리(신권 모임)*
신앙 *페리, 넬슨*
어린이 *영*
여성 *파우스트, 기꾸찌*
역경 *넬슨, 스코트*
영성 *영*
예수 그리스도 *헌터, 헤이트, 스미스, 옥스, 몬슨(일 오전), 밸라드 힝클리(일 오전), 라스터, 벤슨(일 오후)*
예언 *맥스웰*
용서 *옥스, 스코트*
우선 순위 *벤슨(토 오전), 페리, 벤슨(신권 모임)*
우정 증진 *옥스, 애쉬튼*
자선 *옥스, 애쉬튼*
자유의지 *패커*
재림 *맥스웰*
정직 *워스린*
지도력 *힐, 라스터*
지속성 *아이어링*
청소년 *힝클리(신권 모임)*
책임 *패커, 애쉬튼, 몬슨(일 오전)*
하나님 아버지 *벤슨(토 오전), 밸라드*
합당성 *몬슨(신권 모임)*
활동 촉진 *애쉬튼*
회개 *몬슨(신권 모임), 애쉬튼, 패커*

대회 연사가 아래에 열거되어 있다.

기꾸찌 요시히꼬
넬슨 러셀 엠
라스터 존 알
러드 글렌 알
맥스웰 닐 에이
몬슨 토마스 에스
밸라드 엠 러셀
벤슨 에즈라 태프트
스미스 더글라스 에이치
스코트 리차드 지
라브레아 안헬
아이어링 헨리 비
애쉬튼 마빈 제이
영 드왠 제이
옥스 댈린 에이치
워스린 조셉 비
파우스트 제임즈 이
패러모어 제임즈 엠
패커 보이드 케이
페리 엘 롬
헌터 하워드 더블류
헤이트 데이비드 비
힐 3세 조지 알
힝클리 고든 비

목차

1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 제158차 연차 대회 보고

토요일 오전 모임

4 큰 계명—주님을 사랑함
에즈라 태프트 벤슨 대관장

7 "내가 너희를 인도할 것임이니"
닐 에이 맥스웰 장로

10 교회의 축복을 구함
제임즈 엠 패리모어 장로

14 "세상에서"
엘 톰 페리 장로

18 그가 살아나셨느니라
하워드 더블류 헌터 회장

토요일 오후 모임

21 교회 역원 지지
토마스 에스 몬슨 부대관장

22 교회 감사 위원회 보고서

23 1987년도 통계 보고서

24 우리의 주님이요 구세주
데이비드 비 헤이트 장로

27 아는 것으로부터 오는 확신
안헬 아브레아 장로

30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더글라스 에이치 스미스 장로

32 "제가 기도하기 때문이예요"
글렌 엘 러드 장로

33 항상 그를 생각하여
댈린 에이치 옥스 장로

37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러셀 엠 넬슨 장로

신권 모임

41 가장 영예로운 자리
제임즈 이 파우스트 장로

44 여러분의 꾸준함으로
헨리 비 아이어링 감독

47 여러분은 변화를 가져 옵니다
토마스 에스 몬슨 부대관장

50 하나님으로부터 온 선물
고든 비 힝클리 부대관장

54 교회의 독신 성인 형제들에게
에즈라 태프트 벤슨 대관장

일요일 오전 모임

57 승영으로의 초대
토마스 에스 몬슨 부대관장

61 자녀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
엠 러셀 밸라드 장로

65 곤경에 처한 사랑하는 사람을 도움
리차드 지 스코트 장로

68 그들이 기다리는 동안
마빈 제이 애쉬튼 장로

72 빈 무덤의 간증
고든 비 힝클리 부대관장

일요일 오후 모임

76 속죄, 자유의지 및 책임
보이드 케이 패커 장로

79 경전에서 얻는 해결책
조지 알 힐 3세 장로

81 이스라엘의 목자
존 알 라스터 장로

82 하나님의 딸
요시히꼬 기꾸찌 장로

84 자녀에게 복음을 가르침
드왠 제이 영

86 봉사를 통한 행복
토마스 에스 몬슨 부대관장

87 간사함이 없나니
조셉 비 워스린 장로

91 "그리스도께로 나아와 그 안에서 온전하게 되며"
에즈라 태프트 벤슨 대관장

93 교회 교과 과정에 관련된 대회 말씀

95 교회 및 지역 소식

토요일 오전 모임 1988년 4월 2일

큰 계명 — 주님을 사랑함

에즈라 태프트 벤슨 대관장

"우리가 하나님을 모든 것보다 앞세울 때, 다른 모든 것들은 그들의 적당한 위치로 가게 되거나 우리 생활에서 떨어져 나가게 됩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주께서 친절하심으로 다시 한번 내게 영광스러운 교회 연차 대회에서 여러분과 함께 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나는 지난 몇 달 동안 여러분의 신앙과 기도의 결과로 큰 축복을 받았읍니다.

교회의 많은 어린이, 청소년 및 성인들이 몰몬경을 연구함으로써 생활이 변화되고 있다는 것을 알고 나는 마음에 크게 감동을 받았읍니다. 여러분은 그릇의 안을 깨끗이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에 대해 여러분을 축복해 주시기를 빕니다.

*인생의 큰 시험*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말씀하셨읍니다. "이로써 우리는 저들을 시험하여 주 저희 하나님이 저들에게 명하시는 것이면 무엇이든지 다 행하는지 아니하는지를 보자."(아브라함서 3 : 25)

*인생의 큰 과제*는 주님의 뜻을 배우고 행하는 것입니다.

*인생의 큰 계명*은 주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모로나이는 그의 마지막 간증에서 "그리스도께로 나아와…너희의 마음과 정성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모로나이서 10 : 32)라고 권고합니다.

그러므로 이것이 첫째되는 큰 계명입니다.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마가복음 12 : 30; 또한 마태복음 22 : 37; 신명기 6 : 5; 누가복음 10 : 27; 모로나이서 10 : 32; 교성 59 : 5 참조)

몰몬경에서 모든 것 중에서 가장 크다고 증거하는 그리스도의 참된 사랑은 소위 자비라고도 하며 결코 실족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참는 것으로 모든 사람이 가져야 하는 것인 바 사랑이 없으면 인간은 아무것도 아닙니다.(모로나이서 7 : 44~47; 니파이이서 26 : 30 참조)

모로나이는 이렇게 권고합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형제들아, 마음을 기울여 하나님께 간구하여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참된 마음으로 따르는 자에게 허가하시는 이 사랑으로 충만하게 되며, 너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 저가 나타나실 때에 우리가 저를 볼 것이매,"(모로나이서 7 : 48)

야렛인과 니파이인의 두 기록을 끝맺을 때 모로나이는 인간이 그리스도의 참된 사랑을 갖지 못한다면 그리스도께서 그의 아버지의 처소에 준비해 두신 장소를 물려받을 수 없고 또한 하나님의 왕국에서 구원받을 수 없다고 기록했읍니다.(이더서 12 : 34; 모로나이서 10 : 21 참조)

리하이가 그의 시현에서 먹으매 넘치는 큰 기쁨으로 그의 영혼을 채워 주고, 어느 것보다 더 먹음직한 열매는 하나님의 사랑이었읍니다.

여러분의 온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모든 것을 다 바치고 모든 것을 다 포함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미적지근한 노력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에 신체적, 정신적, 정서적, 영적으로 우리의 존재 자체를 완전히 바치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의 넓고 깊고 높음은 인생의 모든 면에 미치는 것입니다. 영적인 것이든 현실적인 것이든 우리의 소망은 주님의 사랑에 뿌리를 두어야 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사랑은 주님이 주인이 되어야 합니다. 앨마는 이렇게 말했읍니다. "너의 생각하는 것도 주의 뜻을 따르게 해야 할지니, 너의 마음의 사랑을 영원토록 주님께 돌리게 하라."(앨마서 37 : 36)

왜 하나님은 첫째 계명을 맨 앞에 두셨읍니까? 그분은 우리가 참으로 그분을 사랑한다면 그분이 주신 다른 모든 계명을 지키고자 원할 것임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요한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요한일서 5 : 3; 요한이서 1 : 6 참조)

우리는 생활에서 하나님을 그밖의 모든 것보다 앞세워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십계명의 첫번째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가장 먼저입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네게 있게

태버내클 밖에서 대회 방문자들과 인사를 나누는 기꾸찌 장로

말찌니라"(출애굽기 20 : 3)

우리가 하나님을 모든 것보다 앞세울 때, 다른 모든 것들은 그들의 적당한 위치로 가게 되거나 우리 생활에서 떨어져 나가게 됩니다. 주님에 대한 우리의 사랑은 우리의 애정과 시간을 바치는 것과 우리가 추구하는 관심사와 우선 순위 등 모든 것을 지배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 생활의 모든 것 앞에 모셔야 합니다.

요셉이 애급에 있을 때 그의 생활에서 맨 먼저였던 것은 무엇이었읍니까? 하나님이었읍니까, 그의 직업이었읍니까, 보디발의 아내였읍니까? 보디발의 아내가 그를 유혹하려 했을 때 그는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득죄하리이까"(창세기 39 : 9)라고 대답했읍니다.

요셉은 하나님을 앞세웠기 때문에 감옥에 갇혔읍니다. 우리가 비슷한 선택을 해야 한다면 우리의 첫번째 충성을 어디에 바쳐야 하겠읍니까? 우리는 안전과 평화와 열정과 부와 인간의 영예보다 하나님을 앞세울 수 있읍니까?

요셉은 선택을 하지 않으면 안되었을 때 주인의 아내를 기쁘게 하기보다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기를 원했읍니다. 우리는 선택을 할 때 우리의 사장이나 선생님이나 이웃 또는 데이트 상대보다는 하나님을 더 기쁘게 해드리기를 원합니까?

주님은 이같이 말씀하셨읍니다. "아비나 어미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마태복음 10 : 37) 무엇보다도 어려운 시험의 하나는 여러분이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과 여러분이 사랑하고 존경하는 사람 특히 가족을 기쁘게 하는 것 중에서 선택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니파이의 선한 부친이 한때나마 주님에 대하여 불평했을 때 니파이도 그런 시험을 받았으나 그는 그것을 훌륭하게 처리하였읍니다. (니파이일서 16 : 18~25 참조) 욥은 그의 아내조차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고 말했을 때에도 주님께 충성을 바쳤읍니다. (욥기 2 : 9~10 참조) 경전에는 "네 부모를 공경하라"고 적혀 있읍니다. (출애굽기 20 : 12; 모사이야서 13 : 20 참조) 때로 인간은 하나님 아버지를 육신의 아버지 이상으로 공경하기를 선택해야 합니다.

우리는 영의 아버지이신 하나님께 우리 생활에서 가장 좋은 것을 바쳐야 합니다. 그는 우리의 영원한 복지에 대하여 이 지상에서나 후세에서 우리를 맬 수 있는 다른 모든 유대 관계보다 우선하여 부모로서의 권리를 갖고 계십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의 맏형이시며 구속주이신 예수와 증거자가 되시는 성신은 완전한 분이십니다. 그들은 우리를 가장 잘 알고 있으며 가장 사랑하시며, 우리의 영원한 복지를 위해 한 가지라도 해결되지 않은 채 남겨 두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그것에 대하여 그들을 가장 먼저 사랑하고 존경해야 하지 않겠읍니까?

지상의 친지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교회에 가입한 충실한 회원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을 앞에 세움으로써 많은 사람들은 후에 사랑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왕국으로 인도하는 도구가 되었읍니다.

예수님은 "내가 항상 그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므로"(요한복음 8 : 29)라고 말했읍니다.

우리집의 상황은 어떠합니까? 우리는 주님을 먼저 생각하고 그분을 기쁘시게 하려 노력하고 있읍니까?

아버지되시는 여러분, 가정에서 매일 가족 기도를 하고 경전을 읽는다면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일이 되겠읍니까? 매주 가정의 밤을 갖고 정기적으로 아내와 각 자녀와 개별적인 시간을 갖는 것은 어떻겠읍니까? 자녀가 일시적으로 탈선했을 때, 여러분이 모범적인 생활을 계속해 나가고 그 자녀를 위해 끊임없이 기도하고 자주 금식하며 그 아들이나 딸의 이름을 성전 기도 명부에 적어 넣는다면 그 일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이며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노력을 존중하시리라 생각하십니까?

특히 시온의 청소년들을 의롭게 키우는 책임을 맡고 계신 어머니 여러분께서는 가정이 세상의 일을 따르도록 내버려 두지 않음으로써 성스러운 부름을 존중할 때 하나님을 앞에 내세우는 것이 아니겠읍니까? 어머니들은 가정 안에서 그들의 가장 고귀한 사명을 완수할 때 하나님을 가장 앞세우는 것이 됩니다.

자녀 여러분은 부모를 위해 기도합니까? 여러분은 그들이 행하는 고상한 일을 지지하고자 합니까? 그들도 여러분처럼 실수를 할 것입니다만, 그들은 여러분의 생애에 성취할 거룩한 사명을 지니고 있읍니다. 여러분은 그들이 그와 같이 행하도록 도와 주시겠읍니까? 여러분은 그들의 이름에 명예를 더하고 그들이 나이들어 감에 따라 위로와 도움을 주시겠읍니까?

어떤 사람이 여러분과 함께 성전 밖에서 결혼하기를 원한다면 여러분은 누구를 기쁘게 하려고 노력하겠읍니까? 여러분이 성전 결혼을 고집할 때 여러분은 주님을 기쁘게 하고 그사람에게 축복을 주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그 사람은 성전에 가기에 합당하게 되거나—그것은 축복이 될

것입니다—아니면 여러분을 떠날 것입니다—그것 또한 축복이 될 수 있읍니다—왜냐하면 여러분은 누구도 불공평하게 멍에를 같이 하기를 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고린도후서 6 : 14 참조)

여러분은 성전에 들어가기에 합당해야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성전 밖에서 결혼해도 좋을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러한 사람이 선하다면 그들 역시 성전에서 결혼할 수 있는 상황에 능히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첫째 계명을 가장 중요하게 여길 때 이웃을 가장 많이 축복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이든지 옳은 것입니다."라고 예언자 요셉 스미스는 말했으며, 그래서 니파이는 레이밴을 죽였읍니다. 또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고 하셨읍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했더라면 이에 응낙했겠읍니까? 주님께서 교리와 성약에서 지적하셨듯이 아브라함과 이삭은 이제 신이 되어 있읍니다.(교성 132 : 37 참조) 그들은 하나님의 요구하심에 따라 기꺼이 바치고 또한 바쳐지고자 했읍니다. 그들 두 사람은 모두 하나님을 기꺼이 앞세우려 했기 때문에 서로를 보다 깊이 사랑하고 존경했읍니다.

몰몬경에서는 "범사에 서로 상대가 되는 것이 있어야 함이 마땅하니"(니파이이서 2 : 11)라고 가르치며, 사실 그러합니다. 상대가 있어야 선택을 하게 되고, 선택은 좋든 나쁘든 결과를 가져 옵니다.

몰몬경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인간은 만민을 위하여 마련된 크신 중보를 통하여 자유와 영생을 택할 수도 있거니와, 악마의 권세와 속박에 매어 속박과 죽음을 택할 수도 있느니라."(니파이이서 2 : 27)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악마는 우리를 미워합니다. 하나님은 그가 가지신 충만한 기쁨을 우리도 갖기를 원하십니다. 악마는 우리도 그처럼 비참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시기 위해 계명을 주십니다. 악마는 우리를 저주하기 위해 우리로 하여금 이러한 계명을 어기게 하려 합니다.

우리는 축복받기를 원하는가 또는 저주받기를 원하는가, 행복하게 되기를 원하는가 또는 비참하게 되기를 원하는가 하는 것을 매일 끊임없이 우리의 소망과 생각과 행동에 의해 선택합니다. 인생의 시련의 하나는 보통 의로움에 대한 축복과 사악함에 대한 저주를 그대로 즉시 받게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언젠가는 틀림없이 오겠지만, 욥과 요셉의 경우에 그러했던 것처럼 그 일이 일어날 때까지는 흔히 기다리는 시간이 있게 됩니다.

한편 사악한 자들은 자기가 결과를 피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몰몬경은 이렇게 가르칩니다. 사악한 자는 "잠시 기꺼워할지라도 차차 마지막이 이르매 베어져 다시 돌이킬 수 없는 불길 속에 던져지리라."(니파이삼서 27 : 11)

어느 시인이 말한 것처럼 의로운 자는 이 시험 기간 동안에 계속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약속을 받고 인내하며 확인받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 하나님의
보상받으리라
그 날이 아무리 길게 보이고
아무리 힘든 길이라 할지라도
인간이 하나님의 목적을 막을 수는
없는 것
다른 사람들처럼
금이나 땅이나 화려한 의상으로
썩어 없어질 재물로 보상하시지 않는다
해도
하나님의 크신 지혜는 아시나니
어떻게 된다 해도 그것만은 분명한 일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 자 하나님의
보상받으리라
(작자 미상)

하나님의 보상은 이 세상이나 다른 어떤 세상이 알고 있는 어떤 것보다 가장 훌륭한 보상이라는 것을 나는 여러분께 간증드립니다.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가장 앞세우는 자에게만 가장 풍부하게 오는 것입니다.

*인생의 큰 시험*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입니다.

*인생의 큰 과제*는 주님의 뜻을 배우고 행하는 것입니다.

*인생의 큰 계명*은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마가복음 12 : 30)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첫째 계명을 맨 앞에 둘 수 있도록 축복하시어, 그 결과 이생에서의 평안과 앞으로 올 생에서 충만한 기쁨으로 영생을 거두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구합니다. 아멘.

"내가 너희를 인도할 것임이니"

닐 에이 맥스웰 장로
십이사도 정원회

"우리는 이곳에서 지상 생활을 하고 있으며, 다만 한 길로 나아가야 하니 피해서 돌아갈 수는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구원자는 확신을 주십니다. '기운을 내라.'"

첫째 계명에 관한 말씀을 해주신 것에 대해 그리고 그것으로 우리들 모두에 대한 사랑을 표현하신 것에 대해 더욱 벤슨 대관장님께 감사드립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기독교사를 통해 몇몇 믿는 사람들은 다른 예언을 무시한 몇 가지 예언에 중점을 두며 성급하게 재림을 기대하였읍니다. 그 위대한 순간이 성큼 다가선 것이 분명한 오늘날, 우리도 같은 위험에 처해 있읍니다.

한편 자만하는 것 역시 아주 위험합니다. 예수님의 처음 강림하심에 대해 자만하는 자들은 이렇게 말했읍니다. "그리스도가 오리라 함은 이치에 맞지 아니하나니."(힐라맨서 16 : 18) 예수님은 자신의 재림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하셨읍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그 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누가복음 21 : 34~35; 마태복음 24 : 37~38; 요한계시록 3 : 3; 교성 45 : 26 참조)

베드로는 "주의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뇨"라고 말한 오만한 회의론자들에게 "만물이 처음 창조할 때와 같이 그냥 있"(베드로후서 3 : 4)는 것이 아니라고 했읍니다.

유대 백성이 이스라엘로 돌아오는 것과 같은 예언은 수십 년에 걸쳐 성취되었읍니다. (에스겔 39 : 27 참조) 예언에 따라서는 짧은 시간 안에 성취되는 것도 있읍니다. 회복된 복음을 세상 만방에 "증거로" 전하는 것은 여러 세대가 걸리는 일이나(마태복음 24 : 14), "황폐하게 하는 벌"은 순식간에 지상을 덮어 버릴 수 있읍니다. (교성 5 : 19 참조) 슬픈 현실이나 그러한 벌을 받기에 합당한 여러 가지 가능성은 이미 상존해 있읍니다. (마가복음 13 : 10; 교성 5 : 19 참조) 사막이 "장미와 같이" 피어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렸으나, 중대한 도덕적 부패는 한 나라에서나 한 가정에서 단 한 세대 만에 일어날 수 있읍니다. (이사야 35 : 1; 힐라맨서 6 : 32; 11 : 36; 12 : 4 참조)

중동 지역은 인류 역사에서 여러 번 중심지가 되어 왔읍니다. 그러나 예루살렘이 "사면 국민에게 혼취케 하는 잔"이 되고 "모든 국민에게 무거운 돌이" 되게 한다는 스가랴의 말씀은 우리 시대 상황을 그대로 묘사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스가랴 12 : 2~3)

무화과나무 잎사귀가 눈에 띄기 시작하면 여름이 가까운 것을 알 수 있읍니다. (마태복음 24 : 32 참조) 비유로 해안가에 큰 파도가 밀려 오는 것을 보게 되면 폭풍우가 몰려 오는 것을 알 수 있고, 바다를 흔드는 강한 진동을 식별하게 되면 큰 해일을 예고하게 됩니다.

그와 같은 경고와 관련해서 나는 "여름이 가까운"(마태복음 23 : 32) 것을 암시하는 확실한 표적은 아니라 해도 몇 가지 표적을 주저없이 말씀드릴 수 있읍니다. 우리는 "생활의 염려"로 "둔하여"짐으로써 잎사귀가 나는 것을 보지 못하거나 편견에 사로잡히지 않고 생각하는 것이 좋겠읍니다. (누가복음 21 : 34)

그 본보기로 구세주의 재림에 앞서 몇 가지 상황은 노아의 때와 같고(마태복음 24 : 37~39 참조) 또한 "롯의 때와 같"다는 것을 알고 있읍니다. (누가복음 17 : 28) 노아의 시대는 불순종과 사악함의 시대였읍니다. 사람들은 "홍수가 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읍니다. (마태복음 24 : 39; 창세기 6 : 5; 베드로전서 3 : 20 참조) 이생의 숨막히는 관심사와 즐거운 일은 노아의 예언의 말씀을 전반적으로 거부하게 만들었읍니다. 특히 흥미있는 두 가지 말씀이 성경에서 노아 시대를 묘사하는 것으로 사용되었읍니다. 그것은 *강포*와 *패괴*입니다. (창세기 6 : 11) 강포와 패괴, 즉 폭력과 부패는 인간 세상에서 그리 낯선 것이 아니며, 오늘날 점점 더 증가해 가고 있읍니다.

노아 시대의 상스러움과 잔학함은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마태복음 24 : 12) 앞으로도 재연될 것입니다. 또한 "지상에서 평화가 박탈당할 것이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교성 1 : 35)

다른 경전에서도 경고한 것처럼 베드로는 노아의 시대에 하나님의 모든 창조물에 사악함이 극심할 때까지 "하나님이 오래 참"으신 것에 대하여 기록했읍니다. (베드로전서 3 : 20; 모세서 7 : 36 참조) 참으로 참혹한 세상은 사람들이 "아무런 애정도 없어 자신의 혈족을 미워"(모세서 7 : 33) 하는 세상이었읍니다. (모세서 7 : 33)

사람이 다른 사람을 학대하는 것에 비하면, 하나님은 오래 참으심으로 할 수 있는 한 참아내셨읍니다.

롯의 시대 사람들은 극히 사악한 가운데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지으며(누가복음 17 : 28) "더러운 말로" 다시 말해 "무법한 자의 음란한 행실"로 롯에게 고통을 주었읍니다. (베드로후서 2 : 7) 그들의 천박함으로, 가난한 자들 역시 크게 무시되었읍니다. (에스겔 16 : 49)

우리 시대는 이미 다른 예언, "민족들이 혼란한 중에 곤고하리라"는 것을 반영하고 있읍니다. (누가복음 21 : 25) 현대 이전에는 지상의 혼란은 가능하지 않았읍니다. 이제는 한 나라의 어떤 문제점과 위기는 다른 나라로 곧장 옮겨집니다. 부채에 시달리는 경제, 전염병, 마약 중독, 또한 흔히 볼 수 있는 것으로, 그러한 혼란에 직면하여 거의 속수무책감을 느끼게 되는 것 등이 그러합니다. 오늘도 세상의 걱정거리를 모두 모아 저녁 뉴스 시간에 살펴 보게 됩니다.

말일에는 교회가 "온 세상에 퍼져" 있는 회원들로 인해 상당히 성장할 것입니다. (니파이일서 14 : 14)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복음 메시지를 듣지 못하게 할 "죄악"으로 인하여 그 다스림은 상당히 "작"아질 것입니다. (니파이일서 14 : 12 참조)

백성들을 "크게 나누실 때"가 이를 것입니다. (니파이이서 30 : 10; 교성 63 : 54 참조) 역설적인 이야기이나 이러한 심각한 대립은 "악마의 왕국"인 그 이상한 동맹을 마지막으로 흔드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그것은 그 안에 있는 마음이 정직한 사들도 진리를 받게 하기 위함입니다. (니파이이서 28 : 19)

"크게 나누실 때"에 대하여 브리감 영 대관장은 또한 이렇게 보았읍니다. "이 교회가 시작될 때에 내게 계시된 것은 교회는 이 지상의 모든 나라에 복음이 전파되는 비율로 퍼져 나가고 번영하며, 성장해 나가듯이 사탄의 권세도 일어나리라는 것이었읍니다." (설교집, 13 : 280)

다행스러운 일은, 우리 주위의 세상이 악화일로에 있다 해도, 어느 인종이나 종파를 불문하고 품위있고 훌륭한 삶을 영위해 가는 많은 훌륭하고 멋진 사람들이 있을 것이라는 점입니다. 더 나아가, 몰몬이 말한 대로 쇠락해 가는 상황에 대한 경전 말씀은 "우리를 짓누르려 함"이 아니요,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너를 들어올리"시는 생활을 하도록 돕기 위함입니다. (모로나이서 9 : 25)

내가 드린 말씀은 놀라게 하려 함이 아니요, 우리가 알고 준비할 수 있게

성전의 서쪽 탑 사이에 보이는 모로나이 천사상의 망원 사진 뒷모습

하려 함입니다. 예언은 우리에게 "믿게 하려" 이미 이러한 일들이 우리에게 "알려졌음을 깨달아 기억하게 하려고" 주어집니다.(힐라맨서 16 : 5) 오늘날의 부주의한 자들은 이전의 무감각한 백성들과 같이 "저들이 친히 들은 표적과 기사를 잊기 시작하였고, 점차로 하늘로부터 보여지는 표적과 기사를 놀라와 하지 않더니…저들이 보고 들은 바 모두를 믿지 아니"하게 될 것입니다.(니파이삼서 2 : 1; 베드로전서 3 : 17) 우리가 충실하면, 다행히도 고대의 니느웨인들과 같이 오늘날의 인간도 회개한다면 아무것도 잃지 않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자신을 살펴보도록 합시다. 경전은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무기가 아니라 "의로 무장"하고 주님의 영광이 그들에게 내려지게 될 이 때를 맞이하여 체질과 영적인 성장에 박차를 가하기를 제안합니다.(니파이일서 14 : 14; 베드로전서 4 : 17; 교성 112 : 25) 주님은 단련받은 순수한 백성을 갖고자 하시니(교성 101 : 4; 100 : 16; 136 : 31), 이는 "주 네 하나님은 하고자 하는 일 외에는 아무 것도 마음에 두지 아니하"시기 때문입니다.(아브라함서 3 : 17)

교회의 회원인 우리가 성약을 존중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영적으로 살아 남을 수 있읍니까? 우리가 침례시나 거룩한 성전에서 맺은 성약을 완전히 깨뜨린다면 어떻게 영적으로 살아 남을 수 있겠읍니까? 우리가 세상의 물질주의나 이기심을 그대로 반영한다면 "크게 나누실 때"에 어떻게 주님의 편에 설 수 있겠읍니까?(니파이이서 30 : 10 참조)

교회 회원들은 크게 놀라지 않아도 되며 또한 그래서도 안됩니다. 그들은 조용히 의롭게 일상 생활을 추구해 나가는 데서 벗어날 필요가 없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이니"(디모데후서 1 : 7)

1836년에 예언자 요셉은 "온 세상에 거짓 소식을 널리 퍼뜨리는 자—들을 당황하게 하시며 놀라게 하시며 부끄러움을 겪게 하시며 혼란하게 하"시기를 주님께 간구했읍니다.(교성 109 : 29) 한 백성으로서 우리는 최근에 크게 축복받았으며 또 다시 그러할 것입니다.

참으로 주님의 사업의 반대자와 비판자들은 쉬지도 않고 다시 무리를 지어, 양떼 속에 여기저기 끼어든 이리떼처럼 마치 양털깍기 직전 여러 모양의 양껍질을 뒤집어 쓴 모양으로 끼어들 것입니다. 배반자와 "자고"하는 몇몇 무리들도(디모데후서 3 : 4) 곧장 "크고 넓은 건물로" 들어가 일하게 될 것입니다.(니파이일서 8 : 26) 새로 고용되는 무리들이 모아지면, 그들의 전임자들과 마찬가지로 역사의 어두운 진흙밭으로 사라지게 됩니다. 히버 시 킴볼 부대관장이 말씀하신 것처럼 거룩한 공의로우심으로 "결국은 그들이 죄없는 자에게 가져 온 모든 고통의 빚을 갚기를 요구할 것입니다."(*설교집*, 5 : 94)

따라서 어떤 상황이 인류에게 벌어질 때 놀라거나 두려워할 필요가 없읍니다. 그 외에 주님은 우리에게 회복을 이끈 예언자와 회복된 교회에 관한 몇 가지 분명한 확신을 주셨읍니다.

"보라 그 선견자를 주께서 축복하실 것임에 저를 사람들이 해하려 하나 이루지 못할 것이니"(니파이이서 3 : 14)

"내가 정한 때…라"(교성 71 : 10)

"의인은 두려워할 필요가 없으나…악마의 왕국은…두려워 떨며 흔들릴 날이 속히 오리라."(니파이일서 22 : 22, 23)

이 아름답고 좋은 세상에서 충실하게 순종한다면, 우리는 후에 "보다 훌륭한 약속의 땅,"(앨마서 37 : 45) "하나님의 경영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히브리서 11 : 10) 즉 "거할 곳이 많"은 성을(요한복음 14 : 2~3) 물려받게 될 것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썼읍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하였다〔상상할 수도 없다는 의미인〕 함과 같으니라"(고린도전서 2 : 9)

영적으로 순종하는 자들은 그것을 이겨낼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리스도의 사람들을 "끝없는 고난의 심연을 건너…곧고 좁은 길에 이르게 하시며"(힐라맨서 3 : 29) 저들의 영을

하늘 나라 하나님 우편에 하시어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리고 세상이 시작되면서부터 있었던 거룩한 선지자들의 것과 같이"하실 것입니다.(앨마서 7 : 25; 이더서 12 : 4 참조)

세상을 극복한 사람들은 "아버지께서 가지신 모든 것"을 주심같이 그때에 축복될 것입니다.(교성 84 : 38) 충실한 자들은 "세상의 십자가를 견디되 그 수욕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의로운 자들은…하나님의 왕국을 상속받으리니 저들의 기쁨이 영원히 가득 차게" 될 것이므로(니파이이서 9 : 18) "주의 기쁨에 참여하"라는 특별한 말씀을 듣게 됩니다.(교성 51 : 19)

라모나이가 받은 빛은 "그의 영혼에 그토록 놀라운 기쁨을" 불어 넣어 주었읍니다.(앨마서 19 : 6) 표현할 수 없는 빛이 앞에 놓여 있으니 "날이 이르매…이제까지 있었던 모든 일과…장차…모든 일이 전하여질 것"입니다.(니파이이서 27 : 11)

이 지상 생활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생각하여 많은 눈물을 흘렸던"(니파이삼서 4 : 33) 때가 있었음을 알고 있읍니다. 우리의 기쁨은 차고 넘칩니다.(앨마서 26 : 11 참조)

그러나 이것은 우리의 잔이 찰랑찰랑 찰 뿐만 아니라, 끊임없이 흘러 넘칠 때 최후의 귀향을 미리 맛보는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복음의 확실한 표본 추출은 우리에게 "더 나은 본향"에서(앨마서 37 : 45) 보내오는 예쁘고 매혹적인 우편 엽서와 같이 "만물을 사실대로 이야기하는"(야곱서 4 : 13) 야곱의 말씀에도 들어 있읍니다.

그 사이에 여름은 가까와졌읍니다. (마태복음 24 : 32; 교성 35 : 16; 45 : 37) 우리는 이곳에서 지상 생활을 하고 있으며, 다만 한 길로 나아가야 하니, 피해서 돌아갈 수는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구원자는 확신을 주십니다. "기운을 내라. 내가 너희를 인도할 것임이니, 왕국은 너희 것이요, 그 축복도 너희 것이요, 영원의 재물도 너희 것이니라."(교성 78 : 18)

형제 자매 여러분, 주님은 약속하신 대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리라는 것이 교회에 대한 나의 간증입니다. 그분은 교회와 회원들에게 필요하고도 구체적인 지시를 주시고 신앙과 강하게 되고자 인내를 갖도록 적절한 경험을 주시며 조화를 이루게 하십니다. 그리하여 그분은 우리를 인도하시지만, 또한 그 과정에서 우리의 개인적인 경험을 통해 그분에 관하여 배우도록 그분의 멍에를 우리에게 지우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때때로 그 멍에의 무게를 확실히 느끼기도 하지만, 길은 분명히 있읍니다.

우리의 목자이신 예수님은 "우리 인도하시려고 길 예비"하셨읍니다. 그의 분명한 발자취는 쉽게 볼 수 있읍니다. 그 발자취는 우리들 모든 개인의 무거운 죄를 포함하여 그를 짓누른 거대한 무게로 인해 둘째 지체의 흙에 깊고 분명한 자취를 남겼읍니다.

오직 그만이 그 일을 모두 감당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겟세마네에서 모든 인류를 위해 모든 구멍에서 피를 쏟으셨으며 그보다 더한 온갖 고통을 참아내신 것에 대해 나는 참으로 구세주께 개인적으로 감사드립니다. 갈보리 언덕에서 귀를 찢는 듯한 영혼의 울부짖음에 더하여 모든 것을 참으신 것에 대해 그분께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멘.

교회의 축복을 구함

제임즈 엠 패러모어 장로
칠십인 제일 정원회 회장단

"교회는 우리가 자신의 생활을 변화시키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해주기 위하여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나는 여러분을 매우 사랑합니다.

며칠 전에 나는 예언자 요셉 스미스 이세가 설립한 상호부조회 146주년을 경축하는 프로그램에 참석했읍니다. 그때까지 나는 대회에서 무엇을 말하고 싶은지에 대해 아무런 느낌이나 영감을 받지 못하고 있었읍니다. 삼백 명 이상의 자매님들이 참석한 그 모임에 앉아서 그 훌륭한 발표—어머니와 자녀로 이루어진 합창단의 노래와 그 자매님 가운데 대여섯 명이 상호부조회로 인하여 그들의 생활에 들어온 기쁨과 선에 대하여 간증하는 것을 듣는 동안 오늘 여러분에게 무엇을 말씀드리고 싶은가 하는 것을 알게 되었읍니다. 그것은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축복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 모임에서 그들이 교회와 그 조직에 대하여 이야기한 것을 몇 가지 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자매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읍니다. "저는 필리핀에 있는 우리 고향 산타로사에 있는 작은 지부에서 선교사들이 처음으로 저를 교회로 데려간 것을 결코 잊지 못할 것입니다. 그 이전에 상호부조회에 대하여 한번도 들어본 적이 없었으나 그 훌륭한 자매님들이 사랑의 팔로 나를 감싸 주었읍니다."

또 어떤 자매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읍니다. "자매애라는 말이 저에게 전혀 새로운 의미를 갖게 되었읍니다. 몇 년 전 남편이 갑자기 죽자 마치 저의 세계가 저의 주위에서 무너져 내린 것 같이 느껴졌읍니다. 그러나 뜻밖에도 훌륭한 자매님들이 제 주위에서 짐을 나눠 들어 주었읍니다. 그들은 항상 그곳에 있었읍니다. 매주 성전에 참석하는 것은 저의 생활에 너무나 큰 화평과 위안을 가져다 줍니다. 저는 이 훌륭한 자매애로 기쁨을 누리고 있읍니다."

진실로 그들은 더 이상 손이 아니며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입니다. (엡 2 : 19 참조) 그들은 지상에 있는 하나님의 왕국인 그의 교회 회원들이었읍니다.

그 모임에 앉아 있는 동안 교회가 나와 나의 아내와 가족과 내가 생활했던 와드 회원들과 우리 사이에 있는 가난하고 궁핍한 사람들과 인류 전체를 위해서 무엇을 했는가 하는 것에 대하여 생각했읍니다. 그날 그 짧은 시간이 내 영에 감동을 주었으며 나는 마치 보물을 발견한 어린애 같이 느껴졌읍니다. 내 마음 속에는 말로는 충분히 설명할 수 없는 느낌이 솟아났읍니다. 교회가 나의 생활과 또 진실되게 교회를 받아들이고 참여한 나의 주변 사람들을 축복하기

위하여 무엇을 해주었는지를 깨달았읍니다.

자신의 행위와 사랑과 그리스도처럼 되는 개인적인 변화를 통하여 그분에게 가까이 나아갈 때 우리에게 오는 위대한 권세가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이해시키고 받아들이게 하려 하시는 모든 것의 중심이 됩니다. 우리가 이 지상에서 거쳐 가는 것은 자신을 입증하는 기반이며 성장과 선택의 기간이며 "하나님께 돌아가는 준비를 하는"(앨 12 : 24) 시간입니다. 그분은 우리를 인도하기 위하여 그의 영을 주셨고, 우리가 이런 권세를 인식하고 활용하도록 영향을 주기 위하여 그의 진리와 교회를 주셨읍니다. 몰몬경 시절에 이런 원리와 교회의 가르침에 대적했던 한 위인은 앨마 이세로서 주님의 치심을 받아 벙어리가 되었으며 교회가 여러 날 동안 금식하고 기도한 다음 혀가 다시 풀렸을 때 이런 말을 했읍니다.

"저가 이르기를, 내가 나의 죄를 회개하여 주님의 속죄를 얻었도다. 보라 내가 영으로 거듭났으며,

"주님께서 내게 이르사, 기이하게 여기지 말라. 만 백성이 남녀를 막론하고 모든 나라와 족속과 방언의 민족과 백성이 모두 거듭나야 하나니, 하나님께로 거듭나서 타락한 육욕의 모양이 의로운 것이 되며, 하나님께 속죄받아 그의 아들과 딸이 되어야 하느니라.

"이같이 하여 인간은 새 것이 되나니, 거듭 나지 아니한 자는 결단코 하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하리라."(모 27 : 24~26)

앨마는 영으로 태어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읍니다. 그런 다음 그는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 그리스도를 가르치고 자신이 비난하고 조롱했던 바로 그 그리스도의 교회를 세움으로써 지상에 하나님의 왕국을 건설했읍니다. 교회는 우리가 자신의 생활을 변화시키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해주기 위하여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아들과 딸의 생활에서 교회가 축복해 준 것을 상고하면서 수많은 추억이 홍수처럼 마음에 밀어닥쳤는데 그런 추억은 다음과 같은 것입니다.

● 내가 직접 초등협회, 주일학교, 신권회, 상호향상회, 세미나리에서 성장하는 청남 청녀와 함께 보냈던 시절, 그곳에서는 언제나 제반 활동이 주님이 설정하신 범위 내에서 행해졌으며 영원한 진리를 가르쳤고 또 우리에게 참으로 진실과 오류을 측정할 수단을 제공하고 우리를 강화시키기 위하여 반복해서 가르쳐 주었읍니다.

● 여러 해 전에 우리가 모닝사이드 하이츠라는 지역에서 젊은 가족이 많은 큰 와드에서 살았던 시절(우리는 사실상 그곳을 모닝씨크니스 하이츠라고 다시 이름붙였는데 그것은 그곳에 젊은 가족이 너무나 많았기 때문이었읍니다) 나는 감독으로서 약 육십 명 내지 칠십 명 의 8세 된 어린이와 침례 접견하는 축복을 받았읍니다. 그 가운데 구세주를 사랑하지 않거나 십일조의 법을 이해하지 못하거나 지키기 않는 어린이는 한 사람도 못보았읍니다. 이것은 충실한 부모와 교회의 초등협회 및 주일학교의 훌륭한 교사들이 부여한 많은 축복 가운데 한 가지였읍니다.

● 캘리포니아에서 최우수 경찰관으로 뽑히는 명예를 받은 어떤 말일성도 경찰서장에 관한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는 이렇게 말했읍니다. "조직에 대하여 알고 있었던 것은 교회에서 배운 것밖에 없었읍니다. 저는 우리 경찰 대원을 우리 스테이크와 똑같이 조직했읍니다. 저는 그 도시 전체에 고등 평의회와 감독단을 조직했읍니다. 나는 그 조직을 실제로 그런 명칭으로 부르지는 않지만 실제로는 그런 조직과 똑같습니다."

● 내 아내와 딸과 수십 명의 다른 자매들이 한 자폐증 어린이에게 기는 방법을 배우게 해주러 정규적으로 어떤 가정을 방문하는 것을 보았을 때 교회에서 경험했던 일이 생각납니다.

● 활동 촉진 프로그램에 의하여 활동화된 어떤 아버지가 우리 스테이크 대회에서 울면서 일어서서 두 아들을 끌어안고 "교회가 없었다면 우리가 지금 어디에 가 있겠읍니까?"라고 말하는 것을 보았던 때가 생각납니다.

이런 일은 끝없이 반복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교회는 구세주께서 팔레스타인에서 직접 땅 위를 걸으셨을 때 세우신 조직입니다. 또 나중에 미대륙에서 또 1830년에 모든 인류를 완전하게 하고 승영으로 인도하기 위하여 지상에 다시 세우신 조직입니다. 교회와 교회의 여러 가지 기능은 하나님의 계획에 필수 불가결한 것입니다.

● 교회에서는 구세주의 모든 가르침을 제공해 주고 있읍니다.

● 교회에서는 하나님의 선지자로부터 시작하여 모든 가족까지 하늘로부터 온 권세를 행사합니다.

● 교회는 하나님의 집에서 행해지는 거룩하고 영원한 엔다우먼트와 인봉을 포함하여 복음의 구원 의식을

제공합니다. 이것은 아버지께서 갖고 계시는 모든 것을 충만하게 이루는 것입니다.

● 교회는 어디든지 지상에 교회가 있는 곳에서는 다른 사람과의 형제 자매애를 제공해 줍니다. 교회 회원이 되는 즉시 친구들과 함께 하나님의 지역 사회의 일원이 됩니다. 이곳은 모든 회원을 지켜보고 책임져 주는 세상으로부터의 피난처입니다.

● 교회는 우리가 일생 동안에 수많은 방법으로 다른 사람을 섬김으로써 이기심과 불확실성을 극복할 수 있게 해줍니다. 우리가 가장 소중하게 아끼는 추억 가운데 일부분은 함께 봉사하면서 다른 사람들과 친분을 맺었던 것입니다.

● 교회는 하나의 생활 방식이며 우리 자신과 우리 자녀를 위하여 여러 조직과 융화 및 발전 기회를 확립했으며 이것은 이 세상이 부러워하는 것입니다. 사랑이 많은 지도자와 교사들이 온화함, 안정, 활동, 음악, 극장 활동, 체육 활동을 제공하며, 우리가 구세주를 사랑하는 방법을 배우고 또 그분처럼 되려고 노력하고 다른 사람을 위하여 봉사하도록 구세주의 가르침을 가르쳐 주기도 합니다. 우리의 만 일곱 살 된 손자 아이는 초등협회와 자기 아버지의 모범을 통하여 신약전서의 훌륭함과 축복을 알게 되어 늘 자신의 조그마한 신약 전서를 갖고 다니며 자주 읽습니다.

● 우리의 청녀 회원들은 신앙, 기도, 개인적인 합당함, 지식, 선택, 책임, 인격, 거룩한 성품, 선한 행위들을 그들의 생활에 도입하려고 노력하며 이 세상과 영원한 세상에서 자신이 맡을 미래의 역할에 관하여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있읍니다. 그들은 수많은 봉사 활동을 통하여 자신의 생활과 간증과 영향력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여 그들이 그리스도에게로 나아오도록 도와 줍니다.

몇 년 전 미쉬간주에서 한 젊은이가 말일성도 소녀와 사랑에 빠졌읍니다. 그 소녀는 자기 가정에 신권의 권세와 영원한 가족의 축복이 있기 원하며 자신에게 그런 축복을 줄 수 있는 사람하고만 결혼할 것이라고 분명히 그리고 깊이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남자에게 이야기했읍니다. 그녀가 받은 가르침이 뿌리내리고 신앙과 지식과 선택의 씨앗이 자라나 그것들이 참되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젊은이는 그녀의 영을 느끼고 복음에 대한 가르침을 받기로 동의했읍니다.

그가 복음이 참되다는 것을 깨닫자 부친이 그가 침례받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려고 했읍니다. 위대한 목자인 그 소녀의 감독님이 그 아버지에게 가서 그 젊은 여성과 그녀의 표준과 교회의 가치를 이해하게 해주었으며, 인생에서 정말로 중요한 것을 이해하게 해주었읍니다. 그 아버지는 침례식에 참석해서 약 이십 명의 교회 젊은이들을 본 그날 감동을 받았읍니다. 그는 침례식이 있은 다음 선교사들이 집으로 와서 복음을 가르쳐 달라고 했읍니다. 한 젊은 여성이 거룩한 성품을 발전시켜 이 소중한 진리를 다른 사람과 함께 나눌 수 있었던 것입니다.

● 그리고 우리의 청남은 실제로는 모든 남자는—하나님의 신권을 행사하는 방법을 배우는 그들은 어떻습니까? 전에 미쉬간 주지사를 지냈고 아메리칸 모터즈 사장을 지냈던 조지 롬니는 어떤 스테이크 대회에서 젊은 남성들에게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었읍니다.

"소년 여러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읍니다. 나는 경영대학교로부터 경영학에 관한 어떤 학위도 받아본 적이 없었읍니다. 내가 기업계에서 그 동안 성공한 것은 모두 다 이 교회에서 받은 훈련 덕택입니다."

최근에는 우리의 에즈라 태프트 벤슨 대관장님으로부터 그 자신의 생애와 소년들의 생애에서 교회의 가치에 관한 매우 소중한 한 가지 교훈을 배웠읍니다. 그는 결혼 초기에 소년단장으로서 우리의 청남을 가르치고 수많은 방법으로 그들과 함께 배우고 나누면서 여러 해를 보냈읍니다. 그리고 몇 달 전에 그가 인도했던 그 소년단원이 거의 모두 다 이 태버내클에 모여 섰을 때—이 교회에서 그들을 위하여 어떤 일이 행해졌는가 하는 증거로써—우리는 그 결과를 보았읍니다. 이 교회는 하나님의 도구입니다. 이것은 인간의 구원에 필수적입니다.

데이비드 오 맥케이 대관장님이 교회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에 귀를 귀울이십시오. "이 교회의 모든 면이 인간 가족의 복지에 적용될 수 있는 것 같이 보입니다. 신권 정원회를 생각할 때

그 조직 내에서 인류의 행복에 필수적인 형제애와 동지애를 발전시킬 기회를 보게 됩니다. 이런 정원회와 교회의 보조 조직에서 지적인 발전과 사회적인 효율성의 기회를 보게 됩니다. 교회의 재판 부분에서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고, 사회에 조화를 이루며, 정의를 실행하고, 사람과 단체 사이에 화평을 심는 방법을 풍부히 보게 됩니다. 교회 조직 내에서 이 세상의 다른 어떤 조직에서도 볼 수 없는 사회 복지를 위한 기회를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와 그의 교회가 인생에서 나의 이상이며 영감이 됩니다. 나는 이것이 인간이 추구할 수 있는 가장 높은 이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세상의 다른 어떤 것도 영혼의 닻으로써 그리스도의 교회에 근접할 수 있는 것은 없읍니다."(*생의 보화*, 클레어 미들미스 편, 솔트레이크시티 : 데저렛 출판사, 1962년, 3~4페이지)

이제 나는 내 음성을 들으시는 모든 분에게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여러 가지 축복을—이 교회의 중요하고 영원한 축복과, 그 프로그램 및 활동과, 봉사하고 한마음 한뜻이 될 기회와 구세주께서 약속하신 화평을 찾으시도록 권고하고 싶습니다. 대관장단에서는 어떤 이유로든 교회를 떠난 모든 사람에게 돌아오도록, 집으로 오도록 초대했는데 이것은 여러분이 필요하고 우리가 여러분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주님과 그의 교회가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족을 영원히 축복해 줄 것입니다.

우리 모두 큰 열의와 진정한 의도를 가지고 그의 교회에서 봉사할 모든 기회를 다 붙잡도록 합시다. 그렇게 하는 것이 바로 영혼을 키워 주고 완전케 하고 거룩하게 해주는 것입니다. 1829년 2월에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교회에서 어떻게 봉사할 것인가 하는 영과 마음을 사로잡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하나님의 사업에 종사하는 자들아, 마지막 날에 하나님 앞에 흠없이 설 수 있도록 너희 온 마음과 정성과 생각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라."(교성 4 : 2)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이 교회는 주님의 교회입니다. 이 교회에 속하는 것은 우리의 높은 특권입니다. 우리가 주님이 의도하신 그런 참된 영을 갖고 다른 사람들과 함께 열심히 주님의 축복을 구하는 일에 참여할 수 있기 바랍니다. 나는 이 교회가 참되며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처럼 되도록 돕기 위한 하나님의 도구임을 내 영혼의 모든 힘을 다하여 알고 있다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멘.

"세상에서"

엘 톰 페리 장로
십이사도 정원회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우리의 의로운 생활과 공의로운 대업을 위한 봉사와 궁극적으로는 선이 악을 이기리라는 신앙으로 인하여 이 세상을 더 나은 장소로 만듦으로써 공헌할 수 있기 바랍니다."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터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세상에서 나의 택함을 입은 자인고로"(요 15 : 19)

우리는 구세주의 가르침으로부터 교회에서 흔히 이야기하는 "세상에 살되 세상에 속하지 않는다"는 말을 채택하여 왔읍니다. 보통 우리가 이 말을 사용할 때에는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너무나 횡행하는 죄와 물질주의로부터 멀리할 필요성을 강조하게 됩니다. 물론 이것은 중요하며 우리는 자신의 생활을 주님의 율법과 일치시킬 것을 계속해서 상기해야 합니다. 그러나 오늘 나는 그 표현의 첫번째 부분인 "세상에 살되"라는 말에 대하여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와서 지상 생활의 경험을 하는 특권을 향유하는 곳은 "이 세상"입니다. 우리가 시험과 시련을 받는 곳은 "이 세상"입니다. 다음 세상에서 우리의 생활을 결정할 거룩한 구원 의식에 참여할 기회를 갖는 곳은 "이 세상"입니다. 우리가 봉사하고 인류에게 공헌할 기회를 갖는 곳은 "이 세상"입니다. 구세주께서 오셔야 하는 곳은 이 세상입니다.

이 세대의 우리 예언자들은 우리가 이곳 "세상에" 있는 동안 우리의 의무에 대하여 유념하도록 권고해 오셨읍니다. 데이비드 오 맥케이 대관장은 이렇게 말씀하셨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세상의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하리라는 것을 세상에 보여 주는 책임은 그런 주장을 하는 사람에게 있읍니다…나는 또 세상의 모든 문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원리에 순종함으로써 해결될 수 있다는 것을 믿습니다…

"세상의 큰 문제에 대한 해결책은 이곳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 내에 있읍니다. 개인의 필요 사항뿐 아니라 민족과 여러 민족의 그룹을 위한 규정이 충분히 만들어져 있읍니다. 나는 이것이 위대한 주장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있읍니다…이것은 단순히 세상의 제반 문제에 하나님의 계획을 적용시키는 것입니다. 신권을 소유하고 계시는 여러분은 교회 역사상 과거 어느 때보다도 더 세계 역사에서 창의적인 이 순간에 살기 때문에 오늘날 더 큰 책임을 안고 있읍니다. 다시 반복해서 말씀드립니다. 만일 우리가 진리를 갖고 있다고 주장한다면 그대로 생활하여 세상 사람들이 나무의 열매를 맛보라는 요청에 응하여 올 때 그 열매가 싱싱하고 좋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모든 말일성도의 의무입니다.

"주님은 오늘날 세상이 갈구하는 바로 그것을 우리가 소유하고 있다는 것을 세상 사람들에게 입증하도록, 또 그들이 그것을 보게 될 때 여러분과 내가 알고 있는 것처럼 영원한 복음이 세상의 빛이라는 것을 알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 주십니다."(*복음 이상*, 솔트레이크시티 : *임프르브먼트 이라*, 1953년, 5페이지)

"세상에" 살았으며 자신의 의로운 생활을 통하여 세상에 영향을 미친 사람의 전형적인 모범이 구약전서에 있읍니다. 이스라엘 출신 사람이 세상에 많은 공헌을 할 가능성은 거의 없는 역사적인 시점에 이 젊은이의 탄생이 이루어졌읍니다.

주전 975년에 솔로몬 왕이 죽은 후 열 지파가 모반을 일으켜 스스로 유다의 지파로부터 떨어져 나갔읍니다. 분열된 이스라엘은 그 지역의 다른 세력에 대항하여 자신을 지킬 능력이 없었읍니다. 애급과 앗수르가 번갈아가며 이스라엘 땅을 휩쓸었읍니다. 주전 607년에 앗수르 본토와 북부 지역이 메데스의 손에 떨어졌으며 수리아는 바벨론 사람들에게 함락되었읍니다.

이런 분쟁이 계속되는 시기는 애급이 팔레스타인 사람을 공격하기에 적절한 시간 같이 보였읍니다. 바벨론 왕은 그의 아들 느부갓네살을 보내 애급인을 몰아내게 했읍니다. 애급인에 대한 전쟁이 격렬하게 펼쳐지는 사이에 왕이 죽고 느부갓네살이 바벨론의 통치자가 되었읍니다. 그는 애급과 싸워 이기고 애급 국경까지 수리아 전역의 통치자가 되었읍니다. 그는 적을 불과 검으로 짓밟으며 그들을 자기 제국 내의 다른 지역으로 추방하여 약화시키면서 공포 정치를 했읍니다.

다니엘이 태어난 것은 바로 이렇게 전쟁으로 갈가리 찢어진 시기였읍니다. 그가 어렸을 때 그와 몇몇 다른 히브리인이 느부갓네살의 궁전으로 끌려가 왕을 섬기게 되었읍니다. 그들이 선택된 것은 그들의 지혜와 지식과 배우는 능력 때문이었읍니다. 그러므로 다니엘은 이상한 풍습과 이상한 환경과

전혀 색다른 종교적인 유산을 물려받은 이국 땅으로 끌려갔읍니다.(단 1 참조)

다니엘이 "세상에" 거하는 데 있어서 첫번째 시험은 느부갓네살의 신하가 그에게 그의 포도주를 마시고 "왕의 고기"를 먹도록 명했을 때 닥쳤읍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진미와 그의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였읍니다.(8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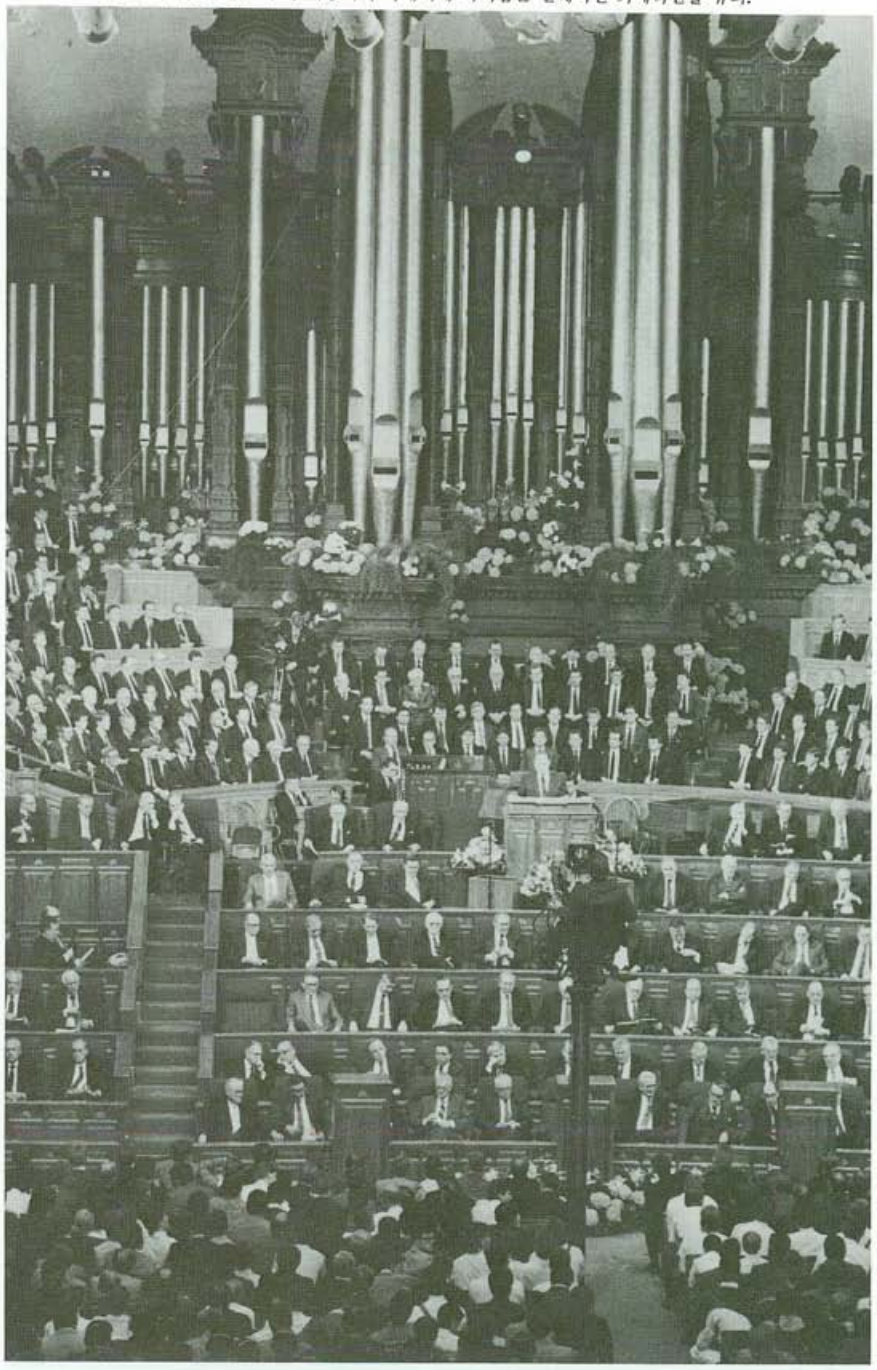
그 신하는 이 젊은이들을 훈련시키는 책임을 왕으로부터 받았으며 그들이 다른 사람들과 똑같이 먹고 마셔야 한다는 명을 왕으로부터 받았다고 주장했읍니다. 만약 그렇게 하지 않으면 왕은 그들이 약해지고 여위는 것을 보게 되어 틀림없이 그 신하를 사형에 처할 것이라고 말했읍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자신이 받은 건강 법칙을 그와 그의 동료들이 따르도록 허락해 달라고 간청했읍니다. 그는 열흘 동안 입증할 기간을 주도록, 즉 열흘 동안 그들이 곡식과 물만 섭취하고 그들이 나머지 모든 사람들보다 더 건강해지지 않는지 보도록 요청했읍니다.

다니엘의 전략은 참으로 흥미롭습니다. 그는 바벨론 사람들의 믿음에 도전하지 않았읍니다. 오히려 그는 어느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인가 하는 것에 관하여 시험을 하도록 자원했읍니다. 그 신하는 그 시험에 동의했읍니다. 그 다음 열흘 동안 다니엘 및 그와 함께 하는 사람들은 그들이 먹고 마셔야 한다고 알고 있는 것만 먹고 마셨읍니다. 열흘이 끝나는 날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은 나머지 모든 사람들보다 더 건강하고 튼튼한 것으로 나타났읍니다. 다니엘은 곧 자신이 "세상에" 있을 때 다른 가치 기준을 채택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읍니다.

나는 여러 해 전에 젊은 이사로서 직업상 여러 가지 사업 단체에서 주최하는 만찬회에 참석했던 것이 기억납니다. 만찬회에는 언제나 사교 시간이 먼저 있게 마련입니다. 나는 이런 환경에서는 매우 불편하게 느꼈읍니다. 처음 한두번 만찬회에 참석한 이후로는 그 사교 시간에 빠지기 위하여 늦게 참석하기 시작했읍니다. 우리 사장은 내가 사업계 지도자들과 친분을 맺는 소중한 시간을 놓치기 때문에 그것이 좋지 않다고 생각했읍니다. 그러나 나는 손에 술을 들지 않고 있는 유일한 사람으로 그러한 단체에 참석하는 것이 여전히 어색하게 느껴졌읍니다. 내 손을 어떻게 처신해야 하는가 하는 의문을 계속해서 품고 있었읍니다. 한 손을 항상 주머니에 넣어 둘 수 있으나 양손을 모두 다 주머니에 넣고 있으면 바보 같이 보입니다. 사이다 잔을 들고 있는 것을 시도했으나 그것은 꼭 알코올성 음료 같이 보였읍니다.

마침내 나는 바텐더에게 가서 알코올성 음료와 분명하게 다르게 보이는 음료수가 있느냐고 물었읍니다. 그는 부엌으로 가서 약 500cc의 우유를 갖고 와서 잔에 부어 주었읍니다. 칵테일 시간에 우유를 붓는 것은 매우 독특한 일이었읍니다. 그로 인하여 모든 사람의 관심이 쏠리게

신권 모임 중의 태버내클 정면. 수력 기중기의 꼭대기에 자리잡은 텔레비전 카메라맨을 유의.



되었으며 나는 굉장히 많은 농담의 표적이 되었읍니다. 처음에는 당황했지만 마침내 그로 인해 내가 이전의 모임에서 보다 더 많은 사업 지도자들을 만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읍니다. 내가 선택한 직업에서 활동적이고 공헌하는 일원이 되기 위하여 교회의 표준을 위반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읍니다. 나의 가치관을 굳건히 고수했기 때문에 성공하게 되었을 때가 더욱 많았읍니다.

곧 그 지역 사회에서 사교 모임이 있을 때는 항상 바아 위에 우유를 한 통 가져다 놓는 것이 관례가 되었읍니다. 시간이 흐름에 따라 그 함께 하는 시간 동안 내가 아는 사람들 가운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나처럼 우유를 한 잔씩 마시는가 하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읍니다. 나는 다니엘처럼 이 세상에서 색다르게 되는 것으로 인하여 재미있는 반응을 불러일으켰지만 주님의 율법에 순종하는 것은 언제나 그분의 축복과 연관이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읍니다. 이것이 바로 교리와 성약에 담겨 있는 그 계시에서 전하는 메시지가 아닙니까?

"무릇 창세 이전부터 변경될 수 없게 선포된 하늘의 율법이 있어 모든 축복은 이에 근거를 두나니,

"우리가 어떠한 축복을 하나님으로부터 얻을 때에는 그것이 근거를 두고 있는 율법을 순종하였음으로 얻게 되는 것이니라."(교성 130 : 20~21)

우리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뿐 아니라 하늘에 계시는 우리 아버지의 모든 자녀에게 복음을 선포할 책임에 관하여 가르침을 받아 왔읍니다. 다시 교리와 성약에서 다음과 같은 것을 읽게 됩니다.

"인간의 가치가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큼을 기억하라.

"회개한 자를 보시는 주의 기쁨은 얼마나 크겠느냐!

"그런고로 너희는 이 백성에게 회개를 외치도록 부름을 받았느니라.

"만일 너희가 온 생애 동안 이 백성에게 회개를 외쳐 단 한 사람이라도 내게로 이끌어 오면 저와 더불어 나의 아버지의 왕국에서 맛볼 너희 기쁨은 얼마나 크겠느냐!

"만일 너희가 나의 아버지의 왕국의 내게로 데려 온 단 한 사람으로 인한 기쁨이 그처럼 클진대 많은 사람을 내게로 데려 오게 될 때면 너희 기쁨은 얼마나 더 크겠느냐!"(교성 18 : 10, 13~16)

만일 우리가 우리의 교회 친구의 영역을 벗어나서 다른 사람에게 기꺼이 손을 뻗치지 않는다면 어떻게 이런 기쁨을 경험할 수 있겠읍니까. 우리는 필멸의 경험을 하는 동안 "세상에"삽니다. 복음이 가르치는 기독교의 원리는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에 있어서, 또 모든 사람 사이에서 필요합니다.

우리의 교제 관계로부터 우리가 발산할 수 있는 영역의 영향으로 우리는 이 세상에서 가치있는 공헌을 할 수

있읍니다. 한 가지 의로운 모범은 다른 사람을 주님이 설정하신 표준대로 생활하도록 끌어들일 수 있읍니다. 주님이 이곳 필멸의 상태에 있는 그의 자녀의 행동을 위하여 설정하신 이 표준은 영혼을 복음의 빛으로 데려 오고 다른 사람들은 교회에 들어오지 않을지라도 일부는 교회에 가입하게 하는 원천이 될 수 있읍니다.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은 개인적인 결정입니다. 우리는 항상 개인의 권리를 존중하고 이해하지만 만일 우리가 바깥으로 자신의 영향력을 뻗치지 않는다면 주님이 그의 자녀를 이곳에서 다스리기 위하여 선포하신 의로운 원리를 세상이 받아들이도록 어떻게 기대할 수 있겠읍니까.

우리 정부에 성실의 표준이 얼마나 필요한지 모릅니다! 우리 지역 사회에 고상함을 측정할 표준이 얼마나 필요한지 모릅니다. 우리의 이웃 사람들에게 미와 순결의 모범이 얼마나 필요한지 모릅니다. 우리의 학교는 높은 교육 표준을 유지하기 위하여 지속적인 격려와 지원이 얼마나 필요한지 모릅니다. 이런 기관들이 가고 있는 방향에 대하여 불평하는 일에 시간을 보내는 대신 우리는 올바른 방향을 설정하는 데 있어서 우리의 영향력을 발휘해야 할 필요가 있읍니다. 소수에 의한 적은 노력이 모든 인류를 위하여 많은 유익을 가져 오는 결과를 낳을 수 있읍니다.

때로는 우리가 직면할 수 있는 반대 때문에 참여하기를 꺼린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다시 다니엘의 모범에서 "세상에" 있는 것에 따른 반대를 정면으로 마주쳤으나 주변 사람들에게 영원히 영향력을 미칠 수 있었던 것을 압니다. 다니엘의 재능이 왕에게 인정받게 되자 그는 신뢰받는 자문에 응하는 신하가 되었읍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외부인이 획득한 지위에 대하여 질투하여 그를 제거하려고 했읍니다. 그들은 다니엘이 영원하신 아버지이신 하나님에게 기도하는 것을 막을 새로운 법을 고안해 냈읍니다. 이 법을 어길 때 따르는 벌은

사자의 굴에 던져지는 것이었읍니다. 다니엘이 기도하는 것이 발각되어 그 벌이 집행되었읍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다니엘의 신앙으로 인하여 사자들이 그에게 아무런 해를 끼치지 않았읍니다.

다니엘에게는 그의 신앙대로 생활하는 것에 대한 끊임없는 도전이 주어졌을지라도 자신에게 닥친 그런 갈등보다 더 위로 올라갈 수 있었읍니다. 그가 봉사할 때 주님이 그를 축복하시고 보호하셨읍니다.

다니엘의 봉사가 그 왕에게 유익이 되었을 뿐 아니라 다니엘이 주님을 믿었던 신앙으로 인하여 그 나라 전체에 영향을 미쳤읍니다. 왕은 그 왕국의 모든 백성이 다니엘이 예배하는 하나님 즉 참되고 살아 계신 하나님을 경배해야 한다는 선언을 했읍니다. 자신이 살고 있던 "세상에서" 봉사하면서 너무나 많은 사람에게 영향을 미친 한 의로운 사람의 봉사의 힘이 얼마나 강했읍니까? 만일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서" 자신의 개인적인 방법으로 계속해서 봉사한다면 우리의 봉사의 결과는 얼마나 효과적이 되겠읍니까?

우리가 주님을 믿고 또 정말로 의를 반대할 세력에 대하여 염려하지 않기 위하여 필요한 신앙을 갖게 되기를 기원합니다. 우리가 진리의 대업을 위하여 앞으로 나아갈 용기를 갖게 될 것을 기원합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우리의 의로운 생활과 공의로운 대업을 위한 봉사와 궁극적으로는 선이 악을 이기리라는 신앙으로 인하여 이 세상을 더 나은 장소로 만듦으로써 공헌할 수 있기 바랍니다.

우리가 종사하고 있는 이 사업은 주님의 사업이라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여러분에게 증거합니다. 아멘.

그가 살아나셨느니라

하워드 더블류 헌터 회장
십이사도 정원회 회장 대리

"부활은 모든 기독교인의 신앙의 중심이 됩니다. 그것은 세상의 구세주께서 행하신 가장 위대한 기적입니다."

이 아름답고 성스러운 부활 주일에 어떤 교리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희생과 실제로 부활하심보다 더 훌륭한 설교의 주제가 되고 더 큰 찬양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은 없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연중 어느 절기에나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기독교 경전에 있는 어떤 교리보다도 하나님의 아들의 부활의 교리는 모든 인간에게 더욱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를 통해서 모든 인간—이제까지 이 세상에 태어났고 또한 앞으로 태어날 모든—에게도 부활이 이루어졌읍니다.

우리 교리에서 부활의 큰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들 많은 사람들이 그 영적인 중요성과 영원한 위대성을 충분히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인식했다면 우리는 니파이의 동생 야곱과 같이 훌륭함에 경탄했을 것이며, 이 거룩한 은사를 받지 못한 경우를 당했을 상황에 놀라 떨었을 것입니다. 야곱은 이렇게 썼읍니다.

"오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하심이여, 보라 만일 육체가 다시 일어나지 못할진대, 우리의 영은, 영원하신 하나님의 면전에서 타락하여 악마가 된 천사에게 속박되어 함께 악마가 되며 다시는 일어서지 못할 것임이라."(니파이이서 9 : 8)

분명히 부활은 모든 기독교인의 신앙의 중심이 됩니다. 그것은 세상의 구세주께서 행하신 가장 위대한 기적입니다. 그것이 없다면 우리는 참으로 아무런 희망을 갖지 못하게 됩니다. 바울의 말씀을 빌려 봅니다.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우리의 전파하는 것도 헛 것이요…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거하였음이라…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고리도전서 15 : 13~15, 17)

성지에서의 마지막 장면이 벌어지던 시대로 되돌아가 봅니다. 우리 주님의 지상 생활의 끝이 가까왔읍니다. 그는 병자를 고치시고 죽은 자를 살리셨으며 그분 자신의 죽음과 부활에 관한 예언을 포함한 경전을 해석하셨읍니다. 그는 그의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읍니다.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기우매 저희가 죽이기로 결안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 주어 그를 능욕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박게 하리니 제삼일에 살아나리라"(마태복음 20 : 18~19)

예루살렘에서 사두개인들이 그에게 와서 부활에 관해 그에게 질문했읍니다. 그들은 그를 함정에 빠뜨리려 모함했으나, 그는 살아 있는 복음의 단순한 진리를 그들에게 가르쳤읍니다.

"하나님이 너희에게 말씀하신 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것을 읽어 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하시니

"무리가 듣고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더라"(마태복음 22 : 31~33)

후에 그들이 유월절을 지키고자 모였을 때 예수와 그의 제자들은 그가 마지막 만찬을 함께 들면서 시작하신 성찬의 상징물을 들었읍니다. 그리고 그들은 감람산으로 갔읍니다.

언제든지 끝까지 선생님이셨던 그분은 희생양을 주제로 말씀하셨읍니다. 그는 자신이 도살장에 끌려 가는 양 같이 될 것이며, 그들은 목자잃은 양 같이 흩어질 것이라고 말씀하셨읍니다.(마태복음 26 : 31 참조)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마태복음 26 : 32)고 구세주는 말씀하셨읍니다.

그 이후 여러 시간 동안 그는 핏방울을 흘렸으며, 그의 율법의 관리자로 자처하는 바로 그 지도자들에게 심판을 받고 도적의 무리와 함께 십자가에 달리셨읍니다. 몰몬경에서 베냐민왕은 이같이 예언했읍니다. "그는 시험을 받으며 육신의 고통과 주림과 갈증을 겪으며, 이러함으로 기력이 진하시리니, 죽음은 아닐망정 이토록 인간이 감당치 못할 온갖 고난을 겪으시어, 보라 주의 백성들의 간악함과 가증함으로 인한 큰 고뇌로 하여 온몸의 땀구멍에서 피가 흘러 나오리라…

"보라 저가 자기 백성에게로 오시매…구원이 인간에게 이르며, 그가 이 모두를 행하시고 나서도 인간들은 그를 사람이라고 생각하여 더러운 귀신에 들렸다 말하며 저를 치며 드디어 십자가에 못박으리니,"(모사이야서 3 : 7, 9)

우리는 주님의 고난받으신 정도를 우리에게 알려 준 예언자 앨마에게

여러 나라로부터 온 방문자들이 이어폰을 사용하여 자국어로 통역되는 대회 말씀을 듣고 있음

감사드립니다. "그가 세상에 나가 고통과 고난을 겪으며 온갖 시험을 당하시리니, 그가 이렇게 하심은 인간의 질병과 고통을 대신하리라는 말씀을 이루시기 위함이라.

"또한 그는 그의 백성을 얽어 맨 죽음의 사슬을 푸시려 죽음을 당하실 것이요, 육신을 입은 인간의 연약함을 취하시어 자비로 가득 차게 하시리니, 육신을 입은 인간들의 연약함을 육신을 가지고 구해 내는 길을 아시려 함이었느니라."(앨마서 7 : 11~12)

생각해 보십시오! 그의 육신을 십자가에서 떼어 빌린 무덤에 급히 뉘였을 때, 죄없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은 회개하는 모든 인간의 죄와 유혹만이 아니라 온갖 병고와 슬픔과 고통까지 짊어지셨읍니다. 우리가 육신에 따르는 고난을 겪는 것처럼 그분은 이러한 고난을 당하셨읍니다. 그는 우리를 지상의 모든 고난에서 떼어 내시고자 그의 자비와 능력을 완전하게 하기 위해 이러한 것을 겪으셨읍니다.

그러나 속죄가 완전해지기 위해서는 깨뜨려야 할 사슬이 아직 남아 있었읍니다. 그것은 죽음의 띠였읍니다. 구약의 예언자들은 부활은 확실히 있을 것이며 보편화될 것이라고 가르쳤읍니다. 또한 몰몬경의 예언자들도 부활의 교리를 지극히 분명하게 가르쳤읍니다. 니파이는 이렇게 썼읍니다.

"보라, 저들이 그를 십자가에 못박을 것이나, 무덤에 뉘인 지 사흘 만에 그의 회복의 능력으로 죽음에서 일어서시리니, 그의 이름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의 왕국에 구원받으리라."(니파이이서 25 : 13)

레이맨인 사무엘은 니파이인들에게 이렇게 예언했읍니다.

"보라, 구원을 이루게 하시려 저가 분명히 죽으셔야 하며, 죽은 자의 부활을 이루게 하시어 인간을 주의 면전에 이끌어 가려 하심에, 의당 저가 죽으셔야 하고 또한 죽으심이 마땅하니,"(힐라맨서 14 : 15)

에녹은 인자가 오신 날을 시현으로 보았읍니다.

"주께서 에녹에게 이르시되, 보라, 하시기로 그가 보매, 인자가 인간이 하는 대로 십자가 위에 달리셨더라.

"또 큰소리를 들었는데, 하늘이 가리워지며 하나님의 모든 피조물이 애통하며 땅이 신음하며 바위가 쪼개지며 성도들이 일어나 인자의 우편에서 영광의 면류관을 쓰더라.

"또 옥에 있던 많은 영들이 나와서 하나님의 우편에 서며 남은 자들은 큰 날의 심판이 있을 때까지 암흑의 사슬에 매여 있더라."(모세시 7 : 55~57)

삼일째 되는 날이 밝아 오기 시작했을 때,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는 생명이 끊긴 그분의 육신이 뉘어 있던 무덤으로 왔읍니다. 그보다 앞서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빌라도에게 가서 무덤의 입구에 보초를 둘 것을 권유했읍니다. "그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도적질하여 가고 백성에게 말하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 하면"(마태복음 27 : 64) 그러나 힘센 두 천사가 무덤 입구에서 돌을 굴렸고 보초들은 그것을 보자 겁에 질려 달아났읍니다.

무덤에 온 여인들은 무덤이 열리고 텅 빈 것을 보았읍니다. 천사들은 남아 있다가 인간이 귀로 들어 본 가장 큰 소식을 그들에게 말해 주었읍니다.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의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마태복음 28 : 6)

예수의 부활에 이어 곧 의인의 부활이 있었읍니다. 마태는 그것을 기록했읍니다.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후에 저희가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마태복음 27 : 52~53)

부활하신 이후에 주님은 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나셨읍니다. 그는 다섯 군데의 특별한 상처를 그들에게 보여 주었읍니다. 그는 그들과 함께 걷고 말하고 식사도 했읍니다. 마치 부활한 육신은 사실상 만질 수 있는 살과 뼈의 육신임을 확실히 증거해 주시는 듯했읍니다. 후에 그는 니파이인들에게 나타나 이렇게 명했읍니다. "너희는 일어나 내게로 와서 너희의 손을 나의 옆구리에 넣어 보고, 내 손과 발의 못자국을 만져 보아 내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요, 세상의 죄를 위하여 죽임을 당한 온 땅의 하나님임을 알라.

"이에 무리가 앞으로 나아가 손을 주의 옆구리에 넣어 보며, 그 손과 발의 못자국을 차례대로 한 사람씩 만져 보고 나서, 저들의 눈으로 보며 친히 만져 보아 진실로 저가 예언자들이 오시리라고 기록한 그분이심을 알아 증거하였으니,(니파이삼서 11 : 14~15)

온 세상 사람들이 "예언자와 사도들이 전한 예수께 이를 구"하여(이더서 12 : 41) 그의 거룩하심에 대한 영적인 증거를 갖는 것은 모두의 책임이요 기쁨입니다. 그것은 성령의 음성을 듣고자 겸손히 구하며 아버지와 부활하신 아들에 대한 증거를 갖고자 하는 모든 사람에게 주어지는 권리요 축복입니다.

온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증거를 전하도록 부름받고 성임된 나는 그가 살아 계심을 이 부활 절기에 간증드립니다. 그는 영화로운 불멸의 살과 뼈의 육신을 가지셨읍니다. 그는 하나님 아버지의 독생자로 육신을 입으셨읍니다. 그는 구세주이시며, 세상의 빛과 생명이십니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후에 그는 부활하신 몸으로 마리아와 베드로와 바울과 그 밖의 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나셨읍니다. 그는 니파이인들에게 친히 나타나셨읍니다. 그는 어린 소년 예언자 요셉 스미스와 우리 경륜의 시대의 많은 사람들에게도 나타나셨읍니다. 이 교회는 그의 교회입니다. 그는 그의 예언자 에즈라 태프트 벤슨을 통해 오늘날 그의 교회를 인도하십니다. 이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증거합니다. 아멘.

토요일 오후 모임 1988년 4월 2일

교회 역원 지지

토마스 에스 몬슨 부대관장
대관장단 제2보좌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이제 나는 총관리 역원과 교회 본부 역원들의 명단을 발표하여 여러분의 지지를 묻겠읍니다.

우리는 에즈라 태프트 벤슨 대관장을 예언자, 선견자, 계시자로 또한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대관장으로, 고든 비 힝클리 형제를 대관장단 제1보좌로, 토마스 에스 몬슨 형제를 대관장단 제2보좌로 지지할 것을 제의합니다.

찬성하시는 분은 그 뜻을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시는 분은 그 뜻을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매리온 지 롬니 형제를 십이사도 평의회 회장으로, 하워드 더블류 헌터 형제를 십이사도 평의회 회장 대리로, 십이사도 평의회 회원으로 매리온 지 롬니, 하워드 더블류 헌터, 보이드 케이 패커, 마빈 제이 애쉬튼, 엘 톰 페리, 데이비드 비 헤이트, 제임즈 이 파우스트, 닐 에이 맥스웰, 러셀 엠 넬슨, 댈린 에이치 옥스, 엠 러셀 밸라드, 조셉 비 워스린 형제를 지지할 것을 제의합니다.

찬성하시는 분은 그 뜻을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시는 분은 그 뜻을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대관장단 보좌와 십이사도를 예언자, 선견자, 계시자로 지지할 것을 제의합니다.

찬성하시는 분은 모두 그 뜻을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시는 분이 계시면 같은 방법으로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앞으로 5년의 임기 동안 봉사할 칠십인 제일 정원회의 새로운 회원으로 로버트 에드워드 섹클리, 래리 리오넬 켄드릭과 현재 구성되어 있는 총관리 역원을 지지할 것을 제의합니다.

찬성하시는 분은 그 뜻을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시는 분은 그 뜻을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드왠 제이 영 자매는 카나다 캘거리 선교부장으로 부름받은 남편을 동반할 부름을 받아들였읍니다. 따라서 그녀를 본부 초등협회 회장직에서 해임합니다. 우리는 또한 그녀의 보좌인 버지니아 비 캐넌 자매와 미쉘린 피 그래슬리 자매 그리고 그외의 모든 본부 초등협회 임원을 해임합니다.

이 자매님들이 부름을 헌신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한 것에 대해 감사를 표시하시는 분은 모두 손을 들어 그 뜻을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미쉘린 피 그래슬리 자매를 본부 초등협회 회장으로, 제1보좌에 베티 조 넬슨 젭슨 자매, 제2보좌에 루스 브로드벤트 라이트 자매를 지지할 것을 제의합니다.

찬성하시는 분은 그 뜻을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시는 분은 그 뜻을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외에 현재 구성되어 있는 모든 총관리 역원과 본부 역원을 지지할 것을 제의합니다.

찬성하시는 분은 그 뜻을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시는 분은 같은 방법으로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벤슨 대관장님, 만장일치로 찬성 지지가 된 것 같습니다. 새로 지지받은 총관리 역원과 본부 초등협회 회장단은 단상에 있는 좌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감사 위원회 보고서

보고자 : 윌포드 지 에드링
교회 감사 위원회 위원장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 대관장단에게

교회 및 교회 운영 조직의 일반 기금의 영수와 지출에 대한 합당한 관리를 평가하기 위해서 우리는 1987년 12월 31일자로 마감된 1년 동안의 교회의 예산, 회계 및 감사 체제, 이와 관련된 재정 결산 명세서 그리고 기금 영수와 지출 관리 방법을 검토하였읍니다.

연간 교회 본부 기금은 대관장단의 승인을 받아 예산 절차에 따라 지출되었읍니다. 이 예산은 대관장단과 십이사도 평의회와 관리 감독단으로 구성되는 십일조 지출 평의회의 승인을 받습니다. 지출 위원회는 주례 모임에서 그 예산에 따라 중요한 지출을 집행합니다.

교회의 본부 기금 계정은 교회의 빠른 확장과 다양한 활동에 뒤지지 않고 따라가기 위해서 현대식 회계 기술과 장비를 사용하고 있는 재정 기록부가 맡고 있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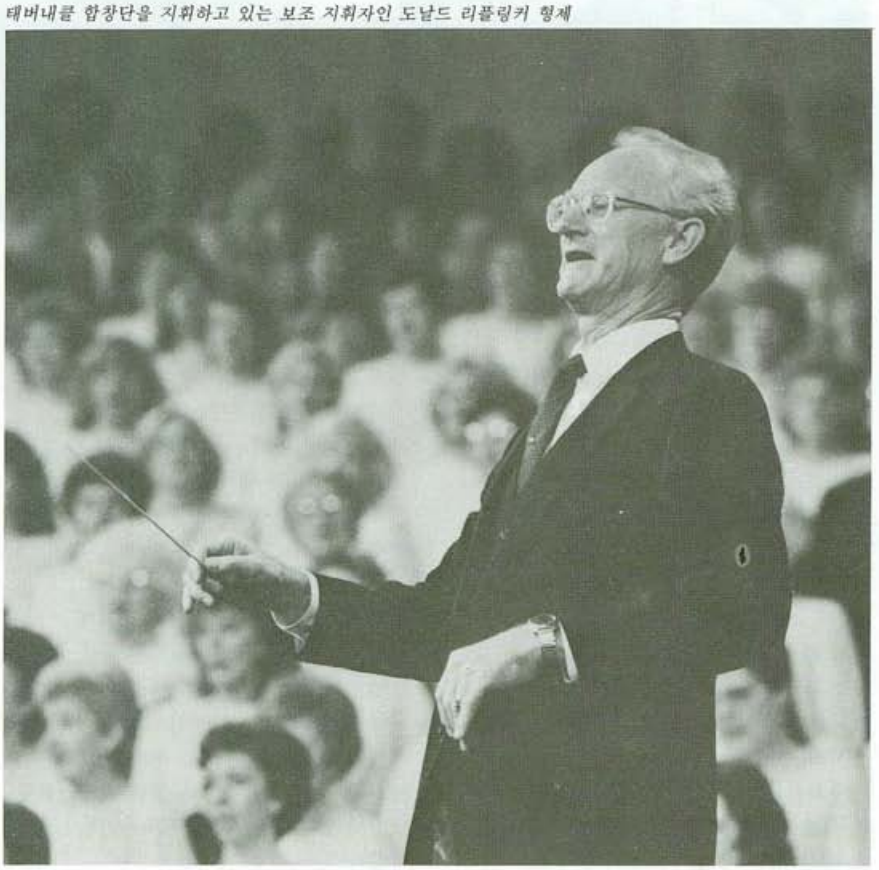
교회의 다른 모든 부서로부터 독립되어 있는 감사부는 자격을 갖춘 공인 회계사와 이와 유사한 자격의 감사자로 구성되어 있으며 재정 감사, 운영 감사, 교회가 채택하고 있는 컴퓨터 체제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 있읍니다. 이러한 감사 업무는 교회의 각 부서와 전세계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교회 운영 조직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실시되고 있읍니다. 여기에는 선교부, 학교, 관리 본부 및 각 부서의 활동이 포함됩니다. 교회 자원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데 있어서 교회의 성장과 광범위해지는 활동을 수용하기 위해 교회 감사부 업무의 규모와 범위가 확장되고 있읍니다.

와드와 스테이크의 지역 기금에 대한 감사는 스테이크 감사자가 실시합니다. 감사 절차는 교회 감사부가 제정한 것이며, 감사 보고서는 교회 감사부에서 검토합니다. 교회 재정 기록부가 회계에 대한 책임을 자고 있지 않는 교회 소유 및 교회 운영 재단 법인 사업체는 교회 내의 감사자, 독립된 전문 감사 기관이나 정부 감사 기관이 감사합니다.

교회 내의 재정 관리 체제에 대한 우리의 조사에 의거하여 재정 기록부와 감사부 책임자들이 함께 계속해서 토론한 결과 우리는 예산, 회계 및 감사 관리가 교회의 필요 사항과 목적을 위해 합당하게 처리되었으며 1987년 12월 31일자로 마감된 1년 동안 영수하고 지출한 교회의 본부 기금이 모든 면에서 현재 제정되어 있는 교회의 정책과 절차에 따라 관리되고 회계 처리되었다고 확신합니다.

여러분의 진실한 형제
감사 위원회
윌포드 지 에드링
데이비드 엠 케네디
워렌 이 퓨
메릴 제이 베이트먼
테드 이 데이비스

태버내클 합창단을 지휘하고 있는 보조 지휘자인 도날드 리플링커 형제



1987년도 통계 보고서

보고자 : 에프 마이클 왓슨
대관장단 서기

대관장단은 교회 회원들에게 알리기 위해 1987년 12월 31일 현재 교회의 발전과 현황에 관한 다음과 같은 통계 보고서를 발표하였다. (회원 수는 대회 전까지 입수한 1987년도 보고서를 토대로 산출한 것임)

교회 단위 조직

스테이크 수 1,666
지방부 수 379
선교부 수 205
와드 수 10,907
스테이크 산하 지부 수 2,812
선교부 산하 지부 수 2,287
와드 또는 지부가 조직되어 있는 주권 국가의 수 97
와드 또는 지부가 조직되어 있는 자치령, 식민지 및 영지의 수 25
(본 통계는 1987년 한 해 동안 44개의 스테이크와 617개의 와드 지부가 증가했음을 보여 줌)

교회 회원

1987년 말 현재 교회 회원 총 수 6,440,000

1987년의 교회 성장

기록상의 자녀 증가 수 99,000
침례받은 기록상의 자녀 수 75,000
침례받은 개종자의 수 227,284

선교사

복음 선교사 34,750

작년 4월 이후 한 해 동안 작고한 유명 회원

프랭클린 디 리차즈 장로, 칠십인 제일 정원회 회원; 카밀라 아이어링 킴볼, 스펜서 더블류 킴볼 대관장의 미망인; 엘바 테일러 카울리, 십이사도로 작고한 매튜 카울리의 미망인; 알렉산더 슈라이너, 53년간 태버내클 올갠 반주자로 봉사함; 루이스 더블류 맷슨, 전 본부 상호부조회 회장단 보좌.

태버내클 합창단을 지휘하고 있는 보조 지휘자인 도날드 리플링커 형제

우리의 주님이요 구세주

데이비드 비 헤이트 장로
십이사도 정원회

"우리가 우리 구세주의 비할 데 없는 사랑과 우리의 개인적인 죄를 위해 기꺼이 고통당하심을 조금이라도 느끼고 감지한다면… 우리가 지은 모든 죄를 회개할 것입니다."

나는 여러분에게 오늘 말씀드릴 준비를 하면서 하나님의 축복을 간구했읍니다.

신약의 마태의 기록에는 좋든 나쁘든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찌니…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라고 하신 구세주의 말씀이 있읍니다.(마 7 : 16~20 참조)

마이클 왓슨의 연례 보고 낭독에서 확인된 것처럼 새로운 회원 수가 증가되어 조직마다 신권 소유자와 자매의 수가 많아져 스테이크와 와드가 더 증가하게 되었으며, 선교사 수의 증가로 더 많은 새로운 선교부를 만들게 되어 전 세계적으로 성장과 확대가 계속되어 옴에 "어두운 데서 이끌어 내어 온"(교성 1 : 30) 이 사업을 주께서 확인하시고 인도해 준다는 사실에 내 영혼이 뜨겁게 달아 오름을 느꼈읍니다.

이 교회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이며 참으로 그에게 합당한 열매를 맺고 있읍니다. 교회 회원들의 신앙으로 인해 그리고 더 많은 사람들이 복음의 원리를 배움으로써 진리와 희망과 구원의 귀중한 가르침을 찾으며 "하나님의 전하신 말씀으로 양육되어 이를 바르게 지키며… 저들의 신앙을 이루어 주…시는 이이신 그리스도의 공덕만을 의지"(모로나이서 6 : 4)하기 때문에 계속 성장해 나갈 것입니다.

우리 교회 밖에서는, 세속적인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처럼 끊임없이 확대되어 나가는 것에 놀라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는 언젠가는 그들도 성도들이 생명처럼 귀중하게 간직하며 그들이 확고한 신앙으로 지키는 복음 진리의 쇠막대를 굳게 잡는 데서 오는 기쁨과 행복을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칠흑 같은 어두움을 헤치고 새날의 여명이 밝아 오듯이 복음의 빛이 계속해서 밝아짐을 봅니다. 그것은 계속해서 새로운 개척지로 퍼져나가 "주의 음성은 만민에게 미치며 한 사람이라도 피할 자가 없"고 "꿰뚫리지 아니할 마음도"(교성 1 : 2 참조) 없으리라고 요셉 스미스에게 주어진 계시를 확인합니다.

복음은 고난에 찬 세상에 새 생명과, 새 희망과, 새롭고 알려지지 않은 거룩함을 가져다 줍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 사업이 성장하고 증가하여 바다 물결이 해안가로 밀려오듯이 막을 수도 없이 점점 더 퍼져 나감을 봅니다.

오늘이 펼쳐지기까지 계속된 이 기적들을 보면서 나는 이 현상을 예수를 전파하고 있는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을 대제사장들과 사두개인들이 그들에게 그리스도를 말하거나 가르치지 못하도록 감옥에 가두었던 사도행전의 기록에 비추어 봅니다. 그러나 주님의 천사가 감옥 문을 열어 주었고 그들은 사람들을 가르치기 위해 다시 성전으로 갔읍니다. 그들이 다시 사도들을 감옥에 넣으려 할 때 바리새인 교법사 가말리엘이 공회를 중단시키고 말했읍니다 :

"…이 사람들을 상관 말고 버려두라 이 사상과 이 소행이 사람에게로서 났으면 무너질 것이요

"만일 하나님께로서 났으면 너희가 저희를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하니

"저희가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 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떠나니라"(사도행전 5 : 38~41)

참으로 그리스도의 특별한 증인으로 부름받은 사람들은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와 그분의 십자가에 달리셨음을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아니"했읍니다.(사도행전 5 : 42 참조)

초기의 사도들은 오늘날 우리가 그러하듯, 두려움없이, 인류에게 하나님의 아들이신 우리의 구세주를 믿고, 회개하게 하는 복음의 원리를 가르쳤읍니다 — 회개하고 그들의 죄사함을 위한 침례를 받으며 그들에게 복음의 더 높은 의식을 수행할 준비를 시키는 성신을 받도록 했읍니다. 그들 초대 사도들은 진리를 추구하는 자들에게 성신이 그들에게 임하여 그들의 마음이 기쁨으로 가득하면 그것이 하나님께로서 왔는지 인간에게서 온 것인지 그들 스스로 알게 되리라고 분명히 말했읍니다.

진리의 영은 인간을 의로움으로 인도하나 우리가 우리의 영을 살아 있게 하려면 진리를 추구하는 마음을 가져야

하며 영적인 습관을 키우고 영적으로 느낀 점에 응해야 합니다. 지금이 시작할 시간이 아니겠읍니까?

영성이 발달한 사람도 깊이 고난받고 좌절감을 느낄 수 있으나, 그의 행위를 다스리는 영적인 토대에서 솟아나는 힘으로 인해 친절과 사랑을 계속해서 보여줄 수 있고 니파이가 말한 대로 "새로운 방언을 말하고" 장애물과 좌절감에도 불구하고 최선을 다하도록 자신을 격려합니다.

나의 소망은 고대의 사도들과 같이, 진리와 의의 대업을 돕고,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에 대한 간증을 더하는 것입니다.

내일은 부활절입니다! 기독교인들은 어느 곳에서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념할 것입니다. 기념일은 정확하지 않을 수도 있으나 부활절기는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시는 그리스도의 무한하고 영원한 속죄를 연구하고 반영시키도록 우리에게 영감을 주어야 합니다. 무덤에서의 예수의 부활은 인류에 대한 가장 영화로운 메시지입니다.

나는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말일성도로서 나는 온 마음을 다해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우리는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께 나아와 온전하게 되기"를 권하며 모로나이는 "경건하지 아니한 모든 것을…부인하라"고 말했읍니다. (모로나이서 10 : 32) 솔직하게 우리는 그 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세상의 구세주이심을 말씀드립니다.

이 경륜의 시대의 첫번째 예언자인 요셉 스미스는 이렇게 말씀했읍니다 :

"우리는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성신을 믿는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속죄를 통하여 온 인류가 복음의 법과 의식을 지킴으로써 구원받을 수 있음을 믿는다."(신앙개조 1 : 1, 3조)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오셔서 아담의 타락으로 세상에 오게 된 육신과 영의 죽음에서 벗어나고, 그의 무죄한 피를 흘림으로써 모든 인류가 불사 불멸의 몸으로 부활하고, 그의 계명을 믿고 순종하는 자들은 영생을 얻게 됨을 믿습니다.

몰몬 청소년 합창단을 지휘하고 있는 로버트 시 보우덴 형제

구원은 어느 시대에나 같은 조건과 상황하에서 이루어집니다. 인간은 그를 믿는 신앙을 갖고 죄를 회개하며 그의 이름으로 침례받고, 성신의 은사를 받고, 영생을 얻기 위해 굳건히 서야 합니다.

주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것들을 전파하도록 모든 시대의 모든 인류에게 거룩한 선지자들을 보내셨으며 그분은 오늘날에도 그러십니다. (모사이야서 3 : 13 참조)

몰몬경의 예언자인 베냐민왕은 주님께서 보내신 천사에게서 그의 백성들도 "기쁨으로 충만케" 되도록 그리스도께서 태어나시기 백여년 전에 메시아의 오심에 관한 것을 전하라는 가르침을 받았읍니다. (모사이야서 3 : 4 참조) 이 거룩한 예언자는 말했읍니다.

"보라 때가 이르러…과거나 현재나 영원 무궁토록 다스리실 전능하신 주님께서 하늘로부터…인간들 가운데 내리시어…

"그는 시험을 받으며 육신의 고통과…죽음은 아닐망정 이토록 인간이 감당치 못할 온갖 고난을 겪으시어…주의 백성들의 간악함과 가증함으로 인한 큰 고뇌로 하여 온 몸의 땀구멍에서 피가 흘리 나오리라.

"저는 하나님의 아들, 태초로부터 만물을 지은 창조주…예수 그리스도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보라 저가…오시매…그의 이름을 믿는 신앙으로 말미암아 구원이…이르며…인간들은 그를 사람이라고 생각하여…저를 치며…십자가에 못 박으리니

"그렇게 한 후 사흘 만에 저가 죽은 자 가운데서 일어나시어"(모사이야서 3 : 5, 7~10)

베냐민 왕은 그리스도께서 인류의 죄를 대속하시어 세상을 심판하실 것임을 시현을 통해 알았읍니다. 실제의 증인이었던 신약의 기록자들은 베냐민 왕의 예언의 말을 이렇게 간단히 확인했읍니다.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매달리신 다음

날, 동이 트기 전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가 신선한 유향과
몰약을 준비하여 예수의 무덤으로 가
보고 돌이 굴려져 있는 것을 보았읍니다.
안에 들어가 살펴 보았으나 시신이 없는
것을 안 그들은 급히 베드로와 사도들을
찾아가 그들이 본 것을 사실대로
말했읍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즉시로
무덤으로 달려 갔읍니다. 요한이 그보다
나이 많은 동반자를 제치고 달려
갔읍니다. 몸을 굽혀 놀라 말을 못한 채
빈 무덤을 들여다 보았읍니다. 베드로는
들어가 예수의 시신이 뉘었던 곳에 놓여
있는 수의를 보았읍니다. 요한이 그를
따라 들어왔읍니다.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후에 그리스도가 실제로
부활하셨다는 확실한 지식이 될 소망이
그들에게 싹텄지만 아직 아무도 그를
보지 못했읍니다. 이상히 여긴 사도들은
그들의 형제들에게 되돌아갔읍니다.

마리아가 무덤가에 남아 입구에서
슬퍼하고 있을 때 누군가가
다가왔읍니다. 동산지기로 생각한 그녀는
그에게 주님을 어디에 뉘었느냐고
물었읍니다. 예수는 그녀에게
"마리아야"(요한복음 20 : 16)
하셨읍니다.

예수는 몸소 그녀 앞에 서 계셨으나
그녀가 전에 알고 있었던 모습은
아니었읍니다. 그분은 부활하여 영화롭게
되셨읍니다. 그녀는 그때서야 주님을
알아보고 그분을 붙들려 했을 것입니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읍니다. "나를
만지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못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의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잔뜩 놀란채, 그녀는 급히 그 말에
순종하여 미래의 모든 세대에 희망을 줄
영화로운 메시지를 그대로 전하고
부활하신 주님을 본 자신의 개인적인
말을 직접 덧붙였읍니다.(요한복음
20 : 1~18 참조)

"부채가 청산되고 구속이
이루어졌으며, 성약이 이루어지고 공의가
만족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다"고
존 테일러 대관장은 기록했읍니다. "또한
모든 권능이 하나님의 아들의 손에
주어졌으니 부활의 권세요 구속의 권세요
구원의 권세이다" 하고 그는
덧붙였읍니다.(*중재와 속죄*[솔트레이크시티 : 데져렛 뉴스사, 1882], 171페이지)

그리스도께서 지상의 성역을 베푸시기
수백 년 전에 예언자 이사야는 시온의
설립과 참된 하나님이신 여호와에 대하여
예언했읍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이사야서 53 : 4~5)

즐겨 부르는 성찬 찬송에 들어 있는
깊이있는 가사가 구세주에 대한 마음속
깊이 느끼는 감사를 표현합니다.

죄의 대가 다르게 치를 수 없으니
우리 들어오게 하려 하늘 문 여시네
우리 사랑해 주심 같이 우리도 사랑하니
구속의 피흘림 믿고 주님 일하리라.

우리 주님의 영원한 권고의 말씀을
다시 드립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요한복음 14 : 15)

하나님의 율법에 충실하고 순종하는
사람들에게는 헤아릴 수 없는 축복이
약속되었읍니다. 일단 인간이 그가 받은
빛과 지식에 참되고 순종한다면 그는
그에게 주어진 것을 사용하는 능력을
발전시킬 뿐만 아니라 더 많은 지식을
받는 능력이 증가하게 되는 데, 이는
그가 그 은사를 이해하고 감사하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순종함으로써 순종을 배웁니다.
우리는 그 열매를 봅니다. 반만 마음을
내어 순종하는 것은 보상을 받지
못합니다. 복음은 원리에 따라 생활하는
데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의 온 마음과
능력과 힘과 있는 지혜를 다해
봉사하라고 명하십니다.

우리의 구세주께서는 우리에게 "그러나
날마다 어느 때든지 네 서약을 의롭게
바쳐야 하느니라"(교성 59 : 11)고
가르치십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구세주의 비할 데
없는 사랑과 우리의 개인적인 죄를 위해
기꺼이 고통당하심을 조금이라도 느끼고
감지한다면 우리는 게으름을 그치고
과거를 깨끗이 하며 우리가 지은 모든
죄를 회개할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우리의
생활에 질서를 세우며 우리의 영혼을
살피고 크든 작든 우리의 죄를 회개함을
의미할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이웃을
사랑하고 모범적인 생활로 훌륭한 남편과
아내가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모범과 계율로써 우리 자녀들을 진실과
성실의 길을 걷도록 가르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는 일에서
정직하며 온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과 사랑으로 가난한
사람을 돕는 것을 포함한 다른 사랑에
대한 봉사를 의미합니다.

우리 모두 주님의 말씀에 충분히
순종함으로써 주님을 알고 사랑하여,
그가 지상 생활을 한 마지막 밤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신 귀중한 말씀, 곧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임을
듣고 많은 축복받은 무리에 속하게
되기를 바라며, 그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증드립니다. 아멘.

아는 것으로부터 오는 확신

안헬 아브레아 장로
칠십인 제일 정원회

하나님에 대한 참된 지식은 "우리에게 용기와 힘을 주며 상황이나 외부 요인에 관계없이 그리스도와 그의 복음에 대해 간증하도록 결심하게 합니다."

어느 여행자가 초라한 오두막 문가에 앉아 있던 농부에게 물었읍니다. "금년 목화 농사는 어떻겠읍니까?"

농부가 대답했읍니다. "없을 것입니다. 벌레가 귀찮아서 재배를 안했읍니다."

이 말을 듣고 여행자가 다시 물었읍니다. "그러면 옥수수는 많이 거두시겠군요?"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비가 안 올까봐 안 심었어요" 하고 대답했읍니다.

여행자는 잠시 생각하더니 다시 물었읍니다. "그렇다면 감자 수확은 좋겠군요?"

"아니오, 하나도 없읍니다. 벌레 때문에 심지 않았읍니다."

실망과 함께 약간 조급한 마음으로 여행자가 물었읍니다. "그러면 도대체 심은 것은 무엇입니까?"

"없읍니다. 근심하는 것보다 편안한 것이 낫거든요" 하고 대답했읍니다.

농부가 한 대답은 두려움과 확신 부족에서 오는 그릇된 안일의 좋은 예입니다. 그것은 불확신과 혼란에서 야기되는 안일로서 분명히 혼란되고 왜곡된 상상의 안전함을 말해 줍니다.

분명 이것은 이 세대를 괴롭히는 폐단의 하나입니다. 즉 행하지 않는 것의 안전함, 존재하지 않음의 안전함이 그것입니다. 그것은 구세주께서 지적하신 무익한 종의 쓸데없음(마태복음 25 : 30 참조), 열매를 맺지 못한 무화과 나무(마태복음 21 : 19~22 참조), 빛을 발하지 않는 등불(누가복음 11 : 33~36 참조), 맛을 잃은 소금(누가복음 14 : 34~35 참조)의 무가치에 관한 폐단과 똑같은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잘못된 행동을 그릇된 현실 감각과 일치시키기 위해 개념을 변경시키신 법이 없었읍니다. 그는 중립이나 애매한 것을 줄이고 위선과 상식 밖의 행동을 드러내기 위해 늘 개념을 분명히 해주셨읍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심판을 받을 수 있도록 표준을 정해 주셨읍니다.

그는 우리 모두에게 살고 행동하는 방법을 분명히 보여 주는 모범적인 삶을 사셨으며 이렇게 말씀하셨읍니다. "내가 너희에게…본을 보였노라"(요한복음 13 : 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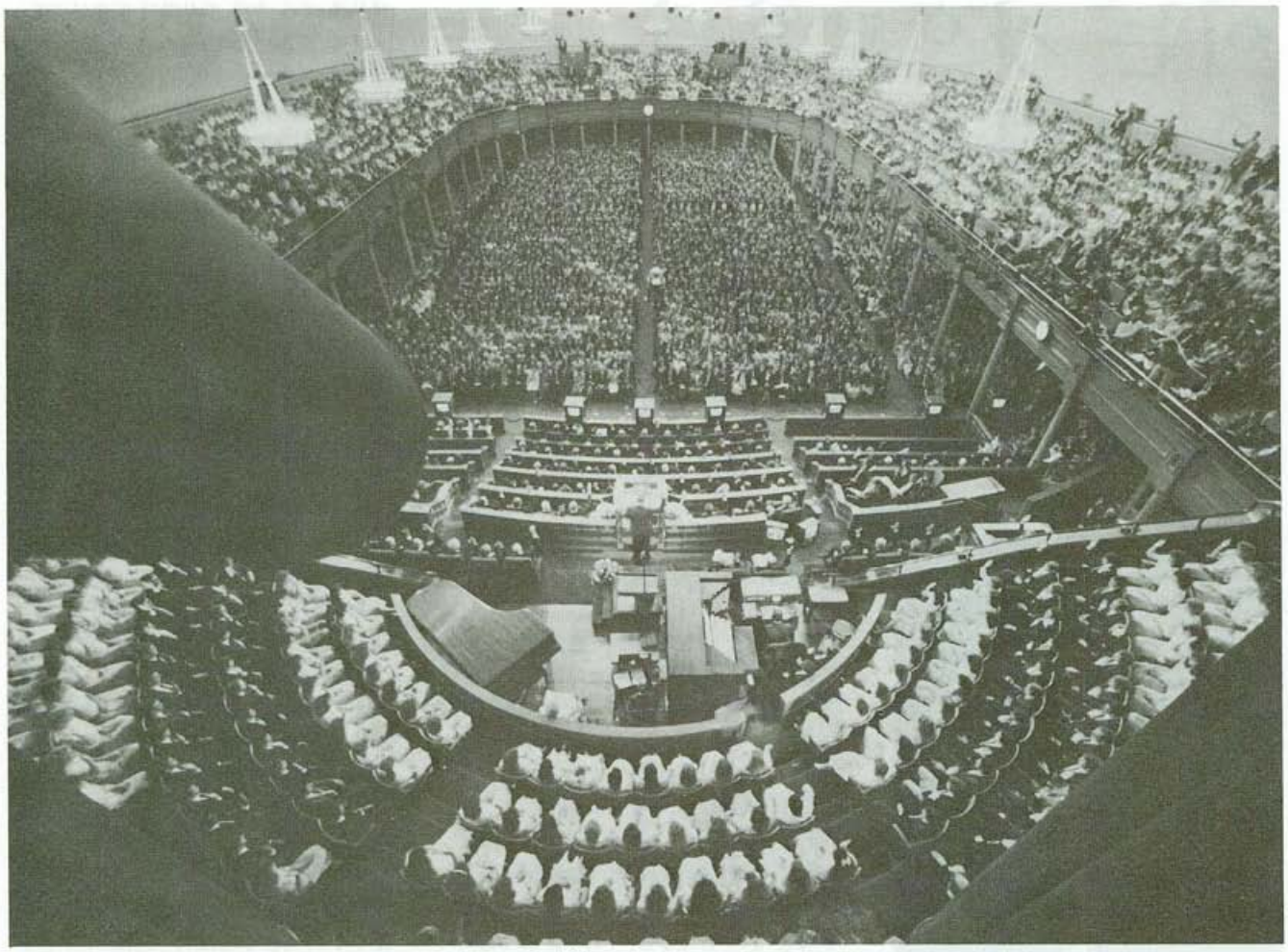
방금 들려 드린 농부의 이야기에서처럼 오늘날 세상에는 많은 사람들이 두려움 때문에 자신 속에 정신적인 허수아비를 만들어 놓고는 결국 이 허수아비를 실재의 존재로 믿습니다. 이런 방법으로 그들은 거짓 원리 위에서 자신의 생활을 영위해 나갑니다. 그들의 생각이 옳지 않다는 것은 그들에게는 그다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생각은 자신을 두려움으로부터 방어하기 위해 파놓은 참호이며 진리를 쫓아버리기 위해 벌이는 소요입니다. 예를 들면 안정의 "허수아비"는 참된 안전의 혼란되고 왜곡된 모조품으로서 실재와는 전혀 다른 측량의 개념을 갖고 그들이 원하는 대로 행동하고 다른 상황을 달아 보게 하는 환상인 것입니다.

진리에 대한 이해가 이처럼 왜곡되는 상황하에서 계시를 통해 "그리스도의 이름을 받들며 진지하게 진리를 이야기하라"(교성 18 : 21)는 임무를 받은 말일성도는 부정확한 개념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자신있고, 당당하게 나설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충실한 교회의 회원은 복음에 대한 확고한 간증과 성신으로부터 계시를 통해 받은 우리가 종사하는 일의 신성함에 대한 확실한 지식으로부터 오는 깊은 확신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입니다.

"죽을 때까지 어느 때 어느 곳에서나 범사에 하나님의 증인이 되"(모사이야서 18 : 9)기 위한 이 확신과 확고한 결심은 정신적인 허수아비에 익숙해 있는 자들에게는 교만한 자존심으로 보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안전과 헛된 것에 대한 자만심을 간증과 혼동하는 것은 그들 마음에 들어오는 영의 속삭임을 허락치 않는 자, 니파이가 말한 바와 같은 경험을 하지 못한 자들에 의한 이해 부족인 것입니다. "주님께 간구하였노라. 보라 주께서 내게 임하사 나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셨으매 부친께서 하신 말씀을 모두 믿었던지라."(니파이일서 2 : 16)

그러므로 대개의 경우 문제는 씨를 뿌리는 자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씨가 뿌려지는 토양에 있으며 흔히 불안정한 사람들이 자신감있는 사람들에게 도전하는 것은 그의 자신감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비교에 의해서 스스로의 불안정이 확실하기 때문입니다.



오르간 파이프 가운데 높이 능인 원격 조정 카메라가 일반 대회 동안 대버내클 내부의 이 흥미있는 장면을 보여 준다. 사진 왼쪽에 나온 물체는 빛 고정기임

중요한 점은 불안정의 원인을 찾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충실한 회원들이 어떻게 하여 삶에서 그처럼 깊은 확신을 갖게 되는지 그 이유를 찾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훌륭한 예는 예언자 요셉 스미스였읍니다. 그는 자신이 겪고 있는 박해에 대한 이유를 찾고 있었지만 시현의 진실성을 간증했읍니다.

"나는 실제로 빛을 보았으며 그 빛 가운데 두 분이 계신 것을 보았고 그분들은 실제로 나에게 말씀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비록 내가 시현을 보았다고 말하여 미움과 박해를 받는다 할지라도 이것은 사실 그대로이며 내가 이런 말을 하여 사람들이 욕하고 핍박하고 나에 대하여 모든 거짓으로 말할 때 나는 마음 속에 왜 저들은 내가 사실을 말하는데 나를 핍박할까 마음속으로 말하지 않을 수 없었읍니다. 나는 실제로 시현을 보았는데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거역할 수 있으며 왜 세상이 나로 하여금 내가 참으로 본 것을 부인하도록 하는 것일까? 나는 분명히 시현을 보았읍니다. 나는 그 사실을 알고 있으며 하나님도 알고 계심을 내가 알고 있기 때문에 나는 이 사실을 부인하지 않았읍니다. 또한 그러한 행동은 하나님을 거역하는 일이며 정죄받는 일인 줄을 분명히 알고 있었읍니다.

"나는 이제 세상의 교파적인 문제에 관한 한 마음에 만족을 얻었읍니다"(요셉 스미스—2 : 25~26)

그가 시현의 실재를 "나는 그 사실을 알고 있으며 하나님은 알고 계심을 내가 알고"있다고 말한 것보다 어떻게 더 잘 표현할 수 있었겠읍니까?

이처럼 강력하고 확고한 간증, 높은 곳으로부터 온 이 지식으로 인해 예언자가 설명한 바와 같은 확신이 왔읍니다. 요셉 스미스도 그가 알고 있음을 하나님께서 알고 계시다는 사실을 아는 확실한 지식을 갖고 있는데 어찌 다른 일이 있을 수 있었겠읍니까?

이것이 자만입니까? 분명히 아닙니다. 이것은 아는 것으로부터 오는 확신입니다. 이것은 성신을 통해 "네게 와서 네 마음 가운데 거할"(교성 8 : 2) 확실한 지식인 것입니다.

이것은 사업의 신성함에 대해 간증하도록 해주는 영의 권세로 변화를 입은 충실한 말일성도의 삶에 나타나는 확신입니다. 그것은 앨마가 백성들에게 회개를 외칠 때 경험한 것과 똑같은 개심, 똑같은 권세, 똑같은 영입니다. 그는 사람들에게서 허수아비를 제거하며 이렇게 말했읍니다. "너희는 바로 내가 스스로 이러한 일을 안다고 생각하지 않느냐? 보라 내가 말한 이 모든 것들이

사실임을 아노라. 내가 어떻게 이러한 것을 확실히 알게 되었는지 너희가 알겠느냐?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성령으로 그것들이 내게 알려졌느니라. 보라 여러 날을 금식하고 기도하며 이러한 것을 스스로 알려 하였으매 이제 그것들이 참됨을 스스로 아나니, 주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내게 알게 하셨음이라. 이는 바로 내게 임한 계시의 영이었느니라."(앨마서 5 : 45~46)

세상은 이것을 자만이라고 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 왕국의 회원들, 즉 빌려 온 빛으로 살지 않고 이 사업이 참되다는 간증을 스스로 얻은 그들은 그것을 확신이라고 부릅니다.

그것은 간증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디모데후서 1 : 7)이라는 참된 지식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용기와 힘과 상황이나 외부 요인에 관계없이 그리스도와 그의 복음에 대해 간증하게 하는 결단력을 줍니다. 그러나 연약하고 불확실한 사람들이나 말일성도가 기독교인가에 대한 의문을 품고 있는 자들에게 이러한 상황이나 외적 요인들은 그리스도에 관해 알고 간증을 얻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됩니다.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충실한 회원에게서 보여지는 확신은 "도를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야고보서 1 : 22) 하는 자가 되지 않는 데서 비롯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에 관해 이야기하며 불확실한 자가 하듯, 하나님의 말씀을 행동으로 옮기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교성 84 : 44)가려고 노력하는 결과입니다. 그것은 세상적인 것에 열중하여 오직 입술로만 봉사하는 수백 만의 사람들과는 달리 "온 마음과 정성과 생각과 힘"(교성 4 : 2)으로 가득 찬 수많은 선교사들이 이웃을 위해 봉사하게 하는 것은 바로 이 확신, 즉 확고한 간증입니다.

그렇다면 복음을 전하기를 결심하고 혼란되고 불안정한 사람들의 생각을 분명히 밝혀 주며 "인간에게 불사불멸과 영생을 가져다 주는"(모세서 1 : 39)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위대한 사업에 참여하려는 결정을 내릴 때, 우리는 베냐민 왕이 백성들에게 권고한 바와 같이 "하나님은 위대하시며 너희는 아무것도 아니며…스스로 지극히 겸손하며, 매일 주의 이름을 부르며…신앙을 굳게 지"(모사이야서 4 : 11)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누구든지 겸손하(지)…아니…(하)면 이 사업을 도울 수 없느니라."(교성 12 : 8)

일상 생활에서 합당한 행동을 취하지 않는 자에게는 누구에게도 위대한 보상이 보장되지 않으며, 하나님의 자녀가 가장 높으신 이로부터의 축복을 확신받을 길이 없읍니다. 주님의 축복은 선포된 율법에 순종할 때 오는 열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진리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 자랑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자존심은, 과연 그러한 것이 있다면, 영원히 감사하는 마음과 더불어, 진리를 활용하고 그것을 우리의 생활에 적용시키는 면에서 우러 나와야 합니다.

우리는 이 생을 살아가면서 가장 훌륭한 가르침에 주의깊고 참을성 있게 귀기울일 수도 있고, 아니면 위대하고 심오한 원리를 일상 생활에서 적용시켜 빛나게 하지 않고 곁에서 바라만 보는 구경꾼이 될 수도 있읍니다.

우리는 우리가 얻는 지식에 정비례해서 구원받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지혜가 없다면 단순한 사실의 축적은 결코 우리는 구원될 수 없을 것입니다.

지혜는 알리고 전시되는 것이 아니라, 구하고 소중히 간직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위해 기도해야 하며 우리가 얻은 지식에 따라 합당하게 생활하여 그것을 나타내 보여야 합니다. 변화와 개인의 재능과 숨겨진 자질의 개발은 우리가 얻은 지식을 실행으로 옮길 때 생깁니다.

그러므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삶을 어떻게 사느냐 하는 것입니다.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충실한 회원에게 있어 진리는 그 자체가 목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삶은 진리와 지식, 삶과 존재 간의 힘찬 관계를 끊임없이 추구하고 모범을 보이는 것입니다.

조셉 에프 스미스 대관장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순수한 예지는 지식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지식을 합당하게 적용시키는 능력까지도 포함하는 것입니다."(*복음 교리*, 54페이지)

구세주께서는 이 주제에 관해 분명하게 선포하셨읍니다. "내 교훈(교리)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교리)이 하나님께로서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요한복음 7 : 16~17)

말일성도가 일상생활에서 그들이 가르치는 바를 실행할 때, 간증에 대한 힘을 얻고 확신을 얻는 것은 바로 이 원리에서입니다.

온 세상에서 이 사업의 진실함을 간증하고 있는 충실한 모든 말일성도의 간증 위에, 나도 내가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에 순종과 충실한 삶을 통해 그리스도에게 나아오는 모든 사람들의 노력에 면류관을 씌우는 구원의 의식을 행할 권세가 있음을 하나님께서 아신다는 확신을 더하고 싶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멘.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더글라스 에이치 스미스 장로
칠십인 제일 정원회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는…오직 그의 아버지께 봉사하고 지상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영원한 사랑을 보이기 위해 애쓰셨읍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오늘 이 연차 대회에서 여러분과 함께 하게 된 특권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오늘 주님을 경배하고 지도자들로부터 가르침과 권고를 받기 위해 함께 모였읍니다. 우리는 감사드릴 것이 많이 있으며, 나의 마음은 아시아 지역에 있는 교회의 훌륭한 선교사 및 회원들과 함께 봉사할 수 있는 주님의 축복에 대한 감사로 가득 차 있읍니다. 아시아 지역에서의 주님의 사업은 세계의 다른 지역에서와 마찬가지로 날로 성장하고 번창해 갑니다.

주님께서 온 인류를 위하여 자신을 절대적인 희생물로 바칠 시간이 가까와 오자 그에게 다가오는 무리들에게 이렇게 질문하셨읍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나는 그 질문이 이 시대를 사는 나와 우리 모두에게 어떻게 적용되는가를 곰곰이 생각해 보았읍니다. 우리의 생활이 낱낱이 기록되고 우리는 그에 따라 심판을 받게 되는데 그렇다면 그 하늘의 기록은 이 시대를 사는 우리에 관해 어떤 것들을 말해 줄까 하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 이땅에 오신 하나님의 독생자로 받아들입니까? 니파이가 기록한 바와 같이 베냐민 왕은 이렇게 증거했읍니다.

힐라맨서를 읽겠읍니다. "오 나의 아들들아 너희는 베냐민 왕이 그 백성들에게 전한 말씀을 기억하고 다시 기억할지어다. 또한 너희는 장차 오실 그리스도의 속죄의 피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구원받을 수 없음을 기억하며 그리스도가 오시어 세상을 구속하시리라는 것을 기억하라."(힐라맨서 5 : 9)

하나님의 어린양은 세상을 구원하시고 가르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읍니다. 그는 사랑에 관한 율법을 가르치셨읍니다.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마태복음 22 : 37, 39)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요한복음 13 : 34)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는 세상적인 개인의 이익이나 영광을 구하지 않으셨읍니다. 그는 오직 그의 아버지께 봉사하고 지상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영원한 사랑을 보이기 위해 애쓰셨읍니다.

메시야는 장님을 보게 하고 귀머거리를 듣게 하고 병든 자를 고치셨으며 굶주린 자를 먹이셨읍니다. 그의 생애의 모든 행적은 깊은 내적인 사랑과 자비와 친절과 용서 그것이었읍니다. 가난하고 억압된 자들은 늘 그의 인자함을 받았으며 이 지상 생활의 종말이 왔을 때 그의 마음은 자신을 십자가에 달아맨 사람들에 대한 동정으로 가득했읍니다. 그는 아버지께 이렇게 기도드리셨읍니다.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누가복음 23 : 34)

세상의 역사에서 어둡고 두려운 날들이 다가오자 예수께서는 배신당하시고 붙잡혀 묶인 채 거짓 고소에 답변하도록 끌려 가셨읍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고소하기 위해 온 거짓 증인들과 더불어 그를 조롱했읍니다. 그들은 그를 때리고 비웃고 고통을 가했읍니다. 결국 눈을 가리우고 채찍에 맞으며 그는 잔인한 방법으로 조롱당했읍니다.

적대자들은 그의 생명을 취하려 했읍니다. 어떤 판결도 고소자들을 만족시킬 수 없었읍니다. 그들은 그의 흘림의 책임을 자신과 그 후손들이 지겠다고 했읍니다. 그들은 그를 묶은 채 빌라도에게로 데려 갔지만 빌라도는 그에게서 아무런 잘못도 찾지 못했읍니다. 그런 다음 그는 다시 헤롯에게 끌려 갔으나 그 역시 그에게서 아무런 죄를 찾지 못했읍니다. 시기와 악의로 가득 찬 그들은 그를 다시 빌라도에게로 끌고 갔읍니다. 세번째도 빌라도는 그를 정죄할 만한 적절한 이유를 찾을 수가 없었읍니다. 그는

대안을 제의하고 예수를 풀어 주려 했읍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두려워했던 자들에게서 그를 십자가에 못박으라는 끔찍스런 외침이 터져 나왔읍니다.

수세기에 걸친 예언자들의 예언 즉 하나님의 어린양의 희생은 그렇게 이루어졌읍니다. 자신을 변호하는 일체의 말씀도 없이 조용히 그는 우리를 위해 그의 목숨을 바치셨읍니다. 그를 통해, 그리고 그로 인해 우리는 축복된 불사불멸 즉 영과 육이 영원히 결합되는 부활을 할 수 있게 되었읍니다. 그의 계명에 순종하고 거룩한 의식을 받아들임으로써 우리가 영생을 얻을 수 있는 방편을 마련해 주셨읍니다. 그의 생애는 그가 아버지의 모든 자녀를 알고 계시다는 증거가 되었읍니다.

나는 거듭 묻겠읍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나는 주님께서 직접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고 물으셨을 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라고 대답했던 베드로와 똑같은 간증을 드리고 싶습니다. (마태복음 16 : 15~16) 나는 그가 세상의 구세주요 약속된 메시야이심을 여러분에게 간증드립니다. 나는, 주는 참으로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라는 베드로의 말씀을 거듭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특별 신권회 합창단이 토요일 오후 모임 동안 노래를 불렀다

또한 모든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에게로 나아와 그의 계명을 지키고 끝까지 참는 자에게 약속된 하늘의 축복을 받기를 권고합니다.

나는 오늘날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영감과 계시를 받는 살아 계신 예언자에 의해 인도된다는 것을 확신합니다. 나는 여호수아의 다음과 같은 말씀을 전적으로 지지하면서 말씀을 마치겠읍니다. "너희 섬길 자를 오늘날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여호수아 24 : 15) 우리의 구세주이신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멘.

"제가 기도하기 때문이예요"

글렌 엘 러드 장로
칠십인 제일 정원회

"단순한 기도에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큰 힘이 있읍니다."

내가 아론 신권을 지닌 소년이었을 때 우리는 정원회 모임에서 함께 일어나 다음과 같이 외치곤 했읍니다. "신권은 봉사를 의미한다. 신권 소유자로서 나는 봉사하겠다." 이것이 우리의 주례 맹세였읍니다. 그것은 정원회의 일부였읍니다. 우리 대부분은 신권을 존중하는 것이 교회에서 활동적이고 봉사를 해야 하는 것임을 이해하기 시작했읍니다.

그당시 우리는 테니스를 많이 쳤읍니다. 우리는 테니스 경기에서 서브를 잘하지 않으면 대개 진다는 것을 알았읍니다. 우리 신권 지도자들은 교회에서도 마찬가지라는 개념을 가르쳐 주었읍니다. 그들은 우리가 올바른 때에 올바른 방법으로 봉사하는 것을 배우도록 도와 주었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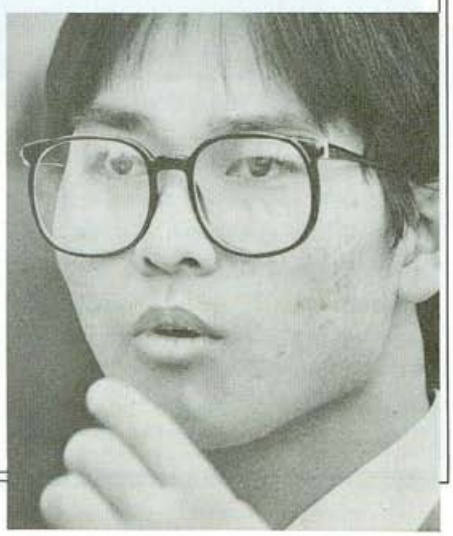
다른 사람과 주님께 봉사하는 것을 깨닫기까지 어떤 소년이나 성인도 완전히 신권을 소유했다고 볼 수 없읍니다. 권능을 가진 사람이 안수로써 신권을 부여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다른 사람에게 봉사함으로써 무엇인가를 하지 않는다면 그 신권은 우리 내부에서 잠자고 있는 것이며 별 가치가 없읍니다. 우리는 받은 부름을 영화롭게 하고 안에서 결코 실패해서는 안됩니다.

최근 몇 개월 동안 나는 모든 회원들이 단순한 복음의 교리를 단순하게 지켜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을 느끼도록 격려하고 도움으로써 가장 훌륭한 봉사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느꼈읍니다. 나는 복음이 단순하고, 명백하고 분명한 방법으로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을 강하게 느끼고 있읍니다. 나의 선교부장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아름답도록 단순하고 단순하게 아름답다고 가르쳤읍니다. 많은 사람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사랑스럽고 단순한 조건을 복잡하게 하려는 경향이 있읍니다.

기도보다 단순한 것은 없읍니다. 구세주께서는 지상에 계실 때 기도에 대한 모범을 보여 주셨으며 모든 사람에게 그의 발자취를 따르라고 명하셨읍니다. 우리가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살아 계시고 직접적인 방법으로 그분과 대화할 수 있다고 믿는다면 기도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아름답고 단순한 행동이 될 것입니다.

나는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신다는 강한 간증을 갖고 있읍니다. 우리는 그에게 감사를 드려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과 하늘에 계신 아버지 사이에 아무런 장애도 없는 그러한 방법으로 그분과 대화를 나누어야 합니다. 태초부터 주님께서는 지상에 있는 그의 자녀들에게 기도로 그를 기억하라고 가르치셨읍니다.

오래 전 어느날 아침 십이사도 평의회의 회원 한 분이 내 사무실에 찾아와 그날 일어났던 아름답고 감동적인 이야기를 들려주었읍니다. 그는 잠시 한증욕을 하기 위해 오래 된 데져렛 체육관으로 갔읍니다. 뜨거운 증기탕 속에 앉아 있을 때 문이 열리는 소리를 듣고 누가 들어오는가를 보려고 문가를 쳐다 보았읍니다. 그는 아무도 볼 수 없었지만 누군가 그 방안에 있는 느낌을 가졌읍니다. 잠시 후 그는 여덟이나 아홉살쯤 되어 보이는 초등협회 어린이가 가까이 앉아 있는 것을 보았읍니다. 소년은 사도에게 가까이 다가왔으며 그들은 서로 인사를 했읍니다. 소년은 좀더 가까이 다가와 교회 지도자의 얼굴을 들여다보았읍니다. "아저씨, 난 아저씨가 누군지 알아요." 사도가 물었읍니다. "그래 내가 누구냐?" 교회의 사도님이요. 큰 배, 작은 배, 그리고 여러 가지 비행기로 여행하시는 사도님이예요. 그리고 아프거나 사고가 나도 다치지 않는 분이시지요." 사도는 자신이 그러한 큰 경험을 했음을 알았읍니다. 소년이 다시 말했읍니다. "사도님이 왜 다치거나 사망당하지 않는지 아세요?" 사도가 말했읍니다. "글쎄다, 왜 그렇지?" 이 어린 초등협회 소년이 말했읍니다. *"그것은 제가*



사도님을 위해 기도하기 때문이예요."

신앙을 단순하고 아름답게 표현한 얼마나 감동적이고 아름다운 이야기입니까. 이 일은 40년 전의 일입니다. 그러나 나는 아직도 자주 그것을 생각해 봅니다. 단순한 기도에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큰 힘이 있읍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매일 그들이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의 지도자를 위해 특별히 우리의 예언자, 벤슨 대관장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나는 주님께서 모든 사람들의 단순한 기도를 들어 주신다는 확신을 갖고 있읍니다. 주님께서는 단순하고 명백하고 이해할 수 있는 신앙으로 기도하는 어린 소년들처럼 나이든 미망인의 기도도 들어 주심을 확신합니다. 나는 또한 위기를 당하여 급히 서둘러 드리는 간구보다는 충실한 자들의 진지하고 정규적인 기도를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더 잘 들어 주신다는 것도 알고 있읍니다.

주님께서 우리가 가족과 더불어 기도할 수 있는 용기를 갖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해 주시고 도와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부모가 자녀들을 모아 놓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기도를 드리는 특별하고 온화함을 느끼는 시간을 갖는 것보다 더 훌륭한 일은 없읍니다. 그보다 가족을 더욱 단합시켜 주는 것은 없읍니다. 그 아름다운 계명과 특권을 따르는 것보다 그분의 축복을 더 받게 해주는 것도 없읍니다. 가정에 자녀가 없는 분들도 동반자와 함께 기도하는 것은 훌륭한 것입니다. 혼자 사는 충실한 사람은 겸손하고 은밀한 기도를 통해 높이 들려지고 풍요로운 보상을 받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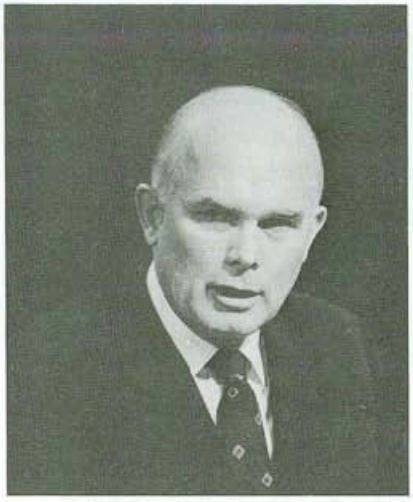
예수는 이렇게 말씀하셨읍니다.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마태복음 18 : 3)

단순하고 어린이 같은 신앙으로 그를 섬기고 단순하게 회개하고 용서하며 특별히 단순한 기도로써 분명하고 명백한 복음에서 나오는 힘과 권세와 아름다움을 누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 모두를 축복해 주시고 도와 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구합니다. 아멘.

항상 그를 생각하여

댈린 에이치 옥스 장로
십이사도 정원회

만일 우리가 진실로 구세주를 생각한다면 우리는 봉사하고 용서하며 그의 의식을 받고 고난을 견디며 병든 자와 고난받는 자를 보살피며 우리의 이웃을 사랑할 것입니다.



1830년 4월에 주님은 새로이 회복된 그의 교회의 회원들에게 "자주 모여 주 예수를 기념하기 위하여 빵과 포도즙을 먹고 마실"(교성 20 : 75) 것을 명하셨읍니다. 그는 약 이천 년 전에 이 의식을 소개하셨을 때에도 이와 같은 가르침을 주셨읍니다. 누가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읍니다.

"또 떡을 가져 사례하시고 떼어 저희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누가복음 22 : 19)

우리가 성찬을 취할 때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에게 항상 그의 아들을 생각할 것을 증거합니다. (교성 20 : 77, 79; 니삼 18 : 7, 11) 안식일마다 수백만 명의 말일성도들이 이 약속을 합니다. 우리의 구세주를 "항상 생각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생각한다는 것은 기억 속에 간직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감정이 강할수록 기억은 더욱 생생하고 강하게 됩니다. 몇 가지 예를 들어 보겠읍니다.

1. 우리는 대부분이 우리를 낳아 주시고 어린 시절에 잘 키워 주신 육신의 부모님에 대한 기억을 아주 분명하게 지니고 있읍니다. 이러한 기억은 세월이 흘러가도 흐려지지 않고, 지혜와 안목이 커가면서 점점 더 뜻깊게 됩니다. 나는 나이가 들어 가면서 나의 부모님에 대하여 더 자주 생각합니다. 나는 항상 그들을 생각할 것입니다.

2. 나의 아내가 첫 아기를 갖기 직전에 우리는 제왕절개 수술로 아기를 분만해야 하는 것을 알았읍니다. 나는 당시 브리감 영 대학교의 학생으로 학교와 직장을 다니며 쉴 틈이 없었읍니다. 한 시간에 1불이 좀 넘는 빈약한 수입으로 우리는 병원비를 댈 비용을 저축했었지만 이 놀라운 사실에 접하여 우리는 아무런 계획이나 생각도 준비되어 있지 않았읍니다. 우리는 제왕절개 수술이 무엇인지 알지도 못했으므로 몹시 걱정이 되었읍니다.

며칠 후에 우리는 그 시련을 맞았읍니다. 영원한 시간처럼 느껴진 시간이 흐른 뒤에 나는 병원 홀에 있는 창문가에서 우리의 첫 아기가 담겨 있는 바구니를 들여다 보았읍니다. 아이를 본 것과 사랑하는 동반자가 무사히 수술을 치러 냈음을 안 그 기쁨은 표현할 수 없을 정도였읍니다. 그 순간 나는 내 옆에 낯선 사람이 서 있는 것을 깨달았읍니다. 그는 자신은 수술을 집도하기 위해 솔트레이크시티에서 온 외과의 엔 프레드릭 힉큰 박사라고 소개했읍니다. 나는 의사의 비용이 우리 예산에 들어 있지 않았던 것을

본부 상호부조회 회장단. 왼쪽으로부터 : 제1보좌 조이 이반스 자매; 바라라 윈더 회장; 제2보좌 조안 독시 자매

상기하고는 그 비용을 얼마 후에 갚아도 되겠는지를 물었읍니다. "걱정말게, 젊은이" 하고 그는 친절하게 말했읍니다. "이것은 힉큰가에서 옥스가에게 바치는 것이라네" 내가 감사를 드릴 사이도 없이 그는 가버렸읍니다.

나는 이 예기치 못한 선물에 어리둥절했읍니다. 우리의 은인은 내가 어렸을 때 돌아가신 젊은 의사였던 나의 아버지를 아셨던 것 같습니다. 그는 저의 아버지가 하셨던 일로 인해 이런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었을 것입니다. 나는 우리가 위기에 처했을 때 우리에게 와서 아무런 보상도 받지 않은 채 내 사랑하는 가족들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 그의 힘을 발휘한 이 분의 선행에 놀라와 했읍니다. 그 순간의 감정은 그 기억을 잊지 못할 것이 되게 했읍니다. 그 의사의 이름은 나에게는 귀중한 것입니다. 나는 항상 그를 기억할 것입니다.

3. 얼마 전에 어떤 사람이 내가 한 일로 나를 칭찬해 주었읍니다. 그 칭찬을 받으면서도 나는 그것을 받을 자격이 없음을 알았읍니다. 그 명예는 내게 무엇을 하고 어떻게 그것을 해야 하는지를 가르치신 현명하고 훌륭한 선생님들에게 돌아가야 마땅한 것이었읍니다. 나의 선생님들은 잊지 못할 분들이었읍니다. 만일 선생님들이 내가 배우기를 원하도록 도와 주고 내가 알아야 할 것들을 나에게 가르쳐 주지 않았다면 내가 잃어 버렸을 것을 생각하면 지금은 몸이 떨립니다. 나는 언제나 선생님들에게 감사하고 그들을 기억할 것입니다.

이제 내가 이 분들을 항상 생각하게 되는 이유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항상 생각해야 하는 이유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이 세가지 예를 들었음을 확실히 알아야 합니다. 그 분은 우리의 창조주요, 구속주이시며 선생님이십니다.

우리의 창조주요 구속주요 교사이심

하나님 아버지의 지시와 계획에 따라, 그의 아들 여호와는 "하늘과 땅과 그 안에 만물을 지"(니삼 9 : 15)었읍니다. 그는 이 세상이 시작될 때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으며, 부활의 권세를 통하여 우리가 이 세상에서 죽은 후에 다시 살 수 있게 하실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 세상의 생명이 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속주이십니다. 아버지의 계획에 따라 그는 영적인 사망으로부터 우리를 구할 수 있는 속죄의 희생을 베푸셨읍니다. 기꺼이 바치심으로써 하나님의 독생자께서는 이 지상에 오시며 우리의 죄사함을 위해 귀한 피를 흘리셨읍니다. (교성 27 : 2)

우리의 창조주요, 구속주께서는 또한 우리의 교사이십니다. 그는 우리에게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셨읍니다. 그는 우리에게 계명을 주셨으며 만일 우리가 그것들을 따른다면 이 세상과 앞으로 올 영원한 세상에서 우리는 축복과 행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가 항상 생각해야 할 분은 우리에게 육신을 주신 분, 행복한 생활에 이르는 길을 보여 주신 분, 우리가 불사불멸과 영생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분이심을 압니다.

우리가 항상 그를 생각한다는 계명을 지킨다면 우리는 그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하도록 할 수 있읍니다. (교성 20 : 77, 79 참조) 그 영은 그를 증거할 것이며 우리를 진리로 인도할 것입니다.

그의 가르침과 그의 모범은 우리가 살아야 할 길로 우리를 인도하고 강화할 것입니다. 그 영향력은 "기억하려 노력하며 기억한다면 따르리라"는 이전의 유명한 노래의 가사에 잘 묘사되어 있읍니다. ("트라이 투 리멤버", 톰 존스 노래)

이제 나는 우리가 생각하고 따라야 할 그러한 가르침 몇 가지를 말씀드려 보겠읍니다.

부름받아 봉사함

"따르라"는 말은 구세주께서 그의 성역의 조력자를 부르실 때 사용하신 말씀입니다. 그가 갈릴리 바다를 걸으셨을 때 그는 일하고 있는 두 어부 시몬 베드로와 그의 동생 안드레를 보았읍니다. "나를 따라 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마태복음 4 : 19) "곧 그물을 버려 두고 좇으니라"(마가복음 1 : 18)

여기서 구세주께서는 그의 일을 하도록 부르신 사람들에 대한 모범을 보이셨읍니다. 그가 "내 자신의 음성이거나 내 종의 음성이거나 다 같으니라"(교성 1 : 38)고 말씀하셨으니, 그의 종을 통해서 그는 우리에게 매일의 활동에서 시간을 내어 그를 따르고 우리의 이웃을 섬기도록 요구하십니다. 우리들 가운데 가장 큰 자일지라도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합니다. (마가복음 10 : 43~44 참조) 항상 그를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의 종에 의하여 부름받은 책임을 다 이행할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용서함

우리가 구세주에 관하여 기억해야 할 것 중에는 우리가 우리의 이웃에 대하여, 그들이 우리에게 잘못한 것들을 잊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구세주에게 이렇게 물었읍니다.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일곱 번까지 하오리이까?"(마태복음 18 : 21) 그에 대한 대답으로 예수는 용서하지 않는 종을 비유로 가르쳐 주었읍니다. 이 종은 주인에게 많은 빚을 지고 있었읍니다. 그가 자비를 구하자 주인은 불쌍히 여겨 그 빚을 탕감해 주었읍니다. 그러나 동료 종이 그에게 빚을 졌을 때 이 사람은 빚장이의 목덜미를 잡고 그가 그 빚을 갚을 때까지 그를 감옥에 가두었읍니다. 재판정에 끌려 나온 용서하지 않은 종에게 주인은 이렇게 말했읍니다.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네 동관을 불쌍히 여김이 마땅치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저를 옥졸들에게 붙이니라"(마태복음 18 : 33~34)

예수께서는 "네 천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고 결론지었읍니다. (마태복음 18 : 33~35; 6 : 14~15; 니삼 13 : 14~15 참조)

주님께서는 현대 계시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읍니다. "자기 형제의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는 자는 주 앞에서 정죄받음이니 큰 죄가 저에게 있음이라."(교성 64 : 9) 우리가 우리 구세주를 항상 생각한다면, 우리는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들을 용서하고 잊어버릴 것입니다.

의식을 받음

예수님은 성역 초기에 죄사함을 위한 회개의 침례를 전파하고 있었던 침례 요한을 찾아 갔읍니다. (마가복음 1 : 4)

"이 때에 예수께서 갈릴리로서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려 하신대

"요한이 말려 가로되 내가 당신에게 침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마태복음 3 : 13~15)

구세주를 따르고자 하는 사람들은 침례 의식의 중요성을 이해할 것입니다. 흠 없는 양은 "모든 의를 이루기 위하여" 신권의 권능을 받은 자에게서 침례를 받는 것이 당연함을 알았읍니다. 우리 각자는 이 의식과 복음의 다른 의식의 깨끗케 하는 구원의 권세가 얼마나 더 필요합니까.

우리가 항상 그를 생각할 때, 우리는 우리와 우리의 가족 그리고 참으로 모든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은 구세주를 따라 침례의 물가로 들어가야 함을 확실히 알아야 합니다. 이것은 우리 각자에게 복음을 전파하고 성도를 온전케 하며 죽은 자를 구원하는 우리의 책임을 상기시켜 줍니다.

고난을 이겨냄

구세주를 생각하는 것은 우리가 이 생의 불가피한 고난을 이해하고 견디어 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읍니다. 구세주는 이렇게 가르치셨읍니다.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을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마태복음 5 : 11~12)

병든 자와 고난받는 자를 보살핌

부활하신 주님께서 미 대륙에 있는 백성들에게 나타나셨을 때, 그는 그들에게 가르치시고 지도자들을

부르시고 그들에게 신권의 권능을 주셨읍니다. 그런 후 그는 병자와 절름발이와 장님과 어떤 면에서든 고난받는 모든 자들을 치유해 주셨읍니다. 그런 다음 그 분은 "어린 아이들을 데려 오라 명하시"(니삼 17 : 11 참조)고 "저들을 축복하시며 아버지께 저들을 위하여 간구하시었"(니삼 17 : 21 참조)읍니다.

이 영감적인 모범을 생각할 때마다 나는 또한 병들거나 노환으로 시달리는 사랑하는 사람들을 보살피는 분들로부터 받은 편지나 방문을 생각하게 됩니다. 나는 또한 수명이 짧거나 또는 신체적으로, 정서적인 불안으로 시달리는 어린 자녀들로 인해 슬퍼하는 사랑하는 사람들을 생각합니다. 그들의 마음은 어린 자녀로 인해 얼마나 아픕니까! 그들은 우리의 사랑과 지지가 얼마나 필요합니까. 나는 또한 이 말씀을 생각합니다.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마태복음 25 : 40) 여기서 우리 구세주께서는 그런 짐을 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축복을 확인해 주며 그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들에게 권고를 해주십니다.

우리의 이웃을 사랑함

우리는 구세주께서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고 선을 행하도록 가르치신 것을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서로 사랑하고

봉사하는 것은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읍니다.

나는 최근에 다른 나라에 사는 자매에게 편지를 받았읍니다. 그녀는 교회의 독신 성인 회원의 고통에 대하여 썼읍니다. "나는 어디에 맞추어야 합니까?" 하고 그녀는 물었읍니다. 그녀는 교회의 사교 활동에 참여하기를 원했으나 그러한 것은 항상 부부를 위해 계획되었다고 말했읍니다. 그녀는 스스로 "짝 짓는 것을 깨뜨리려 하기보다는 " 즉, 건전한 사교를 하지 않기로 선택해서가 아니라 환경상 강제로 "혼자서 떨어지게" 된 것이라고 느꼈읍니다.

그녀는 특히 배우자에게 버림받거나 이혼 또는 사망으로 인해 독신이 되는 충격에 대하여 썼읍니다. 그녀는 자신이 결혼 생활을 했을 때에는 "나는 독신 자매들의 고충에 대하여 그다지 생각해 보지 않았읍니다. 단지 그들에게 어쩔 수 없는 동정심만 가지고 있었을 뿐이었읍니다"라고 말했읍니다. 그러나 이제 그녀 자신이 그러한 상황에 처하고 나서야, 그녀는 자신이 알고 있던 기혼

자매들이 독신 자매들을 피하는 경향이 있음을 느꼈읍니다. 그녀는 저에게 교회의 동료 회원들에게서 "거부감과 인정을 받지 못하고 보살핌을 받지 못하는 느낌"을 받고 있는 교회의 독신 성인들을 돕기 위해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는가를 물었읍니다. 우리가 받은 편지로 판단해 볼 때, 나는 수만 명의 독신 성인 회원들인 우리의 형제 자매들이 그와 비슷한 감정을 느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구세주께서는 우리에게 많은 양떼를 남겨 두고 잃어 버린 한 마리의 양을 찾아 나선 선한 목자의 비유를 우리에게 해주셨읍니다.(누가복음 15 : 3~6 참조) 그것은 사랑하는 동반자와 함께 생활하는 부부들이 동반자와 함께 하는 생활을 하지 못하는 형제 자매들을 그들의 친목 모임에 함께 어울리게 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는 원리와 마찬가지의 것이 아닙니까? "기억하고자 노력하십시오. 기억한다면 따라 하십시오."

몇 해 전에 나는 솔트레이크시티의 상공회의소에서 말씀을 해달라는 지명을 받았읍니다. 질의응답 시간에 나는 우리와 같은 신앙을 갖지 않은 어느 훌륭한 부인의 말씀을 들었읍니다. 그녀는 그녀의 자녀들이 학교와 사회 활동에서 말일성도 청소년들이 그들을 기피하여 받았던 고통을 감동적으로 말했읍니다. 그보다 더 근자에 들어서 유타에서 교회에 개종한 한 사람이 자신이 느낀 바를 편지로 썼는데 근본적인 가치관이 훌륭한 비말일성도인들이 훌륭한 이웃과의 생활에 대한 큰 기대를 품고 유타에 왔다가 "기껏해야 그들 자신이 제외되고 심하면 추방당하게 되는 형편"임을 썼읍니다.

물론 훌륭한 말일성도와 다른 종교를 가진 사람들의 개인적인 표준과 사회 활동에는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차이가 말일성도의 배척이나 오만함 또는 불친절에 대한 변명은 될 수 없읍니다. 개종한 나의 친구는 이렇게 말했읍니다. "나는 사탄이 불만이 있는 사람들을 교회로부터 돌아서게 하고자 하는 것처럼 성도들을 이웃으로부터 돌아서게 하는 일에 적극적으로 임하고 있다고 믿고 있읍니다."

우리가 구세주를 항상 생각하고자 성약할 때 우리는 이스라엘에게 주신 여호와의 명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타국인이 너희 땅에 우거하여 함께 있거든…너희 중에서 낳은 자 같이 여기며 자기 같이 사랑하라"(레위기 19 : 34; 출애굽기 22 : 21 참조; 신명기 10 : 19)

우리는 예수께서 우리 이웃을 우리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고 명하신 것을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그는 친절과 자비의 행위를 베풀기 위해 그 시대의 사회적 장벽을 뛰어 넘은 선한 사마리아인의 예로써 큰 가르침을 주셨읍니다. 그런 다음 구세주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읍니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누가복음 10 : 37)

십 년 전에 스펜서 더블류 킴볼 대관장은 이렇게 말씀했읍니다. "이 땅으로 오는 모든 나라의 학생들과 우정을 나눕시다. 그래서 다른 어느 민족보다도 우리가 그들이 복음에 관심이 있든지 없든지 그들을 참된 우정을 나누는 형제 자매로 대하도록 합시다."(지역 대표 세미나에서 행하신 말씀, 1978년 9월 29일)

그러한 예언의 가르침은 우리의 모든 이웃과의 관계를 이끌어야 합니다.

많이 받은 자에게 많이 요구됨

우리가 우리의 주 구세주를 생각할 때, 우리는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회원으로서 우리가 받은 위대한 축복을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가르침을 받았읍니다. 우리는 그의 예언자에 의해 인도되었읍니다. 우리는 그의 복음의 인봉 의식을 받았읍니다. 그는 우리를 참으로 풍성하게 축복하셨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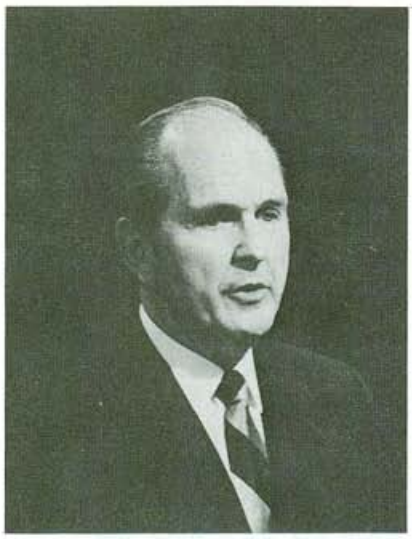
우리가 이러한 모든 것을 생각할 때 우리는 또한 거룩한 경고의 말씀도 생각해야 합니다. "무릇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되나니"(교성 82 : 3; 누가복음 12 : 48 참조) 율법과 공의의 영원한 원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척도가 됩니다.

우리가 항상 기억하여 행하고자 성약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겸손히 간구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러셀 엠 넬슨 장로
십이사도 정원회

"여러분이 '불가능'하다고 여기는 문제는 주님 보시기에 바로 여러분에게 필요한 순화 과정일 수도 있읍니다."



나는 사랑하는 동료 댈린 에이치 옥스 장로님의 간증에 동감합니다. 그와 함께 그리고 다른 총관리 역원들과 더불어 온 세상에서 하나님의 왕국을 건설하는 데 기꺼이 봉사하는 말일성도들의 노력을 치하해 마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깊은 시련을 당하고서도 묵묵히 의무를 다하는 사람들을 존경합니다. 또한 개인적인 결함을 극복함으로써 더욱 합당하게 되도록 노력하고 어려운 목표를 성취하기 위해 애쓰는 사람들을 치하합니다.

의로운 것을 행하기 위해 개인적인 과제를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권고해 드리고 싶습니다. 특별히 많은 어려움을 당하여 낙심한 사람들에게 마음을 전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때로는 짊어지기에 힘겨워 보이는 의로운 책임으로 어깨가 짓눌리고 있읍니다. 그처럼 어려운 일들을 *불가능*하다고 하는 것을 나도 알고 있읍니다.

의사로서 나는 역경을 당한 사람들의 얼굴을 잘 압니다. 나는 많은 죽음과 고통과 슬픔의 모습을 보았읍니다. 연구에 몰두한 학생들과 외국어를 배우기 위해 애쓰는 학생들도 기억납니다. 궁핍한 가운데 자녀들을 키우는 젊은 부모들이 느끼는 피로와 좌절을 기억합니다.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 속에서도 경전 연구로 이해가 깊어질 때 오는 기쁨에 찬 구원도 느껴 보았읍니다.

주님께서는 가끔 고난 가운데 있는 그의 백성들을 가르치실 때도 있었읍니다. 경전은 전쟁처럼 끔찍하고, 아이를 갖는 것처럼 평범하고, 깊은 물의 위험과 같이 분명한 예로써 주께서 가르치시고자 하신 영원한 교훈을 보여 줍니다. 그의 가르침은 일반적인 상식에 근거를 둔 것이었지만, 그 결과는 평범한 것이 아니었읍니다. 참으로 주님께서는 그의 백성들을 가르치시기 위해 특이한 것을 사용하신다고 말할 수 있겠읍니다.

예를 들어 전쟁은 창세 이래로 알려져 왔읍니다. 그 흉악한 상황 속에서도 주님께서는 그의 권고에 순종하는 자들을 도와 주셨읍니다. 전쟁을 할 때 적보다 숫자가 많은 것이 분명 유리하다고 모두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제자 기드온이 미디안인들을 대적하는 군사를 이끌때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좇은 백성이 너무 많은즉…이스라엘이…자긍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사사기 7 : 2)

주님은 기드온에게 수를 줄이라고 지시하셨읍니다. 그는 처음에 이만 이천의 군사를 만 명으로 줄였읍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기드온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읍니다. "백성이 아직도 많으니"(사사기 7 : 4) 그래서 다시 수를 줄였읍니다. 결국 삼백 명만이 남게 되었읍니다. 주님께서는 이 적은 수로 승리를 거두게 하셨읍니다.(사사기 7 : 5~25 참조)

전쟁보다 더 잘 알려진 것은 아기를 갖는 데 대한 이해입니다. *나이많은* 여인이 아이를 가질 수 없다는 것은 모두가 "아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누구를 불러 아브라함의 장자 상속권자를 낳으라고 하셨읍니까? 구십 세 된 사라였읍니다. 이 일이 알려졌을 때 그녀는 다음과 같이 논리적인 질문을 했읍니다.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창세기 18 : 13) 하늘에서 다음과 같은 대답이 왔읍니다. "여호와께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창세기 18 : 14)

주님께서 선언하신 대로 그녀는 이삭을 낳아 중요한 아브라함의 성약이 제 이 세대로 전해지게 했읍니다.(창세기 26 : 1~4, 24 참조)

후에 전례없는 중요한 사건의 하나가 될 또다른 일이 생겼으니, 반대의 극단적인 예였읍니다. 나이든 여인이 아이를 가질 수 없음을 모든 사람이 다 알듯이, 처녀가 아이를 가질 수 없다는 것도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사야는 다음과 같이 예언했읍니다.

"주께서 친히 징조로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이사야 7 : 14)

마리아가 자신의 거룩한 책임을 알았을 때 그것을 알려 준 천사는 거듭 확신시켜 주었읍니다.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누가복음 1 : 37)

*깊은 물*이란 표현은 위험을 의미합니다. 바로 그 위험이 홍해에서 모세에 의해 인도된 이스라엘 백성에게 닥쳤읍니다.(출애굽기 14장 참조) 후에 그들은 여호수아에 의해 인도되어 홍수로 넘치는 요단강으로 인도되었읍니다.(여호수아 3장 참조) 두 경우 모두 깊은 물이 갈라져 충실한 자들이 그들의 목적지에 안전하게 도달할 수 있게 했읍니다. 그의 백성을 가르치기 위해 주님께서는 특이한 것을 사용하십니다.

주제를 우리 세대로 돌려 봅시다. 여러분은 왜 주님께서 약속하신 "만유의 회복"(사도행전 3 : 21)을 시작하기를 그토록 오래 기다리셨는지 생각해 보셨읍니까? 어떤 경기자라도 경쟁자가 너무 많이 앞서 달리도록 놓아 두면 불리하다는 것을 압니다. 교회의 회복 사업이 더 일찍 시작되었으면 더 쉬웠을까요?

여러분이 어떤 팀의 일원이라고 잠시 상상해 보십시요. 코우치가 벤치에서 여러분을 불러 이렇게 말합니다. "자네가 이번 경기에 들어가 뛰게. 나는 자네가 이기길 빌 뿐만이 아니라 자네는 꼭 이길 것이네. 하지만 경기는 어려울 걸세. 현재 스코어는 1,143,000,000대 6일세. 자네는 6점을 얻은 팀에서 뛰는 것일세."

그 큰 숫자는 여섯 명의 회원으로 예수 그리스도 교회가 공식적으로 조직되던 1830년 당시의 대략적인 세계 인구였읍니다.(제임스 애버리 조이스, *세계 인구 기본 서류*, 4권, 더브스 페리, 뉴욕 : 오세아나 출판사, 1976년, 4 : 2214 참조) 배경은 외딴 농촌 지역입니다. 세상의 표준으로 볼 때 그 지도자들은 학식이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 추종자들은 평범해 보였읍니다. 그러나 그들과 더불어 사업은 시작되었읍니다. 임무가 계시되었읍니다.

복음은 모든 족속과 민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파되었읍니다.

보통 사람들이 성도가 되어야 했읍니다.

이 세상에 살았던 모든 사람을 위해 구속 사업이 행해져야 했읍니다.

말일의 위대한 경륜의 시대가 시작되었으며 그들은 그것을 맞이할 사람들이었읍니다.

더우기 예언자 요셉 스미스는 불법으로 멀리 떨어진 감옥에 격리 수감되어 있었읍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그는 주님으로부터 "땅 끝에 있는 자도 네 이름을 물을 것이"(교성 122 : 1)라는 말씀을 들었읍니다.

만일 불가능하다고 할 만한 어떤 일이 있었다면, 그 일들이 거기에 해당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읍니다.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느니라"(마태복음 19 : 26; 또한 마가복음 10 : 27; 누가복음 18 : 27 참조) 주님은 그의 백성을 가르치시기 위해 특이한 것을 사용하십니다.

한 세기 반이 지난 지금 그 기회의 무거운 바톤은 우리에게 쥐어졌읍니다. 우리는 고귀한 생득권을 지닌 자녀로서 우리의 정해진 위치가 숫적으로나 힘에 있어 열세이기는 하지만 그 사업을 수행해 나가야 합니다. 자기 향상과 봉사를 위해 거룩하게 부과된 임무를 맡은 교회와 개인 앞에 과제가 놓여 있읍니다.

"불가능한 것"을 성취하는 일이 어떻게 가능하겠읍니까? 하나님의 가르침을 배우고 순종하십시오. 경전에 보면 하늘이 보낸 도움은 하늘이 보낸 의무에서 찾을 수 있읍니다. 불가능한 것을 성취하기 위해서 적어도 세 가지 경전적 주제가 그 조건으로 반복됩니다.

신앙

가장 중요한 필수요건은 *신앙*입니다. 그것은 복음의 첫째 원리입니다.(신앙개조 제4조 참조) 히브리인에게 보내는 서한에서 바울은 그렇게 가르쳤읍니다. 그는 신앙으로 노아, 아브라함, 사라, 이삭, 야곱, 요셉, 모세, 여호수아 및 다른 사람들의 위대한 행적이 이룩되었다고 결론지었읍니다.(히브리서 11 : 4~34 참조)

미대륙에 있었던 예언자들도 신앙에

새로운 본부 초등협회 회장단. 왼쪽으로부터: 제1보좌 베티 조 젭슨 자매, 미셸린 그래슬리 회장; 제2보좌 루스 라이트 자매

대한 기본적인 중요성을 마찬가지로 가르쳤읍니다. 모로나이는 그것에 "보이지 아니하나 바라는"(이더서 12 : 6) 것들이 포함된다고 했으며 회의론자들에게 "보이지 않는다 하여 이를 부정하지 말지니, 너희의 신앙이 시련을 겪은 후에라야 증거를 얻겠음이라"(이더서 12 : 6)고 경고했읍니다. 그리고 난 뒤 그는 앨마, 앰율레크, 니파이, 리하이, 암몬, 야렛의 형제, 죽음을 맛보지 않을 것이라고 약속한 세 사도를 위시하여 지도자들의 신앙이 기적을 행한 것에 관해 말했읍니다. (이더서 12 : 13~20 참조)

주님께서는 이 진리를 몸소 그 제자들에게 가르치셨읍니다. "너희가 만일…믿음이 있으면…못할 것이 없으리라"(마태복음 17 : 20)

신앙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통해 자라납니다. 그것은 기도와 부지런한 경전 연구를 통해 그리스도의 말씀을 기쁘게 지킬 때 옵니다.

초점

두번째 필수요건을 나는 *초점*으로 분류해 보았읍니다. 성능이 좋은 쌍안경을 생각해 보십시오. 두 가지 분리된 광학 시스템이 두 개의 독립된 영상을 하나의 삼차원의 모습으로 초점을 맞추기 위한 기어에 연결되어 있읍니다. 이러한 유추를 적용하여 쌍안경의 왼쪽에 나타난 장면을 여러분이 자신의 임무를 인식한 것이라고 합시다. 오른쪽에 나타난 것은 여러분의 임무 즉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맡기신 그의 계획의 일부를 나타내는 것이라고 합시다. 자, 그러면 여러분은 자신의 체제를 주님의 것에 연결시키십시오. 정신적인 조정으로 여러분의 초점을 융합시키십시오. 훌륭한 일이 생겨납니다. 여러분의 비전과 주님의 것이 똑같아집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영광만을 전념하여"(교성 4 : 5; 또한 몰몬서 8 : 15 참조) 구했읍니다. 그러한 관념으로 위를 바라보십시요. 여러분 주위에 있는 일상적인 것 위 그리고 그 저편을 보십시요.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읍니다. "무슨 생각을 하든지 나를 바라보라."(교성 6 : 36) 그 특별한 비전은 여러분의 소망이 약간 흐릿해지고 여러분의 신성한 운명을 위해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초점에서 벗어났을 때 여러분의 소망을 분명케 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참으로 여러분이 "불가능"하다고 여기는 문제는 주님 보시기에 바로 여러분에게 필요한 순화 과정일 수도 있읍니다.

최근에 나는 질병으로 죽어가는 사람의 집을 방문했읍니다. 스테이크 부장이 그 사람의 가족을 나에게 소개시켜 주었읍니다. 그의 부인은 나에게 죽어가는 남편을 위해, 병고침이 아니라 화평을 위해, 기적이 아니라 끝까지 견딜 수 있는 능력을 위해 축복을 간구했을 때 그러한 초점을 나타내 보였읍니다. 그녀는 단순히 매일매일 남편을 돌보아야 하는 책임을 진 사람의 입장에서가 아니라 영원한 관점에서 볼 수 있었던 것입니다.

또 다른 예는 평생 절름발이가 된 아들을 양육해야 하는 어느 어머니의 경우입니다. 그녀는 눈물로 지새는 육신 생활의 기간은 짧은 순간에 지나지 않을 것이므로, 매일 사랑으로 아들을 돌보게 된 특권을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감사드렸읍니다. 그녀의 초점은 영원에 고정되어 있었읍니다. 해의 왕국의 견지에서 봄으로써, 변화시키기에 불가능한 시련은 견디어내기에 가능한 것으로 바뀌어졌읍니다.

힘과 용기

중대한 성취를 위해 경전에서 말하는 필수요건의 세번째 주제는 한 단어로 요약하기가 어려워 그것을 설명하기 위해 두 단어를 결합시킬까 합니다. 즉 *힘과 용기*입니다. 경전은 특별히 어려운 과제를 극복해야 할 때 거듭해서 이 두 가지 특성을 함께 열거합니다. (신명기 31 : 6, 7, 23; 여호수아 1 : 6, 7, 9, 18; 10 : 25; 역대상 22 : 13; 28 : 20; 역대하 32 : 7; 시편 27 : 14; 31 : 24; 앨마서 43 : 43; 53 : 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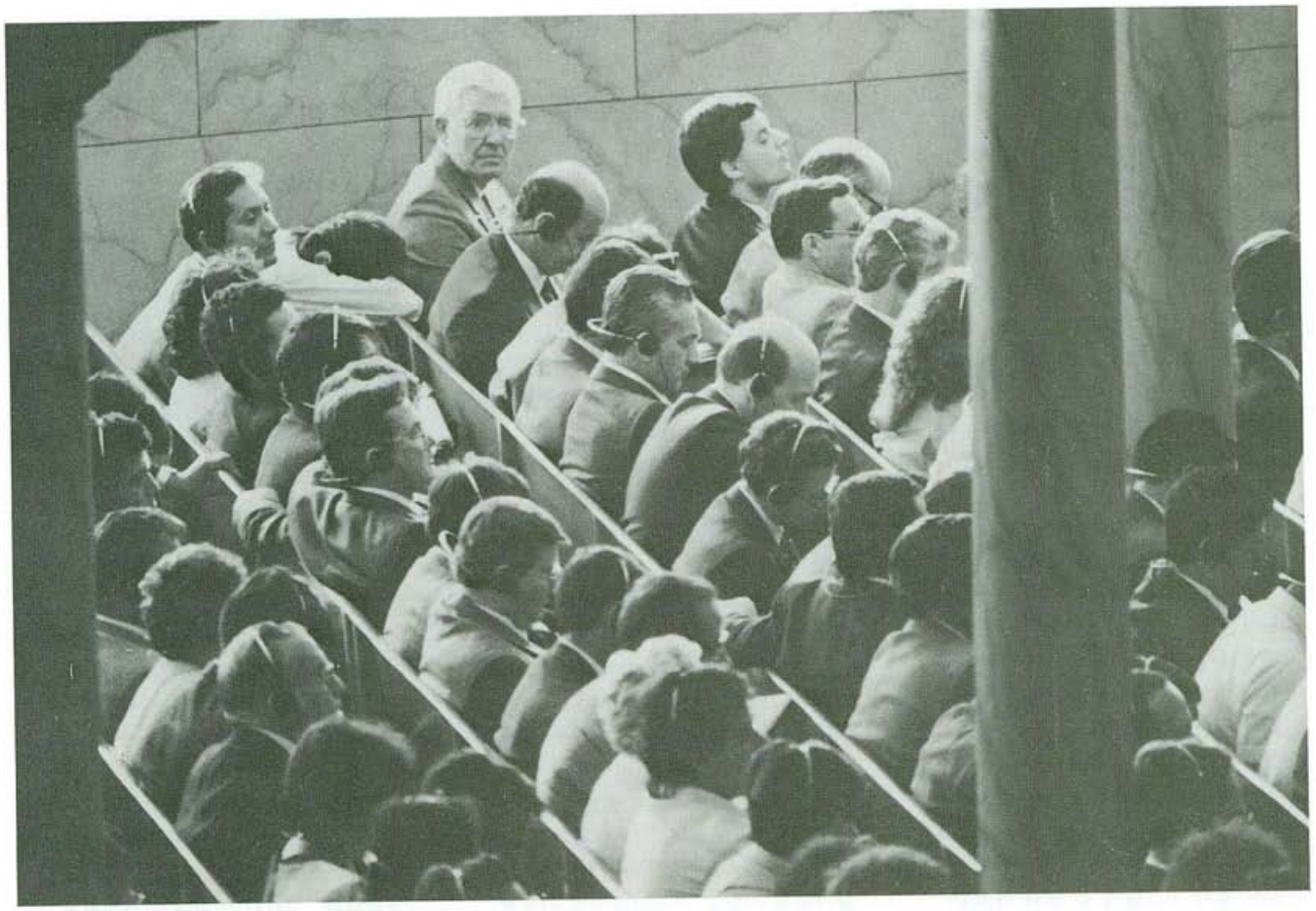
아마도 이것은 정의하기보다는 예를 드는 것이 더 쉬울 것입니다. 우리의 개척자 조상들이 좋은 예입니다. 그들은 "팔을 걷고 용기 내자"("성도들아 두려울 것 없다", 찬송가, 86장)고 노래했읍니다. 그들은 슬픈 일과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았읍니다. 그들 가운데는 1863년에 고국인 노르웨이를 떠난 요한 안드레아스 젠센과 그의 아내 페트라가 있었읍니다. 그들 가족에는 생후 6주 된

쌍둥이 딸이 있었읍니다. 손수레를 끄는 험한 여행에서 한 딸이 죽었읍니다. 살아난 남은 아기가 성장하여 나의 할머니가 되었읍니다.

오늘날에도 그처럼 강하고 용감한 개척자들이 교회 안에 있읍니다. 최근에 나는 대도시에서 복음 선교 사업을 마치고 해임된 지 삼일째 되는 어느 부부를 접견했읍니다. 그들은 "우리는 개종자입니다" 하고 말했읍니다. "우리는 십 년 전에 교회에 가입했읍니다. 방금 선교 사업이 끝났지만 다시 가고 싶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자진해서 더욱 어려운 임무를 맡고 싶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오지에서 살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를 가르치고 그들에게 봉사하고 싶습니다.

그들의 요구가 실현성이 희박함을 말하자 그들은 그들의 결심을 이렇게 표현했읍니다. "우리의 세 아이들 내외가 우리의 경비를 도울 것입니다. 그들 중 둘은 이미 교회에 가입했고 세째도 똑같이 협조적입니다. 주님을 사랑하고 그의 교회가 이 지상에 다시 회복되었다는 것을 알기 원하는 겸손한 사람들에게 저희를 보내 주십시오." 말할 필요도 없이 그 요청은 수락되었으며 그들은 두번째 선교 사업의 부름을 받았읍니다.

힘과 용기는 또 다른 부부의 경우에서 나타났읍니다. 교회의 충실한 회원으로서 그들은 신앙개조 제12조를 위시하여 교회의 교리를 늘 지지하였읍니다. 그 나라에 전쟁이 터졌을 때 남편은, 아내가 임신했다는 사실을 부부가 서로 알기도 전에 징병되어 갔읍니다. 그는 적에게



포로로 잡혔읍니다. 아기가 태어났읍니다. 새로 아버지가 된 이 사람이 생존했는지조차 전혀 알 수가 없었읍니다. 포로가 된 지 여러 해 후에 그는 아내에게 편지를 쓸 수 있게 되었읍니다.

서로 떨어져 있는 동안 그들은 침례시에 맺은 성약에 충실했읍니다. 포로 복장으로 그 나라의 말을 제한된 방법으로지만 할 수 있었던 그는 지부의 주일학교 회장이 되었읍니다. 그는 수용 기간에 네 명의 포로에게 침례를 주었읍니다. 전쟁이 끝난 뒤 삼 년 후에 그는 아내와 한번도 본 일이 없는 아들에게로 돌아왔읍니다. 후에 그는 고국에서 십 년간 최초의 스테이크 부장으로 봉사를 했읍니다. 현재 그는 우리 성전에서 성전장단으로 봉사하고 있읍니다. 그의 아내는 그 신성한 임무의 특권을 받은 남편 곁에 충실하게 서 있읍니다.

잠시나마 낙담을 경험할 수도 있는 여러분, 인생은 쉬운 것이 아님을 기억하십시오. 시련을 견디어 내야 하며 슬픔을 참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누가복음 1 : 37)는 말씀을 기억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아버지이심을 알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그의 형상대로 창조된 아들과 딸입니다. 합당함에 따라 여러분은 의로운 노력에 도움이 되는 계시를 받게 됩니다. 여러분은 주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받을 수 있읍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말할 자격을 갖추게 됩니다.(교성 1 : 20 참조) 큰 시련이 여러분을 괴롭힐지라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도움을 구하는 여러분의 간청은 다윗이 골리앗과 전쟁을 할 때처럼 사실로 실현됩니다.(사무엘상 17장 참조)

신앙을 키우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을 전념하여 구하도록 초점을 맞추십시오. "마음을 강하게 하며 담대히 하"십시오.(역대하 32 : 7) 그리하면 하늘로부터의 권능과 보호하심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읍니다. "나는 너희 앞에 앞서 갈 것이므로 너희 오른편이나 왼편에도 있으리라. 나의 영은 너희 마음에 있겠고 나의 천사는 너희를 둘러 있어 너희를 감싸 주리라."(교성 84 : 88)

우리가 한 부분을 담당하고 있는 이 말일의 위대한 사업은 성취될 것입니다. 여러 세대에 걸친 예언은 성취될 것입니다.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마가복음 10 : 27)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증드립니다. 아멘.

신권 모임 1988년 4월 2일

가장 영예로운 자리

제임즈 이 파우스트 장로
십이사도 정원회

"이 교회의 어느 교리도 남자가 여자보다 낫다고 가르치는 곳은 없읍니다. '주 안에는 남자없이 여자만 있지 않고 여자없이 남자만 있지 아니하니라'"

교회의 신권 소유자에게 말씀을 드린다는 것은 막중하고도 겸손케 하는 책임입니다.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신권을 지닌 남성들과 소년들에게 교회의 충실한 자매들에 대한 우리의 책임에 관해 말씀드리게 됨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제가 왜 이 주제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하는지 궁금하게 여기실 것입니다. 나도 궁금한 일입니다만 그래야 할 필요가 있다는 느낌을 받았읍니다. 나는 우리가 교회에서 또는 신권 소유자로서 어머니, 아내, 자매, 딸, 그리고 교회의 모든 훌륭한 여성들의 독특한 자질이 주는 축복을 우리의 생활에서 누리지 않고는 결코 우리의 뜻을 성취할 수 없음을 믿습니다.

아마 여러분은 모두 다음 이야기를 들으셨을 것입니다. 어느 무감각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지역 대학에서 벌어지는 농구 경기를 모두 볼 수 있는 티켓을 두 장 가지고 있었읍니다. 그의 아내가 죽었읍니다. 하루인가 이틀 뒤에 그는 경기를 보러 갔읍니다. 전에 아내가 앉았던 자리가 비어 있었읍니다. 누군가가 말했읍니다. "그 자리 값이 꽤나 비쌀텐데, 가족 중에 부인 대신 함께 올 만한 사람을 못 구하셨나요?" 그 사람이 대답했읍니다. "예, 모두 아내의 장례식에 가서 올 수가 없답니다."

나는 우리 형제들이 가끔 우리가 하는 활동이 겉으로 드러나는 것의 중요성에는 지나치게 주의를 기울이면서 눈에 덜 띄는 자매들의 공헌을 하찮은 역할로 여기고 있음을 유감으로 여깁니다. 그들은 아주 조용히 효율적으로, 때로는 알려지지 않게, 인정도 받지 않고 감사의 말 한마디 받을 여유도 없이 봉사합니다.

신권은 아버지에게 가족과 가정의 머리가 되는 책임을 부여했읍니다. 가장이 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것은 신권의 권세로서, 교리와 성약 121편에서 모든 신권의 책임은 "다만 설득과…온화함과 온유함과 거짓없는 사랑"(교성 121 : 41)으로 행사되어야 한다고 분명히 밝히고 있읍니다. 신권을 소유한다는 것은 권세를 휘두르거나 권좌에 앉아 명령을 내리거나 어떤 방법으로든 우위에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는 모범을 보이는 지도자입니다. 에베소인에게 보내는 서한에는 다음과 같은 바울의 권고가 담겨 있읍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심 같이 하라"(에베소서 5 : 25)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들어올리심 같이 우리도 여성이나 다른 사람을 내려 누르기보다는 위로 들어올려야 합니다.

이 교회의 어느 교리도 남자가 여자보다 낫다고 가르치는 곳은 없읍니다. "주 안에는 남자 없이 여자만 있지 않고 여자 없이 남자만 있지 아니하니라"(고린도전서 11 : 11) 남녀는 각각 자신의 독특한 힘을 가족과 교회에 바칩니다. 여성은 그저 요리나 하고 집안이나 돌보는 종이 아닙니다. 그들은 그 이상의 존재입니다. 그들은 많은 인정을 지니고 있읍니다.

남성으로서 어떤 힘을 소유하고 있는지에 관해 아는 것은 아론 신권 소유자에게 있어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어쩌면 여러분은 위대한 신권의 부름에 예임되어 있는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은 이 남성다운 힘이 위대하고 고귀하며 하나님께서 주신 것임을 알 필요가 있읍니다. 그러나 그 힘에는 제한이 있읍니다. 이러한 제약 때문에 우리 생활에서 훌륭한 여성의 역할이 어떻게 이 힘을 보완할 수 있으며 이 제약들을 극복할 수 있는지 그 방법을 배우는 것은 똑같이 중요합니다. 영생을 향해 나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여성에게만 특별히 주신 훌륭한 은사와 부름을 이해하고 감사하는 것은 중요한 일입니다.

나는 우리가 이 고귀한 은사를 참으로 충분히 이해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우리가 이 여성들이 지닌 위대함을 깨닫는다면 우리는 그들을 예사롭게 대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종종 여성을 이용하고 능욕합니다. 신권을 소유한 우리는 교회 안팎에서 훌륭한 여성들을 봉사나 쾌락의 목적물이나 자원으로서가 아니라 참된 자매로서 존경해야 합니다. 여성에 대한 관심은 그들의 기능과 역할에 대한 염려에서보다는 그들의 참된 신분을 깨닫고 시온의 딸로 평가함으로부터 비롯되어야 합니다.

에즈라 태프트 벤슨 대관장은 이렇게 말씀했읍니다. "남성은 훌륭한 여성의 자연적인 영향으로 보충될 때 가장

본부 청녀회 회장단. 왼쪽으로부터; 제1보좌 제인 비 말란 자매; 아데스 지 캠 회장; 제2보좌 엘레인 엘 잭 자매

훌륭해진다."(*여성*, 솔트레이크시티, 데저렛 출판사, 1979년, 69페이지)

1935년에 대관장단은 다음과 같이 언급했읍니다.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참된 정신은 인간 생활에서 여성에게 가장 영예로운 자리를 내어 줍니다."(제임스 알 클라크 편찬,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 대관장단 메시지*, 솔트레이크사티 : 북크래프트사, 1965~75, 6 : 5) 이 말씀은 히버 제이 그랜트 대관장이 확인해 주었읍니다. "여성들의 훌륭한 업적이 없다면 교회는 실패했으리라는 것을 나는 압니다."(*복음의 표준*, 지 호머 더럼 편찬, 솔트레이크시티 : *임프르브먼트 이라*, 1941년, 150페이지)

아론 신권을 소유한 청소년 여러분은 훌륭한 여성, 특별히 여러분의 어머니와 몇 년 후에 함께 하게 될 훌륭한 아내의 영향력이 없이는 여러분의 뜻을 성취할 수 없음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나 집사나 교사들은 데이트 하는 것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하기에는 아직 이릅니다. 데이트는 성전 결혼과 함께 여러분의 인생에서 적절한 때에 하게 됩니다. 여러분은 성전에 가기 위해 장로가 되어야 합니다.

보다 좋은 경험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서 많은 재능을 부여해 주신 교회의 훌륭한 자매들이 지닌 특별한 은사를 여러분이 지금 알아 두는 것은 중요한 일입니다. 여러분의 가능성을 지지해 줄 것입니다. 그녀는 사랑이 가득하고 사려깊은 격려와 함께 위안과 교양을 줄 것입니다. 그녀는 여러분이 낙담했을 때 일으켜 세울 것이며, 교만해질 때 땅으로 끌어내릴 것입니다. 그녀는 헤아릴 수 없는 방법으로 여러분의 생활을 축복할 것입니다. 킴볼 대관장은 이렇게 말씀했읍니다. "형제 여러분, 우리는 아내 없이는 승영에 이를 수 없읍니다. 의로운 여인이 없는 천국은 있을 수 없읍니다."(스펜서 더블류 킴볼, 대회 보고, 1979년 10월)

최근 여성 동등권에 관해 논란이 격증하고 있읍니다. 여성은 어느 모로 보나 남성보다 못한 창조물이 아닙니다. 사실상 그들은 남성과 비교할 때 무엇인가를 잃고 있읍니다. 데이비드 오 맥케이 대관장은 이렇게 말씀했읍니다. "아름답고 정숙하고 우아한 여성은 창조의 걸작이다."(데이비드 오 맥케이, 복음의 이상, 솔트레이크시티 : *임프르브먼트 이라*, 1953, 449페이지) 영국의 위대한 작가인 다니엘 디포는 이렇게 말했읍니다. "센스있고 예절이 바른 여인은 하나님의 창조물 중 가장 훌륭하고 미묘한 부분으로, 창조하신 이의 영광이 된다…하나님께서는 신만이 줄 수 있고, 인간만이 받을 수 있는 가장 훌륭한 은사를 주셨다."(로버트 시 풀리 편, 영국 문학에서 인용, 1963년 261~62페이지)

여성들이 갖고 있는 내적인 힘의 비결은 분명 그들의 영성에 있읍니다. 영성에 있어서 그들은 남성과 동등하거나 그보다 우월합니다. 그것은 복음에 참으로 개종되었을 때 신앙, 도덕, 결심에서도 그러합니다. 그들은 "주의 신임 더욱, 주 말씀"도 더욱 갖습니다.("거룩함도 더욱", 찬송가, 3장) 이러한 내적 영적인 감성은 슬픔, 문제, 불확실 등에 대체할 수 있는 확실한 힘을 주는 것 같습니다.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어떤 형태로든 여성을 학대하는 것은 어떤 신권 소유자에게도 합당하지 않습니다. 고든 비 힝클리 부대관장은 이렇게 말씀했읍니다. "하나님의 신권을 소유한 어떤 형제라도 자신의 자녀의 어머니이자 생애 동안의 동반자요, 보다 큰 축복을 받았다면 영원한 동반자인 아내를 어떤 방법으로든 학대하고 업신여기고, 상처를 주며, 여성이라는 점을 부당하게 이용한다면 병들게 될 것입니다."(대회 보고, 1972년 10월)

이것은 물론 신체적인 학대와 마찬가지로 말로서 하는 학대도 의미합니다.

남편은 항상 가장 훌륭한 예의와 존경, 그리고 가장 높이 평가하는 마음으로 아내를 대해야 합니다. 그는 친절하고 부드러운 방법으로, 말과 행동으로 사랑을 나타내 보이며 말해야 합니다. 아내는 이러한 사랑과 친절을 느낄 때 그것을 그대로 반영하며 열 배도 넘게 하여 되돌려 줍니다.

남녀 관계에서 신권 소유자는 하나님의

계명, 교회의 표준, 부모의 권위가 지켜지는지를 살펴야 할 큰 의무를 갖고 있다고 믿습니다. 마찬가지로 남성과 여성이 이 계명을 범할 때 대개 신권 소유자가 더 비난을 받게 된다고 믿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행동할 크고 의로운 권세가 그에게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신뢰를 깨뜨리는 자는 그 큰 힘과 자신을 격하시키는 것이요 그를 신뢰하는 여성을 크게 상처입히는 것입니다.

소년 여러분이 제사가 되고 장로가 되어 데이트를 시작할 때가 되면, 데이트를 하기에 가장 좋은 장소는 교회이거나 교회와 관련된 활동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데이트를 할 때 여러분은 소녀의 부모들로부터 그들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축복을 더불어 받게 됩니다. 여러분은 그녀가 무사하도록 보호해야 할 책임이 있을 뿐만이 아니라, 그녀의 영예와 자신의 안전 이상의 것을 보호할 책임을 지게 됩니다. 남성이 지닌 의무의 하나는 여성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부모가 된 여러분은 자녀를 돌본다는 이유로 이 책임을 회피해서는 안됩니다.

내가 첫번째 선교 사업을 떠나기 전 대학에 다닐 때 나는 아름다운 아가씨를 대학 무도회에 초대했읍니다. 나는 이 아가씨와 몇 번 데이트를 했읍니다. 데이트를 마치고 집에 돌아올 때면 언제나 그녀의 아버지는 정장을 하고 가죽 의자에 앉아 우리를 기다리고 계셨읍니다.

내가 대학에서 열리는 무도회에 그녀를 데리러 집에 갔을 때 그녀의 아버지가 이렇게 말씀했읍니다. "몇 시에 돌아오겠나?" 저는 대답했읍니다. "아시겠지만 이것은 대학에서 갖는 특별한 무도회입니다. 무도회가 끝난 뒤에 저녁 식사를 하게 되어 있읍니다. 아마 평소보다 늦을 것같은데 그토록 늦게 우리를 기다리시지 않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그는 간단하게 이렇게 말했읍니다. "난 기다리겠네." 무도회는 훌륭했읍니다. 그러나 저녁 식사가 무척 늦었읍니다. 나는 곧 소화불량 증세가 나타났읍니다.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더 심해졌읍니다. 그녀의 집에 도착했을 때 나는 그녀의 아버지가 약속을 지키고

있는 것을 알았읍니다. 큰 가죽 의자에는 훌륭한 딸이 안전하게 귀가하기를 기다리는 훌륭한 가장이 앉아 있었읍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읍니다. "여보게, 왜 이리 늦었나?"

남자와 여자가 맹세와 성약을 맺고 결혼의 의식을 받는 것은 큰 책임이요 축복인 것입니다. 결혼의 성약 안에서 남자와 여자는 창조의 위대한 힘을 불러내어 그들은 실제로 새로운 인간의 생명을 창조하는 데 하나님과 동업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 후로 남자는 배우자와 그가 낳은 자녀를 양육하고 돌보고 보호해야 할 신성한 의무를 갖습니다.

내가 살아 오는 동안, 돌보고 자비를 베푸는 여성의 역할은 변해 왔읍니다. 여성들은 예언자 요셉 스미스가 말한 바와 같이 여성들에게 자연스럽게 임하는 자비와 인자함을 실행하는 일에 시간을 적게 쓰는 것 같습니다.(*교회사*, 4 : 605 참조) 삶은 더욱 어렵고 복잡해졌읍니다. 어떤 면에서 그것은 우리 모두에게 더 많은 것을 요구합니다. 어머니와 아내들에게 주어진 과제와 기대되는 것들을 충족시켜야 하므로 삶은 그들에게 더욱 힘들어졌읍니다. 만족을 모르는 물질에 대한 우리의 욕구는 미래에 그 수요가 더욱 증가하리라는 것을 암시해 줍니다.

우리의 훌륭한 자매들이 양육자로서, 교사와 주부 그리고 관리자로서의 기본 역할을 계속해야 한다면, 그들은 가족과 이웃에게 자선 봉사를 할 수 있는 시간을 내기 위해 더 많은 지지와 도움이 필요할 것입니다. 이러한 도움이 그들에게 주어지지 않는다면 우리의 삶과 가정과 교회 그리고 세상은 더욱 궁핍하게 되고 그만큼 사랑과 온화함과 이해도 잃게 될 것입니다.

청소년 여러분, 여러분의 어머니는 여러분이 아플 때 사랑으로 간호했고 옷을 빨아 주었으며 음식을 만들어 주고, 데려다 주고, 기다리고, 여러분이 필요한 것을 대게 충족시켜 주었읍니다. 내 생애 동안 나의 어머니든 아내든, 훌륭한 여성이 음식을 준비해 주었고, 옷을 깨끗하게 준비해 주었고, 가정을 훌륭한 분위기로 만들어 주었읍니다. 그들은 봉사를 통해 사랑을 나타내 보이고자 하는 위대한 소망으로 기꺼이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결혼 생활이나 어머니가 된다는 것은 양말이나 빨고 이부자리나 펴고 음식이나 장만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상의 것입니다. 그것은 당연한 것으로 여겨져서는 안됩니다. 감사해야 할 일들입니다. 그것은 또한 도움을 받는 것임을 의미합니다.

결혼한 여성은 많은 역할을 하게 되는데 그것은 아내, 할머니, 어머니, 딸, 양육자, 집행자, 집보는 사람, 친구, 자매 등이 포함됩니다. 오늘날 여성에게는 더 많은 것들이 요구되고

있음에도, 남성들은 대체로 큰 도움을 주지 않습니다. 최근 한 조사에 의하면, 남성들이 가정에서 도와 주는 시간은 일주일에 27분이 증가했다고 합니다. 결론은 "여성은 아직도 집보는 사람이요 집안 관리자"라는 것입니다.(매리 루 심스, *데저렛 뉴스*, 1988, 2월 25일 C3페이지) 그들은 왕국에서도 그만큼의 일을 합니다.

제이 루벤 클라크 이세 부대관장은 초대 교회의 충실했던 여성들 즉, 막달라 마리아, 야고보와 요세의 어머니 마리아, 세베대의 어머니에 관해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언급했읍니다. "그때로부터 지금까지 여성들은 교회를 위로하고 돌보아 왔읍니다. 그들은 짐을 반 이상이나 져 왔으며 반 이상의 희생을 했고 대부분의 고난과 슬픔을 겪어 냈읍니다."(대회 보고, 1940년 4월, 21페이지)

이 교회의 대관장단은 이렇게 말했읍니다. "모성은 신성에 가까운 것입니다. 그것은 인류가 생각할 수 있는 가장 높고 거룩한 봉사입니다."(대관장단 메시지, 6 : 168) 우리의 배필이 없이는, 신권이 그 임무를 수행할 수 없고 하나님의 목적이 성취될 수 없읍니다. 어머니들은 신권으로 할 수 없는 일을 합니다. 이러한 하늘의 은사에 대해 신권 소유자는 그들의 자녀의 어머니에게 무한한 사랑을 지녀야 합니다. 남성은 그들에게 존경과 감사와 경의와 존중과 찬양을 보내야 합니다. 자신의 생명을 준 어머니에게 진 빚을 감사함으로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성령에 대해 무감각한 것입니다. 나는 나의 어머니와 아내에게 진, 결코 다시 갚을 수 없는 빚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결론으로 나는 하나님의 선택된 여성들의 영향력과 힘, 사랑, 도움, 그리고 특별한 은사가 없이는 결코 지상에서의 하나님의 목적이 성취되지 않는다는 것을 되풀이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들은 우리의 가장 큰 존경, 가장 큰 감사, 가장 깊은 존중을 받을 자격이 있읍니다. 나는 그들의 어머니로서의 역할에 천사가 함께 함을 믿습니다. 우리가 그들을 존중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겸손히 간구합니다. 아멘.

여러분의 꾸준함으로

헨리 비 아이어링 감독
관리 감독단 제1보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시어 신체적이고 영적인 복지를 위해 노력하는 사람들을 보살피고 돕도록 하셨읍니다…그들을 사랑하도록 우리를 부르셨읍니다."

태평양의 여러 섬들로부터 남미의 고지에 이르기까지 저는 소년들이 꿈을 실현시키고자 노력하는 것을 보았읍니다. 사실, 저는 그것을 여러 번 보았기 때문에 하나의 영상, 하나의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그 모습은 짧은 바지에 맨발을 한, 그리고 헤어진 셔츠를 입은 아홉이나 열 살쯤 되는 소년입니다. 그는 땅 위에 혼자 서서 희고 검게 무늬진 볼을 내려다 보고 있읍니다. 그 볼에 한발짝 다가가서 그는 힘껏 찼읍니다. 그 볼은 골키퍼를 지나갈 만큼 힘차게 떠서 날아 갑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골키퍼도 네트도 없읍니다. 다만 소년과 볼이 있을 뿐입니다. 소년은 볼이 있는 곳으로 달려가 공을 갖다가 그 자리에 놓고는 다시 찹니다. 그는 그 일을 반복해서 합니다.

여러분은 그 소년이 사는 곳을 모르실 것입니다만 집에 갈 때는 공을 갖고 갈 것이며 더우기 잠잘 때에는 가까운 곳에 놓아 두리라는 것을 잘 아실 것입니다. 그 소년은 아침에 일어나거나 잠자리에 들 때 그 공을 볼 것입니다. 그는 어쩌면 골을 향해 공을 차는 꿈을 꿀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은 이와 비슷한 것들을 경험했기 때문에 이 일을 아실 것입니다. 그것은 어쩌면 농구인지도 모릅니다. 저는 어느 추운 겨울날 내 손에 있는 농구공을 내려다 보면서 그 공에 손가락의 핏자국을 본 기억이 납니다. 추운 날씨에 밖에 너무 오래 있었기 때문에 손가락이 터진 것입니다. 그러나 내 마음과 눈은 농구 골대에 집중되어 있었읍니다. 또한 페인트가 다 벗겨진 앞 판에 시선을 고정시키고 그곳을 향해 던진 공이 더럽혀진 네트 속에 꽂히던 것도 기억합니다. 또한 공을 몰고 가서 슛을 할 지점을 표시해 두었던 것도 기억납니다. 동점인 순간에 불과 수 초를 남겨 놓고 몸을 돌려 마지막 슛을 던지던 것도 기억납니다. 나는 그것을 여러 번 되풀이했읍니다. 때로는 몇 시간씩 시간 가는 줄도 또한 추위도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했읍니다.

여러분은 트럼펫을 연주하거나 공을 던지거나 날뛰는 말을 타거나 그림을 그리면서 인내심을 배우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우리 모두가 다 했던 것을 배웠읍니다. 이따금씩 하는 노력은 큰 성공을 거두지 못합니다. 실현된 꿈은 항상 여러분 가까이에 있었읍니다. 실제적으로나 마음속으로 여러분은 매일 매시 그것을 위해 노력했읍니다.

그렇다면 주님께서 여러분과 나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신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항상 교회를 돌아보며 저들과 함께 있어 격려하며"(교성 20 : 53)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가 그분과 같이 되기를 바라십니다. 그분은 우리가 지금 당장 그분과 같이 세상에 있는 모든 그의 자녀를 돌보라고 하시지 않습니다. 그대신 그저 몇몇 가족, 그저 몇몇 사람만 돌보도록 부르시는 일부터 시작하십니다. 그러나 그분은 매달 갈 가정에 똑같은 공과를 갖고 30분씩 방문하는 것만으로는 그분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진보를 꾀하기가 어렵다는 것을 아십니다.

그래서 그는 "항상 저들을 돌아 보며 저들과 함께 있어 격려"하라고 명하십니다. 여러분은 그들과 24시간 동안 함께 할 수는 없읍니다. "항상"이란 말은 그런 뜻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들은 항상 여러분의 마음 속에 있을 수 있읍니다. 여러분이 방문하는 가족에 대해 생각해 본다면 가정 복음 교사의 부름을 받는 축복받은 여러분, 여러분은 그들이 필요로 하는 도움이 여러분의 일상적인 노력 이상의 것임을 압니다.

저는 이혼 문제, 재정적 파탄, 문제를 갖고 있는 자녀를 둔 부모, 신앙이나 약으로 잘 낫지 않는 병을 가진 사람들을 돌보라는 지명을 받았었읍니다. 쌍동이 딸을 내 보내어 엄마 아빠가 주무시니까 다음에 올 수 없겠느냐고 하는 가정을 방문한 적도 있었읍니다.

저는 "이따금씩" 하는 노력은 충분하지 않다는 것을 압니다. "가정 복음 교육을 하거나", "훌륭한 공과를 하는 것"도 충분하지 않다는 것을 알았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시어 신체적이고 영적인 복지를 위해 노력하는 사람들을 보살피고 돕도록 하셨읍니다. 그는 우리를 부르시어 영에 의해 도움을 주도록 하셨읍니다. 그는 영으로 가르치도록 우리를 부르셨읍니다. 그는 우리가 가르치는 대로 생활하도록 부르셨읍니다. 그는 간증을 하도록 우리를 부르셨읍니다. 그는 그들을 사랑하도록 우리를 부르셨읍니다.

그분은 여러분을 시험하시기 위해 그 일을 어렵게 하시지는 않았읍니다. 그는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놓은 부름을 주신 것입니다. 그는 여러분이 본향에 돌아오기를 원하십니다. 그곳에 가기 위해 여러분은 그분과 같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분은 여러분이 지속성과 인내심을 갖고서만 할 수 있는 부름을 주신 것입니다.

회중 찬송을 부르고 있는 대관장단과 다른 총관리 역원들

오늘 저녁 여러분과 내가 동반자라고 생각하고 이야기합시다. 우리가 준비하기 위해 자주 만나지 못한 것을 알기는 하지만 오늘 저녁에는 해봅시다. 여러분과 내가 우리 집에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여러분은 잠시 들려 우리집 부엌 식탁에 앉아 있읍니다.

우리는 가정 복음 방문이나 공과를 먼저 이야기하지 않겠읍니다. 우리는 우리가 방문할 가정에 대해 먼저 이야기할 것입니다. 우리는 그들 중 문제가 있는 사람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우리를 겸손하게 해주고 주님께서 우리를 신뢰하심을 알게 됩니다. 우리는 감독님과 상호부조회 회장님과 몇몇 이웃이 도움을 주고 있음을 아는 것에 관해 이야기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과 할 수 있는 일에 관해 이야기할 것입니다.

그런 다음 우리는 어떤 한 가족에 대해 그리고 우리가 가르칠 것에 대해 이야기하게 될 것입니다. 저는 *성도의 벗*을 꺼내어 테이블 위에 올려 놓고 벤슨 대관장님의 대관장단 메시지를 펼칩니다. 여러분은 "주님의 영을 구하라"는 제목을 내려다봅니다. 그것은 훌륭한 공과가 될 것 같지 않습니까? 가정에는 어머니와 아버지뿐입니다. 그들은 부인의 건강을 걱정하면서 그들이 할 수 있고 또 해야 하는 일을 다 했는가 하고 생각합니다. 그보다도 그들은 아들 때문에 잠을 편히 자지 못하는지도 모릅니다. 아들은 같은 마을에 있지만 친구 집에서 지내고 있읍니다. 우리가 방문하면 아들은 없겠지만 그들 마음속에는 있을 것입니다. 그들은 아들의 행실을 몹시 걱정할 것입니다. 그 부부는 아들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을 생각할 것입니다. 주님의 영을 원하거나 필요로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들은 바로 이런 사람들일 것입니다.

우리가 모두 공과를 준비하기로 했다고 합시다. 그러나 그들은 여러분이 공과를 시작하기를 원할 것입니다. 성신이 함께 하시지 않는 한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으므로 공과를 준비하는 것 이상으로 잘 행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자신을 준비해야 합니다.

첫째 우리가 깨끗하지 않으면 성신은 우리와 함께 하실 수 없읍니다. 여러분이 말하고 행동하는 것, 심지어는 생각하는 것에까지 신중을 기하고 여러분의 방법을 치하합니다. 주님께서 교회를 돌보라고 말씀하신 의미는 우리 자신도 돌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제가 가까이 하는 말씀으로 조지 큐 캐논 부대관장님께서 하신 말씀을 인용하겠읍니다. 우리가 그것을 따르겠다고 합시다.

"어떤 사람들은 침례를 받고 죄를 회개하면 그것으로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합니다. 이 얼마나 큰 잘못입니까? 우리는 끊임없이 이러한 회개의 정신을 지녀야 하며 우리의 행위를 매일 보여 주시도록 하나님께 기도해야 할 필요가 있읍니다. 매일 저녁 우리는 잠자리에 들기 전 그날의 생각, 말, 행동을 반성해야 하며 잘못된 일이나 성신을 슬프게 한 것이 있으면 회개해야 합니다. 매일 이러한 방법으로 살아가고 매일 발전하십시오."(*복음 진리*, 제럴드 엘 뉴퀴스트편, 솔트레이크시티 : 데저렛 출판사, 1987년, 129페이지)

둘째 우리는 모두 용서를 위해 기도하고 우리가 그 가족을 위해 행하는 것에 대해 응답을 받기 위해 기도합시다. 그 가족을 방문할 때 성신이 그들을 인도할 수 있다고 말하는 것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성신은 이미 어떤 면에서 우리를 인도하였읍니다. 우리가 기도로 응답을 얻고 그대로 행한다면 우리의 행동은 말하는 어떤 것보다도 중요할 것입니다. 우리가 그들을 돕는 방법을 찾아 낸다면 그것은 그들로 하여금 아들을 위해 무엇인가 더 할 수있는 방법을 찾아 내도록 해줄 것입니다.

우리 모두 개인적인 기도 가운데 그 부모와 자녀를 포함시키고 우리가 그를 가르치도록 성신이 우리를 도와 줄 것을 간구합시다. 여러분은 다음과 같은 약속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영은 신앙의 기도로써 주어지나니 영을 받지 못하면 가르치지 말라."(교성 42 : 14) 그것은 우리에게 꼭 적합한 말씀이 아니겠읍니까?

세째, 우리는 복음의 원리를 가르치러 갑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경전을 연구하고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성경과 몰몬경에 있는 나의 복음의 원칙을 가르치라. 그 책에는 충만한 복음이 실려 있느니라."(교성 42 : 12) 나는 여러분이 정규적으로 몰몬경을 읽고 있음을 압니다. 나도 읽고 있읍니다. 우리가 경전을 읽을 때 가족과 영의 은사에 대해 생각해 보면 어떻겠읍니까? 그렇게 한다면 나도 우리가 우리에게 새로운 어떤 것을 이해하고 느끼게 된다고 확신합니다. 우리는 그들의 가정에서 더 큰 능력으로 그들에게 가르치고 간증할 수 있게 됩니다.

경전을 읽는 동안 우리가 느낀 영에 대한 개인적인 경험을 간증하는 것은 적절한 일일 것입니다. 그러면 그들도 읽고 생각하게 될지 모릅니다. 그렇게만 한다면 그들은 자신을 위해 성신의 속삭임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그곳에 있을 때 그저 느낌을 갖게 하는 것 이상의 도움을 줄 것입니다.

그런 다음 우리는 떠나기 전에 함께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하루나 이틀 뒤쯤 우리는 우리가 그곳을 방문하여 공과를 가르치기 전에 그 가족에게 무엇인가를 해주기 위해 잠시 들립니다.

그들을 가르치는 날 저녁, 몇 가지를 제외하고는 모든 것들이 전과 같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가르칠 때 어떤 아이디어나 성구가 여러분 마음에 떠오를 것입니다. 여러분은 더 큰 느낌을 갖고 구세주에 관한 간증을 하게 됩니다. 어쩌면 우리는 우리의 마음이 그들에게 더욱 가까이 가 있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들은 우리가 방문하게 되면 평상시보다 문가에서 더 오래 서성일 것입니다.

이러한 일이 항상 일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를 실망시키지는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꾸준한 노력이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했읍니다. 우리가 마음에 품고 있는 소망은 다른 사람들이 복음의 열매를 맛보도록 돕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이 한두번의 노력의 결과로 빠르고 쉽게 오리라고 믿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첫번째 방문이나 그 후의 방문에서 여러분은 마음에 따뜻함을 느낄 것이며 진리가 여러분 마음에 와 닿는 것을 느낄 것입니다. 그것이 여러분에게 기쁨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그 기쁨은 곧 사라질지도 모릅니다만 여러분은 그것을 기억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은 이 생에서 성신을 동반자로 삼는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상상할 수 있게 되며 구세주와 하늘에 계신 아버지로부터의 사랑과 인정을 영원토록 느끼는 것을 상상할 수 있게 됩니다.

엘마는 우리가 마음 속에 그러한 소망을 갖고 신앙으로 그것을 바라보는 것이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았읍니다. 그것은 우리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동기를 부여해 줍니다. 그는 이렇게 말씀하셨읍니다.

"이와 같이 신앙의 눈으로 결실의 날을

바라 말씀을 소중하게 간직하지 아니한다면, 너희는 결코 생명 나무의 열매를 거두지 못할 것이나,

"너희가 말씀을 잘 간직하면 이는 너희가 나무를 가꿈과 같아서 나무의 열매를 바라는 너희의 신앙과 부지런함으로 자라기 시작하여 뿌리를 펴리니 영생으로 뻗어 오르는 나무가 되리라."(앨마서 32 : 40~41)

성신의 권세와 신앙의 눈으로써 우리는 복음의 결실을 보아 왔고 또 기대할 수 있읍니다. 그것이 우리가 마음에 소망하는 것입니다. 소망은 우리가 부지런함과 인내로 전진하게 하는 능력을 줍니다.

나의 기억 속에 있는 그 소년은 계속해서 공을 차고 또 찹니다. 골대나 키퍼도 없읍니다. 관중의 환호성도 들을 수 없읍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에는 할 수 있다는 생각이 있읍니다. 그래서 소년은 공을 차고 또 찹니다.

나는 우리 자신을 준비하도록 주신 훌륭한 기회를 우리가 받아들이도록 간구합니다. 그는 우리를 그분의 자녀의 영혼을 보살피는 자로 신뢰하고 계십니다. 그분은 우리가 온 마음을 다해 봉사해야 하는 부름을 주심으로써 복음의 열매를 바라보는 방법을 마련해 주셨읍니다. 득점하는 순간을 꿈꾸며 꾸준히 연습하는 소년처럼 복음의 열매를 바라보는 우리는 계속해서 회개하고 기도하고 공부하고 봉사하게 될 것입니다.

나는 앨마가 그의 아들 시블론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한 바처럼 주님께서 우리에 대해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기를 간구합니다. "나의 아들아, 하나님께 대한 너의 굳건함과 성실로 인하여 장차 너로 말미암아 내가 기쁨을 누릴 것을 확신하노니, 이는 네가 어릴 때부터 너의 주 하나님을 바라보아 왔음이라. 장차도 네가 주의 계명을 계속하여 지키기를 바라노니, 끝까지 참는 자가 복되겠음이라."(앨마서 38 : 2)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그리스도에게 나아오도록 권유한다면 하나님께서 현세에서나 영원한 세상에서 우리의 굳건함을 축복해 주시리라는 것을 간증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멘.

여러분은 변화를 가져 옵니다

토마스 에스 몬슨 부대관장
대관장단 제2보좌

"우리 모두 죄의 조개삿갓을 떼어 버리고 우리에게 주어지는 기회를 위해 준비하는 시간을 가지며, 우리가 행하는 봉사를 통해 우리가 지닌 신권을 영화롭게 하도록 결심합시다."

다윗은 그의 아름답고 감동적인 시편중 한 구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읍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의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관대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시편 8 : 1, 3, 4)

의로운 사람인 욥 또한 다음과 같은 질문을 했읍니다. "사람이 무엇이관대 주께서 크게 여기사 그에게 마음을 두시고"(욥기 7 : 17)

여러분은 이 역사적인 태버내클에 나와 있거나 전세계의 수많은 집회 장소에서 함께 모여 계시면서 이러한 의미깊은 질문에 대한 답을 어렵게 찾을 필요는 없읍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베드로전서 2 : 9) "너희는… 신령한 집이요, 신령한 제사이니"(베드로전서 2 : 5)

신권 소유자인 우리는 이 어려운 시대에 지상에 오게 되었읍니다. 우리는 어디서나 분쟁과 갈등이 얽혀 있는 복잡한 세상에 살고 있읍니다. 정치적인 음모는 국가의 안정을 저해하고, 독재가 권력을 잡고 있으며, 사회 계층은 계속 억압받고 기회를 빼앗기며 좌절감만 남겨 놓은 듯이 보입니다.

하나님의 신권에 성임된 우리는 변화를 가져 올 수 있읍니다. 우리가 주님의 도움을 받기에 합당할 때, 우리는 청소년을 키우고, 어른을 개선시키며 주님의 거룩한 사업에서 기적을 이룰 수 있읍니다. 우리의 기회는 한이 없읍니다.

임무가 크게 보이나 우리는 진리로 강화되게 됩니다. "오늘날 이 세상에서 가장 큰 힘은 인간을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권세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한다면 우리는 주님의 도움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그 성스런 도움은 우리의 합당성에 달려 있읍니다. 인생 항로를 안전히 항해하며 인간 구원 사업을 수행하려면 영원한 선장인 위대한 여호와의 인도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도움을 얻기 위해 손을 내밀고 받아들여야 합니다.

우리가 내미는 손이 깨끗합니까? 우리의 바라는 마음이 순수합니까? 역사를 통해 시대를 돌아보면 죽어가는 다리오 왕의 말에서 합당성에 관한 교훈을 얻습니다.

"다리오는 합당한 의식을 통해 애급의 합법적인 왕으로 인정되었읍니다. 그의 적수인 알렉산더 대왕은 암몬의 합법적인 아들로 선언되었읍니다. 그 또한 애급 왕이었읍니다. 패배한 다리오가 죽을 지경이 된 것을 안 알렉산더는 그를 고쳐 주려고 자기 손을 그의 머리에 얹고 그에게 일어나 다시 왕의 권세를 취하라고 명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했읍니다. '다리오여, 모든 신의 이름으로 그대에게 맹세하노니, 나는 이 일을 진실로 속임없이 행하노라' 다리오는 부드럽게 꾸짖으며 대답했읍니다. '알렉산더여, 그대는 그대의 손으로 하늘을 움직일 수 있다고 생각하느뇨?'"(휴 니블리, *애급의 아브라함*, 솔트레이크시티 : 데져렛 출판사, 1981년, 192페이지에서 인용)

최근에 처치 뉴스의 데져렛 뉴스편에 실린 "의견"란에서 한 영감적인 교훈을 얻었는데 여기 인용해 보겠읍니다.

"오레곤주 포트랜드의 선착장에서 화물을 선적하고 내리는 많은 나라의 배를 보는 것은 매우 이상하게 보일 수도 있읍니다. 그 도시는 바다에서 100마일쯤 떨어져 있읍니다. 그곳까지 이르기는 힘든데 그것은 콜롬비아 강을 막은 제방 너머로 통행하는 것으로 콜롬비아와 윌라멧 강을 거슬러 한참 가야 합니다.

"그러나 배의 선장들은 포트랜드에 정박하기를 좋아합니다. 그들은 배가 바다를 항해하는 사이에 조개삿갓이라는 바닷 조개가 선체에 달라 붙어 바위돌처럼 생긴 껍질에 둘러싸여 일생을 선체에 붙어 지내게 됨을 알고 있읍니다. 조개삿갓이 더 많이 달라 붙을수록, 그것은 배의 저항력을 증가시켜, 속도를 떨어뜨리고, 그 효율성을 줄입니다.

"정기적으로 배를 마른 선착장으로 끌고 가, 조개삿갓을 끌로 떼어 내버리는 작업을 해야 합니다. 며칠 동안 배를 정박시키는 것은 힘들고 경비도 많이 듭니다. 그러나 선장이 배를 포트랜드로 몰고 갈 수 있다면 그렇지 않습니다. 조개삿갓은 깨끗한 물에서는 살 수가

모임이 시작되기 전 함께 인사를 나누고 있는 야곱 디야가 장로와 에프 엔지오 부쉬 장로

없읍니다. 윌라멧과 콜롬비아의 신선한 물에서는 조개삿갓이 저절로 떨어져 나가 배가 가벼워져서 다시 제 일을 하게 됩니다.

"죄는 그러한 조개삿갓과 같습니다. 누구든 어느 정도 떼어 내지 않고서는 인생을 헤쳐 나가지 못합니다. 그것은 저항력을 증가시켜, 우리의 발전을 늦추며 효율을 떨어뜨립니다. 회개하지 않은 채, 하나 둘씩 쌓아 올리면 그것은 결국 우리를 가라앉힐 것입니다.

"주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자비로, 회개를 통해 우리의 조개삿갓이 떨어져 나가고 잊혀지게 되는 항구를 마련해 주셨읍니다. 가벼워지고 새롭게 된 우리의 영혼으로, 우리는 우리와 주님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해 나갈 수 있읍니다."(용서의 항구, 1988년 1월 30일, 16페이지)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가 따라야 할 인도의 본보기를 보여주셨는데 그들은 그들의 시대에서 변화를 가져 온 사람들입니다. 나는 이 고귀한 사람들을 "개척자"라고 부르겠읍니다. 웹스터 사전에서는 개척자를 "다른 사람에게 따를 길을 보여 주며 앞서 가는 사람"이라고 정의하고 있읍니다.

그들의 상한 힘을 지닌 신앙으로 그들은 주위를 둘러싼 의심의 조류를 거슬러 항해했읍니다. 우리는 그들의 본보기를 기억할 때 우리가 하는 일에서 영감을 받지 않을 수 없읍니다.

니파이는 "주께서 명하신 대로 가서 행하겠나이다"(니일 3 : 7)라고 했읍니다.

사무엘은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사무엘상 15 : 22)라고 말했읍니다.

바울은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 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로마서 1 : 16)고 했읍니다.

욥은 "내가 알기에는 나의 구속주가 살아 계시니"(욥기 19 : 25)라고 했읍니다.

요셉은 "내 마음은 여름 아침처럼 고요하도다. 나의 양심은 하나님께 대하든지 모든 사람에게 대하든지 털끝만치도 부끄러운 일이 없도다"(교성 135 : 4)라고 했읍니다.

이러한 고상한 지도자들은 자신의 시대를 변화시켰읍니다.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나는 어떠합니까?

스펜서 더블류 킴볼 대관장께서 "걸음의 폭을 넓히자"고 말씀했을 때, 세상 사람들은 활기찬 활동력을 느꼈읍니다. 그는 앞으로 전진해 나아가고 교회가 뒤를 따랐읍니다.

에즈라 태프트 벤슨 대관장은 우리가 몰몬경을 소홀히함을 경고하고, 모든 회원에게 이 성스런 경전을 읽고 연구하기를 권고하자 몰몬경을 더 많이 발행하기 위해 새 인쇄 기계를 들여와야 했으며, 남녀노소가 각자 읽고 그에 대한 간증을 함으로써 예언자를 따랐읍니다. 몰몬경을 읽음으로써 얻는 삶의 풍요함을 간증하는 편지가 매일 대관장 사무실로 배달되고 있읍니다. 그들은 가족이 단합되고 목적을 이루었으며 영혼의 구원받음을 말하고 있읍니다. 그러한 것이 예언자의 힘입니다.

우리는 선을 독점하진 않습니다. 온 세상에는 함께하는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치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있읍니다. 나는 소년단 창시자인 베든 포웰경과 그가 주창한 원리를 가르치고 생활하는 사람들에 대하여 생각합니다. 소년단 맹세가 인간 생활에 미친 그 막강한 영향력을 누가 헤아릴 수 있겠읍니까?

"나의 명예를 걸고 나는 하나님과 국가에 대한 의무를 이행하고, 소년단 법을 지키며, 항상 다른 사람을 돕고, 나 스스로 신체적으로 강건하고, 정신적으로 깨어 있으며, 도덕적으로 올바르게 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남자들과 소년들이 소년단 규칙을 지킬 때 어떤 선한 일이 일어나는지를 추측할 수도 없을 것입니다. 신뢰할만하며, 충성스러우며, 도움이 되며, 우애있고, 예의바르며, 친절하고, 순종하며, 명랑하고, 절약하고, 용감하며, 깨끗하고, 경건한 것들입니다.

여러분의 개인적인 간증의 영향은 참으로 널리 영향을 미칩니다. 주님은 다음과 같이 가르쳐 주셨읍니다. "너희의 간증은 하늘에 기록되어 천사들이 볼 것임이라. 천사들은 너희로 인하여 기뻐하며 너희 죄는 사함받았도다"(교성 62 : 3)

그는 또한 이렇게 주의를 주셨읍니다. "내가 너희 중 몇 사람을 크게 기쁘게 여기지 아니하노니, 저들은 사람을 두려워하여 입을 열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에게 준 재능을 숨겼음이라."(교성 60 : 2)

언제 여러분의 차례가 되어 베드로의 권고에 맞게 될지 여러분은 알지 못합니다.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하되"(베드로전서 3 : 15)

몇 년 전에 나는 때때로 "교회의 도시"로 불리는 텍사스의 달라스에서 열린 사업자 회의에서 연설할 기회가 있었읍니다. 회의를 마친 후 나는 도시 근교를 도는 관광 버스를 탔읍니다. 운전 기사는 이렇게 말하곤 했읍니다. "왼쪽에 보이는 것이 감리교회입니다." 또는 "오른쪽에 천주교회가 있읍니다."

우리가 언덕 위에 자리잡은 아름다운 붉은 벽돌 건물을 지나칠 때 운전 기사가 외쳤읍니다. "저 건물은 몰몬들이 모임을 갖는 곳입니다." 버스 뒷편에서 어떤 부인이 물었읍니다. "운전 기사, 몰몬에 관해 우리에게 좀더 말해 줄 수 있읍니까?" 운전 기사는 버스를 길옆으로 몰고 가서, 자기 자리에서 몸을 돌리며 대답했읍니다. "부인, 제가 아는 것이라고는 몰몬들이 저 붉은 벽돌 건물에서 모인다는 것입니다. 이 버스에 계신 분들 중에서 몰몬에 대해 아시는 분이 계십니까?"

나는 각 사람의 얼굴 표정에서 알고 있고, 말하기를 원하는 표정이 있는지 살펴 보았읍니다. 나는 아무 것도 찾지 못했읍니다. 그때 나는 "결정할 시간이 다가오면, 준비할 시간은 지나가 버린다"는 말의 진리를 깨달았읍니다. 그 다음 십오 분 동안 나는 다른 사람들과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에 관한 나의 간증을 나누는 특권을 가졌읍니다.

간증의 씨앗은 흔히 단번에 뿌리내리고 꽃이 피지 않습니다. 식물을 물에 던지면 여러 날 후에 찾게 된다고 했읍니다.

어느날 저녁 전화를 받아 보니 다음과 같은 음성이 들렸읍니다. "여러 해 전에 뉴잉글런드 선교부에서 봉사한 몬슨 장로와 관계가 있으십니까?" 나는 그렇지 않노라고 대답했읍니다. 전화를 건 사람은 자신을 레오나르도 감바델라 형제라고 소개한 다음 오래 전에 몬슨 장로와 보너 장로가 그의 집을 찾아와 그에게 간증을 해주었다는 말을 했읍니다. 그는 듣기는 했으나 그들의 가르침을 더 이상 따르지 않았읍니다. 그후 캘리포니아로 이주하여 십삼 년 후에 그곳에서 진리를 다시 찾고 개종하여 침례받았읍니다. 그런 다음 감바델라 형제는 그를 처음 찾아 준 그 장로들과 연락을 취할 수 있다면, 그에게 남겨 준 그들의 간증에 대하여 심심한 감사를 표하고 싶다고 말했읍니다.

나는 기록을 조사하여 장로들을 찾아 보았읍니다. 이제 결혼하여 가족과 함께 생활하는 그들에게 내가 전화를 하여 그들의 지난 날 노력의 결과인 그 좋은 소식을 말해 주었을 때 얼마나 놀랐겠는지 상상할 수 있겠읍니까! 그들은 감바델라 형제를 기억했으며 나의 제안에 따라, 그에게 전화를 하여 축하하며 교회에 들어옴을 환영해 주었읍니다.

여러분은 변화를 가져 올 수 있읍니다. 주님께서 부르시는 사람에게, 주님은 자격을 주십니다. 이 약속은 선교사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가정 복음 교사와 정원회 지도자, 지부장 및 와드 감독에게도 적용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합당성으로 스스로 자격을 갖추고, 우리에게 지명된 의무를 수행하기 위해 흔들리지 않는 신앙으로 노력하고, 우리의 책임을 수행하는 데서 전능하신 분의 영감을 구할 때, 우리는 기적을 이룰 수 있읍니다.

형제 여러분, "촌음을 아껴 쓰라"는 찬송가에 귀를 기울입시다.

시간은 번개처럼
날아 사라지니
왔다 하는 그 순간
벌써 사라지네
마음 두지 않으면
기회도 가버려
인생도 빨리 가니
오 마치 하룰세
(찬송가, 192장)

이 연차 대회의 신권회를 마치면서 우리 모두 죄의 조개삿갓을 떼어 버리고 우리에게 주어지는 기회를 위해 준비하는 시간을 가지며, 우리가 행하는 봉사와 우리가 축복하는 삶과 우리가 구원에 이르도록 도와 줄 특권을 지닌 영혼들을 통해 우리가 지닌 신권을 영화롭게 하도록 결심합시다. 여러분은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베드로전서 2 : 9)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변화를 가져 올 수 있읍니다. 이 모든 진리의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증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으로부터 온 선물

고든 비 힝클리 부대관장
대관장단 제1보좌

"사랑하는 젊은 형제 여러분…모든 면에서 자신이 합당하도록 하십시오. 그러면 주님이 여러분을 축복해주실 것입니다."

오늘밤 이 태버내클에는 수천 명의 소년들이 있으며,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가운데는 열 두 살 된 사람도 있읍니다.

내가 열 두 살이 되었을 때 내 생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 두 가지 사건이 일어났읍니다.

나는 소년단원이 되었읍니다. 당시에 우리에게는 컵 스카웃 프로그램이 없었기 때문에 소년은 열두 살이 되어야 소년단 단원이 될 수 있었읍니다. 당시는 1922년으로서 교회가 소년단 프로그램을 채택한 지 불과 구 년밖에 안되었읍니다. 나는 오늘날의 기준으로 보면 굉장히 큰 와드에서 살았읍니다. 그 와드에는 천 백 명 이상의 사람이 있었읍니다. 우리에게는 소년단원이 굉장히 많았으며 우리는 옛날 제일 와드의 활동실에서 모였읍니다. 우리는 굉장히 시끄러웠읍니다. 바닥은 딱딱한 나무였으며 벽도 딱딱하고 매끄러웠으며 그 사이에서 소리가 반사되어 울렸읍니다. 우리의 소년단장은 호각을 갖고 질서를 잡기 위해 자주 불었읍니다.

나는 신청서를 작성해서 50센트의 등록비를 냈는데 당시에는 그 돈이 큰 돈인 것 같이 생각되었읍니다. 나는 소년단 좌우명인 "준비를 갖춤"을 배웠읍니다. 소년단 슬로건을 알게 되었읍니다. "매일 선한 일을 한 가지 함"이라는 소년단 맹세를 알게 되었읍니다. "나는 내 명예를 걸고 하나님과 나의 조국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소년단 규칙에 순종하기 위하여, 언제나 다른 사람을 돕기 위하여 육체적으로 강건함을 유지하기 위하여, 정신적으로 깨어 있도록 도덕적으로 올바르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나는 소년단 규칙을 알게 되었읍니다. "소년단원은 믿을 수 있으며 충성스러우며 도움을 주며 우호적이며 예의바르며 친절하며 순종적이며 쾌활하며 검소하며 깨끗하며 경건합니다."(우리는 이것을 굉장히 빠르게 말했읍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규칙을 암송하고 있을 때 한 소년이 계속해서 "소년단원은 배고프다"라는 말을 덧붙였읍니다. 나는 그 말이 정말로 옳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는 굉장한 대가족 출신으로서 먹을 것을 충분히 갖는 것이 언제나 큰 과제였읍니다.

나는 또 열 두 살이 되었을 때 아론 신권 집사가 되었읍니다. 우리 와드 회원이 다 모인 자리에서 내 이름이 발표되었읍니다. 모든 사람이 내가 그 직분을 받기에 합당하다고 느낀다면 지지해 달라는 청을 받았읍니다. 그 많은 회중 모든 사람의 손이 올라갔읍니다. 나는 우리 와드의 모든 회원이 나를 위하여 손을 들어올렸다는 것을 생각하고 큰 영예를 느꼈읍니다.

그리고 나서 선하고 참되고 충실한 두 분이—그중에 한 분은 나의 부친이었읍니다—내 머리 위에 손을 얹고 아론 신권을 부여하고 집사 직분을 성임하셨읍니다. 그러나 교리와 성약 13편을 분명히 암송하고 그 이후로 늘 기억했읍니다. 이 말씀은 천사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침례 요한이 1829년 5월 15일에 요셉 스미스와 올리버 카우드리에게 아론 신권을 부여할 때 말씀하신 것입니다.

"나와 같은 일에 종사하는 종들아, 나는 너희에게 메시야의 이름으로 아론 신권을 부여하노라. 이는 천사의 성역, 회개의 복음, 죄 사함을 위한 침수로써의 침례를 베푸는 열쇠를 가지고 있느니라. 이 신권은 또 다시 레위의 자손들이 의롭게 제물을 주께 바칠 때까지 결코 세상에서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소년단과는 달리 단 하나의 큰 집사 정원회가 활동실에서 모임을 갖지는 않았읍니다. 그 대신 우리는 세 집사 정원회로 나뉘어져 있었으며 각 정원회마다 12명의 소년이 있었읍니다. 나는 우리가 소년단보다는 덜 시끄럽고 집사 정원회 회원들이 서로서로 또 신권 지도자와 더 가까운 관계를 맺고 있었기 때문에 한 정원회의 사람 수가 적은 이것이 더 좋다고 생각했읍니다. 나중에 이 숫자가 현명하게도 주님이 계시로 정하셨다는 것을 알게 되었읍니다.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읍니다.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거듭 이르노니, 집사의 직분을 관리하는 회장의 의무는 십이 명의 집사를 통할하며 이들과 더불어 회의를 열며 저들에게 저희 직분의 의무를 가르치며 성약에 따라 서로 덕을 품도록 깨우쳐 주는 것이니라."(교성 107 : 85)

그렇다고 어떤 면에서든 소년단 프로그램을 낮춰 보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훌륭한 프로그램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세상의 수많은 지역에 있는 소년들을 위한 교회 활동 프로그램입니다.

그러나 나는 교회에서 소년을 위한 가장 중요한 프로그램을 아론 신권 프로그램이라고 느낍니다.

소년단 프로그램은 인간의 지혜로부터 나오는 훌륭한 프로그램입니다. 아론 신권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은사입니다.

이때 나는 소년으로서 침례 요한은 악한 통치자에 의하여 살해되었으며 한 악한 여인의 음란한 욕정을 만족시키기 위하여 그의 머리가 잘려 나갔다는 것을 주일학교에서 배워 알고 있었읍니다. 그리고 1829년에 요셉 스미스와 올리버 카우드리에게 와서 신권을 부여한 사람이 바로 이 침례 요한이었읍니다. 그는 그들에게 말씀을 했읍니다. 그가 그들의 머리에 손을 얹었읍니다. 그들은 그의 음성을 듣고 그의 손길을 느꼈읍니다. 이 말씀은 그가 부활하신 것이 틀림없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이것은 훌륭한 일이며 나에게는 너무나 감동적인 것입니다. 여기에 부활의 실재에 대한 생생한 증거가 있었으며 이 부활은 요단강에서 요한으로부터 침례받으셨던 주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분의 거룩한 권세를 통하여 왔읍니다.

요한은 요셉과 올리버에게 자신이 베드로, 야고보, 요한의 지시를 받아 일한다고 말했읍니다.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 주님의 성임을 받았으며 우리가 아론 신권 혹은 소신권과 구별되는 우리가 멜기세덱 신권 혹은 대신권이라고 말하는 것을 소유하고 있다고 했읍니다.

당시 요셉 스미스의 나이는 만 이십 삼년 반이 지났을 때였읍니다. 올리버 카우드리도 거의 같은 나이였읍니다. 그들은 젊은이였읍니다. 나는 집사로 성임받으면서 신약 시대의 위인으로서 거의 이천 년 전에 살았던 침례 요한이 부활한 존재로 와서 요셉과 올리버에게 "나와 같은 사업에 종사하는 자들아"라고 말하는 것은 얼마나 훌륭한 일일까 하는 생각을 했읍니다.

비록 그는 하나님의 종으로 왔으며 베드로 야고보 요한의 지시를 받아 활동하고 있었지만 자기 자신을 요셉과 올리버보다 더 위에 두지는 않았읍니다.

십이사도 정원회 회원들. 왼쪽으로부터; 조셉 비 윅스린 장로. 엠 러셀 밸라드 장로. 러셀 엠 넬슨 장로

그는 "나와 같은 사업에 종사하는 자들아"라고 말함으로서 그들을 자신과 똑같은 위치에 두었읍니다. 만일 그들이 그와 같은 사업에 종사하는 자들이면 어쩌면 나도 열 두 살의 소년으로서 그와 같은 사업에 종사하는 자가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는 메시야의 이름으로 혹은 우리가 말하는 대로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했읍니다. 그가 하나의 본을 세웠으며 그때 이후로 우리가 행하는 의식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행해집니다. 이것은 우리가 결코 잊거나 간과해서는 안되는 것입니다. 그 까닭은 우리가 자신의 신권을 행사할 때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행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요한은 자신이 받은 권능으로 아론 신권을 부여했읍니다. 왜 그가 그런 표현을 사용했읍니까? 아론은 누구였읍니까?

아론은 모세의 형이었읍니다. 그는 모세보다 세 살 위였읍니다. 이스라엘 자녀가 애급에 있는 동안 주님이 모세를 그들의 지도자로 부르셨을 때 모세는 자신이 말이 능하지 못하며 지도자로서의 능력이 없다고 항변했읍니다. 주님은 그의 변명을 받아들이시지 않으시고 모세에게 그가 지도자가 되어야 하며 그의 형 아론이 그의 음성을 대신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읍니다.

모세와 아론은 함께 바로에게 가서 이스라엘 자녀가 애급을 떠나게 해 달라고 했읍니다. 그들이 갈 때마다 바로는 노했읍니다. 아론은 지팡이를 하나 갖고 있었으며 그것을 통치자 앞에서 마루바닥에 던지자 뱀이 되었읍니다.

이스라엘 자녀들이 마침내 모세의 지도하에 애급에서 탈출했을 때 아론이 그의 보좌였읍니다. 그는 레위 지파였으며 거룩한 신권을 받았으며, 그 신권의 일부 요소는 앞으로 올 모든 세대를 통하여 그의 종족이 받고 행사하게 되리라는 약속도 함께 받았읍니다. 이 신권 즉 더

높은 신권의 보다 더 작은 부분이 아론 신권 혹은 레위 신권으로 알려지게 되었읍니다.

아론은 123세까지 장수하였으며 그의 권능은 그의 아들에게 전달되어 그것을 받기 합당한 모든 세대를 통하여 전해졌읍니다.

침례 요한에 의하여 지상에 회복된 이 신권의 요소는 어떤 것이 있읍니까?

그는 이 아론 신권은 "천사의 성역…을 베푸는 열쇠를 가지고 있"다고 말했읍니다.(교성 13 : 1) 천사의 성역을 베풀 권리를 갖는 것은 너무나 훌륭한 일입니다.

윌포드 우드럽 대관장님은 연로하셨을 때 교회의 젊은이들에게 이렇게 말씀했읍니다.

"누구든지 자신의 부름을 영화롭게만 한다면 그가 제사이든 사도이든 아무런 차이가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에게 깊이 인식시키고 싶습니다. 나는 사도일 때나 칠십인이었을 때나 장로였을 때를 다 포함해서 보더라도 내 생애에서 제사 직분을 소유하고 있을 때보다 주님의 보호를 더 많이 받아본 적은 절대로 없었읍니다. 주님은 내 앞에 놓인 많은 것을 시현으로, 계시로, 성령으로 나에게 계시해 주셨읍니다."(*밀레니얼 스타*, 1891년 10월 5일, 629페이지)

91년전인 1897년 2월 28일 주일에 이 솔트레이크 태버내클에서 한 위대한 모임이 열렸읍니다. 그 모임은 우드럽 대관장님의 90회째 탄신을 축하해 드리기 위한 모임이었읍니다. 태버내클은 아름답게 장식되어 있었읍니다. 찬사의 말씀과 함께 적절한 음악이 흘렀읍니다. 그때 연로하고 몸도 약간 부자유스러운 우드럽 대관장님이 말씀하기 위하여 일어섰으며 그때 그는 젊은이들에게 말씀하셨읍니다.

"나는 소년기와 청년기 및 노년기를 거쳤읍니다. 나는 더 오랫 동안 여러분과 함께 거할 것으로 기대할 수 없으나 몇 가지 훈계의 말씀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교회와 하나님의 왕국에서 어떤 직책을 맡고 있으며 거룩한 신권의 권세를 받았읍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임명하시고 오늘날 이 세대에 여러분에게 부름을 주셨읍니다. 나는 여러분이 이 점을 살펴 보시기 바랍니다. 젊은이 여러분, 총관리 역원 형제님들의 훈계에 귀기울이십시오. 하나님과 가깝게 생활하십시오. 젊을 때 기도하십시오. 기도하는 것을 배우십시오. 하나님의 거룩한 영을 함양하는 것을 배우십시오. 하나님의 거룩한 영을 자신과 연결시키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영은 여러분이 그것을 함양하는 만큼 여러분에게 계시의 영이 될 것입니다."(매티어스 카울리, *윌포드 우드럽*, 제2편, 솔트레이크시티 : 데져렛 출판사, 1916년, 602~3페이지)

우드럽 대관장님은 아론 신권을 소유하고 또 그것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모든 소년이 향유할 수 있는 이 훌륭하고 놀라운 축복에 대하여 영감받은 견해를 갖고 있었읍니다. 이 열쇠는 천사의 성역의 은사입니다. 우리가 이 열쇠를 받아 이 열쇠로부터 오는 훌륭한 여러 가지 은사와 인도와 보호를 누릴 수 있게

하기를 원하지 않으셨다면 주님께서 이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았을 것으로 확신하고 있읍니다.

침례 요한은 계속해서 요셉 스미스와 올리버 카우드리에게 그가 그들에게 부여한 이 신권은 회개의 복음의 여러 가지 열쇠를 포함하고 있다고 말했읍니다. 이것은 얼마나 훌륭하고 놀라운 것입니까. 이 신권을 소유한 사람이 주님의 용서를 받기에 합당하게 생활한다면 용서받으리라는 기대를 갖고 악에 대하여 회개하는 것은 여러분과 내가 받고 있는 커다란 특권입니다. 그뿐 아니라 주님께서 교리와 성약 20편에서 분명하게 밝히신 대로 회개를 전파하는 것도 우리의 특권입니다. 이 부분에서 그는 집사, 교사, 제사의 여러 가지 의무를 밝히고 계십니다. 교회 회원을 돌아보고 악행이 없는지 살피며 모든 사람을 그리스도에게 나아오도록 하는 것은 그들의 책임입니다. 이것에는 죄로부터의 회개와 복음의 원리와 율법에 대한 순종이 포함됩니다.

침례 요한이 부여한 이 아론 신권에는 또 죄사함을 위한 침수로써의 침례의 열쇠도 포함되어 있읍니다. 회개하는 것과 우리의 죄를 사함받는 것은 각각 서로 다른 것입니다. 이 죄사함받는 것이 이루어지게 하는 권세는 아론 신권에서 찾게 됩니다.

침례는 복음의 일차적인 의식입니다. 이것은 모든 사람이 교회로 들어올 때 통과하는 관문입니다. 이것은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산 자를 위해서 뿐만 아니라 죽은 자를 위해서도 수행되는 데 그것은 죽음의 장막 저편에 사는 분들이 그들을 위하여 이 의식이 집행되지 않으면 영생으로 가는 길을 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나는 소년들에게 아론 신권을 소유하고 그 권세를 행사하는 것은 작거나 중요하지 않은 일이 아니라는 것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이 경륜의 시대에 이 열쇠가 부여된 것은 회복 전체와 관련해서 가장 위대하고 깊은 의미가 있는 사건의 하나입니다. 이것은 때가 찬 경륜의 시대인 이 경륜의 시대에 처음으로 부여한 거룩한 권능이었읍니다. 이것은 인류의 구세주의 이름으로 행할 권능이 있는 하나님의 신권입니다.

이 신권은 주님의 최후의 만찬의 상징물을 교회 회원에게 집행하는 권능입니다. 그 위대하고 중요한 성찬은 구세주께서 십자가 형을 받으시기 전에 직접 정하셨읍니다. 다름아닌 주님께서 몸소 당신이 사랑하시던 사람들에게 당신의 살과 피의 상징물을 주셨으며, 모든 사람이 당신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성약의 표시로서 그것을 취해야 한다고 명하셨읍니다.

아론 신권 제사 여러분이 성찬을 집행할 때에는 예수님이 육신으로 계실 때 행하셨고 또 부활하신 후에 니파이인들 사이에서 성역을 베푸실 때 행하신 것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사 여러분이 성찬대에 무릎꿇고 계시에 의하여 온 기도문을 읽을 때에는 모든 회중이 주님과 성약을 맺도록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작은 일입니까? 이것은 너무나 중요하고 훌륭한 일입니다.

자, 사랑하는 젊은 형제 여러분! 만일 우리가 천사의 성역을 받고 회개의 복음을 가르치고 죄사함을 위한 침수로써의 침례를 가르치고 교회 회원에게 우리 주님의 상징물을 집행하려고 한다면 그렇게 하기에 합당해야 합니다.

계속해서 안식일에 이런 일을 하면서 주 중에는 교회의 표준대로 생활하지 않는 일을 계속할 수는 없읍니다. 헛되이 주님의 이름을 취하고 학교나 직장에서 외설스러운 또 합당하지 못한 이야기에 빠져들고 또 주일에는 성찬대 앞에서 무릎을 꿇는 것은 전적으로 잘못된 것입니다. 맥주를 마시거나 불법 마약을 복용하면서 천사의 성역을 베풀기에 합당하게 될 수는 없읍니다. 말이나 행동에서 부도덕하면서 회개를 가르치는 또는 죄사함을 위한 침례를 행하는 봉사를 주님이 영예롭게 해주실 것으로 기대할 수는 없읍니다. 여러분은 그분의 거룩한 신권을 소유한 사람으로서 합당한 같은 일에 종사하는 종들이 되어야 합니다.

이런 가증스러운 행위가 교회의 젊은이들 사이에 흔하게 자행되고 있다는 인상을 주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런 행위가 전혀 없지는 않다는 것을 알고 있읍니다. 여러분은 대부분이

올바른 일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으며 그점에 있어서 여러분에게 따뜻한 찬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사람으로서 올바른 일을 하고 있지 않은 사람이 있다면 그런 사람에게는 아론 신권을 부여받은 사람으로서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열쇠인 회개의 영을 활용하시도록 간곡히 호소합니다. 모든 면에서 합당하게 되도록 하십시오. 그러면 주님이 여러분을 축복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 속에는 화평이 깃들 것이며 청남을 위한 모든 프로그램 중에서 가장 위대한 이 프로그램에서 여러분에게 주어진 훌륭한 권세를 훨씬 더 인식하게 될 것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청남과 또 그들이 성역을 행하는 것을 받는 사람들의 축복이 되도록 주님으로부터 나온 프로그램입니다.

이 권세를 부여받은 주님의 종인 여러분에게 주님의 축복이 임하실 것을 간구하며 이 모든 것에 대한 증거와 간증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전합니다. 아멘.

교회의 독신 성인 형제들에게

에즈라 태프트 벤슨 대관장

"나는 오늘밤 몇 가지 대단히 중요한 우선 순위를 제언해 드렸읍니다. 나는 여러분이 그것을 진지하게 고려하고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아론 신권 및 멜기세덱 신권 형제 여러분, 오늘밤 여러분과 함께 하게 되어 얼마나 기쁜지 모르겠읍니다.

앞에서 말씀하신 우리 총관리 역원 형제들의 메시지를 기뻐하며 내가 말씀드리는 동안 나를 위한 여러분의 신앙과 기도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오랫 동안 교회의 독신 성인 형제가 많이 모인 자리에서 직접 말씀드릴 기회를 원해 왔읍니다. 여러분 가운데 많은 분이 복음 선교사로 봉사했읍니다. 많은 분이 와드와 스테이크에서 뛰어난 봉사를 하고 있읍니다.

여러분 개개인에 대한 나의 사랑을 아시기 바랍니다. 나는 여러분에게 굉장히 기대를 걸고 있고 또 희망을 품고 있읍니다. 여러분에게는 지금 또 미래에 주님과 하나님의 왕국에 공헌할 것이 너무나 많이 있읍니다. 여러분은 스물 일곱, 서른 혹은 더 나이가 많을 수도 있읍니다.

여러분의 생애의 현 시점에서 어떤 우선 순위를 갖고 계십니까?

우리가 귀환 선교사에게 드리는 훈계를 여러분이 주의깊게 고려해 보시기를 제언해 드리고 싶습니다. 이 훈계는 한동안 집에 있는 많은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교회를 위해 복음 선교사로 봉사하지 않을 수도 있는 사람들에게도 적용됩니다.

우리가 독신 성인 형제 여러분이 자신의 인생에서 필수적이라고 생각하기를 우리가 기원하고 있는 몇 가지 우선 순위가 있읍니다.

우선 개인적이고 진실되고 온 마음으로 느끼는 기도를 통하여 구세주에게 계속해서 가까이 나아가십시오.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약 5 : 16)는 것을 항상 기억하십시오.

매일 경전을 끊임없이 연구하고 살아 계신 예언자들의 훈계를 따름으로써 "그리스도의 말씀을 기쁘게 지키"십시오.(니이 32 : 3) 특히 몰몬경을 공부하는 것을 평생 동안 추구하는 과업으로 삼고 그 페이지로부터 매일 영의 양식을 얻도록 하십시오.

교회 활동에서 모범이 되도록 하십시오.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고, 집회에 참석하고, 지혜의 말씀을 지키고, 십일조와 금식 헌물을 바치고, 지도자를 지지하고 기타 계명을 지키십시오.

자신이 받은 모든 부름에 있어서 즐겁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봉사하십시오. 성전 추천서에 합당하게 생활하고 자주 성전에 참석함으로써 오는 그 감미롭고 거룩한 영을 누리십시오.

복음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려는 평생의 결심을 나타내는 그런 옷을 입고 복장을 하십시오.

영원한 가족 관계를 깊이 하려고 노력하면서 자기 가족에 대하여 사려깊고 사랑하고 도움을 주고 감사하는 태도를 취하십시오.

데이트하고 구혼할 때 교회 표준을 온전히 유지하십시오. 도덕적으로 깨끗하십시오. "쉬지말고 덕으로써 네 생각을 장식하"(교성 121 : 45)십시오.

"말일성도가 이 세상에서 행하는 것 중에서 가장 중요한 단 한 가지 것은 *합당한 사람과 합당한 장소에서 합당한 권능에 의하여 결혼하는 것*"이라는 브르스 알 맥콩키 장로의 권고를 기억하십시오.(*영원한 동반자를 선택함*, 브리감 영 대학교 올해의 말씀, 프로보, 1966년 5월 3일, 2페이지)

자신의 구원과 승영에 성전 결혼이 필수적이라는 것을 이해하십시오.

실질적이고 가치있는 목표를 주의깊게 선정하고, 조직적인 방법으로 그것을 달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십시오.

기도하는 마음으로 성실하게 학업 목표와 직업 목표를 선정하고 추구하는 일에 정진하십시오.

교회 회원이 아닌 사람과 활동이 저조한 사람들과 복음 및 간증을 나누십시오.

적극적인 참여와 봉사로서 자신의 지역 사회를 개선시키십시오. 자신의 시민으로서의 책임에 있어서 "악마가 승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유일한 것은 선한 사람들이 아무 것도 안하는 것임을" 기억하십시오.(에드먼드 버크, 조지 셀즈 편, *위대한 사상들*, 뉴욕, 발렌타인 출판사, 1985년, 60페이지) 하나님이 주신 자신의 자유를 수호하기 위하여 무언가 의미있는 것을 행하십시오.

자신의 인생이 하나의 사명이며 인생의 새로운 각 단계는 자신의 재능을 극대화하고 자신이 받은 기회를 활용할

때 풍성한 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이전에 언급했고 또 여러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인 영원한 기회와 책임에 대하여 첨가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내가 말하는 것은 해의 왕국의 결혼입니다.

바로 몇 주 전에 두 헌신적인 부모로부터 편지를 한 통 받았읍니다. 그중 일부를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친애하는 벤슨 대관장님, 우리는 점점 커지고 있는 것 같이 보이는 문제, 적어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지역 교회에서는 점점 더 커지고 있는 문제, 즉 너무나 많은 훌륭한 교회의 젊은이들이 서른이 넘었는데도 아직 결혼하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하여 염려하고 있읍니다.

"우리에게는 이런 상황에 있는 서른, 서른 하나, 서른 세 살의 아들이 있읍니다. 우리 친구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미혼 자녀에 대하여 우리와 똑같은 걱정을 하고 있읍니다."

그들의 편지는 이렇게 계속되고 있읍니다:

"우리의 경험으로 보면 이 사람들은 대부분이 선교사로 다녀왔고 훌륭한 교육을 받았으며 계명을 지키며 생활하고 있읍니다. (이 가장 중요한 계명을 빼고는) 훌륭한 동반자가 될 수 있는 해당 연령의 훌륭한 젊은 여성이 부족해서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들의 부모로서 우리에게 가장 당혹스러운 것은 우리가 부모로서의 가르침과 인도하는 책임을 다하지 못했다는 느낌이 가끔 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독신 성인 형제 여러분, 우리 또한 우려하고 있읍니다. 해의 왕국의 결혼의 중요성에 대하여 교회의 입장은 한번도 바뀌지 않았다는 것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계명입니다. 창세기에서 주님이 선언하신 것은 지금도 참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사람의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창 2:18)

해의 왕국에서 충만한 영광과 승영을 얻으려면 누구나 이 가장 거룩한 의식에 참여해야 합니다.

결혼이 없으면 주님의 여러 가지 목적이 좌절될 것입니다. 훌륭한 영들이 지상 생활의 경험을 보류당하게 될 것입니다. 또 결혼을 미루는 것은 부당하게 자신의 후손의 수를 제한하는 것을 의미할 때가 흔히 있으며, 형제 여러분은 때가 이르면 그 상실을 느끼고 알게 될 것입니다.

인생의 가장 큰 책임과 가장 큰 기쁨은 가족, 명예로운 결혼, 의로운 후손을 양육하는 것을 중심으로 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다짐해 드릴 수 있읍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나이가 들면 들수록 결혼할 가능성이 적어지며 그때가 되면 이런 영원한 축복을 동시에 잃게 될 수도 있읍니다.

스펜서 더블류 킴볼 대관장님이 한때 경험했던 것을 이렇게 다시 이야기하셨읍니다.

"최근에 나는 만 서른 다섯 살의 귀환 선교사를 한 사람 만났읍니다. 그는 선교사를 마치고 집에 온 지 14년이 되었으면서도 자신의 독신 상태에 대하여 별로 걱정하지 않고 그것에 대하여 웃고 있었읍니다.

"나는 그가 보좌에 앉으신 대관사를 뵙고 주님이 이 청년에게 '너의 아내가 어디 있느냐?'라는 질문을 할 때 이 젊은이에게 측은한 감정을 갖게 될 것입니다. 지상에서 그가 친구들에게 변명했던 모든 구실을 들어: '저는 굉장히 바빴읍니다', 혹은 '교육을 먼저 받아야 한다고 생각했읍니다', '적당한 소녀를 찾지 못했읍니다'라고 판사에게 대답할 때 그런 변명은 매우 하찮고 부질없이 들릴 것입니다. 그런 대답은 공허하게 들릴 것이며 아무 쓸모 없을 것입니다. 그는 부인을 찾고 결혼하여 행복하게 만들어 주라는 계명을 받았음을 알고 있었읍니다. 자녀의 아버지가 되어 그들이 자라는 동안 그들에게 풍요하고 충만한 생활을 제공하는 것이 자기의 의무라는 것을 알고 있었읍니다. 그는 이 모든 것을 알고 있었으나 여전히 자신의 책임을 미루었읍니다"(*엔사인*, 1975년 2월호, 2페이지)

나는 형제 여러분 가운데 일부 사람들이 결혼하면 자신에게 돌아올 실질적인 책임에 대하여 정말로 두려움을 품고 있을 수도 있다는 것을 알고 있읍니다. 부인과 가족을 부양하고 이 경제적으로 불확실한 시대에 그들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해 줄 수 있을까 하는 자신의 능력에 대하여 염려하고

왼쪽으로부터; 러셀 엠 넬슨 장로, 댈린 에이치 옥스 장로, 데이비드 비 헤이트 장로. 모두 십이사도 정원회의 회원임

있읍니다. 그러한 두려움을 신앙으로 대치해야 합니다.

만일 여러분이 근면하고 충실하게 십일조와 헌금을 내고 의식적으로 계명을 지킨다면 주님이 여러분을 도와 주시리라는 것을 확신합니다. 물론 필요한 희생이 따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이런 것으로부터 성장하게 될 것이며 그런 것을 직면했기 때문에 더 나은 사람이 될 것입니다.

교육에 관하여 또 자신의 직업에 관하여 열심히 노력하십시오. 주님을 믿고 신앙을 가지십시오. 그러면 이루어질 것입니다. 주님은 성취할 방편을 마련하시지 않고 계명을 주시는 법은 절대로 없읍니다.(니일 3:7 참조) 또 우리 시대의 정말 큰 전염병인 물질 주의 즉 독신 상태에서 여러 가지 것을 획득하고, 빠른 템포의 생활을 하고, 직업상의 성공을 확보하는 사고 방식에 사로잡히지 마십시오.

명예로운 결혼이 부와 직위와 지위보다 더 중요합니다. 남편과 아내로서 자신의 인생의 목표를 함께 달성할 수 있읍니다. 여러분이 서로 서로 또 자녀를 위하여 희생할 때 주님이 여러분을 축복하실 것이며 주님에 대한 여러분의 헌신과 그의 왕국에서 여러분의 봉사가 강화될 것입니다.

형제 여러분, 이제 반려자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 완전을 기대하지 마십시오. 너무 유별나고 까다롭게 되어 여성의 가장 중요한 자질인 강한 간증을 갖는 것과 복음의 원리대로 생활하는 것과 가정을 사랑하는 것과 시온에서 어머니가 되기를 원하는 것과 남편이 신권 책임을 수행할 때 남편을 지지하는 그런 자질을 간과하지 않도록 하십시오.

물론 그녀가 여러분에게 매력이 있어야 하지만 영원한 동반자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 주님의 확인을 구하지 않고 단지 데이트의 즐거움만을 위하여 상대를 자꾸 바꾸며 데이트하지 마십시오.

어떤 사람이 자신의 반려자로서 알맞는가 하는 것에 관한 한 가지 좋은 기준은 그녀가 있을 때 자신이 가장 고상한 생각을 하고 있는가, 자신이 가장 좋은 행동을 하도록 고취되는가, 자신이 현재보다 더 나은 사람이었으면 하고 바라게 되는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교회의 독신 성인 형제 여러분을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우선 순위가 올바르기 바랍니다. 나는 오늘밤 몇 가지 대단히 중요한 우선 순위를 제언해 드렸읍니다. 나는 여러분이 그것을 진지하게 고려하고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의 훌륭한 형제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 대한 사랑과 염려로 인하여 마음으로부터 또 그분의 영으로 말씀드렸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오늘 여러분이 듣기를 원하시는 말씀입니다. 나는 온 마음을 다하여 몰몬경에 있는 선지자 리하이의 "티끌에서 일어서라. 나의 아들들아, 사내다워지…라"(니이 1:21)는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다시 외칩니다. 아멘.

일요일 오전 모임 1988년 4월 3일

승영으로의 초대

토마스 에스 몬슨 부대관장
대관장단 제2보좌

"구세주께서는 부드럽게 말씀하십니다…'돌아오라. 집으로 오라. 내게로 오라.' 우리가 거룩하신 권유의 말씀을 받아들일 때 영원한 기쁨이 우리를 기다립니다."

어디에 가든지 사람들은 바쁩니다. 비행기는 귀중한 승객을 싣고 광대한 대륙과 넓은 바다를 건너갑니다. 지켜야 할 약속도 있고 관광 여행지가 손짓하며 친구와 가족들은 특정한 비행기의 도착을 기다리고 있읍니다. 현대의 고속 도로는 새벽부터 저녁까지 동서남북으로 끝이 없어 보이는 교통 대열을 이루고 있으며 수백만 명의 사람이 탄 수백만 대의 자동차를 수송하고 있읍니다.

이런 숨가쁜 인간의 흐름이 멈출 때도 있읍니까? 이런 혼란스러운 생활의 흐름을 가끔 멈추고 잠깐 동안의 명상이나 영원한 진리에 대하여 생각합니까?

영원한 진리와 비교해 보면 일상 생활의 제반 문제는 사실은 비교적 사소한 것들입니다. 저녁 식사는 무엇으로 할까? 오늘 밤에 좋은 영화가 상영되는지? 텔레비젼에서는 무엇을 하는지? 토요일에는 어디로 갈까요? 이런 질문은 위기가 닥치거나 사랑하는 사람이 다치거나 건강한 육체에 고통이 생기거나 생명 자체가 때로는 아직 시기도 되지 않았는데 끝나려고 할 때가 되면 사소한 문제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이 밝혀집니다. 그때가 되면 진리와 생활 속의 사소한 문제들은 곧 분리됩니다. 인간의 영혼은 하늘을 향하여 뻗어가며 인생의 가장 큰 의문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을 찾게 됩니다. *우리는 어디에서 왔는가? 우리는 왜 여기에 있는가? 이 생이 끝나면 어디로 가는가?*

이런 질문에 대한 답은 대학 교재나 전화 교환이나 동전을 던지거나 선다형 문제에서 하나를 택하는 데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의문은 지상 생활의 범주를 초월하는 것입니다. 이런 질문에는 영원한 속성이 포함되어 있읍니다.

우리는 어디에서 왔을까요? 이 질문은 갓난 아기가 첫 울음을 터뜨릴 때 모든 부모와 할머니 할아버지가 비록 소리내어 말하지는 않을지라도 필연적으로 생각해 보게 되는 질문입니다. 보이지는 않지만 그 기적적인 순환 계통, 소화기 계통, 신경 계통은 말할 것도 없고 그 작은 발가락, 고사리 같은 손가락, 예쁜 머리 등은 모두 거룩하신 창조주를 증거하고 있읍니다.

사도 바울은 아레오바고에서 아덴(아테네) 사람들에게 우리는 "신의 소생"(행 17 : 29)이라고 말했읍니다. 우리는 우리의 육신이 육신의 부모의 소생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바울의 이 말씀의 의미를 주의깊게 살펴 보아야 합니다. 주님은 "인간은 영체와 육체로 되어 있나니"(교성 88 : 15)라고 선언하였읍니다. 하나님의 소생은 바로 영입니다. 히브리서의 저자는 그분을 "모든 영의 아버지"(히 12 : 9)라고 했읍니다.

영감받은 시인들은 우리의 이런 주제에 대하여 사색하는 데 도움이 되는 감동적인 메시지를 쓰고 모든 것을 초월하는 것 같은 사상을 기록했읍니다.

영국의 시인인 윌리암 워즈워스는 그 진리를 이런 글로 표현했읍니다.

우리의 출생은 수면 그리고 망각
우리와 함께 뜨는
인생의 별인 영혼은
어디엔가 졌다가 먼 곳에서
오는 것
완전한 망각도 아니며
완전한 벌거숭이도 아닌 채로
우리의 고향인 하나님으로부터
영광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이다.
("불멸의 송가")

또 어떤 작가는 갓난 아기를 "이 지상에서 꽃피기 위하여 하나님 자신의 집으로부터 신선하게 떨어져 내린 인류의 훌륭하고 새로운 꽃"으로 묘사했읍니다.

부모는 자그마한 아기를 내려다보거나 자라나는 자녀의 손을 만져 보면서 자녀를 가르치고 영감을 주고 안내와 방향과 모범을 제시할 책임을 깊이 생각하게 됩니다. 부모가 사색하는 동안 자녀는, 특히 청소년은 "우리가 왜 여기에 있는가?"라는 영혼을 꿰뚫는 질문을 합니다. 그런 질문은 대개 영혼 속에서 조용히 "내가 왜 여기에 있는가?"라는 형태를 취하게 됩니다.

현명하신 창조주께서 지구를 창조하시고 우리가 자신을 입증할 기회가 되는 시험 시간을 경험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마련하신 모든 것을 받을 자격을 갖추도록 전세에 대한 망각의 장막을 거쳐 여기에 있게 하였다는 것을 우리는 얼마나 고맙게 생각해야 하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지상에 존재하는 일차적인 목적은 하늘에 계시는 부모와 분리될

때에만 얻을 수 있는 살과 뼈의 육신과 경험을 얻기 위함이 분명합니다. 우리는 수없이 많은 방법으로 스스로 선택할 특권을 받았읍니다.

이곳에서 우리는 경험을 통하여 배웁니다. 우리는 선과 악을 구별합니다. 우리는 괴로운 것과 즐거운 것의 차이를 알게 됩니다. 우리는 자신의 결정이 자신의 운명을 결정한다는 것을 배웁니다.

바울은 인간이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빌 2 : 12)어야 한다고 가르친 반면 주님께서는 우리가 황금률이라고 알고 있는 지침을 마련해 주었읍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마 7 : 12)

우리는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함으로써 예수님이 이렇게 선언하시면서 말씀하신 "집"을 받을 자격을 갖추게 됩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요 14 : 2~3)

우리는 이런 영속적인 문제를 생각하면 갓난 아기의 무력한 상태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전적인 의존 상태에 대하여 이보다 더 좋은 예는 찾아볼 수 없읍니다. 육신을 위한 영양과 영혼을 위한 사랑이 필요합니다. 어머니가 두 가지를 다 제공해 줍니다. 하나님의 손길 안에서 자신의 손을 가지고 여러분과 내가 생명을 얻도록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시 23 : 4)로 내려온 어머니는 어머니의 임무를 행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것이 아닙니다.

몇 년 전에 솔트레이크 신문에 나의 절친한 친구집의 초상이 보도되었읍니다. 그 친구의 부인이며 자녀들의 어머니가 인생의 황금기에 세상을 떠난 것입니다. 나는 그 장례식에 참석해서 그 비탄에 빠진 남편과 어머니를 잃은 어린이들을 위로하려고 모인 많은 사람들과 함께 했읍니다. 막내 아이인 켈리가 갑자기 나를 알아보고 내 손을 잡았읍니다. 그 아이는 "이리 오세요"라고 말했읍니다. 그 아이는 나를 그의 사랑하는 어머니의 시신이 뉘인 관 앞으로 데려 갔읍니다.

"몬슨 형제님, 나는 울지 않아요. 형제님도 우시면 안되요. 엄마가 죽음과 하늘에 계신 아버지와 함께 사는 것에 대하여 많이 이야기해 주었어요. 나는 엄마 아빠에게 속해 있어요. 우리는 모두 다시 함께 있게 될 거예요."

나는 젖은 눈으로 그 아름답고 신앙으로 가득 찬 미소를 지켜 보았읍니다. 작은 손으로 내 손을 꼭 잡고 있는 나의 이 어린 친구에게는 절망적인 새벽은 결코 없을 것입니다. 인생이 무덤 저편까지 지속된다는 것을 아는 불굴의 신앙의 뒷받침을 받을 때 그 소녀는 또 그의 아버지, 오빠, 언니, 사실상 이 거룩한 진리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은 누구나 세상에 이렇게 선포할 수 있읍니다. "저녁에는 울음이 기숙할찌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시편 30 : 5)

인생은 계속됩니다. 어린 시절이 지나면 청년기가 다가옵니다. 성숙 과정은 너무나 천천히 진행되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우리는 다음과 같은 영감받은 사상을 소중히 간직합니다.

하나님은 아버지이십니다.
인간은 형제입니다.
인생은 임무이며
직업이 아닙니다.
(스티븐 엘 리차즈 장로)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전으로 가는 길을 표시해 주었읍니다. 그들은 우리가 영생의 진리를 따르고 그들이 완전하신 것처럼 우리도 완전해지도록 손짓하고 계십니다.(마 5 : 48; 니삼 12 : 48)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한 율법사를 알고 기억하고 있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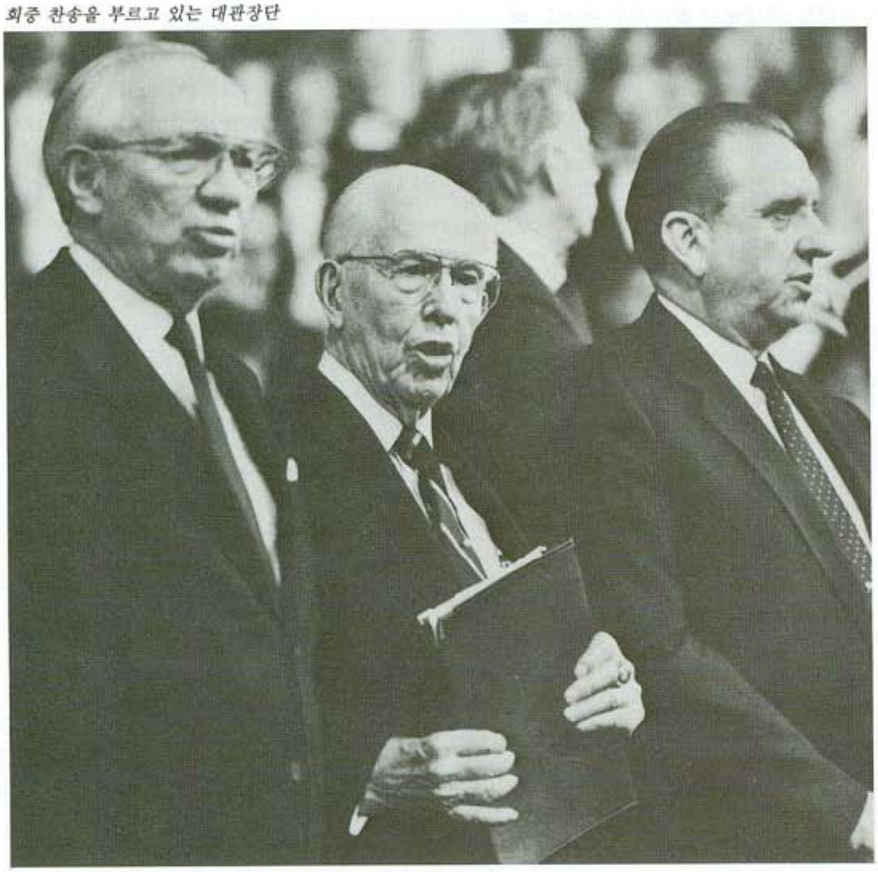
"선생님이여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크니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였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마 22 : 36~39)

사도 바울은 인생을 분명한 목표를 갖고 달리는 경주에 비유했읍니다. 그는

회중 찬송을 부르고 있는 대관장단



고린도에 있는 성도들에게 이렇게 촉구했읍니다. "운동장에서 달음질하는 자들이 다 달아날찌라도 오직 상 얻는 자는 하나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얻도록 이와 같이 달음질하라"(고린도전서 9 : 24)

다른 일에 너무 열중하여 전도서에 있는 다음의 훈계를 잊어서는 안되겠읍니다. "빠른 경주자라고 선착하는 것이 아니며 유력자라고 전쟁에 승리하는 것이 아니며"(전도서 19 : 11) 실제로 상은 끝까지 견디는 사람의 것입니다.

인생의 경주를 돌이켜 보노라면 아주 어렸을 때 있었던 또 다른 경주를 회상하게 됩니다. 내가 열 살쯤 되었을 때, 친구들과 함께 주머니 칼을 갖고 버드나무의 부드러운 목재를 가지고 조그만 장난감 배를 만들곤 했읍니다. 우리는 모두 자기 배에 삼각형 무명 돛을 달고는 프로보강의 비교적 사나운 강물에 배를 띄워서 경주를 했읍니다. 우리는 강둑을 따라 달리며 그 작은 배가 때로는 빠른 물살 위로 심하게 흔들리다가 또 물이 깊어지면 고요하게 흘러가는 것을 지켜보곤 했읍니다.

한번은 그런 놀이를 하는 동안에 어떤 배가 다른 배를 모두 앞지르고 결승점에 다가가는 것을 보았읍니다. 그런데 갑자기 물길에 끌려서 큰 용소로 들어가 옆으로 기울어지더니 전복해 버렸읍니다. 그 배는 빙빙 돌기만 하며 강물의 본류로 돌아올 수 없었읍니다. 마침내 그 배는 웅덩이의 가장자리에 끌려가 다른 찌꺼기에 둘러싸이고 푸른 이끼에 꼼짝없이 붙들렸읍니다.

어린이의 장난감 배는 수평 안정판도 없고 배의 방향을 잡아 줄 방향타도 없고 추진력도 없었읍니다. 그런 배는 저항이 가장 적은 방향으로 강을 따라 밑으로 흐를 수 밖에 없었읍니다.

우리는 이런 장난감 배와는 달리 우리의 여정을 인도해 줄 하나님의 여러 가지 속성을 받고 있읍니다. 우리는 강물의 흐름에 따라 흘러가지 않고 생각하고 추리하고 달성할 능력을 가지고 육신의 상태로 들어왔읍니다. 우리는 순결하고 무죄한 어린이 상태로 하늘의 집을 떠나 이 세상으로 왔읍니다.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가 안전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그로부터 인도받을 수 있는 방편을 마련해 주시지 않은 채 우리가 영원한 항해를 하도록 출발시키시지는 않았읍니다. 그렇습니다. 나는 지금 기도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또 우리도 건너야 하는 바다를 이미 성공적으로 항해한 항해사들이 기록한 거룩한 경전도 간과하면 안됩니다.

우리의 필멸의 임무 기간에는 다리가 떨리고, 병약한 미소, 질병의 고통—여름이 사라지고 가을이 오고 추운 겨울이, 또 우리가 죽음이라고 부르는 경험이 닥쳐올 때가 있읍니다.

생각이 깊은 사람들은 누구나 구약 시대에 욥이 이야기 한 "사람이 죽으면 어찌 다시 살리이까"(욥 14 : 14)라는 질문을 자신에게 던져 보았읍니다. 우리가 이 질문을 마음에서 몰아내려고 할지라도 언제나 다시 돌아옵니다. 죽음은 모든 인간에게 닥쳐옵니다. 노인이 떨리는 발걸음을 옮기고 있을 때 닥쳐옵니다. 인생의 여정의 절반도 걷지 않은 사람이 죽음의 호출을 듣기도 합니다. 어린 아이의 웃음 소리를 잠잠하게 할 때도 있읍니다.

그러나 죽음 뒤의 존재 상태는 어떻습니까? 죽음이 모든 것의 끝입니까? 어떤 젊은 남편이며 아버지인 사람이 죽어가면서 나에게 그런 질문을 한 적이 있읍니다. 나는 몰몬경을 열고 앨마서의 다음 구절을 그에게 읽어 주었읍니다. "죽음과 부활 사이의 영혼의 상태에 관하여 내가 아는 바는 이러하니, 보라 천사가 내게 일러 주었으되 모든 사람의 영이 그의 죽어야 하는 육신을 떠나면 그 모든 영들이 착하든지 악하든지 생명을 주신 하나님의 집으로 돌아가,

"의로운 영들은 안식과 평화의 처소인 낙원이라 하는 행복한 곳으로 영접되어 고난과 근심과 슬픔을 잊고 편히 쉴 것이나,"(앨마 4 : 11~12)

내 어린 친구는 물기어린 눈으로 깊은 감사의 표정으로 조용히, 그러나 우아하게 "감사합니다"라고 속삭였읍니다.

예수님의 시신이 무덤에 뉘여진 삼 일 이후 영이 다시 들어갔읍니다. 돌이 굴러져 나왔으며 부활하신 구속주께서 불사불멸의 살과 뼈로 된 육신을 입으시고 걸어나오셨읍니다.

마리아와 몇 사람이 무덤에 와서 빛나는 옷을 입은 두 분이 그들에게 말하는 것을 보았을 때 "사람이 죽으면 다시 살리이까"라는 욥의 질문에 대한 대답이 나왔읍니다. 그들이 주님의 시신을 돌보러 왔다는 것을 알고 그 충성스러운 사람들에게 이렇게 권고했읍니다. "어찌하여 산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다음 세 가지 간증을 포함하여 부활하신 주님에 대한 많은 간증은 위안과 지식을 줍니다.

첫째 사도 바울의 간증입니다.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바 되었다가…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열 두 제자에게와

"그 후에 오백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고전 15 : 3~8)

둘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또 하나의 성약서인 몰몬경에 기록된 대로 우리 안에 들지 않은 그의 다른 양 가운데 2500명의 합쳐진 간증입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다시 저들에게 이르시기를,

"너희는 일어나 내게로 와서 너희의 손을 나의 옆구리에 넣어 보고, 내 손과 발의 못 자국을 만져 보아 내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요 세상의 죄를 위하여 죽임을 당한 온 땅의 하나님임을 알라.

"이에 무리가 앞으로 나아가 손을 주의 옆구리에 넣어 보며, 그 손과 발의 못 자국을 차례대로 한 사람씩 모두 만져 보고 나서, 저들의 눈으로 보며 친히 만져 보아 진실로 저가 예언자들이 오시리라고 기록한 그분이심을 알아 증거하였으니,

"무리가 모두 차례대로 나아가 친히 목격하고 나서 한 소리로 높이 부르짖어 이르기를,

"호산나로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이름이 복되리로다 하며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 예수를 경배하였느니라."(니삼 11 : 13~17)

세째로 요셉 스미스의 간증입니다. "또 이 어린 양에 대하여 여러 가지 간증을 드리더니, 마지막으로 우리가 드리는 어린 양에 대한 간증은 이러하니, 곧 저는 살아계시다 함이니라.

"이는 우리가 하나님 우편에 있는 저를 보았고, 또 저는 아버지의 독생자라 간증하는 음성을 들었고,

"또 저로 말미암아, 저를 통하여, 저로 인하여 세상이 창조되어 지금 존재하며 거기 사는 주민은 하나님이 낳으신 아들 딸이라는 간증을 들었음이니라."(교성 76 : 22~24)

그리스도께서 무덤을 이기고 승리하신 결과로써 우리는 모두 부활할 것입니다. 이것은 영혼의 구속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적었읍니다.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자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자의 영광이 따로 있으니

"해의 영광도 다르며 달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죽은 자의 부활도 이와 같으니"(고전 15 : 40~42)

우리가 추구하는 것은 해의 영광입니다. 우리가 거하고 싶어하는 곳은 하나님의 면전입니다. 우리가 속하고 삶어하는 곳은 영원한 가족입니다. 그런 축복은 노력해서 얻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디에서 왔읍니까? 우리는 왜 여기에 있읍니까? 이 생이 끝나면 어디로 갑니까?

이 만민 공통의 의문이 더 이상 해답을 받지 못하고 남아 있을 필요가 없읍니다. 나는 영혼 깊숙한 곳으로부터 겸손하게 내가 말씀드린 것이 참됨을 간증합니다.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그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들을 기뻐하십니다. 그분은 또 잃어 버린 자녀, 우물쭈물하는 십대, 방탕한 젊은이, 태만한 부모에 대하여서도 염려하고 계십니다. 그분은 부드럽게 이런 사람들에게 또 사실상 모든 사람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돌아오라. 집으로 오라. 내게로 오라."우리가 거룩하신 권유의 말씀을 받아들일 때 영원한 기쁨이 우리를 기다립니다.

나는 그분이 진리의 교사, 곧 교사보다 더한 분이심을 간증드립니다. 그분은 완전한 생의 귀감이 되시고, 그 이상되시는 분이십니다. 위대한 의사이시며, 의사보다 더한 분이십니다. 그분은 실제로 세상의 구세주이시며, 하나님의 아들, 곧 평강의 왕자,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 곧 부활하신 주님이십니다.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라. 살아 있는 자요, 죽임을 당하였던 자니 아버지와 너희의 중보자니라."(교성 110 : 4)

그의 증인으로서 나는 그분이 살아 계심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증드립니다. 아멘.

자녀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

엠 러셀 밸라드 장로
십이사도 정원회

"자녀의 모든 경이로움은 주님의 거룩하신 권세의 빛이며 사랑의 표현입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지금은 일년 중 가장 아름다운 계절인 봄으로 세계 각곳에서 만물이 갖가지 색깔과 향기와 즐거운 소리로 피어나기 시작합니다. 잠에서 깨어나 다시 살아나는 자연과 더불어 변화하는 계절의 기적은 하나님의 놀라운 창조의 업적에 대한 사랑과 경외심을 우리 마음속에 불러일으킵니다.

부활절기는 모든 사람들이 자연의 경이에 감사를 표시하고 이 아름다운 세상을 지으신 분에게 감사드리는 좋은 절기입니다. 온 세상의 사람들은 일상생활의 바쁜 일정 중에서도 시간을 내어 그들 주위에서 일어나는 하나님의 기적을 조용히 살펴볼 필요가 있읍니다. 우리가 시간을 내어 우리 주위의 자연의 경이를 자세히 살펴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지으신 이 세상에 대하여 더 많이 알고자 한다면 어떻게 될 것인지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최근에 가족과 함께 간단하지만 인상깊은 하나님의 창조물을 관찰해 보았읍니다. 나는 아내, 바바라에게 발렌타인날에 장미 열 두 송이를 주었읍니다. 고운 복사꽃 색깔에 향기가 그윽한 것이었읍니다. 아내는 그 꽃을 꽃병에 담아 거실의 테이블 위에 올려 놓았읍니다. 며칠이 지나, 우리 가족은 꽃봉오리가 활짝 피는 것을 보았읍니다. 이 기적을 보면서, 나는 장미에 호기심을 갖게 되었읍니다. 나는 식물학자인 친구에게서 장미의 종류가 수천 가지나 된다는 것을 알고 놀랐읍니다. 장미꽃마다 그 내부에는 씨앗이나 접지로 시작되는 유전 정보의 거대한 창고가 들어 있어, 거기서 뿌리, 줄기, 가시, 잎, 색깔 및 꽃으로 발전한다는 것입니다. 장미꽃은 하나 하나가 치밀한 화학 가공 공장입니다. 녹색 잎은 햇빛을 사용하여, 공기 중에서 탄산가스를 취해서 우리가 마시는 산소를 다시 만들어 냅니다. 식물 속에 들어 있는 다른 화합물은 햇빛과 다시 작용하여 음식이 되는 녹말을 만들어 냅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이 과정을 광합성이라고 하는데 이것이 없다면 지구의 대기 중에는 산소가 부족하게 되어, 모든 생물이 지상에서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내 친구에게 들은 말로는 우리 두뇌에서 극히 중요한 순간에 사용되었던 화학 에너지나 전기 에너지는 우리가 그전에 먹은 녹색 채소의 엽록소에 흡수된 햇빛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일로 나는 지상에서 기가 막히게 균형을 유지하며 번성해 나가는 수많은 형태의 동·식물의 생활에 대하여 생각해 보게 되었읍니다. 내가 조그만 장미꽃을 존중함으로써 그것이 경이와 존경심이 되었읍니다. 나는 자녀들을 위해 그처럼 놀라운 일들을 행하신 창조자의 위력을 생각해 보았읍니다. 그리하여 나는 모든 사람들이 우리 주위의 모든 사물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영광과 장엄함을 보고 감사드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생각해 보았읍니다. 내 마음속에 아름다운 찬송가 구절이 떠올랐읍니다.

숲속이나 푸르른 나무에서
지저귀는 새들의 소리와
아름다운 산들과 시냇물은
주님의 솜씨 노래하도다
주님의 위대하신 업적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위대하신 업적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찬송가 〔영문〕, 86장)

나는 창조와 창조주에 대하여 다 같이 깊은 경외를 느꼈읍니다. *경외*는 사랑과 두려움이 합치된 깊은 존경심으로 정리될 수 있읍니다. 경외에 대한 우리의 이해를 키울 수 있는 다른 말에는 *감사, 경의, 숭배 및 경배* 등이 포함됩니다. *경외한다*란 말의 근원에는 또한 두려움이란 말의 요소를 포함합니다. 그와 같이, 경외는 신앙을 파하게 되는 두려움으로 공경하고 감사를 나타내고자 하는 깊은 존경심과 사랑의 태도를 뜻하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읍니다.

모세서에서 우리는 이런 글을 읽을 수 있읍니다.

"보라, 만물은 각기 닮은 것이 있고, 나를 증거하기 위해 창조되고 지음을 받았나니, 속세의 것이나 영의 것을 막론하고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 위에 있는 것이나 땅 안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있는 것, 위에 있는 것이나 아래에 있는 것 모든 것이 다 나를 증거하느니라 하셨더라."(모세서 6 : 63)

진실로, 하늘과 땅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이 창조자이신 하나님의 업적을 증거합니다. 몰몬경에서 우리는 예언자

앨마에게 오게 된 반 그리스도인,
코리호어를 알고 있읍니다. 그는 믿기에 앞서 하나님의 존재의 표적을 요구했읍니다.

"앨마가 그에게 말하기를, 네가 이미 충분한 표적을 가졌도다. 네가 하나님을 시험하겠느냐? 이 모든 형제들의 간증과 거룩하신 선지자들의 간증을 들었으면서 감히 내게 표적을 보이라는 얘기를 하겠느냐? 경전이 내 앞에 놓여 있어 절마다 하나님이 계심을 증거하나니 땅과 땅 위의 만물과 그들의 움직임과 그 밖에 일정한 규칙으로 움직이는 많은 별들도 절대 창조자가 계심을 증기하느니라."(앨마서 30 : 44) 이러한 영원한 증거는 계속해서 오늘도 우리에게 간증해 줍니다.

우주에서 지구를 바라본 우주

태버내클 오르간의 파이프 가운데서 일하고 있는 기술자

비행사들은 지구가 말할 수 없이 아름답고 생동력이 넘친다고 말했읍니다. 미국의 상원의원 제이크 건은 우주에서의 경험을 이렇게 표현했읍니다. "지구의 아름다움은 나로서는 묘사하기가 불가능합니다. 초음속의 25배로 여행하면서 우주에서 지구를 보는 것은 숨막히는 경외심에 찬 영적인 경험이었읍니다. 나는 또한 우주 공간의 어둠속, 수십 억의 별들, 그리고 수백만 광년의 거리에 있는 은하계도 볼 수 있었읍니다. 우주는 너무 광활해서 이해하기가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나는 모든 만물 안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했읍니다. 나는 7일간의 우주 여행에서 하나님의 존재를 느꼈읍니다. 나는 하나님이 이 지구와 우주를 창조하셨음을 알고 있읍니다. 우리가 지구 위 어느 곳에 살고 있든지, 우리의 국적이나 피부 색깔에 관계없이, 우리는 그의 자녀들이라는 사실을 나는 알고 있읍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은 살아 계시고, 우리 모두의 창조자이심을 안다는 것입니다."(1988년 3월 3일, 밸러드 장로에게 보낸 제이크 건의 편지)

다시금, 찬송가의 가사가 나의 마음속에 떠오릅니다.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려볼 때
하늘의 별, 천둥치는 뇌성
주님의 권능 우주에 찼네
내 영이 주를 찬양하리니
주 하나님 크시도다

시편 작가는 이렇게 썼읍니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의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관대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관대 주께서 저를 권고하시나이까?

"저를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시편 8 : 3~5)

주님은 시편 작가의 질문에 답해 주셨는데, 그것은 모세서에 기록되어 있읍니다.

"나 스스로의 목적이 있어 내가

이것들을 만들었느니라.…

"또 나의 권능의 말씀으로 내가 이것들을 창조하였으니,…

"보라 인간에게 불사불멸과 영생을 가져다 주는 일, 이것이 바로 나의 사업이요, 영광이니라."(모세서 1 : 31~32, 39)

모래알로부터 장엄한 우주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우리 주위의 모든 창조의 증거를 눈여겨볼 때,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의 모든 창조물 중에서 가장 위대하며,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음을 인식합니다. 삼 주 전 우리의 스물 네번째 손자 아이가 태어났을 때 나는 이 사실을 기쁘게 상기했읍니다. 나는 경이로움과 사랑으로 충만하여 귀한 아기를 팔에 안고, 출생의 기적을 생각해 보았으며, 하나님의 면전에서 방금 지상 생활로 태어난 아기를 보았읍니다.

새로운 삶의 은사는 깊은 경외심을 갖게 합니다. 부모와 다른 가족들은 더 가까와지게 됩니다. 어린 아이들까지도 두려움과 경이로움을 느낍니다. 그들은 아기를 안고, 만지고, 따스하고 부드러운 머리를 쓰다듬고, 손가락을 펴 잡으려 합니다.

이 어린 새로운 영을 우리 가족의 유대로 맞아들이며 나는 다시 한번 훌륭한 진리를 느끼게 되었읍니다. 나는 하나님께서는 목적 자체로서가 아니라, 그의 자녀들인 우리를 위해서, 장엄한 영화로움으로 지구를 창조하셨음을 다시 인식했읍니다. 참으로 우리는 주님의 자녀이며 그의 후손이고, 그는 우리의 영의 아버지이십니다.

우리는 위대한 미술이나 음악으로 표현되는 창의적 천재성에 대하여 존경과 경의를 느끼게 됩니다. 우리는 거룩하신 창조주의 권세와 위대함을 얼마나 더 존경해야 합니까? 우리는 인간이 만들어낸 아름다운 건물이나 다리에 놀라움을 표할 수도 있읍니다. 그러나 히브리 사람들에게 한 사도 바울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마치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함 같으니라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히브리서 3 : 3~4)

하나님의 창조와 거룩하신 속성에 대하여 경외감을 느끼지 않는 사람들은 필경 다른 신성한 것에 대해서도 감사함을 느끼지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에 그처럼 불경하게 되면 결국은 다른 사람들의 감정에도 전혀 무감각하게 될 것입니다. 어떤 지역에서는 현재 그러한 상황에 처해 있지 않은가 생각됩니다.

우리가 이런 불경한 사람들을 생각할 때, 우리는 예절 감각이 무디고 예의를 모르는 사람들과 더 좋은 일이나 신성한 일을 존중하지 않는 사람들을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인생이나 그들의 이웃을 존중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 그 이유는 그들이 누구인지, 어떤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을 베푸셔서 우리가 발전하고 잠재력을 이룰 수 있는 지표를 마련해 주십니다. 간단한 이야기로 이 점을 설명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얼마 전에 한 소년이 중고 컴퓨터를 샀으나 잘 작동시킬 수 없었읍니다. 그는 이내

실망이 되었읍니다. 그는 화가 나서 작동이 되지 않으면 그 말못하는 컴퓨터를 부숴 버리겠다고 소리쳤읍니다. 현명한 아버지가 개입하여 아들을 컴퓨터 판 사람에게 데리고 가서 지침서를 한 권 얻어 왔읍니다. 결국, 컴퓨터를 만든 사람이나 회사보다도 복잡한 컴퓨터에 대하여 누가 더 잘 알겠읍니까? 누가 그 능력과 잠재력을 가장 잘 알 수 있을까요? 누가 이 훌륭한 기계를 망가뜨리지 않고 더 잘 보호할 수 있을까요? 곧 그 소년은 제작자가 만든 지침서대로 작동시킴으로써 잘 이용할 수 있었읍니다.

우리 생활에서도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와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영원한 가능성에 대하여 가장 잘 알고 계신 하나님께서 그의 가르침의 지침서인 경전 속에 거룩하신 권고와 계명을 적어 우리에게 주셨읍니다. 우리가 주님의 가르침을 이해하고 따를 때, 우리의 생활은 목적과 의미를 갖게 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창조자가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의 행복을 기원하심을 압니다. 이처럼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 주시기 위해, 그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셨읍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요한복음 3 : 16~17)

예수님은 육신의 인간으로 태어나셨읍니다. 그는 완전한 생을 인도하셨고, 그리하여 우리가 따를 길을 보여 주셨읍니다. 그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가르치셨읍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요한복음 8 : 12)

그의 복음은 사랑의 복음으로, 하나님과 서로에 대한 사랑입니다. 그는 우리에게 그의 모범을 따르도록 지시하십니다. 우리가 제자가 될 수 있는가는 우리가 얼마나 순종할 수 있는가에 달려 있읍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요한복음 13 : 34~35)

여러분은 이 가르침에 따른다면 오늘날 이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 상상할 수 있겠읍니까?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계명은 우리의 이익을 위한 것이며 또한 심은 대로 거둔다는 사실을 이해못하지 않을까 염려됩니다.

우리는 아들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에게 되돌아가게 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고 말씀했읍니다. 그는 우리에게 그를 사랑한다면 그의 계명을 지키라고 하셨읍니다.(요한복음 14 : 15 참조) 그는 더욱 깊이있게 가르치셨읍니다.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요한복음 14 : 21)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와 부활에서 우리는 그에게 나아와, 영원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경배하는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시는 그의 거룩하신 사명의 실제를 볼 수 있읍니다. 우리는 그가 우리 죄를 위해 기꺼이 속죄하시고 고통당하신 것을 생각하며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깊이를 이해해야 하겠읍니다. "그 고난은 하나님이요, 모든 자보다 가장 위대한 나를 고통으로 떨게 하였고, 모든 구멍에서 피를 쏟게 했으며, 육체와 영혼이 다 괴로움을 당하였느니라." 그럼에도 그는 아버지께 영광을 드렸으며 쓴 잔을 마시고 인간의 자녀를 위한 준비를 끝마치셨읍니다.(교성 19 : 18~19 참조)

영감을 받은 찬송가의 훌륭한 가사를 계속합니다.

주 하나님 만드신 모든 세상
내 마음속에 그리어 볼 때
빛나는 별 울려 퍼지는 뇌성
주님의 권세 우주에 찼네
주님의 위대하신 업적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위대하신 업적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찬송가 〔영문〕, 86장)

형제 자매 여러분, 이 부활 주일에, 사랑하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와 부활에 대하여 하나님께 특별히 감사드립니다. 그 안에서, 그에 의하여, 그를 통해서, 이 잠시 동안의 육신의 상태가 영원하고 완전한 존재가 될 수 있으니, 그 때의 우리 기쁨은 무슨 말로도 표현할 수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창조주를 진심으로 경배하기 위해, 우리는 그의 창조하심을 인식해야 합니다. 우리는 시간을 내어 자연의 신비를 관찰할 필요가 있읍니다. 오늘날, 우리는 우리 인생의 참 모습을 가리우는 벽돌담과 아스팔트 표면에 쉽게 둘러 싸일 수 있읍니다. 가족과 함께 계획을 세워 꽃봉오리가 향기로운 꽃으로 피어나는 기적을 살펴 보도록 하십시오. 시간을 내서 언덕에 올라 앉아 태양이 지평선 너머로 마지막 황금빛 노을을 던지는 저녁의 평정을 느껴 보십시오. 장미의 향기를 맡아 보는 시간을 가져 보십시오.

자연의 모든 경이로움은 주님의 거룩하신 권세의 빛이며 사랑의 표현입니다. 그러나, 모든 것 중에서 가장 큰 기적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읍니다. 그것은 주님의 권세로, 우리가 죽음과 무덤에서 나아와 죽음이 없는 새로운 세계로 들어갈 때 일어날 것입니다. 그곳에서는 우리가 합당하다면, 예수님과 하나님 아버지와 영원히 함께 있을 것입니다.

겸손하게 그러나 확고한 신념으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 계심을 확실히 온 세계에 선포합니다. 우리는 그들이 1820년 봄에 예언자 요셉 스미스를 방문하셨음을 알고 있읍니다. 그들은 요셉에게 말씀하셨고, 그를 통하여 놀라운, 참된 교회를 가르쳐 주셨으며, 세상에서 잃어 버린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음을 회복시켜 주었읍니다.

우리는 온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회복과 복음을 아시기를 권유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그들은 하나님과 그의 사랑하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들의 창조에 대한 깊은 경외감과 사랑을 발전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참된 경외심은 모든 사람에게 평화와 기쁨과 행복을 가져다 준다는 사실을 간증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멘.

곤경에 처한 사랑하는 사람을 도움

리차드 지 스코트 장로
칠십인 제일 정원회 회장단

"많은 분들은 아들이나 딸이, 아내나 남편이 올바른 길로 나아가지 않고 악을 추구함으로 마음에 큰 짐을 지고 있기도 합니다. 그러한 분들을 위해 말씀드립니다."

부활절 아침은 모든 신실한 기독교인들이 우리의 사랑하는 구세주에게 겸손한 감사의 마음을 갖는 성스런 절기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평화와 기쁨을 가져다 주는 절기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중에서 많은 분들은 아들이나 딸이, 아내나 남편이 올바른 길로 나아가지 않고 악을 추구함으로 마음에 큰 짐을 지고 있기도 합니다. 그러한 분들을 위해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의 삶은 번민과 고통 때로는 좌절감으로 가득 차 있읍니다. 여러분이 어떻게 주님에게서 위안을 받을 수 있는지 말씀드려 보겠읍니다.

첫째, 여러분은 두 가지 기본 원리를 인식해야 합니다.

1. 여러분이 곤경에 처한 사랑하는 사람을 도와 주기 위해 할 수 있는 일은 많이 있으나, 어떤 일은 주님만이 도와 주실 수 있읍니다.

2. 또한 자유의지를 의롭게 행사하지 않으면 지속적인 발전은 있을 수 없읍니다. 자유의지를 무시하려 하지 마십시오. 주님도 그렇게 하려 하시지 않을 것입니다. 억지로 순종하고서는 축복을 가져 오지 못합니다.(교성 58 : 26~33)

여러분이 도울 수 있는 여섯 가지 방법을 제시해 보겠읍니다.

첫째, 조건없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리하이가 꿈속에서 과일을 따 먹고 기쁨에 가득 찼을 때, 먼저 떠오른 생각은 불순종하는 아들을 포함한 그의 가족들에게 그것을 나누어 주어야겠다는 것이었읍니다.(니파이일서 8 : 3~4, 12~13 참조)

둘째, 범법을 받아 들이지 마십시오. 그러나 범법자에게는 전폭적인 희망과 도움을 베푸십시오. 앨마는 순결의 법을 어긴 선교사인 그의 아들, 코리앤톤에게 이렇게 말했읍니다.

"…보라, 나의 아들아, 조램인들이 너의 처신을 보고 내 말을 믿으려 하지 않았으니, 네가 조램인들에게 끼친 죄가 참으로 크도다."(앨마서 39 : 11)

그런 후에 그는 그의 아들이 자신의 행동을 변명하는 합당하지 못한 버릇이 있다는 것을 자세하게 원리로 밝혀 주었읍니다. 그런 뒤에, 사랑이 많은 아버지는 이와 같이 충고해 주었읍니다.

"나의 아들아, 다시는 하나님의 공의를 부인하지 않기 바라노라. 하나님의 공의를 부인하며 작은 죄라 할지라도 이를 변명하려 하지 말지니라. 다만 하나님의 공의와 자비와 오래 참으심으로 너희 심령이 가득 차게 하라. 또한 이로 하여 너희 마음이 낮아져서 티끌처럼 겸손하게 되도록 하라.

"…나의 아들아 네게 주어진 길로 가라. 가서 진심과 온유로써 말씀을 전파하여…"(앨마서 42 : 30~31)

세째, 진리를 가르치십시오. 니파이는 그의 형제들에게 가르쳤읍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고 이를 굳게 지킬진대 멸망당하지 아니하며, 유혹이나 원수의 불길같은 창도 이러한 자들을 사로잡아 눈멀게 하거나, 멸망으로 인도하지 못하리라.…

"…나 니파이는 저들에게 주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도록 권고하였나니, 저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유의하고, 범사에 주님의 계명지키기를 기억하도록, 나의 모든 심령의 기력과 내가 지닌 온 힘을 다하여 권고하였느니라."(니일 15 : 24~25)

네째, 필요하다면 얼마든지 정직하게 용서하십시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읍니다. "만일 누가…마음으로 진실하게 회개하거든 너는 그를 용서하라. 내가 또한 그를 용서하리로다.

"참으로 나의 백성들이 회개할 때에 내가 저들의 허물을 사하리니"(모사이야서 26 : 29~30)

다섯째,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십시오.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야고보서 5 : 16)

주님은 이렇게 가르치셨읍니다. "너희가 반드시 주시리라 믿으며 무엇이든지 의로운 것을 아버지께 나의 이름으로 구하면, 보라 너희에게 주시리라."(니삼 18 : 20) "항상 기도하라. 그리하면 나는 네게 나의 영을

대회 모임이 시작되기 전 대화를 나누고 있는 총관리 역원들; 왼쪽으로부터 : 데이비드 비 헤이트 장로, 제임즈 이 파우스트 장로, 닐 에이 맥스웰 장로. 모두 십이사도 정원회 회원임

부어 주리라. 네가 받을 복이 크리니…"(교성 19 : 38)

여섯째, 안목을 지니십시오. 여러분이 정당하게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했다고 생각되면, 나머지는 주님의 손에 맡기십시오. 작은 조약돌을 눈에 가까이 대고 바로 보면, 아주 큰 물체로 보입니다. 그것 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것 밖에 생각나지 않습니다. 흔히 사랑하는 사람의 문제도 의식이 깨어 있을 때의 우리의 생활에 마찬가지의 영향을 미칠 수 있읍니다.

여러분이 도와 주기 위해서 현실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을 다했다면, 주님의 손에 그 문제를 맡기고, 더 이상 걱정하지 마십시오. 더 이상 할 수 없다 해서 죄책감을 느끼지 마십시오. 쓸데없는 걱정으로 에너지를 낭비하지 마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의 시야를 가리고 있는 조약돌을 집어 여러분의 영원한 진보를 가로막을 어려운 문제와 더불어 던져 버리실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안목이 트여지게 될 것입니다. 때가 되면, 여러분은 느낌을 받고 어떻게 더 도움을 줄 수 있는지 알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더욱 평안과 행복을 느끼게 될 것이며, 또한 영원한 안목을 지님으로 더욱 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그의 부친이 범법을 극복하게 되도록 노력했읍니다. 그가 최선을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아버지는 우상숭배를 했읍니다. 만일 아브라함이 아버지를 염려하는 마음으로 늘 그의 생각이 가득했다면, 그는 그의 자손이 축복받으리라는 약속을 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들의 인생에서 중대한 죄를 극복하고 일어선 사람들 중에서, 사랑하는 사람이 바람직한 반응을 보이지 않을 때 전에 불순종한 것으로 인해 스스로를 비난하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한 생각은 주님에게서 오는 것이 아니라, 사탄에게서 오는 것입니다.

엘마가 그의 아들 코리앤톤을 도울 수 있었던 것은, 자신이 지은 죄는 회개를 통해서 완전히 용서받았음을 알고 힘있게 말했기 때문이었읍니다.

이것은 교리적인 설교가 아니라, 내가 참된 것으로 알고 있는 것에 대한 개인적인 증거입니다. 때때로 나의 아내와 나는 우리가 감당해 내기에는 너무나 힘들게 보이는 어려움에 닥칠 때가 있읍니다. 언젠가는 딸 아이가 죽고 아내의 목숨도 위태롭게 된 적이 있었읍니다. 그런데 육 주도 못되어 사랑하는 아들을 또 잃었읍니다. 우리는 도움을 청했으며, 도움을 받았읍니다.

다른 어려움으로 우리가 무릎을 꿇게 되었을 때, 우리는 위안과 인도를 받을 수 있는 확신을 갖게 되었으며, 사실 그러했읍니다. 주님은 기회의 문을 열어 주시고, 우리 인생의 어려운 때에 우리 각자가 필요로 하는 힘을 주십니다.

이 부활 절기에, 부활과 그에 치러진 대가와 속죄를 통해서 주어진 은사를 상기해 보면서, 우리는 이러한 성스런 사건에 대하여 경전이 가르치고 있는 것을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러한 것이 실재함에 대한 우리의 개인적인 증거가 강화될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암송하는 원리 이상의 것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은 우리 생활 속에 깊이 새겨져 우리가 필요할 때에 큰 힘이 되어야 합니다.

니파이는 이렇게 가르쳤읍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는 흔들리지 않는 신앙으로 전능하신 권세로 너희를 구하시는 이의 공덕에 온전히 의지하지 아니할진대, 만사가 다 행하여진 것이 아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온전한 희망의 밝은 빛을 품고, 하나님과 만인에 대한 사랑을 지니고, 그리스도를 믿는 굳건함으로 힘차게 나아가야 하느니라. 너희가 힘차게 앞으로 나아가며, 그리스도의 말씀을 기쁘게 지키며 끝까지 참을진대, 보라 아버지께서 이르시어 너희가 영생을 얻으리라 하셨느니라."(니이 31 : 19~20)

그는 "그럴진대 평화와 행복이 영원하리라" 하고 덧붙였을 것입니다. 행복은 주님의 가르침을 이해하고 실천함으로써 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일을 다 이루지 못할 때 우리 자신을 비난하는 것으로 행복이 오는 것은 아닙니다.

마지막 한 가지 제언은—결코 사랑하는

사람을 포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나는 우리에게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가 계심을 알고 있읍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그에게 예배를 드려 그의 사랑을 느낄 수 있기를 요구합니다. 그분은 우리가 위안과 힘을 받을 수 있도록 그의 아들을 사랑할 것을 명하셨읍니다.

때로, 우리는 어리석게도 아버지와 아들에 관한 사실을 기계적으로 암송하고, 오히려 두 분에게 설교하고, 그들 앞에서 잘난체 하고, 우리의 무지와 자만을 나타내고 있읍니다. 그러나 그들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개인적으로, 완전하게 사랑하기를 계속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들은 전지 전능하며, 그들의 사업은 영원한 힘을 미치는 것이지만, 우리 각자에 대한 그들의 사랑은 개별적이며, 빈틈 없으며, 끝이 없으며, 타협함이 없이 완전합니다.

나는 그들이 살아 계심을 알고 있읍니다. 나는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우리의 구세주이시며, 구속주이심을 알고 있읍니다. 그는 그의 생명을 바치시어 우리가 죄를 극복하고 영원히 살 수 있게 하셨읍니다. 나는 그 방법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나는 아무런 흠없고 죄없는 삶을 사셨음을 아신 그분이 그의 삶을 끝맺으시면서 느꼈을 표현할 수 없는 고난을 불완전하기는 하지만 상상해 보고자 합니다. 그는 한 사람도 빠짐없이 모든 인류를 위해 완전한 속죄를 마련하셨으며, 그렇지 않고서는 한 사람도 하나님의 면전으로 되돌아갈 수 없을 것입니다. 그는 해 내셨읍니다. 완전하게 해 내셨읍니다. 그는 우리가 따라야 할 흠없는 본보기가 되십니다. 그 분이나 그 분의 아버지는 우리를 영원히 멸하게 않으실 것입니다. 이 간증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드립니다. 아멘.

그들이 기다리는 동안

마빈 제이 애쉬튼 장로
십이사도 정원회

"나는 특정한 권능과 특권을 일시적으로 잃은 분들에게 실망이 아닌 희망을 심어 드리고자 합니다."

며칠 전에, 최근에 징계를 받아 현재는 교회 회원이 아닌 어떤 친구가 이렇게 물었읍니다. "기다리고 있는 동안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입니까? 지난 얼마간의 기간 동안 내가 할 수 없는 일은 아주 분명해졌읍니다. 나에게, 그리고 나와 같은 처지에 있는 다른 사람들에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내가 한 훌륭한 사람의 이 간절한 청에 대답해 드릴 때, 필경 나의 제안은 소수의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겠지만, 그들도 귀중한 소수 임에는 분명합니다. 나는 특정한 권능과 특권을 일시적으로 잃은 분들에게 실망이 아닌 희망을 심어 드리고자 합니다. 이러한 분들 중에는 좌절감에 빠져 아무런 희망을 갖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읍니다. 이러한 분들과 그들의 가족이 활동을 재개하여, 위안과 새로운 가치관을 갖게 하는 생각으로 도움을 받게 되시기 바랍니다.

나는 지금도 그 친구가 덧붙인 요청을 생생하게 회상합니다. "내게 인내하고, 사랑하고, 이해심을 키우라는 말씀을 하지 마시기를 부탁합니다. 나는 그 이상이 필요합니다. 나는 확실한 방향이 필요합니다. 내게 절박하게 요구되는 것은 나의 좌절감을 극복하여 나의 삶을 찾는 것입니다. 제발, 좀 도와 주십시오."

교회 회원인 우리는 어떻게 이처럼 훌륭한 사람들을 가장 잘 도울 수 있겠읍니까?

나는 몰몬경의 한 인용문을 우리 행동의 근거로 제시합니다.

"너희들 가운데서 쫓아 내지 말고 저를 축복하며 저를 위하여 나의 이름으로 아버지께 기도하라. 만일 저가 회개하여 나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거든 저를 영접하며 나의 살과 피를 저에게 베풀어 취하게 하라."(니파이삼서 18 : 30)

흔히 경전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모든 자녀들에게 우리 마음 속에 하나님의 참된 사랑으로 가르침을 베풀어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조지 버나드 쇼는 "인류에 대한 가장 큰 죄악을 그들을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무관심한 것이다."라고 말한 적이 있었읍니다. 무관심은 가장 큰 상처를 주는 행위의 하나가 될 수 있읍니다. 생활하는 중에 외면하거나, 멸시하거나, 못 본 체하거나, 도와 주는 일에 관여하지 않으려 하는 행위는 결코 자행하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는 좋아하지 않는 사람도 사랑할 줄 알아야 합니다.

따스한 악수와 상냥한 미소도 훌륭한 치료제가 될 수 있읍니다. 반대로 우리가 "나는 다시는 그와 이야기하지 않겠다"라고 말하는 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일입니다. 오랜 시간이 되지 않아, 마음의 고통과 수치심을 느낀 사람들도 결국은 회개를 하게 됩니다. 때로는 마음에 상처를 주는 것이 육체의 고통보다 더 큰 해를 주기도 합니다. 그렇습니다. 그것은 치료하는 데 더 오랜 시간이 걸릴 수도 있으나, 우리가 원망과 노여움을 버리고 용서하는 마음이 된다면 더 빨리 치유될 것입니다.

우리가 시련을 헤쳐 나가고자 하는 사람들을 돕고자 할 때, 우리가 친절과 동정과 인내와 사랑을 베푼다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우리들 중에서 죄악이나 환경에 굴복하게 된다는 것은 슬픈 일입니다.

"기다림"의 상태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 그들 주위 사람들의 소견이 좁은 말과 행위로 큰 고통을 받았읍니다. 감정을 상하지 않는 사람들은 복이 있읍니다. 기다림의 과정에 있는 사람들에게 취해질 수 있고 또 취해져야 적절한 현실적인 조처가 있읍니다.

이제 "나는 기다리는 동안 어떤 일을 할 수 있읍니까?"라고 한 친구의 요청에 대해 말씀드립니다. 니파이삼서 9장 14절에 이러한 따스한 권유의 말씀이 있읍니다.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내게로 오면 영생을 얻으리로다. 보라 나의 자비의 팔이 너희에게로 뻗쳐져 있어, 누구든지 내게 오는 자를 내가 영접하여, 내게로 나오는 자를 축복하리로다."

이 성구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올 수 있기 전에는 기다리는 시간은 없음을 지적합니다. 약점을 지니고 있는 우리는 어디서 힘을 찾을 것인가를 알고 있읍니다. 우리의 삶을 위한 훌륭한 권고의 말씀과 현명한 가르침은 경전을 연구하는 데서 거둘 수 있읍니다. 자부심을 새롭게 하고 주님의 뜻을 행하고자 하는 힘을 새로이 갖게 될

것입니다. 사람들은 항상 프로그램으로 짜여진 것 이상을 헤아려야 합니다.

인간이 "그리스도에게 나아올" 때, 그는 용서의 실재를 배우게 됩니다. "보라, 무릇 죄를 회개한 자는 용서받을 것이요, 나 주가 저의 죄를 다시는 기억하지 아니 하느니라.

"사람이 자기 죄를 회개하는지 아니 하는지는 이로써 알 수 있나니, 보라, 회개하는 자는 자기 죄를 고백하며 그 죄를 버리리라."(교성 58 : 42~43)

인간이 "나 주가 저의 죄를 다시는 기억하지 아니 하느니라"는 성구의 진리를 확신하게 될 때, 그는 완전한 회원 자격을 다시 찾을 준비를 갖추게 됩니다. 두 가지 실제적인 낱말, *피함*과 *행함*을 사용하여 몇 가지 제언을 할 수 있읍니다. 피함은 고의적으로 피하는 것, 특히 계속해서 혐오한다는 의미입니다. 행하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과 공유하거나 함께 나누어야 합니다.

우리는 다음과 같이 할 것을 추천합니다.

1. *결정을 내리는 사람에게 대하여 원망, 분개, 불만의 감정을 피하십시오.* 징계 조치가 내려지게 되면, 그 심판을 내린 개인이나 재단에 대하여 원망의 감정을 품는 사람들이 있읍니다. 우리는 우리가 "먼저 돌을 던지기"에 앞서 스스로를 살펴 보도록 해야 합니다. 원망과 분노는 영혼에 좋은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부정한 것입니다.

원망은 겸손함으로 바꾸어야 합니다. 참으로, 원망은 그 감정을 품고 있는 사람에게 해를 줍니다. 그것은 앞을 보지 못하고, 위축시키며, 괴롭힙니다.

우리들 중에는 우리 자신의 위안의 영역을 넓히기 위해 다른 사람들의 약점이나 단점을 살펴 보려는 경향이 있읍니다. 이와 같은 경우에 합당한 개인적인 지지 기반에는, 효과를 거두기 위해, 우리가 보고, 경험하는 것에 우리가 대처하는 데 기꺼이 돕고자 하는 가족, 친구, 친지 등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모로나이는 우리에게 몇 가지 권고의 말씀을 해주었읍니다. "나의 부족함으로 하여 나를 비난하지 말며 나의 부친이나 그 전에 기록하신 이를 각각 저들의 부족함으로 비난하지 말라. 다만 너희에게 우리의 부족함을 알게 하시어, 너희로 우리보다 더욱 현명하게 되도록 가르치신 하나님께 감사하라."(몰몬서 9 : 31)

칠십인 제일 정원회의 윌리암 알 브래드 포드 장로가 관리 감독단의 제1보좌 헨리 비 아이어링 감독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회개하는 사람은 자신의 길을 택해 자신있게 나아갑니다. 그는 부상당한 자신을 보호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는 자기 연민의 위험에 빠지지 않을 것입니다. 대체로 자신에 대해서가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동정하는 것이 좋은 치료제입니다.

2. *좌절감을 피하십시오.* 사탄의 가장 강력한 도구의 하나는 좌절감입니다. "너는 할 수 없다", "너는 좋지 못하다", "너무 늦었다", "무슨 소용이 있는가?" 또는 "아무 희망이 없는 일"이라는 속삭임은 멸망의 도구입니다. 사탄은 여러분이 저지른 한 가지 실수로 모두 다 끝장이 난 것으로 믿게 하려 합니다. 그는 여러분이 노력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기다리는 사람의 생활에서 좌절감을 쫓아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것은 상당한 일과 에너지가 드는 일이겠으나, 성취할 수 있는 일입니다.

3. *도피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을 반항 또는 배반자의 무리로 받아들일 사람들이 있읍니다. 우리가 비난자의 무리와 파괴 목적에 가담한다면 우리는 결코 일을 성취해 낼 수 없읍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성장하기보다는 우리 입장에 대하여 다른 사람을 비난하거나 천시하기는 쉽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해를 입히고 파멸시키려는 사람들은 결국은 그들 스스로가 지게 됩니다. 약물, 음주, 춘화 및 반문화적 교제 등도 역시 도피해 나가는 과정입니다. "상관이

없다", "네가 할 일이 아니다" 하는 태도도 전혀 합당치 못한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아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이것이니라"(야고보서 1 : 27) 보존하고 세워 나가는 데에는 훈련과 인내가 요구됩니다. 다른 사람들을 파괴시킴으로써 스스로를 높이 세우려 하는 사람들을 피하십시오.

4. *무명인이 되기를 소망하지 마십시오.* 어려움이 발생할 때, 어떤 사람들은 군중 속으로 사라져 잊혀지고 알려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생각이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교회 기록부에 기재되어 있는 사람들이 받을 수 있는 훌륭한 지원 제도가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들어 주고, 도와 주며, 가르칠 사람들이 있읍니다. 경전을 연구하고, 생각하고, 기도할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 돌보아 주는 사람들과 돌보아 주시는 하나님은 여러분이 있는 곳을 알기를 원하십니다.

모든 인간은 알려지고, 인식되고, 사랑받을 필요가 있읍니다. 마음과 영혼이 함께 돌봄을 받고 뜻깊은 교감이 있어야 합니다. 혼자 떨어져 있기를 원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일지라도 실제로는 그들 자신의 주체성을 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특권이나 권리는 교회에서 회원 자격을 잃을 때에만 잃게 되는 것이지만, 다시 우리 자신을 찾는 과정에서 우리 스스로를 잃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존재 의미가 없는 사람은 없읍니다. 우리는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될 것이며 누구인가를 알지 못하는 일은 결코 없어야 합니다.

기다리는 동안, 적극 참여하여 할 일은 여러 가지가 있읍니다.

5. *가족과 함께 참여하십시오.* 가족은 귀중한 재산입니다. 가족은 사랑과 힘을 내어 줍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한 것은, 가족은 서로를 필요로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각 가족의 필요 사항을 알아내어 그러한 필요 사항을 채우기 위해 할 일을 해야 합니다. 어떤 사람은 말을 들어 줄 사람을 필요로 하며, 칭찬이나 긍정적인 보강을 필요로 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가족 활동에 참여함으로써 힘과 만족을 찾을 수 있읍니다. 돌아서 나갈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 느낄 때에라도 더욱 가까이 함으로써 가족의 사랑을 권장하십시오. 가족의 인정을 추구하는 데서 먼저 한 발 뒤로 물러 서는 것은 자신을 더욱 훌륭하게 변화시켜 줍니다. 훌륭한 지도 능력은 사랑을 통해서만 발현될 수 있다는 것은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마찬가지로 참된 것입니다.

6. *교회 활동 및 모임에 참여하십시오.* 기회가 주어질 때 합당한 과제를 받아 들이십시오. 나는 자신은 모든 교회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없었던 기간 중에 계속해서 우리 소년들을 도와 준 어느 훌륭한 형제에게 늘 감사할 것입니다. 그는 많은 사랑을 받았으며, 그가 시간을 내어 지도해 준 소년들을 사랑했읍니다.

신의와 약속을 이행하십시오. 기존의 상황에 적용하십시오. 여러분을 필요로 하는 곳에서 봉사할 장소는 있읍니다.

어떤 사람이 "내가 할 일은 없다"라고 말할 때, 그것은 틀린 말입니다. 우리는 현재의 상황에 따라 생활하고 새로운 기회에 저항하기를 배웠기 때문에 때때로 그런 말을 합니다.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궁극적인 장기적인 필요 사항에 대한 제한과 규정 이외의 것도 볼 수 있을 만큼 항상 민감해야 합니다.

7. *자선 및 기타 자원 봉사를 포함한 합당한 지역 사업에 참여하십시오.* 우리 자신의 문제는 우리가 다른 사람이 당한 문제를 인식하게 될 때 작게 생각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나의 아내가 우리 지역 병원에서 부녀 봉사대로 자원해서 일하고 있을 때, 그 지역의 의사들이 실망과 슬픔을 안고 있거나 정서적으로 질병을 앓고 있는 그들의 환자들에게 자원 봉사 단체에 가입하도록 권장하는 것을 알았읍니다. 그 처방은 흔히 자아상을 형성하는 데 어떤 약보다 더 효험이 있고

다른 사람들을 돕는 기쁨을 찾는 사람들에게 건강을 회복시켜 줍니다.

예산 삭감으로 인해 문화 및 사회 프로그램의 많은 부분이 원활하게 되지 못할 때, 도울 의향이 있는 사람들은 스카웃과 함께 일하거나, 기금 모금을 하거나, 학교, 미술관, 복지 기관 및 기타 다른 장소에서 도울 일은 얼마든지 있읍니다.

훌륭한 사업에 참여하는 데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읍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여러분의 사랑과 봉사를 필요로 할 때 기다릴 이유는 하나도 없읍니다. 사랑이 아무런 제한을 받지 않고 다녀야 할 도구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는 항상 환경보다는 인간에 가장 큰 관심을 가지셨읍니다.

8. *"보고 과정"에 참여하십시오.* 다시 회원 자격을 얻는 여러분의 책임의 일부는 여러분의 관심사와 문제와 진보 사항을 나눌 수 있는 사람들을 찾는 것입니다. 존 파우웰은 *사랑 안에 거하는 비결*이라는 저서에서 "의사 소통의 특성은 전적으로 정직하고 동시에 전적으로 친절하게 되는 능력"에 있다고 말합니다.(발렌시아, 캘리포니아; 타블 퍼블리싱, 1974년, 131페이지)

여러분의 생활에서 이러한 사람을 찾아 보십시오. 문제를 말로 표현하면 흔히 그 양이 감소됩니다. 다른 사람의 견해는 다른 면에서 그 상황을 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읍니다. 여러분의 감정을 나누고 여러분의 필요 사항을 존중해 줄 경청자를 갖는 것은 위안이 되는 일입니다.

의사 소통은 친절하고, 온유하고, 마음을 터놓고 건설적이 되어야 합니다.

모든 인간이 받을 수 있는 가장 큰 축복의 하나는 개인적인 기도입니다. 그로 인해 모든 사람은 모든 자녀를 사랑하시는 이해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에게 "보고"드릴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인간이 마음 속으로 느끼는 감정을 알고 계십니다. 그는 슬픔을 달래 주시며 빛이 없을 때 인도해 주십니다. 기도는 인도와 확신을 줄 수 있읍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이 세상에서는 누구도 혼자 있는 것이 아님을 상기시켜 줍니다. 모든 사람이 다 사라진다면, 하나님과 다른 사람이 가족이 될 수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모든 분들에게, 특히 일시적으로 어떤 특권을 잃은 분들에게 나는 돌아 오시기를 간청드리고 권유합니다. 여러분의 삶은 여러분에게 중요한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에게도 중요한 것입니다. 교회의 주요 목적의 하나는 개인의 발전과 행복을 확고히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러분과 우정과 영향력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데이비드 오 맥케이 대관장은 이렇게 기록한 적이 있었읍니다.

"이와 같이 개인의 노력을 강조하는 데서, 나는 협동의 필요성을 간과하지 않습니다. 단신으로 싸워 나가는 사람은 앞에 놓인 산을 오르면서 무거운 짐을 지는 것과 같기도 합니다. 도움을 받지 않고 정상까지 오르기란 불가능합니다. 이웃의 여행자에게 조금만 도움을 받으면, 그는 성큼 나아가 감사와 기쁜 마음으로 나아가게 됩니다."(*행복에 이르는 길*, 르웰린 알 맥케이편, 솔트레이크시티 : 북크래프트사, 1957, 131페이지)

우리는 여러분이 돌아오는 길에도 이웃의 여행자와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충만한 우정과 여러분이 누리게 될 기쁨과 권리에 따르는 행위와 태도에 적극 임하십시오. 우리는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뒷받침해 주시는 곳을 향해 나아갈 때 여러분의 곁에서 도와 드릴 것입니다. 기다리는 기간으로 알려진 기간을 지나는 동안, 여러분 앞에 놓인 그 모든 기간에 여러분과 우리의 관계는 시편 142편 4절의 말씀과 같지 않을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내 우편을 살펴 보소서 나를 아는 자도 없고 피난처도 없고 내 영혼을 돌아보는 자도 없나이다"

우리는 여러분을 사랑하고, 알고, 돌봅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회원과 그들의 귀중한 친구들에게는 기다리는 기간이란 없읍니다. 오히려 우리는 자신감과 의로운 성취에서의 궁극적인 승리를 위해 함께 일할 것입니다. 이러한 모든 진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증거합니다. 아멘.

빈 무덤의 간증

고든 비 힝클리 부대관장
대관장단 제1보좌

"어느 것도 죽음을 이기고 온 인류에게 영생의 은사를 가져다 준 갈보리 십자가 위의 외로움과 고통의 승리에 비교할 수 없읍니다."

나는 이제 하나님의 영원하신 것에 관한 몇 가지 사항을 말씀드리고자 하며 주님의 영의 인도하심을 간구합니다.

총관리 역원들이 말씀한 것을 한두 가지 내가 반복하게 된다면, 오늘이 바로 부활절 아침으로, 우리가 살아 계신 하나님의 영원하신 아들이 사망의 구속을 깨뜨려 인류 역사상 가장 큰 사건을 기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나는 지난 삼 주 동안 옛 친구들의 장례식에 세 번 참석해 말했읍니다. 나는 생과 사의 기적과 오묘함에 대하여 생각해 보게 되었읍니다.

오래 전 고등학교 시절의 친구 추모식에 다녀 와서, 나는 서재에 있는 책장에서 1928년 학교 앨범을 꺼냈읍니다. 나는 육십 년 전 졸업 반 친구들의 사진이 담긴 페이지를 조용히 넘겨 보며 한 시간 가량 보냈읍니다.

그 얼굴들은 그 당시에 젊고 밝고, 미래의 약속으로 가득 차 있었읍니다. 나는 그들이 모두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나, 그중 많은 친구들에 대하여 알고 있었읍니다. 우리는 우리의 꿈을 좇아 수많은 관심사를 따라갔읍니다. 지난 육십 여년간 지구를 휩쓴 참혹한 전쟁속에서 명예롭게 사라져간 사람들도 있읍니다. 우리는 대부분이 결혼했으며, 벌써 삼 대의 후손을 둔 조상이 된 것을 말씀드리게 됨을 행복하게 생각합니다. 이 많은 친구들 중에서 이혼한 사람이 없음을 알고 있읍니다.

한때 우리는 활기찬 학생들로 농구와 축구팀을 위해 승리를 외쳤읍니다. 이제, 구부정해진 우리는 읽고 생각하고 과거를 회상하기를 더 좋아합니다. 한때 우리는 춤추고 시끄럽게 떠들며 노래했읍니다. 이제 우리는 평온함과 조용함과 편안한 의자를 더 좋아합니다. 이러한 친구들은 교육자, 과학자, 의사, 변호사, 공무원이 되었으며, 다른 수많은 명예로운 직책을 훌륭하게 수행해 왔읍니다. 나는 옛 앨범 페이지를 넘기면서, 중대한 범법을 한 사람들을 생각할 수 없었읍니다. 특기할 일이라 생각합니다. 살아 있는 친구들은 모두 팔십을 바라보는 노인이 되었읍니다. 세상을 떠난 친구들도 많으며, 우리는 깊은 애정과 감사로 그들을 기억합니다.

친구들이 세상을 떠날 때마다 우리는 그들과의 이별을 슬퍼했읍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우리는 죽음은 비통한 현실이기도 하지만, 그것은 종말이 아니라, 오히려 더 나은 생으로 나아가는 또 하나의 시작에 불과함을 확신하는 데서 위안과 안정을 얻곤 했읍니다. 우리 반 친구들은 모두 나와 같은 신앙을 갖고 있었읍니다. 영어와 화학, 역사와 수학과 더불어 우리는 하나님의 것을 배웠는데, 그것은 오늘날 수십만의 청소년들이 교회의 위대한 프로그램을 통해 배우고 있는 것과 같은 것이었읍니다.

얼마 전에 나는 동창생의 관 앞에 서서 영원에 대하여 생각해 보았읍니다. 나는 평온함과 감사함을 느꼈읍니다. 눈물이 흐른 것은 당연했읍니다. 주님은 말씀하셨읍니다. "너희는 함께 모여 사랑으로 생활하라. 그리하여 저들이 죽어 저들을 잃게 되었을 때 눈물 흘리며 특히 영화로운 부활의 소망을 갖지 못한 자를 위하여 슬퍼하라.

"내 안에서 죽은 자는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리니, 이는 죽음이 저들에게는 단 연고라"(교성 42 : 45~46)

나는 내 고등학교 시절의 친구에게 죽음은 영화로운 부활의 확신으로 가득 찬 훌륭한 경험이 되었을 것으로 믿습니다.

이제 육신 생활의 고통은 사라졌읍니다. 긴 병고의 고충과 그 많은 외로움도 사라질 것입니다. 이제 친구는 사랑하는 사람들, 육신 생활을 하게 하신 부모님과 살아 생전에 사랑을 나눈 다른 가족들과 다시 합쳐지게 됩니다. 영은 그들과 함께 하기 위해 떠났으며, 약속된 첫번째 부활의 아침이 오면, 그들은 다시 육신을 입고 그들이 육신 생활을 할 때 누린 사랑의 유대를 이루며 살게 될 것입니다.

이야말로 부활절의 위대한 약속입니다. 온 기독교계에서 이 날을 경축함은 얼마나 훌륭한 일입니까? 인류 역사상 하나님의 아들이 부활하신 이 사실처럼 뜻깊은 것은 없읍니다.

인간이 창조된 이래, 육신 생활을 마치게 되는 죽음만큼 인생에서 명백한 사실은 없읍니다. 생명의 마지막 숨결이 멈출 때, 그곳에는 다른 어느 종말과도 견줄 수 없는 종말이 있읍니다. 어머니와 아버지가 사랑하는 자녀의 유물을 차디찬 무덤에 넣어줄 때, 무슨 말로도 달랠길 없는 슬픔이 있읍니다. 남편이 일생의 반려자를 땅에 묻을 때, 그곳에는 가슴 찢어지는 외로움이 있읍니다. 아내가 사랑하는 남편의 관속에 그의 유물을 넣어줄 때, 결코 치유될 수 없는

상처가 남게 됩니다. 자녀들이 그들을 사랑하고 길러 주신 부모님을 잃게 되면, 다른 무엇에도 견줄 수 없는 황량함만이 남게 됩니다. 생명은 성스러운 것이며, 죽음은 엄숙한 것입니다. 생명은 즐겁고 희망찬 것이며, 죽음은 장엄하고 어두운 것입니다. 침묵과 확실함의 두려움입니다, 워터 로리경이 "오, 감동적인, 의롭고 당당한 죽음이여"(앨프레드 노이즈, *영국 문학*, 1927, 1137페이지)라고 외친 것은 참으로 합당한 말입니다.

그러나 사망은 종말이 아닙니다. 죽음이 검은 장막을 드리울 때라도 그리스도와 그의 영원한 사명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에게는 분명한 확신이 있읍니다.

몇 해 전 나는 친구의 장례식에서 다음 시를 썼읍니다.

죽음이라 부르는 이것은 무엇인가
밤중에 소리없이 사라지는 것인가
그것은 종말이 아니라,
더 좋은 세상 더 큰 빛의 시작이라.

오 하나님 이 아픈 가슴을 만져 주시고,
고통스런 두려움을 달래 주소서
맑고, 순수한 희망과 신앙으로 힘과
평안을 주시어 눈물을 거두게 하소서.

죽음은 없고, 승리의 보상으로 얻은
변화에 지나지 않으니;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아들, 거룩하신 분의 은사라네.

인간의 역사에서 이룬 승리 중에서, 첫 부활절 아침에 부활하여 나오신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의 승리보다 그 결과가 더 위대하고 우주적이며, 영원한 것은 없읍니다.

우리는 침략자를 물리치고 승리한 대장과 왕을 찬양하고, 국가를 우러러 봅니다. 우리는 압제자의 세력을 물리친 그들의 희생과 승리를 기념하기 위해 기념비를 세웁니다. 그러나 이러한 업적도 위대하고 중요한 것이지만, 그 어느 것도 죽음을 이기고 온 인류에게 영생의 은사를 가져다 준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의 외로움과 고통의 승리에 비교할 수 없읍니다.

칠십인 제일 정원회의 회원들

"사람이 죽으면 어찌 다시 살리이까"(욥기 14 : 14)라는 욥의 필사적인 질문에 답하신 분은 그분이었읍니다. 부활하신 구세주에 관해서 예언적인 말씀을 한 사람은 욥이었읍니다.

"내가 알기에는 나의 구속자가 살아 계시니 후일에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나의 이 가죽, 이것이 썩은 후에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내가 친히 그를 보리니 내 눈으로 그를 보기를 외인처럼 하지 않을 것이라 내 마음이 초급하구나"(욥기 19 : 25~27)

언젠가 우리는 누구나 다 욥과 같은 질문을 하게 될 것이며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를 인하여 욥과 같은 대답을 얻게 될 것입니다. 위대한 창조주, 능력자이신 여호와의 이야기는 얼마나 훌륭한 것입니까! 그는 유대땅 베들레헴에서 아기로 태어나 지상에 내려오셨으며, 팔레스타인의 먼지나는 길을 걸으며 가르치고 병고침과 축복을 주셨으며, 갈보리의 수난의 십자가 위에서 생명을 바치셨고, 요셉의 무덤에서 일어나시어, 두 대륙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나신 부활하신 주님에 대하여 우리는 구대륙의 경전인 구약과 신대륙의 경전인 몰몬경과 또한 현대 계시의 확실한 말씀을 읽을 수 있읍니다.

우리는 이러한 경전을 읽고, 우리의 마음속에 속삭여 주는 영의 음성을 통하여 그는 부활이시요 생명이시며, 그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그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는 사실을 간증할 수 있읍니다.(요한복음 11 : 25~26 참조)

사망의 쏘는 것은 사라졌읍니다. 무덤은 이김의 삼킨 바 되었읍니다.

그는 생과 사의 주인이 되시는 기적을 베푸신 분입니다. 장님을 보게 하시고, 절름발이를 걷게 하시며, 죽은 자를 살게 하신 분은 그 분이셨읍니다.

"회당장 중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리어

"많이 간구하여 가로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얻어 살게 하소서

"아직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가로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마가복음 5 : 22~23, 35~36)

그런 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만을 대동하시고, 믿음이 없는 자들은 돌려 보내시고, "그 아이의 손을 잡고 가라사대 달리다굼 하시니 번역하면 곧 소녀야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심이라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 나이 열 두 살이라 사람들이 곧 크게 놀라고 놀라거늘"(41~42절)

그들이 크게 놀라고 놀란 것은 조금도 이상할 것이 없읍니다. 그들이 알고 있던 사람들 중에서, 모든 역사에서 그가 한 것과 같은 일을 한 사람은 하나도 없었읍니다. 그는 소녀를 죽음에서 살리셨읍니다. 그녀를 살리셨듯이, 마리아와 막달라의 동생 나사로도 살리셨으니, 죽어 무덤에 뉘인 그를 구세주께서 불러 내시니, 그는 살아 걸어 나왔읍니다. 예수는 생명과 죽음의 주인이심이 분명했으나, 그는 잔혹하고 야만적인 인간의 그의 사망을 계획해낸 십자가의 극심한 고통과 치욕을 받아 들이셨읍니다. 고난 중에 있는 그에게 그의 사악한 고문자들은 외쳤읍니다. "저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마태복음 27 : 42)

그는 스스로 구원할 능력을 갖고 계셨읍니다. 예수를 잡으러 온 군중들과 대항하려는 성미급한 베드로에게 그는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열 두 영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마태복음 26 : 53)고 말씀하셨읍니다.

그렇게 되면 그는 그의 아버지에게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리요?"(마태복음 26 : 54) 하고 물으신 대로 되었을 것입니다.

아닙니다. 인자는 모든 인류의 죄를 속죄하기 위해, 즉, 스스로 들어올려 주님을 따르는 모든 사람을 들어올릴 수 있도록 그의 생명을 바치셔야 했읍니다.

주님이 스스로를 내어 맡기시니, 그들은 그를 잡아 가시관을 씌우고 그의 등에 자색 옷을 붙여 조롱했읍니다. 인정도 없이 증오와 욕설로, 그들은 그를 치며, 비웃으며, 그를 십자가에 처형하라고 외쳤읍니다. 그는 악을 행한 일이 없었읍니다. 그는 선한 일만을 했으며, 그 이전의 어느 누구보다도 더 많은 선을 행했읍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의 사망을 외쳤읍니다.

그는 그가 달리실 무거운 십자가를 메고 비틀거렸읍니다. 그들은 연약한 그의 살을 단단한 나무에 못박았읍니다. 그들은 매달려 수난 중에 있는 그를 조롱했읍니다.

고난 중에 있으면서도, 그는 그들을 용서했읍니다. 그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왜 나를 버리시나이까?" 하고 외치셨읍니다. 그는 우리 각자를 위해 돌아가셨읍니다.

그러나 그는 돌아가심으로 인류에게 구속을 가져다 주셨읍니다. 우리를 대신한 그 희생의 오묘함과 장엄함의 정도는 아무도 충분히 이해할 수 없읍니다. 주님은 우리의 구속주가 되셨음을 말하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그의 육신은 수의가 입혀 아리마대의 요셉의 무덤에 놓였읍니다. 무덤은 봉해졌으며, 보초가 세워졌읍니다.

그러나 하늘 아래 어떤 힘도 하나님 아들의 권세를 이길 수 없었읍니다. 전능하신 아버지께서도 더 이상 참아 내실 수 없는 듯했읍니다. 땅이 진동했읍니다. 보초들은 도망쳤읍니다. 돌이 옮겨졌읍니다. 하늘과 땅의 주님께서 일어나시어, 수의를 벗어 놓으시고, 잠자는 자의 첫 열매로 나오셨읍니다. 빈 무덤은 모든 기적 중에서 가장 큰 기적을 증거했읍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먼저 마리아에게 그런 다음에는 다른 사람들에게 나타나셨으며, 오백명의 사람들에게 나타나시어, 생과 사를 초월한 영원한 권세를 확실하게 증거하셨읍니다.

마리아는 그를 랍비라 불렀으니, 그것은 주님을 뜻합니다. 사도들은 그의 상처를 만져 보았으며, 의심많은 도마는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요한복음 20 : 28)이라 외쳤읍니다.

기적은 팔레스타인에서만 목격된 것은 아니었읍니다. 그가 말씀하신 다른 우리에 든 양들도 있었읍니다. 그들도 방문하셔야 했읍니다. 이 모든 것은 신약의 사복음서에 있는 많은 증인의 간증으로 기록되어 있읍니다. 그 밖에도 주님의 거룩하심과 부활의 실재를 증거하는 똑같은 힘을 가진 다섯번째 기록도 있읍니다. 그것은 우리가 몰몬경이라고 부르는 다른 성약에 들어 있읍니다. 그것은 주께서 돌아가실 때 온 땅이 흔들릴 때 서반구에서 일어난 사건을 다룬 것입니다. 그곳에는 멸망과 어둠과 슬피 움과 죽음이 있었읍니다.

많은 무리가 바운티풀 땅에 있는 성전 주변에 모여 무서운 파멸로 그 땅에 큰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보고 놀랐읍니다. "하늘로부터 한 음성이 임하는지라. 저들이 눈을 들어 주변을 살피나 그 음성을 깨닫지 못하니라. 이는 거친 음성도 아니요 큰소리도 아니요 비록 작은 음성이었으나 온 몸을 속속들이 파고 드는지라, 몸에 떨리지 않는 곳이 없었고, 저들의 영혼을 꿰뚫어 가슴을 불붙게 하였으며,"(니파이삼서 11 : 3)

음성이 다시 들렸으니, 세번째였읍니다. "소리가 무리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보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저로 인하여 나의 이름이 영화로움을 받았으니, 저에게서 들으라 하시는지라.

"…보라 저들이 보매 하늘로부터 인자가 하강하시는데, 흰 옷을 입으셨더라. 저가 하강하사 무리 가운데 서심에,…

"이에 저가 손을 앞으로 내미시며 백성들에게 일러 말씀하시기를,…

"보라 나는 예언자들이 세상에 오리라고 증거한 바 예수 그리스도라.

"보라 나는 세상의 빛이요 생명이라.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쓴 잔을 마시며 세상의 죄를 대신하여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였고, 태초로부터 아버지의 뜻을 받들어 행하였느니라."(니파이삼서 11 : 6~11)

그들은 그의 상처를 만져 보고, 사랑으로 외치며, 그의 발 앞에 엎드려 그를 경배했읍니다.

그 때부터 그 다음 날까지 주님은 팔레스타인 백성들에게 가르친 것과 똑같은 것을 그들에게도 가르치셨읍니다. 그는 그들과 그 이후의 세대들이 그를 기억할 수 있도록 그들에게 최후의 만찬의 성찬을 제정하셨읍니다. 그는 그들을 축복하시고 그들에게서 떠나시니 성신이 그들에게 임하였읍니다.

주님은 우리 시대에 다시 오셨읍니다. 영원하신 아버지와 부활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때가 찬 경륜의 시대"(교성 112 : 30)를 다시 여시기 위해 나타나셨읍니다. 그 두분이 모습을 나타내신 이 경륜의 시대의 예언자가 되었읍니다. 그는 이렇게 말씀했읍니다.

"또 이 어린 양에 대하여 여러 가지 간증을 드리더니, 마지막으로 우리가 드리는 어린 양에 대한 간증은 이러하니, 곧 저는 살아계시다 함이니라.

"이는 우리가 하나님 우편에 있는 저를 보았고, 또 저는 하나님의 독생자라 간증하는 음성을 들었고,

"또 저로 말미암아, 저를 통하여, 저로 인하여 세상이 창조되어 지금 존재하며 거기 사는 주민은 하나님이 낳으신 아들 딸이라는 간증을 들었음이니라."(교성 76 : 22~24)

이 부활절 안식일에 우리의 엄숙한 간증을 덧붙입니다. 우리에게 증거가 되신 성신의 권세로 그는 살아 계신 하나님의 살아 계신 아들이심을 알고 있읍니다.

그는 우리의 구세주이시며, 구속주요, 평강의 왕이요, 생명의 왕이시며, 모든 인류의 희망이심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증드립니다. 아멘.

일요일 오후 모임 1988년 4월 3일

속죄, 자유의지 및 책임

보이드 케이 패커 장로
십이사도 정원회

"우리가 회개하기만 하면 속죄를 통해 범법과 사망으로부터 자유케 될 것입니다…회개는 우리가 내부로부터 감옥 문을 열 수 있는 열쇠입니다…그것을 사용할 수 있는 자유의지도 지니고 있읍니다."

주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나오셨읍니다. 이 배반의 순간에 베드로는 대제사의 종인 말고에게 검을 휘둘렀읍니다. 예수님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읍니다.

"네 검을 도로 집에 꽂으라…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열 두 영 더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마태복음 26 : 52~53)

모든 모욕과 욕설과 조롱 그리고 마지막 십자가에서의 고통 중에서도 주님은 침묵을 지키시며 따랐읍니다. 하지만 그것은 기독교 교리의 본질을 보여 주는 매우 극적인 한 순간입니다.

재판을 받으실 때의 일입니다. 이제 두려워진 빌라도는 예수님께 말했읍니다.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를 놓을 권세도 있고 십자가에 못박을 권세도 있는 줄 알지 못하느냐"(요한복음 19 : 10)

주님께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실 때의 정적인 위엄은 우리가 다만 상상해 볼 수 있을 따름입니다.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면 나를 해할 권세가 없었으리니"(요한복음 19 : 11)

그후에 일어난 일은 빌라도가 그렇게 행할 권세가 있어서가 아니라 주님께서 그것을 받아들일 뜻이 있으셨기 때문에 행해진 것입니다.

"내가 다시 목숨을 얻기 위하여 목숨을 버림이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요한복음 10 : 17~18)

주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과 후에도 많은 사람들이 영웅적인 비이기적인 행위로 자신의 목숨을 기꺼이 바쳤읍니다. 그러나 아무도 주님이 겪으신 것과 같지 않습니다. 주님은 온 인류의 죄의 짐을 지셨읍니다.

주님의 속죄를 통해 자비와 공의가 조화를 이루게 되었으며 영원한 율법이 받아들여졌으며 필멸의 인간이 구속받을 수 있는 중보가 이루어졌읍니다.

그는 스스로 택하시어 지상에 존재해 왔거나 지상에서 행해지게 될 사악함, 타락, 잔악함, 부도덕, 부패, 살인, 고통 및 폭행 등에 대해 인류를 위해 벌을 받아들이셨읍니다.

그는 스스로 선택하시어 필멸의 육신이 겪거나 견디기 어려운 악마의 무서운 힘을 맞이하셨읍니다. 바로 겟세마네에서였읍니다.

속죄가 어떻게 역사했는지 우리는 모릅니다. 필멸의 인간은 누구도 그 무죄한 주님의 빛 앞에서 악마가 고개를 돌리고 수치심으로 숨어 버린 것을 보지 못했읍니다.

어떠한 악의 힘도 그 빛을 끌 수 없었읍니다. 그러한 속죄가 이루어졌을 때 대가가 치러졌읍니다. 회개하는 모든 자는 사망과 지옥에서 벗어나게 되었읍니다. 마침내 인간은 자유롭게 되었읍니다. 지상에 살았던 모든 인간은 구세주를 따르기로 선택하여 구속받을 수 있게 되었읍니다.

이 끝없는 희생에 의한 그리스도의 속죄를 통해 모든 인류는 율법에 대한 순종과 복음 의식으로 구원받을 수 있게 되었읍니다.

*속죄*라는 말은 실제로 세 단어(*At-one-ment*)로 되어 있으며 하나님과 하나가 됨, 화해함, 속죄함의 의미가 있읍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속죄라는 말이 영어 신약전서에 단 한번만 나온다는 것을 아십니까? 바울이 로마인에게 보낸 서한을 인용하겠읍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목되었은즉 화목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으심을 인하여 구원을 얻을 것이니라

"이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을 얻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 하느니라" (로마서 5 : 8, 10~11; 주 : atonement를 한역 성경에서 화목으로 번역해 놓았음)

그 단 한번의 속죄라는 말이 영어 신약전서에 나옵니다. 모든 말 중에 속죄라는 말은 잘 알려지지 않은 말이

아니었읍니다. 왜냐하면 모세의 율법과 관련해서 구약전서에서는 많이 사용되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신약전서에서 한번만 나온 것은 주목할 만한 일입니다.

니파이는 성경에 대해 다음과 같이 간증했읍니다. "열두 사도가 증거하는 주님의 간결하신 복음이 실려 있으며"(니파이일서 13 : 24) "어린 양의 열두 사도의 손으로 유대인에게서 이방인들에게로 전해지고 나서 모든 가증한 교회 가운데서 가장 크고 가증한 교회를 보나니, 보라 저들의 가증하게 된 것은 저들이 간결하고 진귀한 어린 양의 복음을 던져 버린 때문이요, 많은 주님의 성약을 빼내어 버렸음이라."(니파이일서 13 : 26)

야곱은 크고 가증한 교회를 다음과 같이 정의했읍니다.

"시온을 대적하는 자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속박당한 자나 자유인이나 남자이거나 여자이거나를 막론하고 모두 멸망당하리니, 나를 따르는 자가 아니면 필경 나를 거역하는 자 곧 세상의 창녀들일 것임이라. 우리 하나님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니파이이서 10 : 16)

니파이는 "간결하고 진귀한 것들이 그책…에서 떨어져 나갔으매 실로 수많은 사람들이 실족하여 넘어질 것이요, 사탄이 큰 권세로 저들을 다스림을 네가 보리라"(니파이일서 13 : 29)고 말했읍니다. 그런 다음 진귀한 것들이 회복되리라고 예언했읍니다.(니파이일서 13 : 34~35 참조)

그리고 그것은 회복되었읍니다. 몰몬경에 속죄(대속)라는 말이 쉰 다섯 번이나 나옵니다. 앨마서에서 한 구절만 인용하겠읍니다. "구속이 이루어지지 않고서는 자비의 손길이 임할 수 없는 것이라. 자비의 계획을 펼치시려 주께서 스스로 세상의 죄를 대속하셨으니, 이는 공의를 이루시기 위함이요, 완전하신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 자비의 하나님이시고자 함이라"(앨마서 42 : 15)

신약전서에는 단 한번 나오지만 몰몬경에는 쉰 다섯 번이나 나옵니다. 몰몬경이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또 다른 성약임을 이보다 더 잘 증거하는 것이 무엇이겠읍니까?

칠십인 제일 정원회의 칼로스 이 애시 장로와 존 에이치 그로버그 장로

그러나 그것이 전부는 아닙니다. 속죄(대속)라는 말은 교리와 성약에서 열 한 번, 값진 진주에는 세 번 나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의미가 있는 말이 예순 아홉 번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 수많은 다른 구절들이 그것을 설명하고 있읍니다.

속죄의 대가는 강요없이 주님에 의해 치러졌는데 이는 자유의지가 가장 중요한 원리이기 때문입니다. 계획에 의해 자유의지는 존중되어야 합니다. 그것은 태초 에덴 동산에서도 그랬읍니다.

"주님은 에녹에게 이르시되, 네 형제를 보라, 저들은 내 손의 솜씨니 내가 저들을 만드는 날에 저들에게 지식을 주었고 에덴 동산에서 내가 저들에게 자유의지를 주었도다."(모세서 7 : 32)

에덴 동산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던지간에, 그 중요한 시험의 순간에 아담은 선택을 했읍니다.

주님이 아담과 이브에게 이 세상에서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명하시고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지 말라고 명하신 후에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읍니다. "그러나 이는 네게 주어진 것이니 먹든지 말든지 네게 맡기노라. 그러나 내가 네게 금하였음을 잊지 말지니 네가 먹는 날에는 정녕 죽을 것임이니라"(모세서 3 : 17)

인간이 강요에 의해 육신을 얻게 되었다는 데는 논란의 여지가 너무 많습니다. 그것은 구원의 계획의 필수적인 율법에 위배될 것입니다. 구원의 계획에 따르면 하나님의 모든 영의 자녀는 필멸의 육신을 받게 될 것이며 시험받게 될 것입니다. 아담은 그렇게 되어야 함을 알고 선택을 했던 것입니다. "아담이 타락한 것은 인간을 낳게 하려 함이요, 인간이 존재함은 기쁨을 갖기 위함이니라"(니파이이서 2 : 25)

아담과 이브는 행하도록 명을 받은 대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을 충만케 했읍니다. 독립된 창조물로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들의 육신을 창조하신 것은 구원의 계획에서 결정적으로 중요한 것이었읍니다. 필멸의 상태가 사라져야 하며 구원의 계획이 진행되기 위해서는 그들의 타락이 필수적이었읍니다.

야곱은 영원한 속죄가 없었다면 우리 육신과 영에 무슨 일이 생길지를 다음과 같이 묘사했읍니다. 그가 말하길 우리는 "악마" 같이 되리라고 했읍니다.(니파이이서 9 : 7~9 참조)

나는 절대적이란 말을 거의 안씁니다. 어울리는 데가 드물기 때문입니다. 이제 그 말을 두 번 사용하겠읍니다. 아담의 타락으로 인해 속죄는 부활을 이루고 필멸의 죽음을 이기기 위해 절대적으로 필요했읍니다.

속죄는 인간이 자신의 죄로부터 깨끗케 되고 영적인 사망인 둘째 사망 즉 우리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분리되는 것을 극복하기 위해 절대적으로 필요했읍니다. 경전에 여러 번 나와 있듯이 불결한 것이 하나님 면전에 들어갈 수 없을 것입니다.

"이는 네게 주어진 것이니…네게 맡기노라"(모세서 3 : 17)는 경전의 말씀은 아담과 이브 및 그들의 자손들에게 지상 생활의 모든 어려움을 이야기해 준 것이었읍니다. 지상 생활을 하면서 인간은 자유로이 선택합니다. 그리고 각 선택에는 결과가 따르게 됩니다. 아담의 선택은 공의의 율법을 작용케 했는데 이는 불순종에 대한 형벌로 사망을 겪게 되는 것이었읍니다.

그러나 재판정에서 행한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다면 나를 해할 권세가 없었으리니"(요한복음 19 : 11)라는 말씀은 자비가 같이 적용됨을 증명해 주었읍니다. 빚을 갚으러 구속주가 보내졌으며 인간을 자유케 해주었읍니다. 그것이 바로 구원의 계획이었읍니다.

앨마의 아들 코리앤톤은 죄를 지으면 반드시 벌을 받아야 하며 처벌을 받을 필요가 있다는 것은 공의롭지 않은 것으로 생각했읍니다. 앨마는 그의 아들과 우리에게 구속의 계획을 가르쳤읍니다.

앨마는 구속에 관해 이야기하며 다음과 같이 말했읍니다. "영원한 형벌이 없이는 회개가 있을 수 없는 것이니"(앨마서 42 : 16)

만약 형벌이 회개를 하게 하는 데 필요한 것이라면 이것은 회개를 더 쉽게 하도록 해줍니다. 고통스런 벌일지라도 결과적으론 우리를 보호해 줍니다. 어린 아이가 손가락을 불에 데었을 때 고통으로 우는 것과 같은 단순한 행동이 우리에게 그것을 가르쳐 줄 수 있읍니다. 고통을 느끼지 못한다면 그 어린 아이는 불에 타 목숨을 잃게 될 것입니다.

나는 세상에서 회개가 없이는 평안도, 행복도, 안전도 찾을 수 없으리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나는 내 잘못을 없앨 수 있는 방법이 없다면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겠읍니다. 그 고통은 내가 감당할 수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회개하지 않는다면 그 고통은 내가 아니라 여러분의 것이 될 것입니다.

속죄는 이루어졌읍니다. 우리가 회개하기만 하면 속죄를 통해 범법과 사망으로부터 자유케 될 것입니다. 회개는 그 모든 것의 비상구입니다. 회개는 우리가 내부로부터 감옥 문을 열 수 있는 열쇠입니다. 우리는 손에 그 열쇠를 갖고 있으며 그것을 사용할 수 있는 자유의지도 지니고 있읍니다.

얼마나 거룩하고 귀중한 자유입니까? 그리고 인간의 자유의지는 얼마나 가치가 있는 것입니까?

루시퍼는 여러 영악한 방법으로 우리의 선택을 조정하며 죄와 그 결과에 대해 우리를 속이고 있읍니다. 그와 그리고 그와 함께 하는 그의 사자들은 우리를 유혹하여 합당치 않게 심지어는 사악한 자가 되도록 합니다. 그러나 그의 모든 권세를 동원한다 할지라도 우리 자신이 받아들이지 않는 한 우리를 완전히 멸망시킬 수는 없읍니다. 만약 인간에게 속죄없이 자유의지가 주어졌다면 그것은 치명적인 해를 끼치는 선물이 되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창세기, 모세서, 아브라함서, 몰몬경 및 엔다우먼트에서 인간의 육신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음을 배웠읍니다. 만약 창조가 다른 방법으로 되었다면 타락도 있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만일 인간이 단지 동물에 불과하다면 책임감이 없는 자유를 인정해 주어야 합니다.

나는 학자들 간에 인간의 기원을 찾기 위해 동물과 암석을 조사해 보는 사람들이 있음을 잘 알고 있읍니다. 그들은 그곳에 있는 영을 찾도록 그들 자신의 내부를 들여다 보지 않습니다. 그들은 자신을 훈련하며 수많은 시간에 의해 사물을 재보며 인간은 동물의 경우와 같이 우연히 존재하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하는 것은 자유입니다. 그들은 자유의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도 자유의지가 있읍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의지하며 우주를 통해 하나님의 섭리를 보며 만사를 영원한 시간에 의해 재 봅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많은 것들을 우리는 신앙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것을 알고 있읍니다. 그 모든 것은 세상이 존재하기 전에 계획되었읍니다. 창조로부터 마지막 정점에 달하는 모든 사건은 우연에 근거를 둔 것이 아니라 선택에 근거를 두고 있읍니다. 그것은 그와 같은 방법으로 계획되었읍니다.

이것을 우리는 알고 있읍니다. 이것은 단순한 진리입니다. 만약에 창조가 없다면 타락도 없고 속죄가 필요하지도 않았을 것이며 우리를 중보해줄 구속주도 필요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도 필요없었을 것입니다.

겟세마네 동산과 골고다 언덕에서 구세주께서는 피를 흘리셨읍니다. 수세기 전 유월절이 장차 임할 일에 대한 상징으로 시작되었읍니다. 그것은 영원히 지켜야 할 의식이었읍니다. (창세기 12장 참조)

죽음의 재앙이 애급에 내려졌을 때 모든 이스라엘 가족은 흠없는 첫번째 수양을 준비하라는 명을 받았읍니다. 이

유월절 양은 뼈를 부러뜨리지 않고 죽여 그 피를 집 문설주에다 바르게 되어 있었읍니다. 주님은 죽음의 천사가 그렇게 표시된 집은 건너갈 것이며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을 해치지 않으리라는 약속을 주셨읍니다. 그들은 양의 피로 구원받았읍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후로 희생의 율법은 더이상 피흘리는 것을 요구하지 않았읍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히브리인에게 가르쳤듯이 "…몸을 단번에 드리심으로 말미암아…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히브리서 10 : 10, 12) 희생을 치르셨기 때문입니다. 그후로 희생은 애통하는 마음과 상한 심령 즉 회개하는 것이 되었읍니다.

그리고 유월절은 성찬식으로 영원히 기념하게 될 것입니다. 성찬식에서 우리는 침례 성약을 새롭게 하며 하나님의 어린 양의 몸과 우리를 위해 흘리신 그의 피를 기억하며 참여합니다.

이러한 상징이 지혜의 말씀에 다시 언급된 것은 중요한 의미가 있읍니다. 율법에 순종하는 이 세대의 성도들은 건강과 지식의 큰 보화를 얻게 되리라는 약속 이외에 다음과 같은 약속이 주어집니다. "나 주는 저들에게 한 가지 약속을 주노니, 곧 멸망의 천사가 이스라엘의 자녀들에게 한 것 같이 저들을 지나치며 살해하지 아니하리라."(교성 89 : 21)

나는 나의 감정을 숨기고 내가 속죄에 관해 어떻게 느끼고 있는지를 여러분께 말씀드릴 수 없읍니다. 그것은 가장 깊은 감사와 의무감을 갖게 해줍니다. 나의 영혼은 속죄를 이루신 이 그리스도시며 내가 증언하는 우리 구세주를 따르기를 열망하고 있읍니다. 나는 그에 대해 간증합니다. 그는 우리의 주님이시며 우리 구속주이시며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옹호자이십니다. 그는 자신의 피로 우리의 죄값을 치러 주셨읍니다.

나는 겸손히 그리스도의 속죄를 받아들입니다. 나는 주저없이 무릎을 꿇고 우리 아버지와 아들에게 경배를 드립니다. 자유의지는 나의 것이고 이렇게 하기를 내가 택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멘.

경전에서 얻는 해결책

조지 알 힐 3세 장로
칠십인 제일 정원회

"우리가 교회 부름을 수행하는 데 당면하는 어떠한 문제에 대한 답을 사실상 경전에서 찾을 수 있다는 것은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주님이며 구세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종인 사랑하는 동료 여러분, 온전히 주님을 위해 봉사하는 이 특별한 부름을 받은 이래로 나는 여러분 모두가 그러하듯이 가장 훌륭하게 봉사하는 방법을 알기 위해 경전을 연구하고 숙고하고 기도해 왔읍니다. 나는 지난 4월 연차 대회에서 부름받기 전까지 40년 동안 자연 과학 분야에서 연구 활동을 하면서 진리를 추구해 왔는데 이는 각고의 노력과 어느 정도의 영감이 결합하여 인류에게 많은 이익을 가져다 주는 사실과 원리들을 발견해 내는 것입니다. 나는 그러한 특권과 더불어 경전에 기록된 대로 주님으로부터 그의 택하신 예언자들에게 직접 계시된 진리의 원리들을 발견할 수 있는 특권에 대해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과학적인 방법을 통해서 진리를 발견하는 특권을 갖고 있는 교회의 많은 젊은이들에게, 과학을 통해 발견된 사실과 진리가 직접 계시를 통해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과 상반되지 않는다는 제임스 이 탈매지 장로님과 존 에이 윗소("진리를 찾아서"라는 명저의 저자) 장로님의 간증에 나의 간증을 덧붙이고자 합니다. 진리는 서로 보완해 주며, 만일 우리가 영원한 계획에서 그의 아들과 딸 및 동참자로서 우리의 사명을 완수하려 한다면 궁극적으로 알아야만 하는 근본 의문점들에 대한 답을 제공해 줍니다.

우리가 관찰하는 사실들간의 관계를 이해하기 위해 정립된 기본 골격이 되는 과학의 이론들이 실험에 의해 입증된 사실이라고 오인될 때 분명한 모순점들이 야기됩니다.

또한 종종 경전을 개인적으로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읍니다. 이것 또한 인식하는 데 어려움을 가져다 줄 수 있읍니다. 나는 상반되게 여겨지는 선택을 해야 할 때 "나는 모르겠다"라고 말하게 되었읍니다. 진실된 과학자라면 과학적인 연구를 통해 최종적인 답을 찾았다고 말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것은 계속해서 배우는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신앙개조에 보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하늘 나라에 관하여 위대하고 중요한 것을 많이 계시하실 것"임을 알 수 있읍니다. 주님의 교회 회원으로서 축복을 받기 위하여 우리는 참된 모든 것을 믿어야

하고 또한 "연구와 신앙으로써" 부지런히 학문을 구해야 합니다.

우리가 지명받은 필리핀에서, 교회 업무를 집행하는 과정에서 지도를 필요로 하는 아주 영적으로 잘 준비된 필리핀 사람들이 놀라우리 만큼 많이 개종하고 있는데 이에 따른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 경전을 상고하는 것이 필요함을 알게 되었읍니다. 이것은 실업률이 지극히 높은 나라에서 일어나고 있읍니다. 음식과 물품들이 부족한데

이것은 구세주께서 십자가에 못박혀 돌아가셨을 당시에 니파이의 도시들이 파멸된 후 야기되었을 상황들을 생각나게 해줍니다. 그 당시 부활하신 구세주께서는 생존한 니파이인들에게 그들의 문명을 재건하는 데 필요한 몇 가지 지시를 해주셨읍니다. 주님께서는 십일조와 헌물을 바치는 데 충실해야 될 필요성에 대해 말라기의 말씀을 인용하셨읍니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 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이미 나의 것을 도적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적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십일조와 헌물이라…

"만군의 주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십일조를 나의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붓지 아니하나 보라.

"너희 땅이 아름다와질 것임에 열방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주의 말씀이라."(니파이삼서 24 : 8, 10, 12)

그 약속이 채 3년도 못되어서 놀랍게 성취된 것이 니파이사서 2절부터 5절까지에 잘 기술되어 있읍니다.

필리핀의 교회 회원들은 "희생은 축복을 낳는다는 것"과 이사야서 58장 6~11절에 나와 있는 대로 행하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약속된 축복을 받고자 한다면 십일조의 법과 금식의 법에 따라 생활해야 한다는 것을 깨닫고 있읍니다.

"나의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 주며 멍에의 줄을 끌러 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케 하며…

"또 주린 자에게 네 식물을 나눠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네 집에 들이며…

"그리하면 네 빛이 아침 같이 비칠 것이며 네 치료가 급속할 것이며…

"네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네가 부르짖을 때에는 말하기를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마른 곳에서도 네 영혼을 만족케 하며, 네 뼈를 견고케 하리니 너는 물 댄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모사이야서 4장 26절은 이 말씀을 보충해 주고 있읍니다.

우리는 기본 원리에 충실하고 새로운 개념 즉 개종자들을 잘 보호 유지하고 재활동시키고, 기록하라는 대관장단의 권고를 따르는 것이 매우 중요함을 느끼고 있읍니다. 물밀듯이 들어오는 새로운 회원들로 인하여 와드와 지부의 기존 우정 증진 상태로는 충당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 현명한 선교부장과 스테이크 부장들이 현재 개종하고 최근에 개종한 회원들이 "교회 봉사 활동에 참여하고 발전하는 것을 기록함으로써 보호 유지하고 재활동화시키는 데" 협력하고 있읍니다. 계속적으로 새로운 회원들의 활동이 두드러지게 증가하는 것은 가장 고무적이고 만족할 만한 일입니다.

각 회원들을 돌보는 데 있어 복음의 원리를 이해하고 새로운 부름에 따르는 여러 구체적인 행정적 책임들을 수행해 나갈 수 있는 지도자들이 필요한 상황은 교회 초기 커틀랜드 지역에서 요셉 스미스가 당면했던 어려움들을 연상케 해줍니다. 우리와 같이 그 당시에도 주님의 방법대로 행하기 위해 많은 가르침이 필요했었읍니다. 그 당시 주님의 지시는 예언자 학교 제도로 "교회의 모든 역원…집사에 이르기까지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것을 가르치기 위해 (이 학교를) 설립하는 것이었읍니다.(교성 88 : 127) 스테이크 신권 지도자 모임은 장래의 지도자들을 위한 사전 훈련 모임을 제공해 주고, 정착된 교회 지역에서 볼 수 있는 관찰을 통해서 배우는 방법을 제시해 줍니다. 우리가 교회 부름을 수행하는 데 당면하는 어떠한 문제에 대한 답을 사실상 경전에서 찾을 수 있다는 것은 큰 얼마나 축복입니까!

말씀을 끝내기 전에 나의 훌륭한 부모님과 나의 동반자인 최고의 아내, 그리고 기도와 그들의 생활을 통해서 우리를 지지해 주는 우리 자녀들과 손자녀들에게 사랑과 감사를 전하고 싶습니다. 그들과 여러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참되며, 예수님은 살아 계시며, 우리 모두를 지극히 사랑해 주신다는 것을 간증드립니다. 또한 에즈라 태프트 벤슨 대관장님은 오늘날 하나님의 선택된 예언자임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증드립니다. 아멘.

이스라엘의 목자

존 알 라스터 장로
칠십인 제일 정원회

"주님의 성역에서 볼 수 있는 목자의 특질은 이스라엘의 양떼를 인도하는 모든 사람의 전형이 되어야 합니다."

나는 인생의 그 어느 때보다도 이 연단에서 말씀을 전하는 분들의 어깨에 놓여 있는 큰 책임감을 통감하고 있읍니다. 이제 내가, 우리가 부름받은 이 위대한 사업의 신성함에 대해 나의 간증을 덧붙일 수 있는 축복과 기회를 기쁘게 생각합니다.

주님의 성역에서 볼 수 있는 목자의 특질은 이스라엘의 양떼를 인도하는 모든 사람의 전형이 되어야 합니다. 그의 깊은 사랑, 대가없이 기꺼이 자신을 바침, 그의 아버지와 완전히 뜻을 같이 하는 원대한 목적에 대한 적확한 충성과 헌신 그리고 개인의 필요 사항에 대한 변함없는 관심은 참된 목자의 부름에 관한 표상이 됩니다.

수년 전 나는 미국 정부 공식 대표단의 일원으로 모로코를 방문하는 특권을 가졌읍니다. 여정의 일부로 우리는 어떤 고대 유적지를 방문하기 위해 얼마간 사막을 여행하게 되었읍니다. 다섯 대의 대형 검정색 리무진이 상당한 속도로 아름다운 모로코 변방을 가로질러 갔읍니다. 나는 세번째 리무진에 타고 있었으며 두번째 차와는 어느 정도 거리를 두고 있었읍니다. 우리가 언덕 꼭대기에 다달았을 때 나는 우리 앞에 가던 리무진이 길가에 정차해 있는 것을 보았읍니다. 우리가 가까이 갔을 때 나는 사고라는 것을 감지하고 운전사에게 차를 세우게 했읍니다. 우리 앞에 펼쳐진 그 광경은 수년이 지난 오늘에도 내게 남아 있읍니다.

구세주 당시에 입던 길게 늘어진 옷을 입은 한 연로한 목자가 리무진 옆에 서서 운전사와 이야기하고 있었읍니다. 나는 열 다섯 내지 스무 마리 이내의 적은 양떼가 주변에 있는 것을 보았읍니다. 사고가 났던 것입니다. 국왕의 승용차가 연로한 목자의 양 한 마리를 치어 상해를 입혔던 것입니다. 그 승용차 운전사는 노목자에게 국법을 설명하고 있었읍니다. 국왕의 승용차가 노목자 소유의 양 한 마리를 다치게 했기 때문에 그 목자는 큰 양값의 100배를 보상받게 되었읍니다. 그러나 같은 법에 의해 상해를 당한 양을 죽여 고기를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어야 합니다. 내 통역자는 서둘러 다음과 같이 덧붙였읍니다. "저 목자는 돈을 받지 않을 거예요. 저 사람들은 절대로 그러질 않아요." 나는 의아해서 이유를 물었읍니다. 통역자는 "자기 양에 대해 그가 지닌 사랑때문이지요."라고 말했읍니다. 그때 나는 그 노목자가 구부려 다친 양을 들어 안고는 자기 긴 옷 앞에 있는 커다란 부대 안에 넣는 것을 보았읍니다. 목자는 똑같은 말을 계속 반복하면서 양의 머리를 쓰다듬었읍니다. 그 말의 의미를 묻자 다음과 같이 대답했읍니다. "저 사람은 양의 이름을 부르고 있는 겁니다. 모든 양은 이름을 갖고 있지요. 왜냐하면 노인은 양의 목자이니까요. 훌륭한 목자는 양 하나하나의 이름을 안답니다." 내 운전사의 예상은 적중했읍니다. 그 노목자는 돈을 받지 않고 다친 양을 그의 옷 주머니 안에 안전하게 넣고는 적은 양떼와 함께 모로코의 아름다운 사막으로 사라져 갔읍니다.

우리가 유적지로 여행을 계속해 나가는 도중 통역자는 모로코 목자들의 전통과 풍습에 대해 좀더 알려 주었읍니다. 매일 저녁 해질녘이면 목자는 사막을 배회하는 이리떼를 대비해 안거할 수 있는 공동 울타리에 그들의 적은 양떼를 들여 놓습니다. 그러면 한 청년 목자가 다음날 아침까지 문을 지킵니다. 그런 다음 목자들이 울타리에 들어가 양 하나하나의 이름을 부릅니다. 목자는 양의 이름을 알며 양은 목자의 음성을 알기 때문에 타인의 음성은 들으려 하지 않고 신뢰하고 안전한 참 목자의 보호 아래서만 울타리를 떠납니다.

참 목자이신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크게 내 귀를 울렸읍니다.

"문으로 들어가는 이가 양의 목자라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어 놓은 후에 앞서 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고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요한복음 10 : 2~5)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이 감동적인 참 목자의 말씀에서 배울 수 있는 위대한 교훈이 있읍니다. 이 위대한 교회의 회원으로서 우리 손에는 이스라엘의 양떼를 위한 참목자가 되어야 하는 책임이 주어졌읍니다. 우리는 목자의 부름에 요구되는 특질을 이해하고 있읍니까? 우리가 가정 복음 교사이든, 방문 교사이든, 보조 조직 지도자와 교사이든, 신권 지도자이든 그 무슨 부름이든지간에 우리는 개인적인 목자와 성직자가 되도록 살아 계신 예언자를 통해 하나님으로부터 신성한 명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새로운 부름이

아닙니다. 항상 그런 식으로 존재해 왔읍니다.

우리는 우리의 양 하나하나의 이름을 알고 있읍니까? 그들은 우리의 음성을 압니까? 아니면 그들은 타인의 음성을 들어야만 합니까? 그들은 그들을 사랑하며, 대가없이 기꺼이 그들의 필요에 시간과 주의를 기울이며, 그런 중에 오늘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참으로 크게 필요한 신뢰와 안위를 심어 주는 참된 목자로 우리를 알고 있읍니까? 우리는 그들을 교회의 모든 활동으로 인도하며 불사불멸과 영생을 향해 나아가게 할 수 있읍니까? 그들이 우리의 음성을 알기 때문에 변함없이 확신을 심어 주며 그들보다 앞서가고 있읍니까?

아니면 우리는 많은 사람들에게 타인입니까? 나는 여러분이 참 목자의 음성을 알게 된다면 타인이 되지 않을 것이며 될 수도 없다는 것을 약속합니다. 왜냐하면 그 음성은 예언자가 선언하신 것을 확인시켜 줄 것이며 영이 여러분이 할 바를 지시해 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때만이 여러분은 참된 이스라엘의 목자가 될 것입니다.

거의 이천 년 전 부활절 주말에 있었던 사건보다 참 목자의 부름에 대한 본질을 보여 주는 더 큰 예는 없을 것입니다. 그것은 그의 깊은 사랑, 대가없이 기꺼이 자신을 바침, 그의 아버지와 완전히 뜻을 같이 하는 원대한 목적에 대한 적확한 충성과 헌신, 그리고 개인의 필요 사항에 대한 변함없는 관심입니다. 이와 같은 품성들이 이스라엘의 목자로서 우리가 행하는 일에 나타나야만 합니다. 나는 우리가 참 목자가 되어야 하며 참 목자의 부름에 따른 개인적인 본질을 아는 것이 필요함을 온 영혼을 다해 간증드립니다.

나는 주님의 목자의 한 사람으로서 이스라엘의 양떼를 위해 참 목자가 되며 그 부름에 따른 개인적인 본질을 알아야 하는 우리 어깨 위에 놓여진 거룩한 책임에 대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증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딸

요시히꼬 기꾸찌 장로
칠십인 제일 정원회

"남편들이여, 아내를 하나님의 딸로서 사랑하십니까?"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나는 아름다운 하와이에 있는 성도들과 선교사들의 인사를 전해 드립니다. 알로하! (aloha!)

오늘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우리는 아내를 하나님의 딸로 대하고 있읍니까? *여러분*은 아내를 하나님의 딸로 대하고 있읍니까?

하나님의 딸, 이 말은 특별한 느낌을 줍니다. 단순히 이 말을 할 때라도 일종의 경건함을 느낍니다. 여러분은 이렇게 말할지도 모릅니다. "오, 기꾸찌 형제님, 물론 나는 아내를 하나님의 딸로 대하고 있읍니다." 그러나 나는 여러분이 얼마나 많이 아내를 하나님의 딸로 대하고 존경하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잠시 멈추고 여러분의 사랑하는 동반자를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특별한 그의 딸로 여러분에게 그녀를 맡기셨읍니다.

나는 이 생애에서 여러분이 만날 수 있는 가장 가까운 사람 또는 이웃은 바로 여러분의 사랑스런 아내라고 믿습니다. 그녀는 여러분의 연인이며, 여러분의 사랑이며, 여러분의 가장 좋은 친구이며 여러분의 애인입니다. 그리고 그녀는 하나님의 딸입니다!

네 아내를 사랑하라

율법사에 주신 주님의 가르침은 매우 분명했읍니다.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크고 첫째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마태복음 22 : 37~39)

어제 우리 사랑하는 예언자인 에즈라 태프트 벤슨 대관장께서는 우리 생애에서 우리가 하는 모든 것 중에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첫번째 계명을 첫째로 놓아야 한다고 말씀하셨읍니다.

두번째 계명도 첫번째 계명과 같습니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읍니다.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형제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의 모든 자녀들 중에 여러분의 아내가 여러분이 만날 수 있는 가장 가까운 이웃이라고 생각지 않습니까?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읍니다. "온 마음을 다하여 네 아내를 사랑하라."(교성 42 : 22)

참으로 "결혼은 하나님께서 정하여 주신 것"(교성 49 : 15)입니다. "모든 사람은 혼인을 귀히 여겨야"합니다. (히브리서 13 : 4)

아브라함의 결행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의 외아들인

이삭을 모리아산에서 번제로 드리라고 말씀하셨을 때 아브라함은 이삭과 두 명의 종과 나귀를 데리고 가서 제단을 쌓았읍니다. (창세기 22 : 3 참조) 가는 길에 이삭이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라고 물었읍니다. (창 22 : 7 참조) 아버지인 아브라함은 이삭이 번제물임을 알고 있었지만 "아들아 하나님이 준비하시리라"고 말했읍니다. (8절 참조)

시간이 되자 아브라함은 기꺼이 이삭을 바치려 했으며 이삭도 도망가지 않았읍니다. (9~11절 참조) 형제 자매 여러분, 결혼 생활에서 우리는 아브라함의 결행과 또한 이삭의 정신도 필요합니다.

보라 네 어머니라

참을 수 없는 고통의 순간에 구세주는 그의 어머니인 마리아를 내려다 보면서 요한을 가리키면서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그리고 요한에게는 "보라 네 어머니라!"고 말씀했읍니다. 경전에는 요한이 "자기 집에 모시니라"고 기록되어 있읍니다. (요한복음 19 : 26~27 참조)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딸을 돌보도록 맡길 만큼 합당합니까?

구세주께서는 세상의 여인들에 대해 특별한 느낌을 지니셨음이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부활하신 주님을 본 첫번째 사람이 바로 여인인 막달라 마리아였기 때문입니다. 오, 그것은 얼마나 특별한 상황이었겠읍니까! (요한복음 20 참조)

조나단 에이치 나펠라

나는 오늘 하와이에서 *영원히* 사랑하는 동반자 관계를 유지하며 살았던 한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1850년에 브리감 영은 하와이 섬에 열 명의 선교사들을 보냈읍니다. 언어와 문화를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선교사들은 선교 사업을 하기가 심히 어려웠읍니다. 결국 그들은 선교부장을 포함해서 모두 낙담하게 되었읍니다. 그들은 낙담한 나머지 열 명 중의 다섯 명은 고향으로 돌아갔읍니다. 남아 있던 선교사 중에 가장 나이가 어린 조지 큐 캐넌 장로는 머물기로 결정하고 주님께 기도를 드렸읍니다. 주님께서는 그에게

칠십인 제일 정원회 회장단의 딘 엘 라슨 장로, 리차드 지 스코트 장로 및 매리온 디 행스 장로

마우이에 있는 라하이나로 가도록 영감을 주셨읍니다. 그는 그곳으로 갔읍니다.

그가 이 마을에 도착하자 두 여인이 소리를 지르며 근처 집으로 들어가더니 그곳에 사는 한 점잖은 사람을 데리고 나왔읍니다. 전날 밤에 이 사람은 하나님의 한 사자가 그의 마을에 오는데 그에게 반드시 음식을 대접해야 한다는 꿈을 꾸었읍니다. 캐넌 장로는 이 사람의 집에 머물면서 복음을 전파하도록 권유받았읍니다. 이 조나단 에이치 나펠라라는 사람은 교육 수준이 높은 그 지역의 유지였읍니다. (앨마서 10 : 4 참조)

결국 캐넌 장로와 조나단 나펠라는 몰몬경에 나오는 앨마와 앰율레크와 같이 매우 가까운 친구가 되었읍니다. (앨마서 8 : 27 참조)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나펠라 형제의 큰 도움 그리고 하와이 성도들의 호의와 친절로 인해 선교 사업은 하와이에서 급진전을 보게 되었으며 기초가 놓이게 되었읍니다.

그의 위대하고 깊은 사랑

수년이 지난 1873년에 이 훌륭한 사람인 조나단 나펠라의 아내인 키티가 나병에 걸리게 되었읍니다. 그녀는 아름다왔으며 초기 하와이 교회에서 고상한 여인이었읍니다. 오늘날 현대 의학이 발전하여 이 병은 더 이상 치명적인 것은 아니지만 그 당시에는 이 무서운 병을 치료할 수가 없었읍니다. 이 병이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해 일단 병에 걸리면 몰로카이에 있는 나병 수용소에 강제로 보내 살게 했읍니다. 나병 환자들을 배에 태워 그곳에 보냈읍니다. 선원들은 이 병이 옮을까 봐 두려워하여 나병 환자들을 바다에 밀어 넣고 해변까지 헤엄쳐서 가게 했읍니다.

조나단은 아내가 나병 수용소인 칼라우파파로 가야 했기 때문에 자신도 그곳으로 가길 원했읍니다. 그는 아내의 손을 잡고 함께 그곳으로 갔읍니다. 왜 그는 이렇게 했을까요? 아내를 너무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인생은 영원하며 "아플 때나 건강할 때나" 사랑은 영원한 것임을 알았읍니다.

오, 나는 얼마나 아내를 사랑합니까?

조나단이 그의 아내를 사랑했던 것만큼 나는 그녀를 하나님의 딸로 사랑합니까? 나는 아내와 함께 하기 위해 그와 같은 곳으로 기꺼이 갈 수 있겠읍니까? 여러분은 조나단과 같은 순수한 사랑을 기꺼이 보여줄 수 있읍니까? 형제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동반자를 존중하고 있읍니까? 보살피고 있읍니까? 관심을 기울이고 있읍니까? 우리는 그렇게 해야 합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함께 짝지어 주셨기 때문입니다.(마가복음 10:9 참조)

역사 기록에 의하면 이 용감하고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은 나병 수용소에서 일하면서 나병 환자들이 좀더 편안한 장소에서 생활하도록 하기 위해 정부 보조를 얻는 데 힘을 기울였읍니다. 그는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백성들에게 지니셨던 순수한 사랑을 지닌 위대한 사람이었읍니다. 나는 바울이 고린도인들에게 했던 다음 말씀을 기억합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고린도전서 13:1)

이 훌륭한 형제는 후에 같은 병에 걸려 그의 아내보다 먼저 죽었읍니다. 그녀는 이 년 뒤에 남편의 뒤를 따랐읍니다. 남편 여러분, 여러분은 아내를 하나님의 딸로 사랑하십니까? 남편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심 같이" 여러분의 아내를 하나님의 딸로서 사랑하십시오.(에베소서 5:25)

나는 하나님이 살아 계심을 압니다. 이 교회는 그분의 교회입니다. 나는 구세주께서 살아 계심을 압니다. 나는 요셉 스미스가 하나님의 예언자였으며 이 교회를 회복하셨음을 압니다. 나는 우리 사랑하는 예언자인 에즈라 태프트 벤슨 대관장님이 하나님의 살아 계신 예언자이며 우리에게 본이 되심을 압니다. 몰몬경은 참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멘.

자녀에게 복음을 가르침

드왠 제이 영
최근에 해임된 본부 초등협회 회장

"우리 모두는 어린 아이들의 교사입니다… 어린 아이들은 항상 보고 배웁니다. 우리는 말로서만이 아니라 행동을 통해 그들을 가르칩니다."

홀리는 집 앞에 높이 솟아 있는 소나무를 무척 좋아했읍니다. 나무 가지로 인해 그늘이 진 곳은 놀기가 안성마춤이었읍니다.

사고가 난 날, 나무 아래서 세 명의 어린 아이들이 홀리가 책 읽는 것을 듣고 있었읍니다. 갑자기 무엇인가가 그녀에게 속삭이는 것을 들었읍니다. "비켜라!" 하는 소리가 머리에 맴돌자 홀리의 가슴은 두근거리기 시작했읍니다. 그녀는 즉시 이에 따랐읍니다. 발을 구르며 그녀는 어린 아이들에게 뛰라고 소리쳤읍니다. 홀리는 가장 어린 아이를 데리고 나왔고 나머지는 뒤를 따랐읍니다. 어린 아이들은 요란한 충돌 소리를 들을 때까지 장난을 치는 줄 알았읍니다.

운전사는 차의 중심을 잃고 불과 몇 분 전까지만 해도 아이들이 책을 읽고 있던 큰 소나무를 들이받았읍니다. 그들이 피하지 않았다면 크게 다쳤을 것입니다. 몇몇 어린 아이들은 너무 무서워 울음을 터뜨리기 시작했읍니다. 하지만 홀리는 울지 않았읍니다. 그녀는 자신에게 비키라고 말해 준 조그만 음성에 대해 생각해 보았읍니다. 그 경고는 성신으로부터 자신에게 온 것임을 알았읍니다. 그녀가 침례받고 확인받으면서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받은 그 은사가 약속받은 대로 그녀를 도와준 것입니다.(엘레인 캐넌, 침례 및 확인 : 하늘의 생명선, 솔트레이크시티 : 북크래프트사, 1986, 36~37페이지 참조)

영에 민감하도록 가르침받은 홀리와 같은 어린 아이들이 우리 가운데 많이 있읍니다. 이 어린 아이들은 누구입니까? 우리 사랑하는 벤슨 대관장님은 얼마 전 우리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읍니다. "하나님은 마지막 순간을 위해 좀더 강하고 가장 용감한 자녀들을 예비해 두셨는데 그들은 왕국을 이어나가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엔사인*, 1987년 4월호, 73페이지) 그들은 각각 이루어야 할 특별한 사명을 지닌 하나님의 아들과 딸입니다. 그들은 참으로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 때 자긍심이 커지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날 많은 우리 자녀들이 이상적인 환경에서 배우고 있지

못합니다. 국민학교에서조차 마약, 알코올, 불경스런 언어, 심지어는 반원들 간의 부도덕한 행위까지 접하게 되는 아이들이 있읍니다. 많은 경우에 가족들은 너무 많은 활동을 집 밖에서 하기 때문에 부모와 자녀가 서로 의미깊은 관계를 발전시킬 시간이 없읍니다. 함께 기도를 하고 함께 식사를 하는 가정이 드물니다. 자녀와 함께 시간을 보내는 아버지들이 드물며 좀더 많은 어머니들이 하루가 끝날 때 쯤이면 너무 피곤해서 한 시간 정도 자녀와 함께 책을 읽거나 만나 줄 수가 없읍니다. 가족과 함께 보낼 수 있는 시간을 텔레비젼을 보면서 보낼 때가 자주 있읍니다. 열 여덟 살까지는 대체로 학교에서 보내는 시간보다 텔레비젼 앞에서 보내는 시간이 더 많습니다.

이와 같은 환경에서는 자녀에게 생애에서 중요한 것들 즉 하나님 아버지, 구세주 및 성신에 관해서 가르칠 시간을 가져야만 합니다. 우리는 자녀들에게 회개, 침례, 정직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선을 행하는 것에 대해 가르쳐야 합니다. 여러분은 "나는 부모가 아니라 자녀를 가르치지 않아요"라고 말할지도 모릅니다. 사실상 부모, 아줌마, 아저씨, 조부모, 신권 지도자, 와드 회원, 이웃인 우리 모두는 어린 아이들의 교사입니다. 어린 아이들은 항상 보고 배웁니다. 우리는 말로서 만이 아니라 행동을 통해 그들을 가르칩니다. 그들은 우리가 서로를 어떻게 대하는지 봅니다. 그들은 부모의 가르침과 교회의 가르침을 듣습니다. 불행하게도 그들은 때때로 복음 원리에 상반되는 가치관을 가르치는 텔레비젼이나 그밖의 장소에서 들리는 소리도 듣습니다. 우리는 그들이 어린 나이일 때 홀리가 그랬듯이 올바른 소리를 듣도록 가르쳐야 합니다.

수년 동안 나는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어린 아이에 대한 확실한 진리들을 배웠읍니다.

첫째, 어린이는 가르침을 받고자 원합니다. 내가 볼리비아에 있는 초등협회를 방문했을 때 이것을 깨닫게 되었읍니다. 나는 나이가 든 어린이 반을 방문하고자 했으나 세 명의 어린 소녀들이 나의 소매를 잡아당겼읍니다. 그들은 교실에 갔으나 선생이 없어 다시 왔읍니다. "우리를 가르쳐 주시지 않겠어요?", "우리는 선생님이 필요해요"라고 요청했읍니다. 그 어린이들은 복음 진리를 갈구하고 있었기 때문에 나는 가장 보람있는 교수 경험을 했읍니다.

둘째, 어린이들은 홀리가 이해했듯이 영의 조용한 속삭임을 이해합니다.

세째, 어린이는 배움을 통해 영원히 큰 영향을 받을 수 있읍니다. 한 어린 소녀는 성전과 영원한 가족에 관해 배웠읍니다. 그녀는 집에 가서 아버지에게 자신은 어떻게 될지 물었읍니다. 왜냐하면 그녀의 가족은 인봉받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다른 가족에게로 가야 하겠읍니까? 이 부드러운 영을 지닌 소녀의 신앙은 그녀의 아버지를 감동시켜 행동으로 옮기게 했읍니다. 일 년도 못되어 그 가족은 성전에서 인봉되었읍니다.

네째, 부모는 자녀들에게 복음 원리를 가르치도록 명을 받았읍니다. 교리와 성약에 보면 주님은 부모들이 자녀에게 "회개와 살아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과 침례와 안수에 의한 성신의 은사 등의 교리"들을 가르치도록 지시하고 계십니다.(교성 68 : 25)

구세주는 또한 부모에게 더 많은 것을 가르치고 계신데 그것은 자녀와 같이 그들도 배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읍니다. "너희는 부모들을 가르쳐 저들이 회개하여 침례받게 하고 어린 아이처럼 겸손하도록 하라, 그러할진대 저들이 그 자녀들과 더불어 구원을 받을 것이라."(모로나이서 8 : 10)

다섯째, 복음 진리는 어린이의 생활을 변하게 합니다. 지난 수년 동안 나는 복음 원리를 배운 어린이들의 예를 수없이 보아 왔읍니다. 그들은 이러한 진리를 배우면서 그들의 생활을 통해 힘을 얻을 근원을 마련합니다. 두 가지 예를 여러분께 말씀드리겠읍니다.

여덟 살 된 애니는 친구 집에서 밤을 보냈읍니다. 그들은 자리가 정돈되자 심각한 주제에 관해 이야기했읍니다. 경전은 참된가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각자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로 간구했으며 영을 통해 경전이 참되다는 강한 느낌을 받았읍니다. 다음 날 애니는 어머니에게 그 영의 느낌을 말씀드리고 규칙적으로 경전 공부를 시작하기로 결심했읍니다.

스티븐은 대부분 열 한 살 된 소년들과 같이 농구를 아주 좋아했읍니다. 어느 날 오후에 그는 친구들과 텔레비젼에서 하는 농구 게임을 보러 갔읍니다. 삼십 분 후에 그는 돌아왔읍니다. 어머니는 게임이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놀랬읍니다. 스티븐에게 물었을 때 그는 친구들이 다른 프로그램을 보기로 했는데 느낌이 좋지 않았다고 말했읍니다. 그러한 느낌으로 인해 스티븐은 영이 함께 할 수 없는 곳에 자기가 앉아 있음을 알게 되었으며 머물기가 너무 불편했읍니다.

어린이들을 가르치는 것이 우리의 책임임에도 불구하고 어린이들이 자주 우리를 가르칩니다

나는 초등협회에서 경험한 것과 어린이들이 나에게 가르쳐 준 모든 것에 영원히 감사할 것입니다.

나는 또한 나와 함께 봉사해 온 분들을 포함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복음의 원리를 우리 어린이들에게 충실하게 가르쳐 주고 있는 헌신적인 초등협회 지도자들과 사랑하는 부모들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모두가 어린이를 가르치는 중요성을 깨닫기 바랍니다.

이 아름다운 부활 주일에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사셨고, 우리를 위해 돌아가셨으며, 다시 살아 계심을 간증드립니다. 그는 나의 구세주이며, 나의 모범이시며, 나의 친구이십니다. 나는 그를 사랑합니다. 나는 계속 그에게 헌신하며 봉사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멘.

봉사를 통한 행복

토마스 에스 몬슨 부대관장
대관장단 제2보좌

"그의 양을 돌보고 우리 가족의 책임과 교회의 의무를 다하도록 매진합시다."

벤슨 대관장님께서 이 시간에 여러분께 나의 간증을 전하도록 제안하셨읍니다. 나는 다시 한번 하나님이 살아 계시며, 예수는 그리스도이시며, 살아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이 사업은 참되며, 행복은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이웃에 대한 봉사를 통해 온다는 것을 증거할 수 있어서 기쁩니다.

만일 우리가 이 대회를 통해 구세주께 도욱 가까와지는 새로운 느낌과 그의 신성한 사명에 대한 간증을 얻을 수 있다면, 그리고 이 부활 주일에 부활의 정신으로 새롭게 되어 그의 양을 돌보고 우리 가족의 책임과 교회 의무를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게 해드릴 수 있는 방법으로 매진할 수 있다면 우리 자신은 풍요롭게 축복받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형제 자매 여러분의 수입 지출 모든 분야를 축복해 주시길 간구합니다. 마음에 평안을 얻으시길 간구합니다. 가정이 평온하시길 간구합니다. 여러분의 영혼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지니시길 간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구합니다. 아멘.

간사함이 없나니

조셉 비 워스린 장로
십이사도 정원회

"간사한 행위는 성신이 우리에게 속삭임과 인도하심과 가르침을 주지 못하게 하여 우리가 좀더 사탄에 넘어가기 쉽게 해줍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나는 이 참으로 아름답고 영감적인 대회에서 우리가 누리고 있는 영이 계속되기를 간구합니다. 구세주께서는 지상에서 성역을 시작하시면서 그의 존재의 힘과 메시지의 영으로 곧 많은 무리의 제자들을 그에게로 이끄셨읍니다. 이 제자들 중에서 그는 열두 제자를 그의 특별한 증인으로 선택하셨읍니다. "밝으매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열 둘을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누가복음 6 : 13)

분명히 예수님은 그들을 택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읍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요한복음 15 : 16) 이 열 두 사람은 여러 인생 행로를 걸은 보통 사람들이었읍니다. 구세주께서는 그들의 외양을 넘어 그들의 마음속을 들여다 보고, 그들의 잠재력을 인식하실 수 있었기 때문에 그들을 택하셨읍니다.

구세주가 베드로, 안드레, 빌립을 부르신 후 빌립은 예수를 나다나엘에게 소개했는데 어떤 학자들은 그를 사도 바돌로매라고 생각합니다. 빌립은 나다나엘에게 이렇게 말했읍니다.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이를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요한복음 1 : 45) 이 말에서 빌립은 예수가 메시야이심을 간증했읍니다. 나다나엘이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하고 이상히 여긴 것은 당시 나사렛의 평판이 상당히 나빴던 것을 나타냅니다. 빌립은 그에게 와서 보라고 했읍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에 관한 진리를 알고자 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완전한 대답이 됩니다. 편견이 없는 구도자들은 와서 보고 개종합니다.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그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키며 이렇게 말씀하셨읍니다. "보라 이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47절) 그때 나다나엘은 예수께서 그의 심중을 보실 수 있음을 알고 놀라며 이렇게 물었읍니다.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48절) 구세주의 대답은 더 큰 인식을 보여 주었읍니다. 예수님은 나다나엘에게 빌립이 그에게 와서 보라고 부르기 전에 그를 무화과 나무 아래서 보았다고 말씀하셨읍니다.

나다나엘은 무화과 나무 아래서 기도하며, 명상하며 또는 예배하는 동안 매우 놀라운 영적인 경험을 한 것이 분명합니다. 주님은 육신으로 가진 않았지만 영으로 나다나엘과 함께 하셨던 것입니다. 그때야 나다나엘은 구세주를 그리스도로 깨닫고 이렇게 말했읍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49절)

나다나엘은 간사함이 없이 말했읍니다. 그 말은 그의 마음에서 우러나온 것이었읍니다. 그것은 진리에 대한 깊은 확신을 나타낸 것이었읍니다. 그는 구세주를 따랐읍니다.

간사함이 없다는 것은 생각이나 행동에 기만이나 교활함이나 위선 및 부정직이 없다는 것입니다. 간사하게 속인다는 것은 기만하거나 또는 루시퍼가 에덴 동산에서 이브를 속였듯이 탈선시키는 것입니다. 간사함이 없는 사람은 매일 온전한 의로움의 원리에 따라 생활하고 있음을 보여 주는 순수하고, 생각이 정직하며, 순수한 동기를 지닌 사람입니다.

시편 작가는 다음과 같이 썼읍니다. "마음에 간사가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치 않는 자는 복이 있도다"(시편 32 : 2) 그런 다음, 다음과 같이 권고했읍니다. "네 혀를 악에서 금하며 네 입술을 궤사한 말에서 금할지어다"(시편 34 : 13)

신약에서 우리는 구세주께서 궤사가 없으셨음을 알 수 있읍니다. (베드로전서 2 : 22 참조) 그리고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궤휼을 말하지" 않음을 압니다. (베드로전서 3 : 10)

말일의 경전에서 우리는 주께서 에드워드 패트리지를 교회의 감독으로 부르셨는데 그 이유는 "저의 마음이 내 앞에서 순결함이니 옛날의 나다나엘처럼 그 속에 간사함이 없"기 때문이었음을 읽습니다. (교성 41 : 9~11 참조) 예언자 요셉 스미스에게 주어진 다른 계시에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읍니다. "나의 종 조지 밀러에게는 간사함이 없나니, 저의 마음이 고결하므로 신임할 만한 자요, 나에 대한 간증을 사랑하므로 나 주가 저를 사랑하노라."(교성 124 : 20)

이 경전 구절을 통해 나는 주님께서 나다나엘과 에드워드 패트리지와 조지 밀러에게서 보실 수 있었던 것을 이해하게 되었으며 성도들에게 기대하시는 바가 무엇인지를 알게

됩니다. 나는 구세주께서 그의 십이사도로 부르신 자들에게서 영혼의 순결함을 추구하고 계셨다고 믿습니다. 주님께서 간사함이 없다고 말씀하셨을 때 외양보다는 더 깊은 어떤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는 마음 속 의로움의 중심을 보셨읍니다. 그는 선함과 그리스도와 같은 생활을 하게끔 대해 주셨읍니다.

간사함이 없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참된 무리로 헤아림을 받을 사람들의 필수적인 미덕인 마음이 청결한 것입니다. 그는 산상수훈에서 이렇게 가르치셨읍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임이요"(마태복음 5 : 8, 니파이삼서 12 : 8 참조) 그는 예언자 요셉 스미스에게 시온은 마음이 청결한 자이며(교성 79 : 21 참조) 마음이 청결한 자가 하나님을 볼 시온에 세워지는 집이라고 계시해 주셨읍니다.(교성 97 : 10~16 참조)

우리가 간사함이 없다면 우리는 정직하고, 진실하고, 의롭습니다. 이 모든 것은 신의 속성이며 성도들에게 요구되는 것입니다. 정직한 사람들은 공평하며 하는 말이 진실하며 그 처사가 올바르고 궤사가 없고 도적질하지 않고 거짓이나 기만적인 행동을 하지 않습니다. 정직은 하나님의 것이며 부정직은 악마의 것입니다. 악마는 태초부터 거짓말하는 자였읍니다. 의로움은 복음의 율법과 원리와 의식에 조화되는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부모가 알고 있듯이 어린 자녀들은 본질적으로 간사함이 없읍니다. 그들은 두려움이나 주저함이 없이 그들 마음 속의 생각을 말합니다. 그들은 속이거나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간사함이 없는 자의 본보기가 됩니다. 구세주는 제자들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이까?"라는 질문에 어린 아이들의 이러한 속성을 가르치셨읍니다.

"예수께서 한 어린 아이를 불러 저희 가운데 세우시고

"가라사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누구든지 이 어린 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그이가 천국에서 큰 자니라"(마태복음 18 : 1~4)

다른 경우에 그는 다시 어린 아이들의 순수함에 대해 말씀하셨읍니다.

"때에 사람들이 예수의 안수하고 기도하심을 바라고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가라사대 어린 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자의 것이니라"(마태복음 19 : 13~14)

니파이인들에게 구세주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읍니다. "너희가 회개하여 나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작은 어린 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하나님의 왕국을 기업으로 얻지 못하리라."(니파이삼서 11 : 38)

"그는 그들의 어린 아이들을 데려오라고 명하셨읍니다.

"저들이 어린 아이들을 데려와 그 둘레에 앉게 하는지라 예수께서 그 한가운데 서시었고 어린 아이들을 모두 데려올 때까지 무리가 길을 비켜 주었으며

"예수께서 어린 아이들을 안으시고 차례대로 저들을 축복하시며 아버지께 저들을 위하여 간구하시었고

"천사들이 어린 아이들을 축복하더라."(니파이삼서 17 : 11~12, 21, 24)

부모들에게는 그들의 어린 자녀의 간사함이 없는 순수함을 바꾸거나 없앨 어떤 일도 하지 말아야 한다는 큰 책임이 주어져 있읍니다.

나는 교회 회원들에게서 간사함이 없어야 할 필요성은 다른 어느 때보다 지금 더욱 시급한 문제로 생각하는데, 이는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이 미덕의 중요성을 분명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거나 무관심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사회의 모든 면에서 거짓과 기만에 관한 기사를 보고 듣습니다. 어떤 나라의 몇몇 사람들은 훔치거나 그들에게 맡겨진 비밀 정보를 돈과 바꿈으로써 국가를 배반합니다. 연예 사업은 상당히 도덕적인 가치 개념을 잃은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인들은 경비 금액을 속여 수치스럽게도 고용주의 것을 훔칩니다.

왼쪽으로부터; 힝클리 부대관장과 벤슨 대관장이 십이사도 정원회의 보이드 케이 패커 장로, 마빈 제이 에쉬튼 장로와 인사를 나누고 있다

밖으로 나타나는 간사한 행위보다 더 염려스러운 것은 그것의 동기가 되는 내적인 감정과 태도입니다. 사기와 기만은 점차 받아들여지는 듯이 보이며 다만 발각되었을 때만 잘못으로 여깁니다. 그 목적은 흔히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손해를 입히며 해가 되는 것에 상관없이 득이나 유익을 얻는 것에 있읍니다. 이러한 태도는 전적으로 복음의 원리에 위배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로 인해 고통을 받은 사람의 영적인 발전을 저해하거나 막습니다. 간사한 행위는 성신이 우리에게 속삭임과 인도하심과 가르침을 주지 못하게 하여 우리가 좀더 사탄에 넘어가기 쉽게 해줍니다. 우리가 계명을 어길 때 우리는 하나님의 영향력을 막고 사탄의 영향력을 개방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소한 면에서 궤사를 행하게 되면, 우리 자신이 점점 더 끝없이 그 속으로 빠져들게 되는 것을 알게 되는데 이는 모든 거짓과 기타 속임수는 먼저 거짓을 덮어 버리기 위해 더 큰 거짓이 요구되기 때문입니다. 더구나 궤사를 행하는 것은 흔히 위선으로 이끌어지는데 이는 미덕이나 의로움을 거짓 가장하며 우리가 아닌 어떤 것을 가장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옳은 것이 무엇인지를 알며 그 아는 대로 생활하기를 주장하면서 사실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위선자입니다. 구세주는 분명한 어조로 위선을 꾸짖으셨읍니다.

"화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마태복음 23 : 27~28)

주님은 예언자 요셉 스미스에게 다음과 같이 계시하셨읍니다 : "속이는 자와 위선자에게 화있을진저 내가 끌어내어 심판하리라 주께서 말씀하셨음이라…

"위선자는 발견되어…잘리워 버림을 받으리니…나의 교회에서 잘려 나간 자에게 화있도다. 그러한 자는 세상에 졌음이라."(교성 50 : 6, 8)

말일성도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대답은 분명합니다. 성도들은 그들의 생활 모든 면에서 절대 간사함이 없어야 합니다. 그들의 가정과 가족, 교회 부름, 직장과 직업, 모든 사업 거래와 특히 그들과 주님만이 아는 은밀하고 개인적인 생활면에서 속임이 없어야 합니다.

나는 우리가 우리 마음 속을 들여다 보고 우리의 동기와 행위가 순수하고 흠이 없는지 그리고 우리가 거짓이나 속임이 없는지 살펴보도록 제언합니다. 우리는 몇 가지 질문을 스스로 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배우자나 자녀들과의 대화나 함께 하는 데에서 조금이라도 속임이 없어 그들은 항상 무엇을 기대하는지를 알며 조금도 의심없이 우리를 믿고 확신하고 있읍니까?

우리는 감독님이나 기타 신권 지도자와의 접견시에 정직합니까?

우리는 조금만 속이면 성적을 올릴 수 있을지라도, 우리 자신과 급우와 우리 선생님들에게 진실합니까?

우리는 고용주가 기대하는 이상으로 또는 필요로 하는 이상으로 일하고 더 잘하고자 항상 애쓰고 있읍니까?

우리는 고용인들에게 그들의 일의 대가를 정당하게 지불합니까?

우리는 세금 처리를 정확하게 합니까?

우리는 모든 사업 거래를 양심적으로 하여 상대방이 항상 공정하게 대접받고 있음을 알고 계약을 하지 않더라도 안전함을 느낄 수 있읍니까?

우리는 성실성, 도덕성 및 정직에 대한 개인적인 표준에 만족하고 있읍니까? 우리는 예수님이 나다나엘에 대해 말씀하셨듯이 우리 자신이 간사함이 없다고 말할 수 있읍니까?

속임수가 없는 사회를 생각하는 것은 오늘날 어리석은 일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만약 그렇다면 그것은 사탄이 인간의 마음에 작용한 힘 때문입니다. 주님의 도움으로 성도들은 궤사를 없앨 수 있읍니다. 정직하고 공평한 것은 성공과 번영을 방해하기보다는 오히려 도움이 됩니다. 내가 아는 한 사람은 삼십 육 년간 매우 경쟁적인 사업을 했읍니다. 그는 항상 사업에서의 서비스, 질 및 양적인 면에 완전한 가치를 부여했읍니다. 그는 모든

빚을 완전히 갚았읍니다. 그는 그동안 누구를 고소하지도 않았으며 고소당한 적도 없었읍니다.

최근에 칠레를 방문하는 동안 나는 어린 아이의 순진함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는 간사함이 없는 사람들을 만나 보았읍니다. 우리는 그들과 함께 하며 겸허해졌고 새로와졌읍니다. 그들로 인해 인류에 대한 나의 믿음과 미래에 대한 나의 희망이 강화되었읍니다.

그렇습니다. 성도들은 간사함을 없앨 수 있으며 구세주의 재림을 준비하기 위해 그래야만 합니다. 성도들은 실제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간사함이 없는 생활의 가치를 보여 줄 수 있읍니다. 우리가 이 거룩한 성품을 개발시킬 때 우리는 세상에 빛이 될 수 있읍니다. 분명히 우리는 간사함이 없으신 분으로 구세주의 완전한 모범을 따름으로써 복음의 원리를 가르치고 지상의 가족들을 축복할 수 있읍니다.

모든 사람의 마음이 순수하고 속임과 부정직이 조금도 없는 사회를 마음 속으로 그려보십시오. 여러분은 아무도 다른 사람을 속이려 들지 않는 분쟁과 논쟁이 전혀 없는 것을 상상해 볼 수 있읍니까? 우리가 언제나 다른 사람이 우리에게 나타내는 것이 참되다는 것을 의심없이 확신할 수 있다면 생활이 어떻게 되겠읍니까? 절도 행위는 없어질 것입니다. 우리는 감옥을 사용하는 경우가 거의 없을 것이며 법에 호소하는 것도 드물 것입니다. 간사함이 없는 사회에 임할 수 있는 가장 큰 축복은 옳은 일을 하고 있음을 알며 그들의 삶이 주님께 받아들여질 수 있음을 아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개인적인 내적 평안입니다.

간사함이 없는 사회는 가능합니다. 경전에서 두 예를 인용하겠읍니다. 첫째는 거룩한 도시 곧 시온으로 마음이 순수하고 의로운 주민들이 사는 도시입니다. 사실, 시온은 주님께서 그의 성도들에게 주신 이름입니다. 에녹의 도시로 알려진 그 도시는 하늘로 들려져 변형되었읍니다. (모세서 7 : 18~21 참조) 두번째 예는 부활하신 주님이 방문하시고 가르치신 후 200년 동안 지속된 니파이인의 사회입니다. 몰몬경에 있는 다음과 같은 영감의 말씀은 이 사회를 묘사하고 있읍니다.

"백성들 간에 다툼이나 불화가 없었으며 사람들이 서로 대하기를 바르게 하였더라.

"시기나 분쟁이나 폭동, 음행, 거짓말, 살인 등 온갖 음란한 짓을 범치 아니하였으며…이들보다 더 행복한 백성이 없었으니

"도적이나 살인자가 없었고…모두 그리스도의 자녀요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로 한덩어리가 되었더라.

"주가 저들이 행하는 대로 날날이 축복하시니 저들의 복됨이 어떠하겠느냐. 저들이 이같이 복을 받아 번영하는 중에…"(니파이사서 2, 16~18)

우리는 은혜에 은혜를 더하고 말씀에 말씀을 더하여 우리 생을 온전케 해야 함을 알고 있을지라도 이러한 예는 우리가 노력해야 할 온전함의 목표입니다. (요한복음 1 : 16, 니파이이서 28 : 30 참조)

나는 에즈라 태프트 벤슨 대관장님을 간사함이 없는 미덕의 본보기가 되는 봉사의 생을 사신 분으로 생각합니다.

말씀을 마치면서 이 부활절기에 나는 속죄와 부활이 사실이라는 총관리 역원들의 간증에 나의 간증을 덧붙이고자 합니다. 나는 모든 사람에게 불사불멸을 가져다 주며, 충실한 사람에겐 영생의 가능성을 주는 축복에 감사드립니다.

나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살아 계시며 우리 영의 아버지이심을 간증합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는 이 교회의 머리가 되십니다. 요셉 스미스는 하나님의 예언자였으며 그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이 말일에 회복되었읍니다. 에즈라 태프트 벤슨 대관장은 오늘날 주님의 예언자이십니다. 그는 이 교회를 계시로 인도하십니다. 이 간증을 우리 주님이시며 구세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겸손히 말씀드립니다. 아멘.

"그리스도께로 나아와 그 안에서 온전하게 되며"

에즈라 태프트 벤슨 대관장
대관장단 제1보좌인 고든 비 힝클리 부대관장 대독

"우리가 영을 느끼고 새롭고 성스런 결심을 했으니 이제 그러한 결심을 수행할 용기와 힘을 지닐 수 있기를 간구합니다."

우리는 어제 아침과 저녁에 벤슨 대관장님의 힘찬 음성을 들었으며 그분의 말씀으로 우리 모두는 격려를 받았읍니다. 나는 이 대회의 마지막 말씀으로 그분이 준비하신 메시지를 읽어 달라는 그분의 요청을 기쁘게 받아들이는 바입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참으로 훌륭한 연차 대회입니다. 우리는 모든 모임에서 훌륭한 영을 느끼고 있읍니다.

나는 총관리 역원들이 훌륭한 말씀을 해주신 데 대해 치하를 드립니다. 우리 모두 우리가 받은 권고와 가르침을 따르기를 겸손히 간구합니다.

우리가 영을 느끼고 새롭고 성스러운 결심을 했으니 이제 그러한 결심을 수행할 용기와 힘을 지닐 수 있기를 간구합니다.

"앞으로 육 개월 동안 여러분의 *성도의 벗* 대회 특집호가 여러분의 표준 경전 바로 옆에 있어야 하며 자주 참조해야 합니다. 절친한 친구이며 형제인 해롤드 비 리 대관장님이 말씀한 것처럼 우리는 이 대회 말씀들이 "다음 육 개월 동안 우리의 행로와 말씀의 지침이 되도록"해야 합니다. "이런 것은 이 날에 이 백성에게 계시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주님이 생각하시는 중요한 것들입니다."(대회 보고, 1946년 4월)

이 대회 모임에서 훌륭하게 이야기된 "모든 사람을 그리스도에게로 나아오도록 권유"(교성 20 : 59)하여 "참으로 그리스도께로 나아와 그 안에서 온전하게 되도록"(모로나이서 10 : 32) 해야 하는 교회의 거룩한 사명에 재헌신할 결심을 하며 우리 가정으로 돌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의 이 큰 사명은 복음을 전파하고, 성도를 온전케 하며, 죽은 자를 구속함으로써 달성됩니다.

앞으로 며칠 내에 각 가정에서, 우리가 가족 및 개인으로 이 사명을 달성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을 기도하는 마음으로 생각해 보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위대한 대회의 영을 아직 느끼고 있는 동안 그리고 그 말씀이 아직 우리 귓가에 맴도는 동안 우리 모두 말씀을 듣기만 하는 자가 아니라 행하는 자가 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 봅시다.

복음을 전파하는 데 있어 여러분은 다음 사항을 기도하는 마음으로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청남 여러분, 여러분은 복음 선교사로 봉사하기 위해 열심히 준비하고 있읍니까? 주님은 19세에서 26세 사이의 합당하고, 준비되고, 선교 사업을 행하기를 열망하는 모든 젊은이를 필요로 하십니다.

자녀를 다 키운 부부되시는 여러분, 여러분은 복음 선교사로 봉사하는 것을 기도하는 마음으로 고려해 보셨읍니까? 주님은 선교 지역에서 사람들을 사랑하고 우정 증진을 하며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할 수 있는 더 많은 부부들을 필요로 하십니다.

바로 결혼하지 않을 독신 자매 여러분, 여러분은 복음 선교사로 봉사하는 것에 대해 기도하고 여러분의 부모와 감독으로부터 조언을 구해 보셨읍니까? 우리 독신 자매들은 전세계에서 훌륭하게 선교 사업을 행하고 있읍니다.

마지막으로 교회 회원 여러분, 여러분은 회원 선교사로 복음을 친구와 가족에게 나누어야 할 거룩한 책임을 지니고 있음을 깨닫고 있읍니까? 주님은 신앙과 용기를 지닌 교회의 모든 회원들이 일정한 날짜를 정해 어떤 사람에게 선교사의 가르침을 받도록 준비시켜 주기를 원하십니다. 모든 교회의 회원들은 이 거룩한 목표를 기도하는 마음으로 고려해 보시겠읍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에게로 나아오는 또 다른 방법은 성도를 온전케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달성할 수 있읍니까? 우리 자신과 가족을 온전케 하는 한 가지 방법은 매일 경전을 읽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족 및 개인적으로 매일 몰몬경을 읽고 그 가르침을 이용하여 우리 생활 및 우리 자녀의 생활을 축복하며 온전케 하고 있읍니까? 나는

수많은 회원들이 이 권유에 따르고 그들이 받는 축복에 대해 간증하는 것을 듣고 큰 기쁨을 느낍니다.

기도를 통해 하나님 아버지와 이야기를 나눔은 다른 방법으로는 찾을 수 없는 영적인 권세와 힘을 가져다 줍니다. 우리는 가족 단위로 그리고 개인적으로 아침 저녁으로 기도하고 있읍니까?

또한 우리는 가정의 밤을 매주 갖고 있읍니까? 때때로 바로 나타나는 결과는 불완전하게 보일 수도 있으나 우리가 권고받은 대로 가정의 밤을 가짐으로써, 우리는 영원한 가족 단위를 완전케 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가족 예비 프로그램은 어떻습니까? 가족 예비 프로그램은 성도를 온전케 하는 데 있어 언제나 필수적인 복지 원리가 되어 왔읍니다. 우리 가자와 가족은 형편이 허락하는 한, 적어도 일 년 동안 지낼 수 있기에 충분한 식품, 의복, 가능하면 연료까지 비축해 두라는 오래 전부터의 권고의 말씀을 따르고 있읍니까?

마지막으로 죽은 자를 구속하는 신성한 책임을 고려해 봅시다. 다음 사항을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자신의 엔다우먼트를 받기 위해 준비하고, 가족을 위한 인봉 의식을 거룩한 성전에서 집행했읍니까? 교훈과 모범으로써 우리 후손은 합당한 곳에서 합당한 사람과 결혼하며 현세와 영원을 위해 가족을 인봉하는 중요성을 이해해야 합니다.

또한 우리는 우리 조상 중 최소한 한 사람을 찾아내어 의식을 받았읍니까? 교회의 모든 회원들은 가족 역사를 찾는 일에 열심히 참여하고, 훈련받은 스테이크 및 와드 성전 및 가족 역사 상담자에게서 필요한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우리는 모든 성전 의식에 정기적으로 참석하고 우리 조상을 위한 대리 사업의 완전한 축복을 받습니까?

우리는 정규적인 성전 예배로부터 오는 개인적인 축복을 받기 위해 자주 성전에 갑니까? 기도가 응답되고, 계시가 주어지고, 영의 가르침을 받는 일은 주님의 거룩한 성전에서 일어납니다.

그렇습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교회의 사명은 영광스러운 것으로, 복음을

금년에 99세가 되시는 조셉 앤더슨 장로와 명예 총관리 역원인 엘드리드 지 스미스 장로

선포하고, 우리 삶을 온전케 하며, 죽은 자를 구속함으로써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에게로 나아오도록 권유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나아올 때 우리 자신의 생활과 우리 가족의 생활과 산 자와 죽은 자를 포함한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들을 축복합니다.

이제 이 교회의 연차 대회를 마치면서 앨마가 그 당시 교회 회원들에게 한 말씀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너희는 겸손하고 순종하며 온유하라. 쉽게 권고대로 행하라. 인내심을 가지며 오래 참으라. 범사에 하나님의 계명을 부지런히 지키라. 세상의 것이거나 영적인 것이나 필요한 대로 모두 하나님께 구하라. 무엇을 얻게 되든지 하나님께 감사함을 돌리라.

"또한 신앙과 소망과 사랑갖기를 힘쓰라. 그리하면 네가 늘 풍성한 은혜를 받으리라.

"너희는 겸손하고 순종하며 온유하라. 쉽게 권고대로 행하라. 인내심을 가지며 오래 참으라. 범사에 하나님의 계명을 부지런히 지키라. 세상의 것이거나 영적인 것이나 필요한 대로 모두 하나님께 구하라. 무엇을 얻게 되든지 하나님께 감사함을 돌리라.

"또한 신앙과 소망과 사랑 갖기를 힘쓰라. 그리하면 네가 늘 풍성한 은혜를 받으리라.

"주께서 너희를 축복하시고 너희가 입은 옷을 흠 없게 하시어 끝날에 너희의 것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리고 세상이 시작되면서부터 있었던 거룩한 선지자들의 것과 같이 흠이 없게 되기 바라노라.

"나의 사랑하는 형제들아, 영이 내게 증거하심에, 내가 너희에게 이러한 것을 전하였노라. 너희가 열심으로 내 말에 귀 기울여 들었으매, 내 기쁨이 심령에까지 충만하도다.

이제 온 세상의 말일성도에게 사랑을 전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여, 그의 뜻을 배우고 행하며, 그 위에 우리의 온 마음과 영혼과 정성과 힘을 다하여 주를 사랑하라는 첫째되는 큰 계명을 지키게 되기를 간구합니다.

이 사업은 주님의 사업이며, 하나님의 왕국은 회복되었으며, 요셉 스미스는 예나 이제나 살아 계신 하나님의 예언자이며, 몰몬경은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임을 간증드립니다.

여러분의 겸손한 종으로 나는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여러분과 하나님께 끝까지 충실히 봉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 그리스도에게 나아와 주님 안에서 온전하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겸손히 간구드립니다. 아멘.

이 말씀은 주님의 기름부음받고, 살아 계신 하나님의 예언자이며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대관장인 에즈라 태프트 벤슨 대관장님의 말씀임을 간증드립니다.

교회 교과 과정에 관련된 대회 말씀

아래의 도표는 부모, 교사 및 교회 회원이 복음을 공부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 준비된 것이다. 이것은 1988년 4월에 말씀한 것으로써 1988년도 청소년 및 성인 교과 과정을 위한 것이다.

1988년도 복음 교리반

공과	총관리 역원
3	하워드 더블류 헌터; 데이비드 비 헤이트
4	러셀 엠 넬슨
5	보이드 케이 패커
11	제임즈 이 파우스트; 요시히꼬 기꾸찌; 존 알 라스터; 헨리 비 아이어링
13	댈린 에이치 옥스
14	글렌 엘 러드
18	고든 비 힝클리(일요일 오전); 하워드 더블류 헌터
19	제임즈 엠 패러모어; 헨리 비 아이어링
20	토마스 에스 몬슨(신권 모임); 마빈 제이 애쉬튼; 리차드 지 스코트
22	에즈라 태프트 벤슨(토요일 오전) 더글러스 에이치 스미스
23	보이드 케이 패커; 데이비드 비 헤이트
24	글렌 엘 러드; 존 알 라스터
25	댈린 에이치 옥스; 존 알 라스터
27	러셀 엠 넬슨; 엠 러셀 밸라드
28	글렌 엘 러드
29	에즈라 태프트 벤슨(토요일 오전)
30	토마스 에스 몬슨(일요일 오전); 리차드 지 스코트
32	제임즈 이 파우스트; 러셀 엠 넬슨
33	엘 톰 페리; 안헬 아브레아
35	보이드 케이 패커
36	닐 에이 맥스웰
37	고든 비 힝클리(일요일 오전)
38	고든 비 힝클리(신권 모임); 댈린 에이치 옥스; 글렌 엘 러드
39	엠 러셀 밸라드; 조지 알 힐 3세
40	조셉 비 워스린
41	엘 톰 페리
42	에즈라 태프트 벤슨(토요일 오전)
44	마빈 제이 애쉬튼; 닐 에이 맥스웰
45	에즈라 태프트 벤슨(일요일 오후); 제임즈 엠 패러모어
46	보이드 케이 패커

주일학교 제17반

공과	총관리 역원
3	에즈라 태프트 벤슨(토요일 오전)
4	데이비드 비 헤이트
7	글렌 엘 러드
8	고든 비 힝클리(일요일 오전); 하워드 더블류 헌터; 보이드 케이 패커; 데이비드 비 헤이트
9	댈린 에이치 옥스
14	조셉 비 워스린
17	마빈 제이 애쉬튼
26	에즈라 태프트 벤슨(신권 모임)
29	제임즈 이 파우스트; 요시히꼬 기꾸찌
32	드웬 제이 영
39	러셀 엠 넬슨
41	글렌 엘 러드

주일학교 제16반

공과	총관리 역원
1	토마스 에스 몬슨(일요일 오전); 엠 러셀 밸라드
4	토마스 에스 몬슨(일요일 오전)
5	러셀 엠 넬슨
8	글렌 엘 러드
13	에즈라 태프트 벤슨(일요일 오후); 제임즈 엠 패러모어
16	더글러스 에이치 스미스
17	토마스 에스 몬슨(신권 모임)
20	댈린 에이치 옥스
23	토마스 에스 몬슨(신권 모임)
26	엘 톰 페리
28	조지 알 힐 3세
30	안헬 아브레아
32	에즈라 태프트 벤슨(토요일 오전); 존 알 라스터
33	리차드 지 스코트
36	조셉 비 워스린
38	닐 에이 맥스웰; 러셀 엠 넬슨; 리차드 지 스코트

주일학교 제15반

공과	총관리 역원
2	엠 러셀 밸라드
3	토마스 에스 몬슨(일요일 오전); 보이드 케이 패커
5	러셀 엠 넬슨
6	고든 비 힝클리(일요일 오전); 보이드 케이 패커
7	고든 비 힝클리(일요일 오전); 하워드 더블류 헌터; 보이드 케이 패커; 데이비드 비 헤이트
8	보이드 케이 패커
10	닐 에이 맥스웰
14	엘 톰 페리
16	안헬 아브레아
18	댈린 에이치 옥스; 더글러스 에이치 스미스
21	글렌 엘 러드
24	에즈라 태프트 벤슨(일요일 오후)
28	고든 비 힝클리(신권 모임)
29	제이즈 엠 패러모어
31	토마스 에스 몬슨(신권 모임); 보이드 케이 패커
36	조셉 비 워스린
41	조지 알 힐 3세
43	토마스 에스 몬슨(일요일 오전); 보이드 케이 패커

주일학교 제14반

공과	총관리 역원
2	댈린 에이치 옥스
4	에즈라 태프트 벤슨(일요일 오후); 제임즈 엠 패러모어
22	글렌 엘 러드
29	조셉 비 워스린
35	러셀 엠 넬슨
36	조지 알 힐 3세
37	에즈라 태프트 벤슨(토요일 오전); 존 알 라스터

꾀꼬리반 제2과정 /
불꽃반 제2과정
주일학교 제11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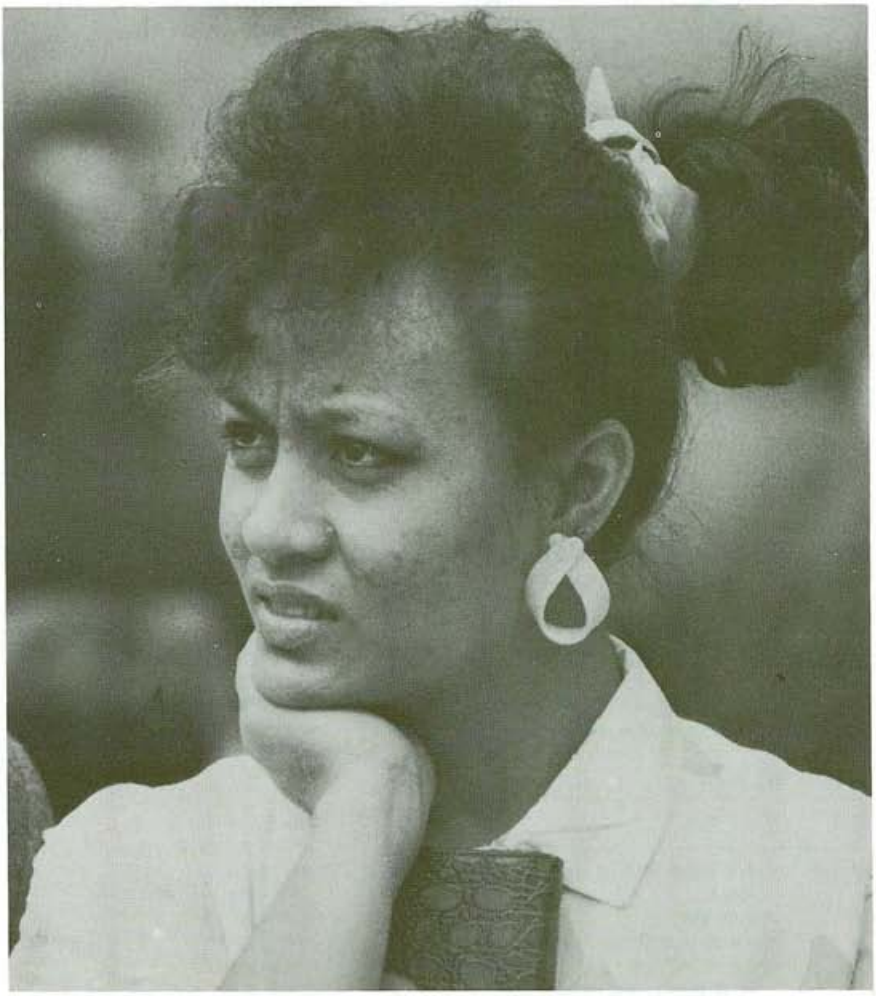
공과	총관리 역원
7	에즈라 태프트 벤슨(토요일 오전); 토마스 에스 몬슨(일요일 오전)
10	드웬 제이 영
13	에즈라 태프트 벤슨(토요일 오전)
14	글렌 엘 러드
16	안헬 아브레아
17	토마스 에스 몬슨(일요일 오전); 엘 톰 페리
21	에즈라 태프트 벤슨(일요일 오후); 엘 톰 페리
28	제임즈 이 파우스트; 요시히꼬 기꾸찌
39	댈린 에이치 옥스
40	드웬 제이 영
42	엘 톰 페리; 리차드 지 스코트
45	고든 비 힝클리(일요일 오전); 하워드 더블류 헌터; 보이드 케이 패커

1988년도 멜기세덱 신권
개인 학습 지도서

공과	총관리 역원
1	에즈라 태프트 벤슨(일요일 오후)
4	고든 비 힝클리(일요일 오전)
6	조셉 비 윈스린
7	에즈라 태프트 벤슨(토요일 오전); 데이비드 비 해이트
8	엘 톰 페리
9	토마스 에스 몬슨(일요일 오전)
10	토마스 에스 몬슨(신권 모임); 하워드 더블류 헌터; 보이드 케이 패커
11	리차드 지 스코트
12	댈린 에이치 옥스
13	안헬 아브레아
23	엠 러셀 밸라드
24	마빈 제이 애쉬튼
27	헨리 비 아이어링
30	제임즈 엠 패러모어; 글렌 엘 러드
32	에즈라 태프트 벤슨(신권 모임); 제임즈 이 파우스트; 요시히꼬 기꾸찌
36	닐 에이 맥스웰

1988년도 상호부조회

공과	영적인 생활	가정 및 가족 교육
1		드웬 제이 영
5	닐 에이 맥스웰	요시히꼬 기꾸찌
6	고든 비 힝클리 (일요일 오전); 토마스 에스 몬슨 (일요일 오전)	에즈라 태프트 벤슨 (일요일 오후)
7	보이드 케이 패커	드웬 제이 영
8		요시히꼬 기꾸찌
9	마빈 제이 애쉬튼; 리차드 지 스코트	
11	댈린 에이치 옥스	
16	에즈라 태프트 벤슨 (일요일 오후)	
17	에즈라 태프트 벤슨 (토요일 오전)	
19	닐 에이 맥스웰 러셀 엠 넬슨	
20	요시히꼬 기꾸찌	



1988년도 상호부조회

공과	자선 봉사 및 가정 관리	사회 관계
1	헨리 비 아이어링	
4	에즈라 태프트 벤슨 (일요일 오후)	
5	조셉 비 윈스린	
8		에즈라 태프트 벤슨(신권 모임)
9	에즈라 태프트 벤슨 (신권 모임), 제임즈 이 파우스트	
12	데이비드 비 해이트	닐 에이 맥스웰; 러셀 엠 넬슨

방문 교육 메시지

성도의 벗 연차 대회 보고인 1월호와 7월호에는 지정된 방문 교육 메시지가 들어 있지 않다. 방문하는 자매들의 필요사항을 기도하는 마음으로 생각해 본 다음, 방문 교사는 대관장단에서 행한 연차 대회 말씀을 그 달의 메시지로 사용하도록 선택해야 한다.

복지 사업

복지와 관련된 특별한 주제와 연관된 대회 말씀은 신권회와 상호부조회 역원들이 복지 원리와 정책을 가르치고 실시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주제	*총관리 역원*
1. 사랑	에즈라 태프트 벤슨(토요일 오전)
2. 금식 헌금	조지 알 힐 3세
3. 가정 비축	에즈라 태프트 벤슨(일요일 오후)
4. 봉사	존 알 라스터; 댈린 에이치 옥스; 글렌 엘 러드

산상 설교, *제임즈 제이 티소 작*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매 무리들이 그 가르치심에 놀래니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세 있는 자와 같고"(마태복음 5 : 1~2; 7 : 28~29)